

발 간 등 록 번 호

71-6410000-000852-01



최종보고서

FTA 이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분석 및 중장기 FTA 종합대책 수립

2018. 12.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출 문

경기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경기도 용역연구과제 「FTA
이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분석 및 중장기 FTA
종합대책 수립」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보고서 목차 >

제 I 장. 연구 배경 및 연구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주요 연구개요	2
3.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주요 이슈	4
가. 한국의 FTA 추진 실적과 현황	4
나. 글로벌 통상협상 추진의 주요 이슈	6
제 II 장. 경기도 시군별 무역구조 및 특징	9
1. 시군별 수출입 산업 및 기업매칭	9
2. 경기도 수출입 구조 및 무역지수 분석	15
3. 주요국의 비관세 수입규제 조치 현황 및 수출입 동향 분석	18
가. 경기도 제조업 현황과 특징	18
나. 국가별 수입규제 조치 현황 점검	19
다. 1억달러 이상 단일 수출품목 분석	20
라. 미중 통상갈등과 경기도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21
4. 경기도의 TBT-SPS 대응방안	42
제 III 장. 세계통상현안 분석과 경기도 수출입에 대한 영향	6 2
1. 미·중 통상갈등	26
가. 배경	26
나. 중국의 대응과 예상 시나리오	28
다. 한국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30
라. 경기도 산업의 수출입 영향 추정	32
마. 경기도 시군의 주요 영향 품목	37
2. CPTPP 협정과 주요 이슈	4
가. TPP 협정 구조와 한·미 FTA와의 비교	49
나. 일본과의 시장접근 경쟁	51
다. CPTPP 전망과 우리나라의 가입	52
라. 경기도 수출입에 대한 파급영향 추정	53
마. 경기도 시군별 영향	55
3. 브렉시트: 배경, 전망과 영향	65
가. 브렉시트 배경	65
나.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전략	65
다. 경기도 수출입에 대한 영향	68
라. 경기도 시군별 영향	69
4.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파급영향	67

가. 한-메르코수르 FTA 의의	6
나. 메르코수르의 통상정책과 무역협정 전망	79
다. 경기도에 대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파급영향	84
라. 경기도 시군별 영향	88
5. 미국의 자동차 무역규제	93
가. 자동차와 무역확대법 232조	93
나. 경기도 수출입에 대한 영향	96
다. 경기도 시군별 영향	96
6. 한·미 FTA 개정협상과 영향	99
가. 개정협상에 대한 통상당국의 평가	99
나. 우리나라의 대미국 양보 내용	100
다. 통상전문가들의 평가	101

제 IV 장. 경기도 FTA종합지원대책 8

1. 세계통상현안과 경기도 기업지원전략	103
가. 세계통상현안과 경기도 경제	103
나. 산업정책 및 기업지원정책 고려사항	108
다. 경기도 산업발전정책: 기본적인 접근	111
라. 세계통상현안에 따른 경기도 대응전략	120
마. KOTRA의 내수기업의 신규수출기업화	122
2. 경기도 FTA활용지원 내용 및 평가	124
가. 우리나라 FTA 정책 및 FTA 활용 현황	124
나. 경기도 지원활동	125
다. 평가 및 개선 방안	126
3. 우리나라 FTA 컨설팅 현황과 평가	127
가. FTA 컨설팅 현황	127
나. FTA 컨설팅 실적 평가	128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0
4. 경기도 FTA종합지원대책	134
가. 컨설팅 개선으로 수출종합지원 강화	136
나. 가칭 '경기수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140
다. 수출초보, 영세기업 중점 지원	143
라. GBC 재배치 및 역할 강화	145
마. FTA 무역피해 최소화 및 피해기업 지원	147

제 V 장. 결론 및 시사점 162

1. 산업발전전략과 무역통상정책	162
가. 우리 기업의 분야별 수출경쟁력	162
나. 산업(기업) 경쟁력	162

다. 산업정책과 무역통상정책의 연계	164
2. 경기도 통상정책	165
가. 경기도 TBT-SPS 대응 협의회	6
나. 수출규모별 기업지원	166
3. 세계통상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170
가. 세계통상현안의 경기도에 대한 영향	170
나. 제조업발전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172
다. 중앙정부 산업발전 프로그램 분석팀 신설	172
4. 경기도 FTA 종합지원대책	173
가. 경기수출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174
나. 컨설팅 개선으로 수출종합지원 강화	174
다. 수출 초보, 영세기업 중점 지원	174
라. FTA 무역피해 최소화 및 피해기업 지원	175
참고문헌	177
부록: 경기도 주요 시군별 무역구조 및 특징	8
제 I 부. 경기도 시군별 교역규모	185
1. 서론	185
2. 주요 시군별 교역	186
가. 주요 시군의 국가별 수출입 비중	186
나. 주요 시군의 경제권별 수출입 비중	188
3. 시군의 주요 수출입 산업	190
4. 시군별 산업의 주요 세부 품목	233
가. 수입	233
나. 수출	240
5. 시군별 수출입 산업 및 기업매칭	249
6. 소결 및 시사점	255
제 II 부. 경기도 수출입 구조 및 무역지수 분석	257
1. 경기도 수출입 구조 분석	257
2. 무역지수 산출을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	266
3. 무역 데이터를 통해 본 경기도에 대한 시사점	280
제 III 부. 주요 교역 대상국의 비관세 수입규제 조치 현황 점검 및 수출입 동향 분석 ..	286
1. 경기도의 제조업 현황과 분석	286
2. 국가별 수입규제 조치 현황	289
3. 경기도 수출동향 분석	293
첨부자료:	
첨부 1: CPTPP 과급 영향 품목(예시)	37
첨부 2: 수출바우처 사업	332

첨부 3: 수출경쟁력 분석자료	335
첨부 4: 경기도 주요 수출품목(금액별)	39

< 표 목차 >

<표 1-1> 우리나라가 발효한 FTA	4
<표 1-2> 한국이 추진 중인 FTA 대상국	5
<표 2-1> 주요 시군의 수출입 산업과 기업 매칭 자료	11
<표 2-2> 산업의 시군별 중소기업(10~99인 종사자) 업체 비중(%)	3
<표 2-3> 경기도의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6
<표 2-4> 2017년 주요 교역국가에 대한 한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 현황	7
<표 3-1>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목표와 주요 내용	7
<표 3-2> 계량 분석 시나리오	3
<표 3-3> 시나리오 1: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기도 수출입에 대한 영향	4
<표 3-4> 시나리오 2: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기도 수출입에 대한 영향	5
<표 3-5> 시나리오 3: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기도 수출입에 대한 영향	6
<표 3-6> 시나리오별 영향 종합	7
<표 3-7> 경기도 대미국 수출 영향 품목과 시군	14
<표 3-8> 경기도 대중국 수출 영향 품목과 시군	34
<표 3-9> 대미국 경기도 수입 영향 품목과 시군	54
<표 3-10> 대중국 경기도 수입 영향 품목과 시군	74
<표 3-11> CPTPP 협정 유예조항 및 수정사항 예시	9
<표 3-12> TPP와 CPTPP 주요 경제지표	10
<표 3-13> TPP와 한·미 FTA 장별 비교	10
<표 3-14> 산업통상자원부의 TPP 신규 6개 장(Chapter)의 내용 요약	11
<표 3-15> TPP 회원국의 대일 공산품 개방 및 우리나라 기체결 FTA 비교	12
<표 3-16> 계량 분석 시나리오	13
<표 3-17> CPTPP 가입이 경기도의 대일본 수출입에 미칠 영향(종합)	13
<표 3-18> CPTPP 가입이 경기도의 대일본 수출입에 미칠 영향(2021년 기준)	14
<표 3-19> CPTPP 가입이 경기도의 대일본 수출입에 미칠 영향(2026년 기준)	14
<표 3-20> CPTPP 가입이 경기도의 대일본 수출입에 미칠 영향(2031년 기준)	15
<표 3-21> CPTPP에 따른 수출 영향 품목과 시군	18
<표 3-22> CPTPP에 따른 수입 영향 품목과 시군	19
<표 3-23> 한국의 구체적인 수입품목의 국가별 순위	20
<표 3-24>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의 대일본 수입 상세 품목	21
<표 3-25> 경기도의 구체적인 수입품목의 국가별 순위	22
<표 3-26> 경기도의 구체적인 수입품목	23
<표 3-27> 한·일 FTA 개방민감 경기도 품목 예시	24
<표 3-28> 계량 분석 시나리오	28
<표 3-29> 브렉시트 관련 경기도의 대영국 수출입에 미칠 영향	29
<표 3-30> 브렉시트에 따른 수출 영향 품목과 시군	30
<표 3-31> 브렉시트에 따른 수입 영향 품목과 시군	31
<표 3-32> 품목별 MFN 관세와 한-EU FTA 양허유형	35
<표 3-33> 메르코수르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37
<표 3-34> 메르코수르의 지출 형태별 구성	38
<표 3-35> 한-메르코수르 FTA 관심사항	38
<표 3-36> 메르코수르 4개국의 주요 공산품 MFN 실행관세율	48
<표 3-37> 대브라질 수출 유망품목(무역협회 선정)	58

<표 3-38> 메르코수르 현지 한국 히트 상품	68
<표 3-39>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무역자유화 시나리오	68
<표 3-40> 시나리오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수출입 영향(1)	78
<표 3-41> 시나리오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수출입 영향(2)	78
<표 3-42> 한-메르코수르 FTA에 따른 수출 영향 품목과 시군	98
<표 3-43> 한-메르코수르 FTA에 따른 수입 영향 품목과 시군	19
<표 3-44> 품목별 MFN 관세와 경기도의 대메르코수르 수입액	29
<표 3-45> 메르코수르 국가의 수입검역 요청사항	39
<표 3-46> 미국산 자동차의 주요 수출국 현황(2017)	59
<표 3-47> 미국 자동차 232조 영향 분석 시나리오	69
<표 3-48> 미국 자동차 232조 영향 시나리오별 수출입 영향	69
<표 3-49> 미국 자동차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 영향 품목과 시군	79
<표 3-50> 미국 자동차 관세부과에 따른 수입 영향 품목과 시군	89
<표 4-1> 세계통상현안별 경기도 산업별 영향	0
<표 4-2> 세계통상현안별 경기도 수출입 영향	0
<표 4-3> 세계통상현안별 피해 시군과 수혜 시군	0
<표 4-4> 산업별 수출입 영향과 주요 수출입 시군	0
<표 4-5> 일반적인 경우의 국내정책과 무역정책	1
<표 4-6> 피해/수혜 여부와 기업지원	1
<표 4-7> 일본의 구조조정지원 기구 비교	1
<표 4-8> 지역산업정책의 유형과 범위	1
<표 4-9> 분류별 산업정책	1
<표 4-10> 주요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추진방향	1
<표 4-11> 산업군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	1
<표 4-12>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내용 요약	91
<표 4-13> 통상현안별 피해의 구분과 정부의 대책	1
<표 4-14> 통상현안별 피해의 구분과 정부의 대책	1
<표 4-15> 신규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2
<표 4-16> 세부절차 1단계 : 글로벌 역량 진단	31
<표 4-17> 세부절차 2단계 : 밀착지원기업 선정	31
<표 4-18>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41
<표 4-19> 경기FTA활용지원센터의 예산 및 주요 활동(2018년)	621
<표 4-20> 중앙정부의 FTA 활용 지원 사업 내용	81
<표 4-21> FTA활용 수출실적	91
<표 4-22> 컨설팅 기관별 특화방안	1
<표 4-23> 수출지원기구 요약	3
<표 4-24> FTA활용지원 콜센터 애로유형	51
<표 4-25> FTA 활용에서 원산지 관련 애로 조사결과 예시	31
<표 4-26> 중소기업 관심분야	4
<표 4-27> GBC 입지 변경(안)	641
<표 4-28> 지역별 TAA 기업 지정 분포	81
<표 4-29> FTA 상대국별 업종별 TAA 기업 지정 분포	051
<표 4-30> 경기도의 대아세안 섬의류 총수입액에서 시군별 수입 비중	1
<표 4-31> 경기도의 대EU 식음료 총수입액에서 시군별 수입 비중	1
<표 4-32> 경기도의 대EU 화학산업 총수입액에서 시군별 수입 비중	1
<표 4-33> 경기도 시군의 산업별 중소기업 분포	2

<표 4-34> 경기도 시군의 산업별 근로자 분포	3
<표 4-35> FTA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품목	51
<표 4-36> FTA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품목	61
<표 4-37> 경기도의 주요 농산물	6
<표 4-38> 경기도의 주요 농산물의 수입량 추이	7
<표 4-39> 경기도의 주요 농산물의 수출량 추이	8
<표 4-40> 주요 농산물의 대세계 수출과 경기도의 수출 비교	8
<표 5-1> 경기도 1억달러 수출품목(HS 2단위 기준)	761
<표 5-2> 경기도 1천만달러 수출품목(HS 2단위 기준)	861
<표 5-3> 경기도 1백만달러 수출품목(HS 2단위 기준)	961
<표 5-4> 세계통상현안별 경기도 산업별 시군별 영향	1

부록 표

<표 I-1> 2017년 시군의 주요 산업	21
<표 I-2> 2017년 고양시의 기타제조업 수출입 국가	31
<표 I-3> 2017년 고양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41
<표 I-4> 2017년 김포시의 광업 수출입 국가	41
<표 I-5> 2017년 김포시의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51
<표 I-6> 2017년 김포시의 음식료업 수출입 국가	51
<표 I-7> 2017년 김포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61
<표 I-8> 2017년 남양주시의 금속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71
<표 I-9> 2017년 남양주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71
<표 I-10> 2017년 성남시의 금속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81
<표 I-11> 2017년 성남시의 기타 제조업 수출입 국가	91
<표 I-12> 2017년 성남시의 농림수산업 수출입 국가	91
<표 I-13> 2017년 성남시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02
<표 I-14> 2017년 성남시의 석탄 및 석유제품 수출입 국가	02
<표 I-15> 2017년 성남시의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12
<표 I-16> 2017년 성남시의 음식료업 수출입 국가	12
<표 I-17> 2017년 성남시의 정밀기기 제조업 수출입 국가	22
<표 I-18> 2017년 성남시의 화학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22
<표 I-19> 2017년 성남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32
<표 I-20> 2017년 수원시의 농림수산업 수출입 국가	42
<표 I-21> 2017년 수원시의 정밀기기 제조업 수출입 국가	42
<표 I-22> 2017년 수원시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수출입 국가	52
<표 I-23> 2017년 수원시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52
<표 I-24> 2017년 수원시의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수출입 국가	62
<표 I-25> 2017년 수원시의 화학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62
<표 I-26> 2017년 수원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72
<표 I-27> 2017년 시흥시의 1차 금속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72
<표 I-28> 2017년 시흥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82
<표 I-29> 2017년 안산시의 1차 금속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92
<표 I-30> 2017년 안산시의 금속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92
<표 I-31> 2017년 안산시의 목재/종이/인쇄업 수출입 국가	02
<표 I-32> 2017년 안산시의 비금속광물 제조업 수출입 국가	02
<표 I-33> 2017년 안산시의 석탄 및 석유 제조업 수출입 국가	12
<표 I-34> 2017년 안산시의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12
<표 I-35> 2017년 안산시의 화학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22
<표 I-36> 2017년 안산시의 농림수산업 수출입 국가	22
<표 I-37> 2017년 안산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32
<표 I-38> 2017년 안양시의 1차 금속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42

<표 I-39>	2017년 안양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42
<표 I-40>	2017년 용인시의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수출입 국가	52
<표 I-41>	2017년 용인시의	금속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52
<표 I-42>	2017년 용인시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수출입 국가	62
<표 I-43>	2017년 용인시의	목재/종이/인쇄업 수출입 국가	62
<표 I-44>	2017년 용인시의	음식료업 수출입 국가	72
<표 I-45>	2017년 용인시의	화학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72
<표 I-46>	2017년 용인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82
<표 I-47>	2017년 이천시의	음식료업 수출입 국가	92
<표 I-48>	2017년 이천시의	전기전자 제조업 수출입 국가	92
<표 I-49>	2017년 이천시의	정밀기기 제조업 수출입 국가	92
<표 I-50>	2017년 이천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92
<표 I-51>	2017년 파주시의	기계장비 제조업 수출입 국가	12
<표 I-52>	2017년 파주시의	목재/종이/인쇄업 수출입 국가	12
<표 I-53>	2017년 파주시의	화학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22
<표 I-54>	2017년 파주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22
<표 I-55>	2017년 평택시의	목재/종이/인쇄업 수출입 국가	32
<표 I-56>	2017년 평택시의	비금속광물 제조업 수출입 국가	42
<표 I-57>	2017년 평택시의	석탄석유 제조업 수출입 국가	42
<표 I-58>	2017년 평택시의	전기전자 제조업 수출입 국가	52
<표 I-59>	2017년 평택시의	정밀기기 제조업 수출입 국가	52
<표 I-60>	2017년 평택시의	광업 수출입 국가	62
<표 I-61>	2017년 평택시의	농림수산업 수출입 국가	62
<표 I-62>	2017년 평택시의	운송장비 제조업 수출입 국가	72
<표 I-63>	2017년 평택시의	화학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72
<표 I-64>	2017년 평택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82
<표 I-65>	2017년 화성시의	1차 금속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82
<표 I-66>	2017년 화성시의	금속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92
<표 I-67>	2017년 화성시의	기계장비 제조업 수출입 국가	92
<표 I-68>	2017년 화성시의	운송장비 제조업 수출입 국가	92
<표 I-69>	2017년 화성시의	정밀기기 제조업 수출입 국가	12
<표 I-70>	2017년 화성시의	화학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12
<표 I-71>	2017년 화성시의	비금속광물 제조업 수출입 국가	22
<표 I-72>	2017년 화성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22
<표 I-73>	1차 금속제품 제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3
<표 I-74>	광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3
<표 I-75>	금속제품 제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3
<표 I-76>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3
<표 I-77>	기타제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3
<표 I-78>	농림수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3
<표 I-79>	목재/종이/인쇄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3
<표 I-80>	비금속광물 제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2
<표 I-81>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2
<표 I-82>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3
<표 I-83>	운송장비 제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3
<표 I-84>	음식료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3
<표 I-85>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3
<표 I-86>	정밀기기 제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3
<표 I-87>	화학제품 제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2
<표 I-88>	1차 금속제품 제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1
<표 I-89>	광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1
<표 I-90>	금속제품 제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2
<표 I-91>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2
<표 I-92>	기타 제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2

<표 I-93>	농림수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2
<표 I-94>	목재/종이/인쇄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2
<표 I-9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4
<표 I-96>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2
<표 I-97>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2
<표 I-98>	운송장비 제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2
<표 I-99>	음식료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2
<표 I-100>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2
<표 I-101>	정밀기기 제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2
<표 I-102>	화학제품 제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2
<표 I-103>	주요 시군의 수출입 산업과 기업 매칭 자료	2
<표 I-104>	산업의 시군별 중소기업(10~99인 종사자) 업체 비중(%)	4-5 2
<표 II-1>	한국의 대세계 산업별 수출구조	2
<표 II-2>	경기도의 대세계 산업별 수출구조	8
<표 II-3>	한국 전체 수출에 대한 경기도의 산업별 수출비중	9
<표 II-4>	한국의 대세계 산업별 수입구조	0
<표 II-5>	경기도의 대세계 산업별 수입구조	0
<표 II-6>	한국 전체 수출에 대한 경기도의 산업별 수입비중	0
<표 II-7>	한국과 경기도의 8대 주력 수출 산업군 비중 비교	4
<표 II-9>	경기도의 수출 상위10개국 현황	2
<표 II-10>	경기도의 주요 수입국 현황	6
<표 II-11>	경기도의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8
<표 II-12>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무역특화지수	9
<표 II-13>	운송장비 제조업 무역특화지수	9
<표 II-14>	1차 금속품 제조업 무역특화지수	2
<표 II-15>	정밀기기 제조업 무역특화지수	2
<표 II-16>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무역특화지수	2
<표 II-17>	화학제품 제조업 무역특화지수	2
<표 II-18>	2017년 주요 교역국가에 대한 한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 현황	22
<표 II-19>	1차 금속제품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2
<표 II-20>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2
<표 II-21>	운송장비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2
<표 II-22>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2
<표 II-23>	정밀기기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2
<표 II-24>	화학제품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2
<표 II-25>	경기도의 대베트남 산업별 수출구조	8
<표 II-26>	경기도의 대메르코수르 무역특화지수	8
<표 III-1>	경기지역 업종별 종사자기준 사업체수	8
<표 III-2>	경기도 공장등록현황	8
<표 III-3>	전기전자, 기계장비 종사자수와 각 시군 내 업종비중	8
<표 III-4>	주요 교역국가들의 연도별 TBT 통보건수	92
<표 III-5>	미·중·EU의 연도별 TBT 통보건수 합계	92
<표 III-6>	한국에 대한 전세계 연도별 SPS 조치건수(정규 통보문 기준)	192
<표 III-7>	한국에 대한 주요 교역국가들의 연도별 SPS 조치건수	19
<표 III-8>	근거별 규제 및 조사 건수	9
<표 III-9>	수입규제 근거별 규제 및 조사 건수 추이	9
<표 III-10>	국가별 규제 및 조사 건수	9
<표 III-11>	업종별 규제 및 조사 건수	9
<표 III-12>	경기도 1억달러 이상 수출품목	9
<표 III-13>	경기도 1억달러 이상 수출품목(상위 50개)	492
<표 III-14>	시군별 1억달러 이상 수출 주요품목(상위5개)	62
<표 III-15>	수출국별 1억달러 이상 수출 주요품목(상위 5개)	82
<표 III-16>	경기도 1천만달러 이상 수출품목	0
<표 III-17>	경기도 1천만달러 이상 수출품목(상위 50개)	003

<표 III-18>	시군별 1천만달러 이상 수출 주요품목(상위5개)	208
<표 III-19>	수출국별 1천만달러 이상 수출 주요품목(상위 5개)	508
<표 III-20>	경기도 1백만달러 이상 수출품목	7
<표 III-21>	경기도 1백만달러 이상 수출품목(상위 50개)	708
<표 III-22>	시군별 1백만달러 이상 수출 주요품목(상위5개)	908
<표 III-23>	수출국별 1백만달러 이상 수출 주요품목(상위 5개)	213
<표 III-24>	한국의 국가별 수출변화율	6
<표 III-25>	미·중 무역분쟁시 한국의 대미국 산업별 수출변화율	7
<표 III-26>	경기도 대미국 산업별 수출변화율	8
<표 III-27>	경기도 시군별 정밀기기 대미국 수출변화율	8
<표 III-28>	경기도 시군별 전기 및 전자기기 대미국 수출변화율	9
<표 III-29>	미·중 무역분쟁시 한국의 대중국 산업별 수출변화율	9
<표 III-30>	경기도 대중국 산업별 수출변화율	9
<표 III-31>	경기도 시군별 전기 및 전자기기 대중국 수출변화율	11
<표 III-32>	경기도 시군별 정밀기기 대중국 수출변화율	2
<표 첨-1>	경기도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및 CPTPP양허 현황	78
<표 첨-2>	경기도 대페루 주요 수출품목 및 CPTPP양허 현황	88
<표 첨-3>	경기도 대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 및 CPTPP양허 현황	88
<표 첨-4>	경기도 대멕시코 주요 수출품목 및 CPTPP양허 현황	98
<표 첨-5>	경기도 대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목 및 CPTPP양허 현황	98
<표 첨-7>	경기도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 및 CPTPP양허 현황	98
<표 첨-8>	경기도 대브루나이 주요 수출품목 및 CPTPP양허 현황	13
<표 첨-9>	경기도 대호주 주요 수출품목 및 CPTPP양허 현황	13
<표 첨-10>	수출바우처 사업 개요	3
<표 첨-11>	KOTRA, 중기청 수출바우처 제도	333
<표 첨-12>	경기도의 대미국 산업별 수출구조	3
<표 첨-13>	경기도의 대EU 산업별 수출구조	6
<표 첨-14>	경기도의 대중국 산업별 수출구조	6
<표 첨-15>	경기도의 대일본 산업별 수출구조	3
<표 첨-16>	경기도의 대아세안 산업별 수출구조	3
<표 첨-17>	경기도의 대베트남 산업별 수출구조	3
<표 첨-18>	경기도의 대홍콩 산업별 수출구조	6
<표 첨-19>	경기도의 대대만 산업별 수출구조	11
<표 첨-20>	광업 무역특화지수	11
<표 첨-21>	금속제품 제조업 무역특화지수	2
<표 첨-22>	기타 제조업 무역특화지수	2
<표 첨-23>	농림수산업 무역특화지수	3
<표 첨-24>	목재/종이/인쇄업 무역특화지수	3
<표 첨-2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무역특화지수	3
<표 첨-26>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무역특화지수	4
<표 첨-27>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무역특화지수	4
<표 첨-28>	음식료업 무역특화지수	3
<표 첨-29>	광업 현시비교우위지수	3
<표 첨-30>	금속제품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3
<표 첨-31>	기타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6
<표 첨-32>	농림수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6
<표 첨-33>	목재/종이/인쇄업 현시비교우위지수	7
<표 첨-3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7
<표 첨-35>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8
<표 첨-36>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8
<표 첨-37>	음식료업 현시비교우위지수	8
<표 첨-38>	경기도 1억달러 이상 수출품목	98
<표 첨-39>	경기도 1천만달러 이상 수출품목	15
<표 첨-40>	경기도 1백만달러 이상 수출품목	7

< 그림 목차 >

<그림 2-1> 2017년 주요 시군별 대세계 수출입 비중	0 1
<그림 2-2> 경기도 주요업종별 종사자수 분포	91
<그림 2-3> 미국과 중국의 TBT 통보 건수	0 2
<그림 2-4> 대미·대중 정밀기기 및 전기전자산업 피해 시군	32
<그림 2-5> 경기도 TBT-SPS 대응협의회 구성·운영	5· 2
<그림 3-1> 대외통상환경 변화 혹은 통상정책 영향 추정 모형	33
<그림 3-2> 경기도 대미수출 시군별 영향 품목	83
<그림 3-3> 경기도 대중수출 시군별 영향 품목	83
<그림 3-4> 경기도 대미수입 시군별 영향 품목	93
<그림 3-5> 경기도 대중수입 시군별 영향 품목	93
<그림 3-6> 한-영 FTA에 따른 피해산업의 시군별 대영국 수출 비중 분포	4· 7
<그림 3-7> 메르코수르의 대한민국 수출입 변화 추이	97
<그림 4-1> 무역협회의 FTA 컨설팅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 기여	10
<그림 4-2> 수출절차 및 FTA 활용	21
<그림 4-3> 무역조정지원사업 전반적인 만족도	4
<그림 4-4> 무역조정지원사업 지원 분야별 만족도	4
<그림 4-5> 경기도의 농업 협업체계 구축안	6
<그림 5-1> 소프트 3달러 전략	3
<그림 5-2> 경기수출지원센터 역할 및 조감도	4

부록 그림

<그림 I-1> 2017년 주요 시군별 대세계 수출입 비중	81
<그림 I-2> 2017년 시군별 대미국 수출입 비중	78
<그림 II-2> 경기도의 8대 주력산업 수출비중 변화	3
<그림 II-3> 2011년 한국과 경기도의 무역특화지수 비교	72
<그림 II-4> 2017년 한국과 경기도의 무역특화지수 비교	82
<그림 II-6> 경기도의 대미국시장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에 대한 수출경합도	2
<그림 II-7> 경기도의 대EU시장 운송장비 제조업 수출경합도	2
<그림 II-8> 경기도의 대EU시장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 수출경합도	2
<그림 II-9> 경기도의 대중국시장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 수출경합도	2
<그림 II-10> 경기도의 대일본시장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 수출경합도	2
<그림 II-11> 경기도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산출결과	8
<그림 III-1> 경기도 주요업종별 종사자수 분포	8
<그림 III-2> 경기도 TBT-SPS대응협의회 구성·운영	523

요약

제 I 장. 연구 배경 및 연구개요

- 최근 국가 간 또는 경제권역별 다자 간 FTA 체결·추진이 매우 활발
 - 우리나라 : 발효 15건, 발효예정 1건, 협상진행 9건, 협상재개 예정 4건
 - 현재 협상중인 FTA 중 최대 관심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의 무역협정(TA)이 될 수 있음.
- 최근 미중 통상갈등 등 보호무역주의가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 간 또는 경제권역별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이 지속
 - 미국의 의도적인 WTO(세계무역기구) 무시전략과 위상 약화로 다자무역체제 역할이 위축되는 반면, 세계 주요국은 FTA 체결을 통한 통상이익 극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무역에서 FTA 중요성 증가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시군별 산업구조 현황 및 수출입 교역규모 등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미중 통상갈등 등 세계통상 리스크가 경기도 수출입 및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군별 산업구조 현황 및 수출입 교역규모 등 분석
 - FTA 발효가 도 지역경제 및 수출입 동향에 미치는 효과 분석·예측
 - 기 체결, 체결예정 및 개정협상 중인 FTA, 주변국가간의 FTA
 - 농축수산업 등 각 FTA 이행 관련 (예상)피해 포함
 - 도에서 수출하는 주요국가들의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 현황 점검 및 수출입동향 분석·예측
 - 분석·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도 산업발전전략 도출 및 중장기 FTA종합 대책 수립
 - 도 해외 종합 수출거점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제II장. 경기도 시군별 무역구조 및 특징

1. 무역구조 분석

- 경기도 전체 및 시군별 무역구조와 특징을 고찰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경기도 수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
- 주요 내용은 경기도 수출입 구조 및 시군별 교역규모, 무역지수 분석, 무역지수 산출을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 무역 데이터를 통해 본 경기도에 대한 시사점 도출 등임.
 - 특히 주요 교역 대상국의 비관세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국가별 수입규제 적용 현황과 경기도 주요 업종의 피해를 추정함.
- 경기도 대세계 수출구조는 전기전자기기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7년 경기도 전체 수출 중 전기전자기기 비중은 49.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정밀기기 제조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11년 대비 '17년 2.7%p 증가함.
 - 운송장비 제조업은 '11년 15.6%에서 '17년 12.7%로 2.9%p 감소해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경기도 대세계 수입구조 또한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이 30%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정밀기기 제조업은 '14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이후 증가하여 '17년 18.32%로 전년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광업은 '11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14년 21.3%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경기도의 산업별 수출입 구조에 따라 성장산업으로는 정밀기기, 기계장비, 전기전자기기 산업임.¹⁾
 -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은 수출입 모두 높은 성장산업이며, 정밀기기 제조업의 경우 경기도 대세계 수출입비중이 함께 증가하며,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 기계장비 제조업 또한 성장산업으로 평가

1) 경기도의 산업별 수출입 구조를 성장산업과 쇠퇴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수출과 수입 모두 비중이 증가한 산업과 수출이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한 산업은 성장산업이며, 수출과 수입 모두 비중이 감소한 산업과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증가한 산업을 쇠퇴산업으로 간주

- 반면, 경기도의 산업별 수출입 구조에 따라 쇠퇴산업으로는 1차 금속과 운송장비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남.
 - 운송장비 제조업은 경기도 대세계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비중도 낮은 수준을 보임. 1차 금속제품은 수출입 비중 모두 감소 추세
- 시군별 전체로 볼 때,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산업은 화학제품 제조업이며, 주로 대중국 수출로 나타남.
 - 화학제품 다음으로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수출이 많고, 대중국 수출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과 아세안 순으로 나타남.
- 시군별 수입이 많은 산업도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나타났으나, 수입선은 수출과 달리 대일본 수입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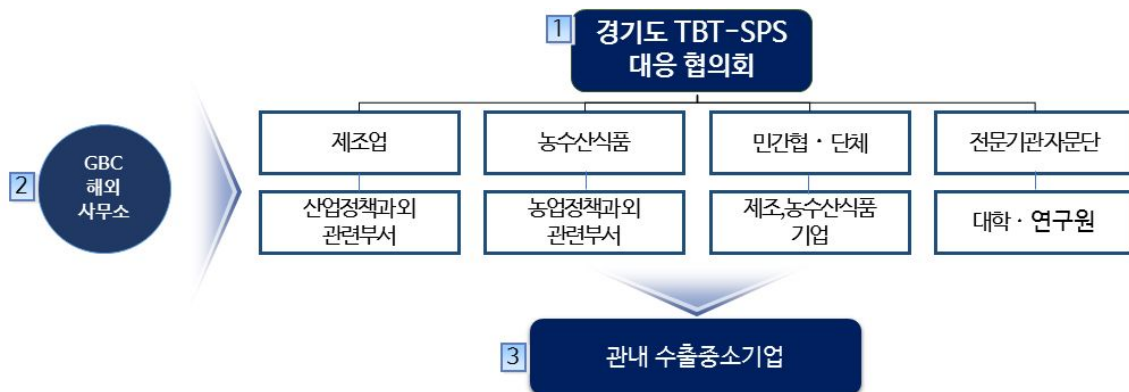
2. 비관세장벽 대응

- 최근(2011-2017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 경기도 기업이 직면해 온 주요 교역국가(지역)인 미국·중국·EU와의 산업별 무역기술장벽(TBT) 누적건수는 식의약품(580건), 화학·세라믹(534건), 전기전자(498건) 순으로 나타났음.
- 반덤핑을 중심으로 한 무역구제의 경우에도 미국(규제중 24건, 조사중 6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해외 비관세장벽에 관한 정부협의체와 민관협의체를 운영지원하고 있음.
 - USTR 주관으로 TBT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연 3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이슈 발생 시 별도의 비공식 협의 및 조정 회의 개최
 - 민관협의체의 경우 무역대표부와 상무부가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미국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정책개발 및 협상 지원
-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TBT 중앙사무국에서 총괄 대응하고 있음.
 - TBT 중앙사무국은 TBT 대응 컨소시엄이라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

부부처와 업계 공동으로 관련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 속성상 TBT-SPS 해결에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대부분 정부간 통상의 교적 채널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임.
- TBT-SPS 문제 직면시 가급적 정부의 관련 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을 경기도 기업에게 주지시킬 필요
- 중소기업들이 중앙정부의 TBT 중앙사무국에 접근하는데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이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경기도수출지원센터에 부여하고,
- 경기도의 주요 교역국가인 중국과 미국 중심의 비관세장벽 조치에 관한 정보수집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수출지원센터’가 ‘경기도 TBT-SPS대응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안

경기도 TBT-SPS 대응협의회 구성·운영



- 협의회 구성은 앞서 소개한 사례를 참조하여 경기도 제조업·농수산물 부서와 민간협회 및 단체 그리고 전문기관의 자문단으로 구성 운영
- 정부의 TBT 및 SPS 대응기관, 외교부, KOTRA 등의 비관세장벽 조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TBT-SPS 대응협의회 정기 안건으로 상정

제III장. 세계통상현안 분석과 경기도 수출입에 대한 영향

1. 주요 세계통상현안과 그 영향

- 최근 몇 년 사이 미중 통상갈등,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경기도는 물론이고, 세계무역 전반

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

- 한미 FTA 개정협상은 픽업트럭(SUB)을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고, 우리나라 통상당국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무역협정 협상 시작. 또한 CPTPP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가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이 장에서는 세계통상현안 분석과 경기도 수출입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고, 이들 현안에 대응하면서 경기도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

세계통상현안별 경기도 산업별 시군별 영향

	대표적 수혜산업		대표적 피해산업	
	산업	시군	산업	시군
미-중 통상갈등	전기전자 기계장비	평택시 이천시	전기전자 화학제품 정밀기기 기계장비	평택시 수원시 용인시
자동차 232조	-		운송장비	화성시 광명시 용인시
CPTPP 가입(한-일 FTA)	음식료 화학	이천시 평택시 수원시	화학제품 정밀기기 기계장비	수원시 이천시 평택시 용인시
브렉시트(한-영 FTA)	음식료 화학제 품	성남시 화성시 평택시	운송장비	화성시 광명시 평택시
한-메르코수르 FTA	전기전자 운송장비 정밀기기	평택시 수원시 화성시	농림수산 음식료	평택시 안양시 안산시

○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산업을 대표적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수혜산업으로는 CPTPP 가입과 한-영 FTA 체결에 따라 음식료업과 화학 제품제조업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한-메르코수르 FTA에 따라 전기전자, 운송장비, 정밀기기제조업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중 통상갈등과 CPTPP 가입에 따라 화학, 전기전자, 정밀기기, 기계장비, 운송장비제조업이 피해산업이 되며, 한-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따라 농림수산업과 음식료업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계통상현안별 경기도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수혜 산업과 피해 산업 모두에서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혜 산업 중 평택시는 FTA 체결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며, 음식료업과 제조업 모두 생산기반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평택시는 미국 자동차 232조를 제외한 다른 4개 통상현안에서 다수 피해 산업이 분포되어 있어 대외 취약성 우려

2. 산업정책 및 기업지원정책

가. 제조업 육성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 미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제조업 경쟁력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및 경제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전략과 개방적 무역정책이 중요
- 또한 혁신, 교육 및 노동력 개발을 위해 적절한 재정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하며, 빅데이터, 자동화, 인공지능과 같은 21세기 첨단산업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기술개발과 확산, 교육을 통한 근로자 역량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하고, 개인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해야 함.
- OECD(2018)에 따르면, 산업 발전을 위해 올바른 제도 및 규제 개선은 중요한 요소
-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완화가 중요하며, 국가간 규제 조화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양산. 주한국 EU상공회의소(ECCK)는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unique) 규제들이 많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로 규정

나. 국내정책과 무역정책

- 오늘날 WTO 체제하에서 수출산업에게만 한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은 금지

되며, 기업에 대한 정책은 국내정책과 무역정책으로 양분

일반적인 경우의 국내정책과 무역정책

		수혜산업	피해산업
국내정책	생산시장	—	일시적 보조금 지원
	노동시장	인력훈련 지원	일시적 임금보조
	자본시장	신용보증	—
	토지	클러스터 정책	—
	제도	전략산업 선정	신산업 발굴
무역정책	생산시장	환리스크 관리 지원	무역조정지원
	노동시장	컨설턴트 지원	인력 재훈련
	자본시장	수출보험	긴급융자
	토지	물류인프라 지원	—
	제도	정보제공	—

- 세계통상환경 악화와 FTA 통상정책으로 인해 도내 기업이 수입증가 피해를 보거나 수출확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수혜기업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기업의 여건에 따라 피해 규모와 수혜 여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산업지원 차원에서 아래 4가지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크게 보면, 경기도의 산업발전전략은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지원 등인 것으로 볼 수 있음.

피해/수혜 여부와 기업지원

피해 /수혜	기업의 상황	대책의 방향	본 보고서 관련 부분
피해	한계기업	구조조정, TAA	제IV장 5절 라항
	경쟁력있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지원	제IV장 2-5절 대부분 제IV장 4절(GVC) 제III장 4절(TBT-SPS)
수혜	경쟁력 취약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지원	
	경쟁력있는 기업	수출지원	

다. 일반적인 상황하의 수혜산업과 피해산업 대책

1) 피해산업이면서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정책

- 피해산업이면서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통해 지원대상인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경영기술컨설팅, 취업상담, 직업정보, 전직지원 서비스, 훈련연장급여 등의 정보를 제공 필요
- 피해기업이나 산업에 대해 경기수출지원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조정지원 컨설팅을 권유하고, 관련 증빙서류 작성을 지원해야 할 것임.

2) 수혜산업이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

- 경쟁상대 국가에 따라 수출중소기업들은 정책지원에 대한 차별적 수요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차별적 정책지원을 지양하고, 차별적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할 필요(문병기·이도형, 2018)
- 수출 비중이 낮은 기업일수록 해외시장정보 제공 등을 필요로 한 반면, 수출을 시작한지 9년차가 넘어가면 주력상품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 수요가 점차 증가
- 수출규모가 5,000억 원 이상 기업은 FTA 체결 확대(강화) 필요성 제기

3)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

- 기업업력, R&D역량, 수출실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수출강소기업화 지원
-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한 정책은 지자체의 지역산업정책 차원에서 검토해야 함.
- 지역산업정책은 산업 내 정책과 산업 간 정책으로 구분 추진(박재곤 외, 2014)
- 산업 내 정책은 산업조직 차원의 정책으로 각 산업을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산업조직 정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는 ① 기술혁신, ② 조직 혁신과 ③ 마케팅 역량 강화 등임.

- 다음으로 지역의 산업 간 정책은 구조조정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며 기업이 쇠퇴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지역 내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함.

지역산업정책의 유형과 범위

구 분	산업 내	산업 간
정책	지역 내 산업조직정책	지역 내 산업구조정책
전략	각 산업의 고도화 또는 경쟁력 강화	쇠퇴산업 → 성장산업
		지역 내 가치사슬 강화 (소재-부품-제품 간)

자료: 박재곤 외(2014)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수정

- Warwick(2013)에 따르면 산업정책은 대부분의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반적 정책과 특정 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선별적 정책으로 구분
 - 대부분의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반적 산업정책은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영역이고,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선별적 산업정책은 유망산업이나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지자체 차원의 지역 산업정책
 - 경기도에서는 선별적 산업정책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선별하여 국내 유망 중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 설계 필요

분류별 산업정책

구 분	일반적 산업정책	선별적 산업정책
생산시장	- 간접세 - 환율정책	- 보조금(WTO 허용 범위내) - 수출촉진, 가격규제(WTO 위반소지)
노동시장	- 임금보조 - 소득 및 고용 세율 인하	- 산업인력 훈련 지원
자본시장	- 신용 보증 - 법인세 감면	- 투자 펀드 조성 - 긴급융자
토지	- 계획 규제 - 토지이용계획	- 클러스터 정책 - 인프라 지원
기술	- R&D 세제 지원 -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 기술 펀딩 조성 - 전문지식센터 조성
제도	- 정보 제공 - 전반적 경쟁전략	- 전략산업 선정 - 산업별 경쟁전략

자료: Warwick(2013)을 바탕으로 연구자 수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WTO 국제통상규범을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입에 영향이 큰 산업정책을 채택하기는 어려움.
 - 대부분 국가들이 중앙정부 차원의 일반적 산업정책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나, 지방정부의 선별적 산업정책은 기술개발 지원이나 지역균형개발(클러스터) 논리가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실적으로 보면, 산업발전 정책이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가 주로 관장하고 있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발전정책을 정밀검토하고 지자체에 적합한 산업을 집중육성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임.
 - 현 정부 산업정책의 핵심은 주요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임.
- 경기도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산업 수출구조를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므로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을 기초로 도의 산업발전전략 수립이 효과적일 것임.
 - 다만, 경기도는 수도권규제 등 복합적인 규제로 투자가 제한되고 있어 신산업 창출 지연과 대기업 중심의 취약한 기업 생태계로 인해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역량 확보가 미진한 편이고,

산업군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

(2) 재도약: 자동차 선택	(1) 초격차: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 일감확보 - 자금지원(단기 유동성 공급) - 미래 전환(친환경차, 자율운항선택)	- 선제적 대규모 투자 - 기술확보 - 기술보호, 인력양성
(3) 탈바꿈: 섬의류/가전	(4) 자립화·글로벌화: 소재부품/장비
- IT접목 디지털 패션 생태계 구축 - 친환경, 고기능화 - 스마트공장 추진 등 생산혁신	- 기술확보(매년 1조 투자) -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개정 - 개발방식 변화(AI 적용 등)

자료: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2018.12.17.)를 바탕으로 연구자 제작성

- 특히 중국의 홍색 공급망(紅色 供給網) 강화 등으로 인해 한·중·일의 분업 구조가 약화되고 베트남 등 ASEAN, 인도 등으로의 생산 거점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산업업그레이드 필요
- 따라서 경기도의 산업발전정책은 산업부의 중견기업 육성 추진방향을 정밀검토하여 경기도만의 강점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 산업정책 수립
 - 전기전자기기, 석유화학, 자동차 등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강점을 기반으로 경기도만의 산업정책 수립 필요. 특히 경기도는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할 필요(중견기업 비전 2280²⁾)
 - 2022년까지 혁신 클러스터에 지역 대표 중견기업 50개사를 선정하여 육성하는 "MIP100(Middle-market Innovation Project)" 적극 활용해야 함.³⁾ 이는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고려한 상향식(Bottom-up) 방식의 후불형 R&D를 추진하며, 경기도에 적합한 중견기업 육성방식인 것으로 보임.

라. 세계통상현안에 따른 경기도 대응전략

- 세계통상현안에 따라 경기도에 미칠 피해는 크게 수혜 산업에 대한 지원과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
- 먼저 수혜 산업 중 상대적으로 국내 취약산업인 경우는 음식료업으로 CPTPP(한-일 FTA)와 브렉시트(한-영 FTA)로 인해 수출 증가 산업
 -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음식료 제품은 국내 농업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산업
 - 따라서 CPTPP 가입과 한-영 FTA 체결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국내 중소기업이 누리기 위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⁴⁾ 지원과 전반적 수출프로세스에 대한 중점지원 필요
 - 수혜 산업 중 국내 주요 수출 제조업은 한-메르코수르 FTA 체결로 수출 증대 예상.

2) 매출 1조원 이상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2022년까지 80개 육성, 그 외 중견기업 5,500개, 지역거점 중견기업 50개, 수출 중견기업 비중 50%를 달성하여 신규 일자리 13만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

3) 2022년까지 연간 10개사를 선정하여 공동 R&D, 수출 및 마케팅 등의 패키지 지원

4)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은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하거나 5만달러 미만인 내수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역량진단 및 소정의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1년간 KOTRA가 해외네트워크를 통하여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로 탈바꿈하는 지원 사업임.

- 정부와 지자체는 수출역량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제IV장에서 제안하는 ‘경기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수출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고품질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통상현안별 피해의 구분과 정부의 대책

	시나리오	FTA 종합대책
상대적 취약산업인 경우	CPTPP 가입 브렉시트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전반적 수출프로세스 중점지원
주요 수출산업인 경우	한-메르코수르 FTA	수출역량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상품 이외 분야 컨설팅 전문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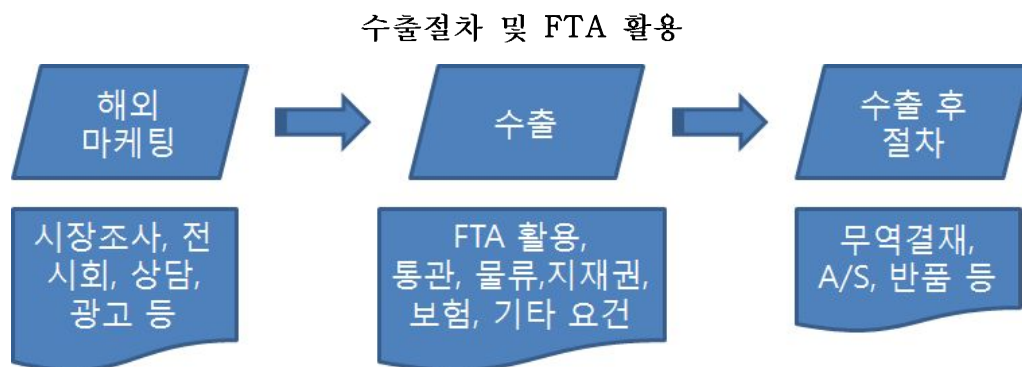
- 피해 산업 중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는 경우 피해 증폭 가능
- 특히 미-중 통상갈등과 미국의 자동차 232조 발동으로 다수 기업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음.
 - 한계기업은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활용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내수기업인 경우 수출기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피해 산업 중 수출 증가보다 수입 증가가 월등히 큰 경우는 CPTPP 가입(한-일 FTA), 브렉시트(한-영 FTA), 한-메르코수르 FTA에서 발생하며, 이들 산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혁신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산업발전전략 필요
 - 기술혁신 지원(유도)을 위한 기술펀드 조성과 전문지식센터 조성 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참고로 경기도는 양평에 섬유분야 지원센터 운영

통상현안별 피해의 구분과 정부의 대책

	시나리오	피 해	FTA 종합대책
수출입 모두 감소하는 경우	미-중 통상갈등 미국 자동차 232조	단중기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 정부의 수출환경 개선
수입 증가가 월등히 큰 경우	CPTPP 가입 브렉시트 한-메르코수르 FTA	중장기	기술혁신(경쟁력 강화) 산업 구조조정

3. 경기도 FTA활용지원 내용 및 평가

-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적극적인 FTA 활용지원 정책으로 FTA 활용률 제고, 우수사례 창출, 대기업 FTA활용 인식 제고 등 성과 기록
 -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률(%)은 2014년 이후 60% 내외 기록(2016년 65.0%, 2017년 57.7%)
 - 경기도 중소기업의 FTA컨설팅 수요가 존재하며, 소요 재원의 상당부분이 국비로 충당되므로 기존 컨설팅 사업은 유지될 필요
- 경기도의 FTA 활용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수출성사 차원에서 컨설팅 체계를 개선할 필요
- 2010년 기재부 국내대책본부가 확립한 FTA 활용지원체계가 아직까지 그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도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내용 개발은 부족한 상황
 - FTA노하우는 수출프로세스 일부로 파악할 때 수출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의 수입 위주 FTA컨설팅을 수출위주로 전환하지 않으면, 컨설팅을 받더라도 수출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FTA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임.



획일화된 중복적 컨설팅

- 현장 컨설팅은 전국 기준 연간 4,500여건(금년도 경기도 450건 계획) 제공되고 있으며, 무역협회의 종합지원센터와 지역센터들이 주로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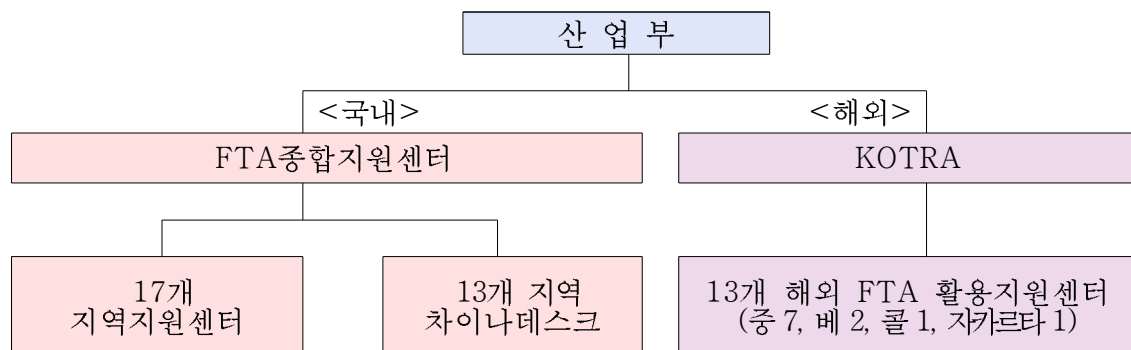
- 무엇보다 컨설턴트의 역량 부족으로 형식적인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지적되고 있고, 저가 컨설팅과 중소기업의 공짜심리가 결합되어 발생하는 ‘정부예산의 낭비’라는 도덕적 해이 발생(정재완, 2014)

수출 성사를 위한 협업체계 부족

- FTA 컨설팅은 수출프로세스의 일부이지 수출의 충분요건이 되지 않으며, FTA 외 물류통관, 표준인증, 지적권 등 많은 요건이 충족될 때 수출이 가능하나 중소기업들에게 FTA만 강조시키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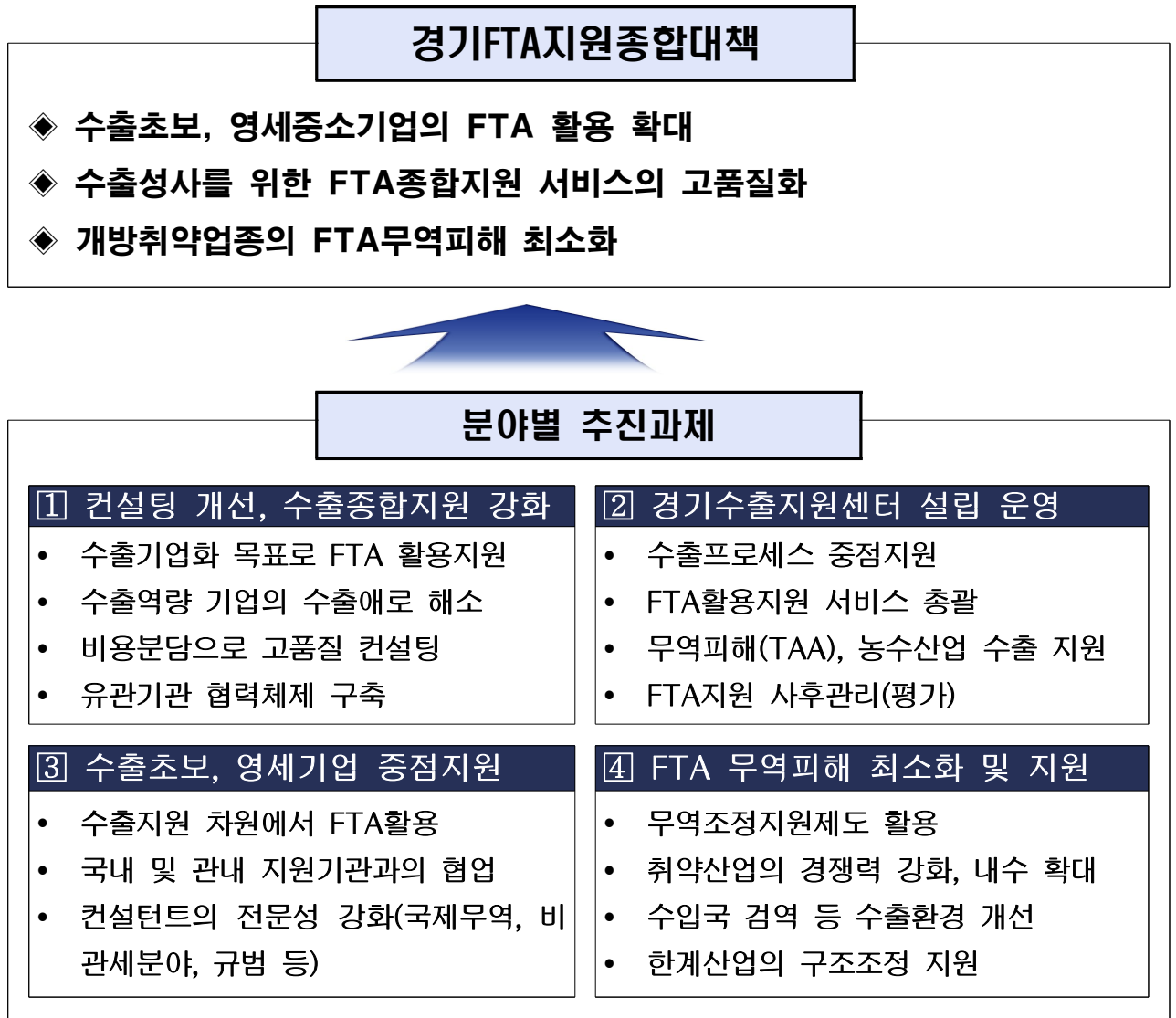
수출지원 인프라 활용 부족

- 중앙정부 FTA활용지원 인프라를 널리 활용해야 하지만 경기도 차원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
 - 수출성사를 위해서는 해외시장정보와 마케팅 활동이 필수적인데, GBC는 물론이고 13개 차이나데스크 및 13개 해외센터 활용 미흡



4. 경기도 FTA종합지원대책

- 경기도 차원의 FTA 활용지원은 크게 수출종합컨설팅(종합컨설팅) 서비스와 FTA특화 컨설팅(FTA컨설팅)으로 구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



가. 컨설팅 개선으로 수출종합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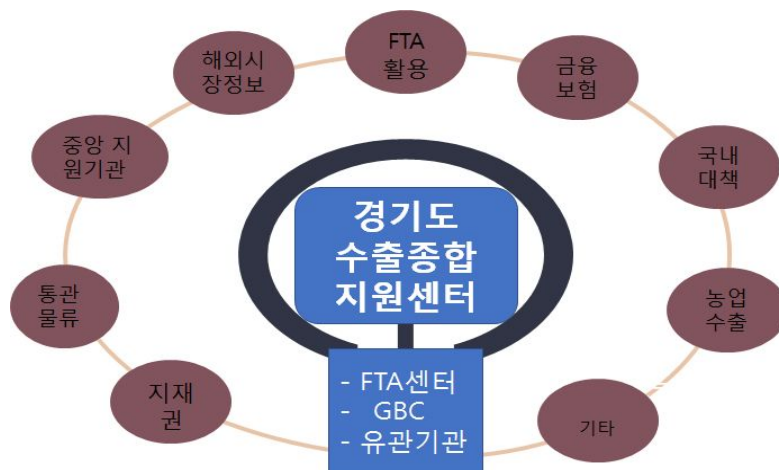
- 국내 FTA 환경 변화에 따른 FTA활용지원의 질적 개선
- 컨설팅 효과가 높은 기업 위주의 컨설팅 제공 체계 마련
- 투자 등 컨설팅 분야 다변화 필요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FTA 활용역량 확충
- 수출이 가능하도록 컨설팅 업그레이드
- 비용분담 원칙하에 맞춤형 컨설팅 제공

나. 가칭 ‘경기수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경기도 경제실의 지휘를 받는 경기수출지원센터는 경기도의 수출 및 FTA 활용지원을 총괄하며, 고품질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수출-FTA 컨설팅 프로그램과 FTA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⁵⁾
 - 또한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GBC를 경기수출지원센터 산하에 설치하여 통합운영할 때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컨설턴트의 전문성 강화
- 토털 상담체제로 해외진출 성공률 개선
- 경기도의 수출지원 인프라의 종합관리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
- 경기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의 수출프로세스 전반을 담당

경기수출지원센터 역할 및 조감도



- 수출성사에 해외시장정보는 가장 일차적인 자료이므로,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코트라, 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5) 2017년 9월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에 대해 기업의 약 82%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함. (<http://www.hani.co.kr/arti/economy/startup/812381.html>)

- 이와 관련하여 GBC의 업무체계 개선 및 현재의 13개 해외사무소를 경기도 수출진흥 차원에서 구조조정 및 재배치 필요
 - GBC 해외사무소 설치지역이 코트라 무역관과 겹치고, 경기도 수출지원을 담당하는 GBC가 코트라는 물론이고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협력을 하지 않고 있음.
 -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반사이익이 예상되고, RCEP 체결이 추진중인 동남아 지역과, 지리적 격차 및 문화적 차이로 우리 기업의 진출애로가 큰 남미(메르코수르) 지역으로의 GBC 재배치 필요

GBC 입지 변경(안)

권역별	기존 GBC 설치 지역	검토안
동북아	상하이, 선양, 광저우, 충칭	각 GBC 역할 강화
동남아	호치민,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GBC 철수 검토 신규 1개소 추가설치 검토
구미주	LA, 모스크바,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GBC 철수 검토
서남아·중동	뭄바이, 테헤란, 나이로비	신규 GBC 역할 강화

자료: <부록: 경기도 시군별 무역구조 및 특징>에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다. 수출초보, 영세기업 중점 지원

- 수출초보 기업 및 영세기업 CEO 대상 FTA 및 수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수출초보 기업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등 안내
-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FTA 활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원산지 관련 사항
 - 2017년 상반기 FTA종합지원센터의 FTA 1380 콜센터 등에 접수된 1만 1,600여건의 상담을 협정별, 업종별, 문의유형별로 분석한 한국무역협회(2017)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분야는 한·중 FTA, 화학·화장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 FTA 무역피해 최소화 및 피해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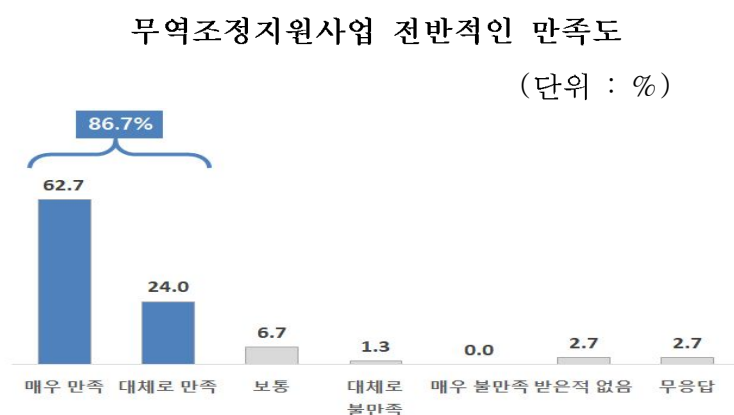
1) 제조업

제조업 FTA 피해

- 2008년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실시 이후 2018년 8월까지 TAA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164개 기업임.
- 이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실제 피해가 분산되어 나타나므로 FTA 무역피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해석

무역조정지원제도 평가

- 중소기업진흥공단(2018)의 조사에 의하면, 무역조정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기준 91.3점, 5점 척도 기준 4.6점으로 나타나 TAA 지정 기업들이 높게 평가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2018)

FTA별·시군별 TAA 지정 영향

- 지금까지의 FTA 무역피해를 FTA와 산업을 연계시켜 보면, 아세안과의 FTA로 인해 섬유분야 무역피해가 많았고, 한-EU FTA로 인한 식품과 화공 분야 피해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므로 이들 산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대책 수립 필요
- TAA 지정 기업이 많은 산업은 섬유(한-아세안 FTA), 식품과 화공(한-EU FTA)이며, 경기도의 대아세안 섬유류 총수입액에서 시군별 수입 비중이 3%가 넘는 시군은 총 11개임.
- 성남시와 안양시의 비중이 높고, 이들 시 소재 섬유류 기업이 FTA 무역

피해 빈도가 높을 것으로 분석

FTA 상대국별 업종별 TAA 기업 지정 분포

구분	섬유	식품	화공	금속	전기전자	기계	잡화	계
칠레		6					1	7
싱가포르			1					1
EFTA		2		3	3	1	1	10
ASEAN	24		4	3	7	3	1	42
인도	2		1					3
EU	4	19	12	7	3	8	6	59
미국	1	4	5	2	1	2	1	16
캐나다	1	2						3
중국	2		5	6	5	3	1	22
베트남		1						1
계	34	34	28	21	19	17	11	164

제조업분야 대책

- 시군별 TAA 지정 예상 건수와 품목이 차이가 있고, 몇 개 시군에 FTA 무역피해가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시군별 피해 가능 기업의 집중도에 따라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TAA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

2) 농수산업분야

FTA 지원현황

- 농업분야의 직접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국내보완대책은 “FTA직접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로 구분
 - 현재 농업 42개, 수산 52개 품목이 FTA 피해품목으로 지정 및 일정 요건 충족시 농수산업분야 지원
 - 폐업지원제는 FTA피해보전직불제 발동품목 중 하우스나 축사, 양식 등 시설을 포함하여 투자비용이 큰 품목이나, 2년 이상 키운 뒤 수확하는 양식과 과수가 지원대상

FTA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품목

구분	FTA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04~08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2013	한우, 한우송아지	한우, 한우송아지
2014	한우송아지	한우송아지
2015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2016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2017	도라지	-
2018	호두, 도라지, 양송이, 귀리, 염소	호두, 양송이, 염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2016, 2017), 농림축산식품부(2018)

FTA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품목

구분	FTA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2015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
2016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2017	가오리, 고등어, 까나리, 날개다랑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갱이, 전복, 참다랑어	가오리, 고등어, 까나리, 날개다랑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갱이, 전복, 참다랑어
2018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주꾸미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주꾸미

자료: 해양수산부(2015, 2016, 2017, 2018)

FTA 농업대책

- FTA 무역피해 품목의 경우, 경기도 차원의 대책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내보완대책인 ‘FTA직접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 활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국내 수출입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 경기도 농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농업당국의 수출입 모니터링 외에 경기도 차원의 농업품목 정보 분석
- 또한 아래와 같은 사업 추진
 - 농업 협업체계 강화
 -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적극 활용
 - 경기도의 농업 생산과 FTA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제 I 장. 연구 배경 및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최근 미중 통상갈등 등 보호무역주의가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 간 또는 경제권역별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와 아태지역에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중·일 FTA,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메가 FTA가 추진 중이다.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 수준의 FTA망을 구축했으며, FTA가 통상정책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발효된 협정은 15건이고, 중미 지역 국가와 체결한 FTA는 상대국 사정으로 발효가 지연되고 있다. 통상당국은 9건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4건의 협정에 대한 협상재개를 준비 중에 있다. 현재 협상 중인 FTA 중 최대 관심은 RCEP,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의 무역협정(TA)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발효 중인 FTA도 대내·외 무역 환경과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각 분야별 추가 개정협상(업그레이드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미 FTA 개정협정은 지난 9월 공식서명되었고, 12월 국회에서 비준완료되어 내년 중 발효될 것이다. 협정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혹은 업그레이드 필요에 의해 추가 협상이 한·ASEAN, 한·인도, 한·칠레, 한·중국 FTA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신규 FTA 중 최대 관심사항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될 것이다.

미국의 의도적인 WTO(세계무역기구) 무시전략과 위상 약화로 다자무역체제 역할이 위축되는 반면, 세계 주요국은 FTA 체결을 통한 통상이익 극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무역에서 FT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신규 FTA 체결에 대해서도 지자체 의견을 개진해야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현재의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도내 기업의 FTA 활용지원 종합전략을 통해 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경기도 경제는 다른 지자체보다 국제무역 비중이 높기 때문에 통상환경 악화시 부정적인 영향도 더 커지게 된다. 도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과 더불어 시군단위 통계 기반의 산업별 위험 및 기회요인 파악으로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적의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협상 체결 또는 체결 예정인 주요 국가와의 지역별·산업별 수출입 추이 정보의 수집·분석 등을 통해 정책비전 및 대응정책을 수립

해야 한다. 경기도 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한 정책비전과 세부전략 모색 및 「경기도 중장기 FTA종합대책」 수립은 시의성이 높다. 종합대책 수립으로 주요 통상현안, 향후 진행되는 FTA 및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대응정책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 연구개요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경기도 시군별 산업구조 현황 및 수출입 교역규모 등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미중 통상갈등 등 대외통상 리스크가 경기도 수출입 및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 경기도 중장기 FTA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경기도 무역구조 및 시군별 주요 수출 및 수입 산업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경기도에 대한 영향
- 기발효, 체결예정 및 개정협상 중인 FTA, 주변국가간의 FTA 분석
- 신규 FTA로 인한 영향, 농축수산업 등 피해에 대한 대책
- 분석·예측 결과를 반영, 도내 지역별·산업별 세부전략 도출 및 중장기 FTA종합대책 수립
- 도 해외 종합 수출거점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가. 지역별 산업구조 현황 및 수출입 교역규모 등 분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 및 시군별 주요 산업 통계(GRDP, 종사자현황, 가구수 등) 수집, 분석
- 도 및 시군별 산업·품목별 주요 수출입 규모 통계 수집, 분석
- 도 주요산업 관련 국내외 규제현황 등 정리

나. 우리나라가 체결, 체결 예정 및 협상 중인 FTA가 도 지역경제 및 수출입 동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기체결 협정의 파급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CPTPP 참여 및 남미공동시장과의 무역협정 체결이 경기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FTA별, 지역별, 연도별, 품목별 수출입 동향 및 지역경제효과 분석
- 체결예정 또는 개정예정인 FTA별, 예상 시나리오에 따른 수출입동향 및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 분석 예측
- 우리나라가 신규로 참여하고 체결하는 FTA의 예상 시나리오별, 도내 산업별 수출입 동향 등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전망

다. 도의 주요 교역국들의 반덤핑, 상계관세 등 비관세 수입규제 조치 현황 점검 및 수출입동향 분석·예측

보호무역주의가 경기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국가별 수입규제조치 현황(규제 및 조사 중 포함) 및 수출입동향을 분석하고 파급영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중국, 미국 등 최근 3년간 수출규모 상위 10개국 및 이슈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및 수출입동향 분석·예측
-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규모 백만달러, 천만달러 및 1억달러 이상 품목 및 이슈품목

라. 분석·예측 결과를 반영한 「경기도 중장기 FTA종합대책」 수립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FTA 활용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FTA 활용지원 상황을 평가하고, 도 차원의 FTA 활용 지원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기관, 중앙부처, 관련부서, 기업 등 (필요시) 간담회, 방문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에 적합한 지원체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FTA 활용지원 현황과 평가
- 분석결과 및 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한 향후 5개년 중장기 경기도 FTA종합대책을 수립
- 수혜산업·품목별 FTA 적극활용 지원정책
-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품목별 지원 및 대응방안
- 기타 글로벌 통상정책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

3.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주요 이슈

가. 한국의 FTA 추진 실적과 현황⁶⁾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는 높은 FTA 추진실적을 기록해 세계 최고 수준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52개 국가와 15개 FTA를 발효시켰으며 15개 FTA 중 절반은 2006~2009년 협상이 타결되었다. 2004년 4월 칠레와 최초로 체결한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미국, EU, 중국, 인도, 아세안과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대세계 교역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와 FTA 자유무역 체계를 구축하였다.

<표 1-1> 우리나라가 발효한 FTA

FTA 대상국	발효 일자	의의
칠레	2004. 4월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싱가포르	2006. 3월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	2006. 9월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2007.6월(상품) 2009.9월(서비스투자)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 FTA
인도	2010. 1월	BRICs 국가, 거대시장
EU	2011. 7월 잠정발효 2015.12.13. 전체발효	세계 최대경제권
페루	2011. 8월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2012.3.16.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2013.5.1.	유럽, 중앙아 진출 교두보
호주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15.1.1.	북미 선진시장
중국	2015.12.20.	우리나라 제1위 교역대상
뉴질랜드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5.12.20.	우리나라 제3위 투자대상국
콜롬비아	2016.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자료: FTA 홈페이지, Korea(<http://www.fta.go.kr>) ‘우리나라 FTA 현황’ 요약

한·중·일 FTA 추진에 앞서 한국과 일본은 2003년 말 한·일 FTA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양국 간 입장차이가 좁혀들지 않아 협상 개시 1년 만에 협상을 중단한 바 있다. 양국의 FTA 협상에 있어 산업격차, 관세율의 구조적 차이, 협상에 대한 인식 차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2012년 한국과 중국

6) 한국의 FTA 추진 실적과 현황은 정인교(2016), FTA 통상론(제2판) 5장의 내용을 토대로 요약 및 추가하여 작성함.

이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자 일본은 2003년 중단된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종의 ‘일본 트라우마’, 즉 협상을 해도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예상한 우리나라 통상당국은 협상 재개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일본의 한·중 FTA로 인한 소외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중·일 FTA 협상을 제의하자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해 3국간 FTA를 논의하게 되었으나 협상 탄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표 1-2> 한국이 추진 중인 FTA 대상국

단계	FTA	추진일정	의의
타결	중미 (5개국)	2010.10월 공동연구 시작 2015.6월 한·중미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016.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8.2월 정식서명, 5월 국회보고	중미 신시장 창출
협상진행	한·중·일	2003~2009년 민간공동연구 2012년 11월 20일 협상 개시 선언 총 13차례 공식협상 개최(2013~2018년)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RCEP	2012년 11월 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협상 개시 선언 총 24차례 협상(2013~2018년)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에콰도르 SECA	2012.9월~2013.6월 민간공동연구 2015년 8월 25일 한-에콰도르 협상개시 총 5차례 협상개최(2016년)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MERCOSUR	2017.3월 예비협의 완료 및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 2017.4월 공청회 개최 2018.5월 협상개시 공식 선언	남미 최대시장
	한·아세안 추가자유화	2017.8월 제16차 이행위원회 개최	교역확대 통상환경 반영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현재까지 6차례 개정협상 개최(2016~2018년)	주력 수출 품목 양허 원산지 개선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2016.11월 개선협상 개시 선언	통상환경 변화
	한·미 FTA 개정	3차례 개정협상 개최(2018년) 2018년 3월 24일 원칙적 합의 2018년 9월 24일 서명	상호호혜성증진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2차례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개최(2018년)	한국의 제1위 서비스 수출국
협상재개, 여건조성	멕시코	2007.12월 협상재개 2008.6월 2차 협상개최 2016.11월 멕시코 통상차관 회담계기 예비협의	북중미 시장 교두보

		개최합의	
	GCC	2008.7월 협상 개시 2009.7월 3차 협상 개최 후 중단	자원부국
	EAEU	2016.8월 민간공동연구 완료 3차례 한-EAEU 정부 간 협의회 개최 2017.9월 한러정상회담 계기 FTA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작업반 설치합의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 르기즈스탄)	성장잠재력과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신흥시장

자료: FTA 강국, Korea(<http://www.fta.go.kr>) 우리나라 FTA 현황 요약

나. 글로벌 통상협상 추진의 주요 이슈

WTO DDA 협상 부진과 FTA 발효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FTA 통상정책의 주요 이슈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FTA 통상정책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메가 FTA나 양자 간 FTA 및 개정협상의 타결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FTA 정책에 관련되는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이러한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FTA 정책의 주요 이슈를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메가 FTA의 원산지규정 중 완전누적 제도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가 이슈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신무역이슈로 등장한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 정립이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셋째 WTO 중심의 다자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 간의 복수국간 협상(Plurilateral Negotiations)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먼저 원산지의 경우, 우리나라는 FTA 로드맵을 통해 동시다발적 FTA 정책 추진으로 FTA 허브 국가로써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단기간내 양자 간 FTA를 다양하게 추진하면서 FTA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규정, 무역구제제도, 기술표준 등을 채택하면서 스파게티볼 효과⁷⁾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체결되는 메가 FTA에서는 국가 간 원산지가 인정되는 누적 원산지 규정⁸⁾을 도입하고 있다. 누적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 규정을 단순화하고 FTA 간 유기적인 연계와 함께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RCEP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 도입

7)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하여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말함.

8) 다자간 FTA를 맺은 국가들 내에서 원재료를 조달할 경우 모두 국산 재료로 간주해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

을 논의하고 있으나, 원산지 누적 규범 도입에 대한 회원국 간 견해 차이가 큰 상황이다.(산업통상자원부 2017⁹⁾) 특히 동아시아에서 가장 폭넓은 국제생산망을 가진 일본은 RCEP, CPTPP 등 메가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을 통해 일본기업의 글로벌생산네트워크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중간재 수출 비중¹⁰⁾이 높으므로 역내 생산네트워크를 파악하고 메가 FTA가 타결될 경우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원부자재를 수입해 한 국가에서 최종재를 생산하여 내수로 판매하거나 수출하였지만 오늘날 교통통신의 발전과 자유로운 무역환경으로 국제무역 및 거래 비용이 낮아지면서 생산공정별로 국제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간재 수출이 많다는 것은 생산공정 국제분업화 참여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중간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세계적인 무역 추이에 참여도를 높이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통상규범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전자상거래이다.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무역의 확대로 등장한 신무역이슈인 전자상거래는 기존 상품과 서비스 오프라인 거래방식을 대체해 가고 있고, 향후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WTO 협정은 전자상거래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2017년 각료회의(MC11)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한·미 FTA에서는 기존 FTA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의 비차별원칙(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을 규정하였고, CPTPP에서는 한·미 FTA에서 체결된 전자상거래 보다 한층 강화된 자유화 조건과 소비자 보호 요건을 추가하였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국경 간 정보 이전의 허용, 데이터 센터의 국가 내 설치 요구 금지, 소스 코드의 이전과 접근 요구 금지 등이다. USMCA는 기존 전자상거래 규범에 소비자 보호 등의 의무사항을 추가하였다.

RCEP의 전자상거래 초안에는 CPTPP에 포함된 비차별원칙(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데이터 센터의 설치 요구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원칙으로 작성되었으나,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등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FTA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만 도출되어 있어 향후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상거래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업체의 플랫폼이 시장을 이끌어어나가는 문제가 있으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하고 중

9) 산업통상자원부(2017.3.6.) RCEP 제17차 공식협상(2.27~3.3, 일본고베) 보도자료, RCEP 제20차 공식협상 개최(2017.10.23.) 보도자료 참고

10) 2017년 경기도의 전체 수출액은 1,241억달러이며, 그중 중간재는 819억달러로 66%의 비중을 차지함(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국제무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향후 메가 FTA 또는 FTA 개선협상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규제완화와 철폐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복수국간무역협정 역시 경기도의 관심사항이다. WTO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자 간 FTA와 메가 FTA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슈만을 다루는 복수국간 무역협정이 도입되고 있다.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합의 도출이 용이한 선진국 위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협정(ITA)은 2015년 말 타결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소극적인 입장 전환으로 환경상품협정(EGA), 서비스무역협정(TiSA) 등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EU에서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응해 주요 자동차 수출국이 무역협정을 맺어 자동차 공급 사슬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¹¹⁾

복수국간무역협정은 WTO와 메가 FTA의 진전이 부진하면서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합의가 가능한 국가 간 협상을 통해 자유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방식의 복수국간무역협정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현재 발효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복수국간무역협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FTA 뿐만 아니라 다자간 무역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11) 파이낸셜타임즈. 2018.7.4. “EU, ‘車 수출국 무역협정’ 검토. 트럼프에 대한 제시“ (검색: 2018.11.6.).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0411501920894>

제 II 장. 경기도 시군별 무역구조 및 특징

본 장에서는 경기도 전체 및 시군별 무역구조와 특징을 살펴보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경기도 수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시군별 교역규모, 경기도 수출입 구조 및 무역지수 분석, 무역지수 산출을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 무역 데이터를 통해 본 경기도에 대한 시사점 도출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주요 교역 대상국의 비관세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국가별 수입규제 적용 현황과 경기도 주요 업종의 피해를 추정하였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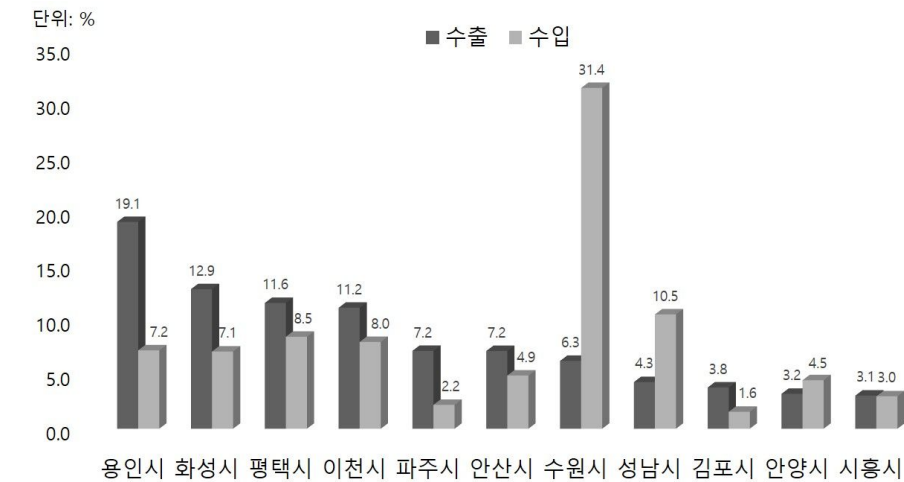
1. 시군별 수출입 산업 및 기업매칭

FTA 이행에 따른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군별 교역 규모와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시군은 총 31개이나, 경제 및 교역 규모를 고려하며,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교역규모와 산업별, 국가별 교역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산업구분은 2017년 KSIC 분류에 따라 15개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15개 산업은 HS코드 6단위 무역통계를 구축하여 국제경쟁력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만 시군별 교역 통계는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2016년, 2017년에 한정하였다.

시군별 대세계 수출입 비중은 수출 기준 상위 국가를 선정하였으며 수출과 수입 비중이 3% 미만인 시군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수출이 많은 시군은 용인시(19.1%)이며, 그다음으로 화성시(12.9%), 평택시(11.6%)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 가장 수입이 많은 시군은 수원시(31.4%)이며, 그다음으로 성남시(10.5%), 평택시(8.5%), 이천시(8.0%) 순이었다. 아래 <그림 2-1>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막대그래프로 정리하여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수원의 경우 압도적으로 수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국인 미국에 대해 대미국 수출이 가장 많은 시군은 평택시(21.2%)이며, 그다음으로 이천시(18.1%), 화성시(16.1%) 순이었고 대미국 수입이 가장 많은 시군은 수원시(42.1%)이며, 그다음으로 성남시(15.7%), 이천시(9.2%) 순이었다.

12)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음.

<그림 2-1> 2017년 주요 시군별 대세계 수출입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본 장의 또 다른 분석대상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으로 시군별 중소기업¹³⁾ 업체 수는 총 9,732개였으며 전체 경기도 제조업 수는 35,706개로(2015년 대한상공회의소 자료기준) 중소기업이 전체 제조업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비중이 가장 많은 경기도 시군은 화성시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흥시와 안산시가 중소기업 비중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1개 산업에서 2~3개 시군의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주요 수출산업으로 정리해보면 금속제품 제조업의 경우 시흥시(16%), 안산시(12%), 화성시(21%)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시흥시(16%), 안산시(12%), 화성시(33%) 순이었으며 화학 제조업의 경우 화성시가 19%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여러 시군에 산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 <표 2-1>과 <표 2-2>에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3) 여기서 중소기업은 1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을 뜻함.

<표 2-1> 주요 시군의 수출입 산업과 기업 매칭 자료

시군	수출		수입		대표기업			수출입 매칭
	산업	품목	산업	품목	기업명	품목명	종업원수	
고양시	기타 제조업	금은 세공품	1차 금속	금	(주)바른손	문구류	804	-
김포시	화학	기초화장품	화학	의약품	(주)상보	필름	395	-
남양주시	1차금속	철강 관	화학	의약품	(주)빙그레	유제품	1,568	-
성남시	전기 전자기기	전화기	전기 전자기기	전자 직접회로	(주)파리크라상	제과류	4,301	-
수원시	전기 전자기기	수신기기 부분품	전기 전자기기	전자 직접회로	삼성전자(주)	반도체	101,970	O
시흥시	기계장비	기타 기계류	1차 금속	백금	(주)삼립식품	제과류	1,019	-
안산시	전기 전자기기	인쇄회로	전기 전자기기	인쇄회로	(주)인터플렉스	인쇄 회로기관	1,295	O
안양시	전기 전자기기	전선/케이블	전기 전자기기	전화기	엘에스산전(주)	변압기	3,449	△
용인시	전기 전자기기	전자 집적회로	기계장비	반도체 제조용장비	삼성 디스플레이(주)	OLED패널	26,962	O
이천시	전기 전자기기	전자 집적회로	정밀기기	반도체 제조용장비	에스케이 하이닉스(주)	플래시 메모리	20,756	O
파주시	정밀기기	액정 디바이스	전기 전자기기	전자직접회로	에이에스이 코리아(주)	직접회로	2,985	O
평택시	전기 전자기기	전화기	광업	석유가스 /탄화수소	쌍용자동차(주)	자동차	4,789	-
화성시	운송장비	승용자동차	전기 전자기기	절연전선 /케이블	일진전기(주)	절연전선	1,114	△
과천시	화학	헤테로고리 화합물	전기 전자기기	컴퓨터	코오롱	나일론, 의류 등	3,825	△
광명시	운송장비	승용자동차	음식료업	치즈	(주)여주전자	오디오 리모컨	120	-

주: 수출입 매칭은 실제 수출입 산업과 기업이 매칭하는 경우 O, 수출 또는 수입만 매칭되는 경우 △, 매칭되지 않는 경우 -로 표시

(계속)

시군	수출		수입		대표기업			수출입 매칭
	산업	품목	산업	품목	기업명	품목명	종업원수	
광주시	기계장비	반도체디바이스	음식료업	쇠고기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공정장 치	705	△
구리시	섬유가죽	직물	섬유가죽	가방/케이스	(주)케이엠 헬스케어	일회용수술가 운	286	△
군포시	전기 전자기기	전선/케이블	정밀기기	측정/검사용 기기	가온전선(주)	전력케이블	446	△
동두천시	정밀기기	렌즈/프리즘	정밀기기	렌즈/프리즘	(주)세코닉스	마이크로 렌즈	871	0
부천시	전기 전자기기	반도체 디바이스	전기 전자기기	반도체 디바이스	페어차일드코리아반 도체(주)	반도체	1,710	0
안성시	기계장비	반도체 제조용장비	화학	페인트 /조제점결제	(주)디에이피	인쇄회로기관	1,228	△
양주시	화학	플라스틱 판	1차 금속	구리	(주)카스	저울, 계측기	385	0
여주시	전기 전자기기	전기제어용 보드	화학	착색제	옴니시스템(주)	디지털전자식 전력량계	200	△
연천군	화학	환식 탄화수소	화학	환식 탄화수소	건일산업(주)	플라스틱창호	90	0
오산시	기계장비	반도체 제조용장비	기계장비	반도체 제조용장비	(주)제우스	LCD글래스반 송시스템	471	0
의왕시	화학	폴리 에스테르	화학	환식 탄화수소	선영화학(주)	PVC데코시트, PVC필름	237	0
의정부시	섬유가죽	뜨개질편물	전기 전자기기	컴퓨터	(주)텍슨	무선중계기	122	△
포천시	섬유가죽	편물	기타 제조업	의자/가구	(주)청우식품	캔디, 비스킷	706	-
하남시	화학	운반용 플라스틱	음식료업	돼지고기	(주)대원산업	플라스틱트레 이	241	△

주: 수출입 매칭은 실제 수출입 산업과 기업이 매칭하는 경우 0, 수출 또는 수입만 매칭되는 경우 △, 매칭되지 않는 경우 -로 표시

<표 2-2> 산업의 시군별 중소기업(10~99인 종사자) 업체 비중(%)

구분	1차금속	금속제품	기계장비	기타제조업	목재/종이/인쇄	비금속광물	석탄석유	섬유가죽	운송장비	음식료업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화학
가평균	0.00	0.00	0.05	0.00	0.30	1.32	0.00	0.00	0.00	0.21	0.05	0.23	0.00
고양시	0.00	0.88	0.88	4.95	6.87	0.88	0.00	2.61	1.01	3.42	1.54	2.34	1.96
과천시	0.00	0.00	0.05	0.26	0.60	0.00	0.00	0.40	0.00	0.00	0.05	0.00	0.00
광명시	0.65	0.59	0.55	0.00	0.30	0.00	0.00	1.20	1.01	0.43	1.28	1.64	0.43
광주시	1.94	3.53	2.69	6.77	6.12	3.95	11.11	5.01	0.67	7.26	2.71	2.11	3.84
구리시	0.00	0.15	0.05	0.52	0.00	0.00	0.00	0.40	0.00	0.00	0.11	0.00	0.14
군포시	0.00	1.03	3.19	0.78	1.19	1.32	0.00	0.80	0.67	1.71	4.73	5.62	2.25
김포시	20.65	8.69	7.42	14.84	9.85	6.58	0.00	3.81	6.04	4.27	3.45	5.62	9.28
남양주시	1.29	2.95	1.26	7.03	2.39	3.51	0.00	2.20	2.01	3.21	1.38	1.17	1.59
동두천시	0.32	0.15	0.11	0.26	0.00	0.44	11.11	2.00	0.00	0.64	0.21	0.23	0.29
부천시	2.26	6.48	8.41	5.21	2.24	2.63	0.00	4.81	3.69	3.63	11.11	9.37	5.51
성남시	0.00	1.55	2.47	2.86	1.34	1.32	0.00	5.41	1.01	5.77	8.40	16.63	2.61
수원시	0.32	1.10	2.64	1.04	0.60	0.00	0.00	0.80	0.67	0.64	4.30	3.28	1.67
시흥시	13.55	16.05	16.16	2.34	3.58	2.63	33.33	5.01	16.44	2.35	9.30	4.68	8.33
안산시	22.90	12.44	9.40	4.43	8.36	5.26	11.11	8.82	12.08	2.99	10.20	6.56	8.19
안성시	2.90	2.58	3.41	1.82	3.58	6.58	11.11	2.00	5.37	8.33	1.75	2.11	4.71
안양시	0.32	1.18	2.91	2.34	2.39	0.44	0.00	2.20	1.34	1.07	8.24	9.37	2.17
양주시	2.90	2.06	1.37	2.86	2.54	5.70	0.00	14.43	0.00	4.06	1.22	1.64	3.70
양평군	0.32	0.07	0.00	0.00	0.00	0.88	0.00	0.40	0.34	0.64	0.00	0.00	0.14
여주시	0.97	0.22	0.22	0.52	0.90	7.89	0.00	0.60	0.00	2.78	0.43	0.23	0.65
연천군	0.00	0.00	0.11	0.00	0.00	0.44	0.00	0.00	0.00	0.85	0.05	0.00	0.43
오산시	0.00	0.44	0.66	1.04	0.60	0.44	11.11	0.20	0.34	0.43	0.58	0.70	0.87
용인시	0.65	1.84	2.58	2.08	3.88	3.95	0.00	3.01	3.36	3.21	3.61	5.62	3.62
의왕시	0.00	0.81	1.10	0.52	0.75	0.44	0.00	0.00	0.67	1.28	1.43	2.11	0.65
의정부시	0.00	0.22	0.05	0.26	0.15	0.00	0.00	1.00	0.00	0.00	0.27	0.70	0.29
이천시	0.65	1.03	1.15	1.30	1.79	7.02	0.00	1.60	1.34	5.56	0.96	0.94	1.59
파주시	3.23	4.79	3.85	13.54	17.31	6.58	0.00	3.21	1.01	6.20	3.13	3.04	6.23
평택시	4.52	3.90	3.90	1.82	2.99	3.95	11.11	2.40	5.70	5.77	2.98	1.87	5.65
포천시	1.61	3.17	2.09	8.33	3.43	11.84	0.00	18.44	1.34	11.97	2.13	0.23	4.13
하남시	0.32	0.74	0.16	0.78	0.45	0.88	0.00	1.40	0.34	1.07	0.80	0.23	0.43
화성시	17.74	21.35	21.06	11.46	15.52	13.16	0.00	5.81	33.56	10.26	13.60	11.71	18.62

경기도의 수출입 구조와 실제 경기도 내 기업의 생산활동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시군의 수출입 산업과 기업자료를 매칭하였다. 시군의 주요 수출산업과 해당 시군에 존재하는 1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 간 매칭 결과 전체 30개 시군 중 수출입이 모두 일치하는 시군은 11개로 한정되었다. 주요 시군의 수출입 산업과 기업자료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였는데 대표적으로 화성시의 경우, 최대 수출품목은 승용차이나 매칭이 되지 않고, 수입은 전기전자기기로 대표기업인 일진전기(주)는 매칭이 되었다. 이는 승용차는 본사 소재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일진전기의 경우 부품을 수입하지만 주로 국내 내수용 생산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군별 가장 수출이 많이 발생하는 산업의 경우 화학제품 제조업이었으며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모두 대중국 수출로 나타났다. 화학제품 다음으로 수출이 많은 산업은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대중국 수출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과 아세안 순이었다. 시군별 가장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나타났으나 화학제품 수입의 경우 수출과 달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는 금속제품 제조업 수입이 많았는데 수입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산업은 중국과 가치사슬 체계가 강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중국 다음으로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이었다.

중간재를 수입해서 중간재를 수출하는 시군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가공하여 중국에 재수출하는 비즈니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러한 수출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은 1차 금속, 금속가공품, 비금속광물 등 금속광물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재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다시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산업의 경우 대미국 수출은 평택시의 농림수산업과 음식료업, 대일본 수출은 평택시의 비금속광물, 대EU 수출은 평택시와 화성시의 운송장비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재 이외에 자본재와 소비재를 수출입하는 시군은 고양시, 수원시, 이천시와 화성시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주로 중간재 수입과 소비재 생산 수출(기타 제조업 분야)이 이루어졌다. 수원시는 자본재 수입, 중간재 수출 구조(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화학제품 등)를 보이고 있다. 이천시의 경우 자본재 수입과 중간재 수출(전자전자기기와 정밀기기 등)을, 마지막으로 화성시는 중간재 수입과 가공 수출(금속제품, 기계장비, 운송장비, 정밀기기, 화학제품 등)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경기도의 시군별 산업별 구조에 대해 분석해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수출을 위해 중국산 부품과 중간

재를 주로 수입하고, 주요 수출국은 미국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 금속, 비금속광물 등 원재료를 수입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등이 대표적인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평택시는 아세안으로부터 석탄석유제품과 광물을 수입하여 가공 후 일본과 미국으로 수출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한편, 화학제품의 경우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중국으로 가공 수출 하였으며 정밀기기 제조업은 일본에서 수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경기도 수출입 구조 및 무역지수 분석

2011년~2017년 기간 동안 경기도의 수출은 한국 전체의 수출보다 11배 높은 실적을 달성하였다. 한국의 2011년 수출금액은 5,550억 달러에서 2017년 5,730억 달러로 연평균성장률(CAGR)이 0.55%로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 수출은 876억 달러에서 1,241억 달러로 증가하여 CARG는 6.0%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높은 성장세는 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의 수출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반면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5.8%로, 한국 전체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인 -1.52%와 크게 대비되고 있는 양상이다. 경기도는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글로벌가치사슬(GVC) 강화 및 유지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기도 산업이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대세계 산업별 수출금액 중 경기도 비중이 2011년 15.8%에서 2017년 21.6%로 5.8%p 증가하였다. 거의 모든 산업 군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2017년 기준 정밀기기 제조업으로 41.4%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35.1%,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6.0% 순이었다. 특히 정밀기기 제조업은 전산업의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세계 산업별 수입금액 중 경기도 비중도 2011년 17%에서 2017년 26.1%로 9.1%p 증가하였다. 역시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었는데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17년 기준 정밀기기 제조업으로 62.6%였다. 그 다음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43.1%,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5.8%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산업별 수입 비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산업은 정밀기기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지금부터는 경기도의 수출입 자료를 토대로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두 가지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¹⁴⁾는 무역이 특정상품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를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되는데 분석결과 경기도의 주요 수출국에 대한 2011년~2017년 무역특화지수는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경기도의 무역특화지수는 선진국과는 약화된 반면 신흥개도국에 대해서는 강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선진국에 대해서는 수입특화 양상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수출특화 양상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3> 경기도의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연도	대세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01	-0.01	-0.11	0.06	-0.14	0.41	-0.59	0.66	-0.28
2012	-0.06	-0.06	-0.10	0.05	0.15	0.50	-0.54	0.71	-0.45
2013	0.00	0.08	-0.06	0.11	0.24	0.52	-0.58	0.78	-0.46
2014	-0.02	0.05	-0.07	0.15	0.27	0.40	-0.51	0.75	-0.40
2015	-0.02	-0.03	-0.16	0.12	0.18	0.26	-0.49	0.78	-0.44
2016	-0.02	-0.10	-0.14	0.07	0.11	0.19	-0.55	0.79	-0.39
2017	0.00	-0.15	-0.17	0.16	0.16	0.18	-0.62	0.82	-0.34

다음으로 무역특화지수와 더불어 국제경쟁력 비교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¹⁵⁾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시비교우위지수는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한국의 2011년~2017년 미국, EU, 중국, 일본, 아세안, 베트남, 홍콩, 대만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수출대상국 및 산업에 따라 확연히 다른 양상을

14) 국제경쟁력이 없어 수출은 없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무역특화지수는 -1이 되며, 점차 국제경쟁력이 생겨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지수는 0이 됨. 반면 수입을 전량 대체하고 수출만 하게 되면 그 지수는 1의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1에서 +1사이의 값을 갖게 됨.

15) 현시비교우위지수는 현시된 비교우위, 즉 무역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Balassa에 의해 1962년에 고안된 지수이며 수출시장 점유율을 기초로 비교우위를 평가함. 데이비드 리카르도에 의해 처음 제시된 일반적인 비교우위의 개념은 두 나라, 두 재화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사용하기 어려움. 그러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하면 전통적인 비교우위이론이 반영하지 못하는 비가격적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어서 기존의 가격만으로 비교우위를 측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일반적으로 산업수준에서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할 때 많이 활용되는데 이 경우 한나라의 특정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혹은 일부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지수로 나타내게 되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1보다 작으면 비교열위가 있다고 봄.

보이고 있다.¹⁶⁾ 2017년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과 산업에 대한 주요 현시비교우위지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과 EU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운송장비 제조업이 각각 3.37과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은 중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과의 무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대만과 베트남에서 큰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운송장비 제조업, 석탄석유제품 제조업, 기계장비 제조업의 현시비교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석탄석유제품 제조업과 음식료업이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 2-4> 2017년 주요 교역국가에 대한 한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 현황

구 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1차 금속제품	1.95	1.73	0.43	1.68	2.54	1.27	0.13	1.49
광업	0.00	0.00	0.20	0.00	0.02	0.48	0.01	2.93
금속제품 제조업	1.64	1.36	0.36	4.26	1.48	2.29	0.37	1.26
기계 및 장비	1.46	0.64	1.15	2.68	4.77	0.70	0.99	0.70
기타 제조업	0.65	0.36	0.11	0.16	0.09	1.46	0.15	0.90
농림수산업	0.03	0.09	0.09	0.06	0.06	6.80	0.04	5.28
목재/종이/인쇄업	0.74	0.17	0.29	0.26	0.32	0.98	0.38	2.57
비금속광물제품	0.50	0.32	0.19	0.37	0.27	0.74	1.21	5.43
석탄 및 석유제품	0.99	1.42	12.93	2.30	94.85	10.40	7.59	159.87
섬유 및 가죽제품	1.53	0.32	0.16	0.42	0.24	3.83	1.94	1.34
운송장비 제조업	3.37	2.15	1.07	6.16	5.22	1.05	1.04	2.46
음식료업	0.13	0.12	0.27	0.21	0.12	7.84	0.72	1.33
전기 및 전자기기	1.73	1.99	1.09	1.23	1.08	0.89	1.23	0.51
정밀기기 제조업	0.13	0.30	2.30	2.23	2.61	0.19	0.74	0.53
화학제품 제조업	0.65	0.92	1.73	1.88	2.73	0.73	1.86	2.27

세 번째 분석방법으로 사용된 수출경합도지수(Export Similarity Index)는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경쟁이 높다는 가정 하에 특정 시장에서 양국 간의 경쟁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양국 간 수출구조가 완전히 상이하면

16) 2011~2016년의 현시비교우위결과는 부록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변화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수출경합도지수는 0이 되고, 수출구조가 완전히 일치하면 100이 되어 경쟁이 치열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무역특화지수와 현시비교우위 지수와 달리 수출경합도지수는 경기도의 주요 수출산업이 교역 대상국의 시장에서 다른 국가와 어느 정도의 경합도를 보이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1년~2017년 기간 동안의 수출경합도를 분석한 결과¹⁷⁾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미국, EU에서 유의한 특징이 나타났으며 주로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의 경우 미국, EU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중국과의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경합도가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그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무역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기도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국 편중 현상의 해소와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새로운 무역 파트너로서 베트남의 위상이 강화된 만큼 수출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주요국의 비관세 수입규제 조치 현황 및 수출입 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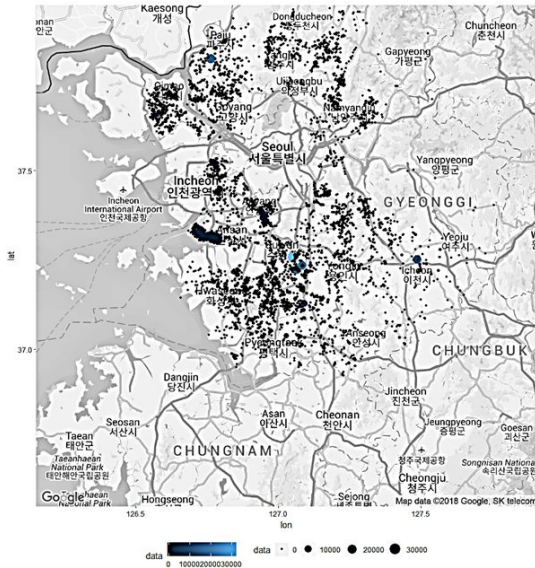
가. 경기도 제조업 현황과 특징

경기도의 제조업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전기전자, 기계장비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00명 이상을 고용한 경기도 사업체의 경우, 전기전자기기(287개), 화학제품(195개), 기계장비(141개) 순으로 나타났고, 100명 미만 고용 사업체의 경우, 금속제품(22,390개), 기계장비(18,196개), 전기전자기기(15,861개)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경기도의 공장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사자수와 사업체수 모두 전기전자(355,968명, 12,606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계장비(151,666명, 10,861개), 화학제품(135,500명, 8,402개), 금속제품(106,157명, 10,376개) 순이었다. 중소기업의 27%, 대기업의 39%가 전기전자·기계장비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경기도 제조업의 1/3은 전기전자·기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전기전자와 화학은 경기도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기계장비 그리고 금속은 경기도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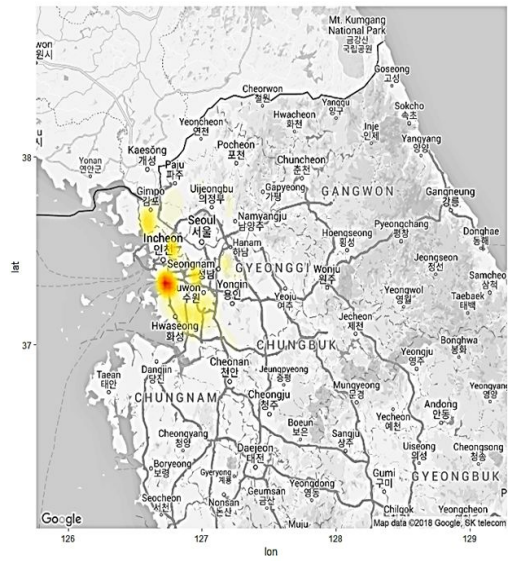
17) 주요 교역대상국별 수출경합도 분석결과는 부록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

<그림 2-2> 경기도 주요업종별 종사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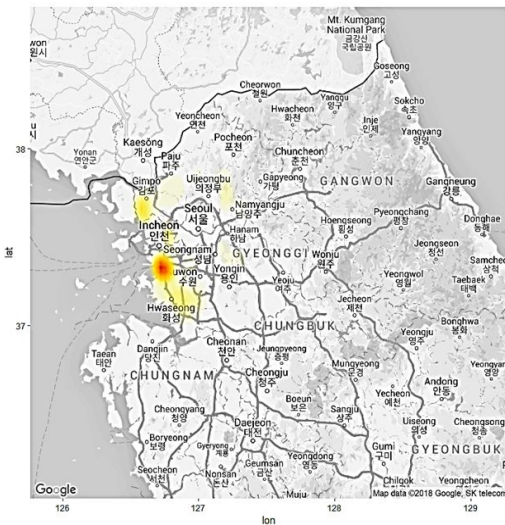
전기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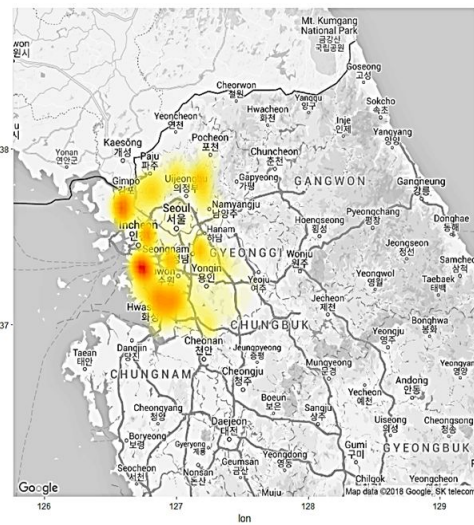
기계장비



금속



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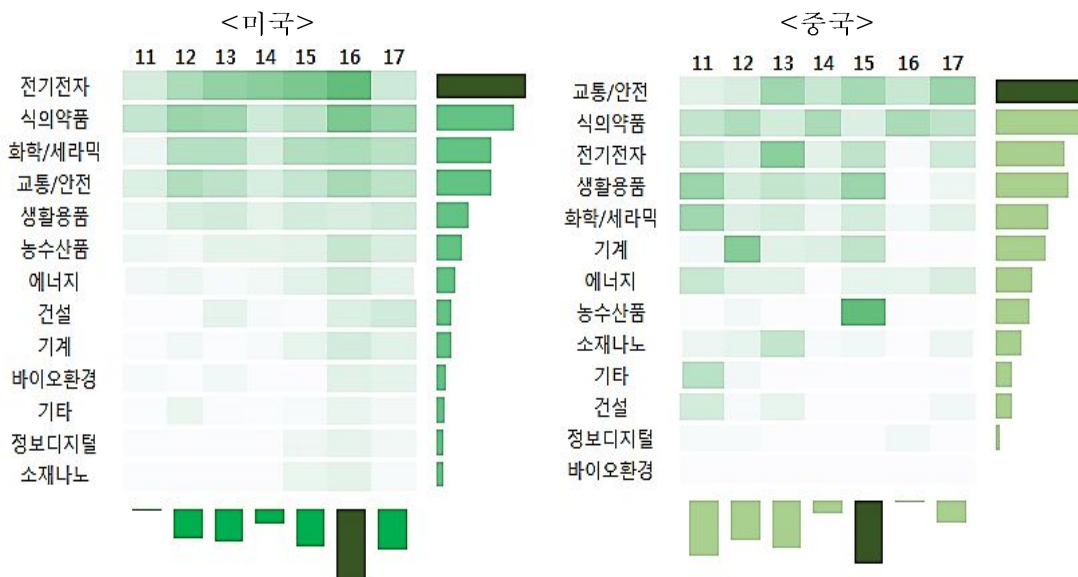


나. 국가별 수입규제 조치 현황 점검

최근(2011-2017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직면해 온 주요 교역국가(지역)인 미국·중국·EU와의 산업별 무역기술장벽(TBT) 누적건수는 식의약품(580건), 화학·세라믹(534건), 전기전자(498건)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는 전기전자(398건), 중국은 교통·안전(86건) 그리고 EU는 화학·세라믹(238건)에서 무역기술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식물위생검역조치(SPS)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조치 건수가 각각 846건(누적), 703건으로 가장 많고, 조치내용의 대부분은 식품안전에 대한 사항으로 집계되었다. 반덤핑을 중심으로 한 무역구제의 경우에도 미국(규제중 24건, 조사중 6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외 인도(24건), 호주(13건) 순으로 규제중인 건수가 많았고, 터키(4건), 캐나다·호주·중국·인도(3건) 순으로 조사중인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철강(규제중 84건, 조사중 9건), 화학(규제중 20건, 조사중 5건), 플라스틱·고무(규제중 19건, 조사중 8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2-3> 미국과 중국의 TBT 통보 건수



다. 1억달러 이상 단일 수출품목 분석

경기도의 2017년 총 수출액은 약 1,241억 달러로 전체 수출국가 수는 총 228개국, 총 수출품목 수는 4,548개(HS10단위)이다. 단일 품목으로 1억 달러 이상 수출한 품목은 총 138개이며, 전체 수출품목 수의 약 3.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억 달러 이상 수출품목의 총 수출액은 약 1,014억 달러이며, 이는 경기도 총수출의 81.7%를 차지하고 중국 등 24개 국가에 한정되어 수출되었다. 특히 1억 달러 이상 수출품목 대부분은 전기전자 품목이며, 화성시와 광명시의 경우 전기전자 품목 이외에 자동차 및 관련 품목의 높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억 달러 이상 수출품목을 보유한 시군은 용인(8개 품목, 198억 달러), 이천(10개 품목, 121억 달러), 평택(21

개 품목, 79억 달러), 파주(12개 품목, 65억 달러), 화성(22개 품목, 48억 달러) 등 총 17개 시군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억 달러이상 수출한 품목 138개 중 최대 수출 품목은 전자집적회로(HS854232)이며, 약 258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해당 품목은 경기도 총 수출액의 25.5%를 차지하며, 해당 품목을 수출한 경기도 시군은 용인, 이천, 평택, 수원이었다.

1억 달러 이상 수출하는 국가들을 검토해보면, 중국에 약 340억 달러(홍콩 포함시 375억 달러)를 수출하여 1억 달러 이상 수출 품목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5%, 경기도 전체 수출액에서는 약 2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¹⁸⁾ 중국 다음 수출국은 미국(77억 달러), 베트남(47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나 규모면에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심하고, 중국발 경제적 외부충격에 따라 경기도 경제가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미중 통상갈등과 경기도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경기도의 주력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수출 과반 이상이 중국·홍콩으로 수출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중국제조 2025’ 국가 전략과 맞물려 한국의 반도체 등 전기전자 품목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⁹⁾ 미중 통상갈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이며, 이러한 통상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 중심의 생산네트워크에 깊이 편입되어 있는 한국 경제에도 직간접적 악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미중 통상갈등에 따른 경기도와 각 시군별 주력 업종의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정하여 장기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미중 통상갈등이 경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1)미중 통상갈등에 따른 중간재 및 최종수요 감소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2)그 다음으로 WIOD 2014의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한국의 업종별 대중국, 대미국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 감소를 추정하였다.²⁰⁾ (3)마지막으로 해당 업종별 경기도의 수출비중과 시군별 수출비중

18) 국가별 분포 등 자세한 내용은 부록 III의 가, ‘1억 달러 이상 주력 수출품목 분석’ 참조(p.293).

19) ‘중국제조 2025’는 2015년 5월 18일 중국 국무원이 제조업 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산업정책. 중국 경제는 정부주도의 설비투자 확대와 가공무역 수출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환경오염, 통상마찰 등 부작용 발생. 중국을 인공지능(AI), 로봇, 정보통신, 청정에너지 자동차 등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발전시키겠다는 시진핑 정부의 청사진으로 이 과정에서 기계,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전통산업을 구조조정하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감에 따라 2015년부터 30년간 추진될 예정.

20)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계산업연관표는 The World Input Output Database(WIOD) Project에서 개발한 것으로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EU 27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0개

을 고려하여 피해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된 배경은 세계화의 진전과 다국적 기업의 성장 등으로 인해 글로벌생산네트워크가 더욱 분업화됨에 따라 국가 간 교역 총액에서 중간재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간 교역을 총액으로 기록하는 기존 무역통계는 중간재 거래액이 이중으로 계상됨에 따라 국가 간 교역이 개별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한계를 가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Linden et al.(2009)은 구체적인 예로 미화로 300달러 정도의 가격에 수출되는 iPad 안에 내재된 부가가치를 각 국가별로 분류하였을 때 실제 iPad를 수출하는 중국이 가져가는 부가가치는 불과 몇 달러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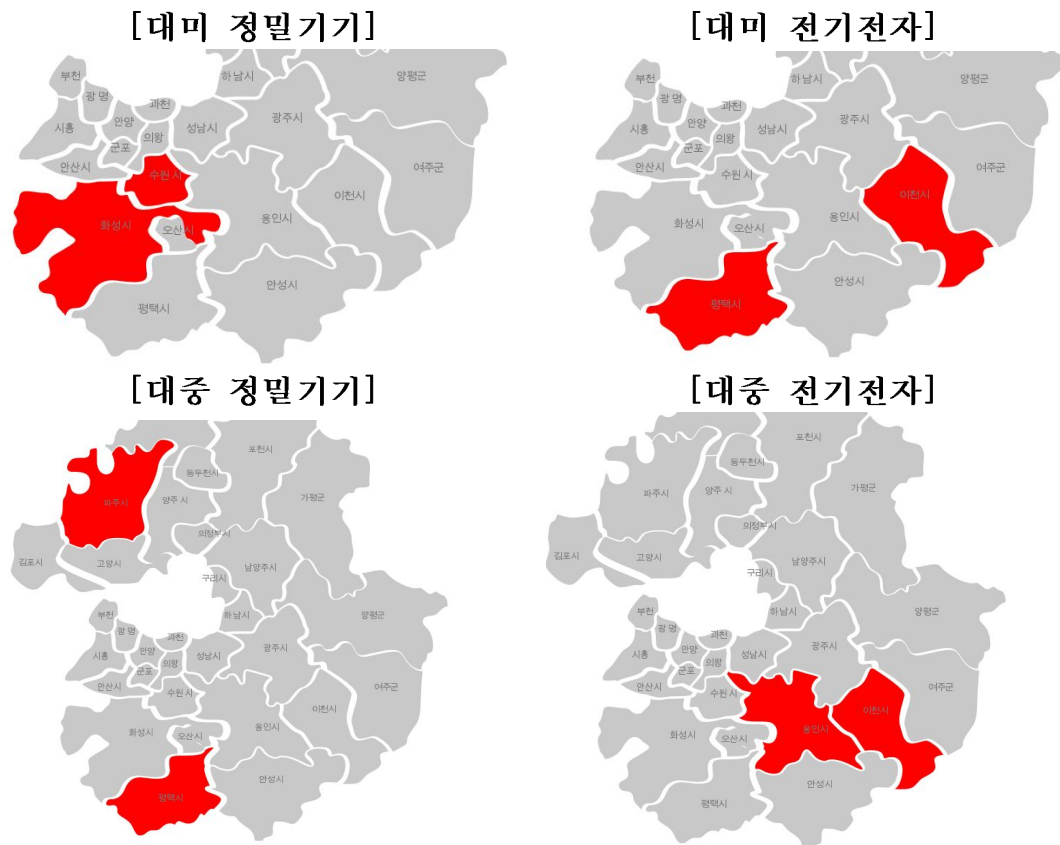
좀 더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에 기초한 교역액 계상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우선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유통마진과 물류비용이 없다고 가정하자. 만일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중간재를 개당 6원에 수입한 후, 자본과 노동을 각각 개당 2원씩 투입하여 최종재를 생산한다면, 최종재 가격은 단위당 10원이 된다. 이를 한국이 10개 생산하여 2개는 내수로, 8개는 미국에 수출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총액은 80원이 되나 실제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 수출은 총 32원($=8\text{개} \times 4\text{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48원($=80\text{원}-32\text{원}$)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 가격($48\text{원}=8\text{개} \times 6\text{원}$)이며, 이는 중국의 대한국 수출액에 이미 반영된 부분으로 결국 총수출액으로 전세계 수출액을 계상하는 경우 중간재 수출액(여기서는 48원)이 중국과 한국 수출에 이중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며, 실제 한국의 수출은 부가가치 수출액인 32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수출총액은 80원으로 계상되어 한국의 소득은 과대계상될 여지가 있다. 더욱이 중국 입장에서 주요 교역국가는 중간재 수요자인 한국이 아니라 최종재 수요자인 미국이 보다 더 중요한 교역상대국이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상황에 따라 소비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총수출액으로 교역액을 계상하는 경우 이를 파악할 수 없고, 통상정책이 오류에 봉착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가 간 생산의 분업화(international specialization)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연계성(interconnectedness)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국제 무역이 성장, 고용 등 거시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 통계를 보완한 새로운 측정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관련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다.

국과 나머지 전 세계(Rest Of the World 또는 ROW)의 총 41개국 간의 중간재와 최종재의 수출입을 국가별, 산업별로 연결. 또한 산업은 EU에서 사용되는 NACE Rev.1을 따라 35개로 분류하였고 이 중에 14개가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분석결과 미중 통상갈등에 따라 한국의 부가가치 수출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대미 보다 대중 수출 감소율이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중간재 및 최종수요가 50%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대미 부가가치 감소율이 큰 업종은 1차 금속제품, 정밀기기(컴퓨터, 광학기기) 등으로 추정되었고, 대중의 경우, 정밀기기(컴퓨터, 광학기기), 전기전자, 섬유가죽 등의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대미의 경우 부가가치 감소율이 큰 정밀기기는 수원·화성이 -0.027% 감소하며, 전기전자는 이천(-0.034%), 평택(-0.031%) 순으로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 악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의 경우 정밀기기는 파주(-0.819%)가 가장 크게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 평택(-0.166%), 화성(-0.053%)의 순으로 추정된다. 전기전자의 경우 용인(-0.386%), 이천(-0.134%), 평택(-0.064%), 안산(-0.037%) 등의 순으로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4> 대미·대중 정밀기기 및 전기전자산업 피해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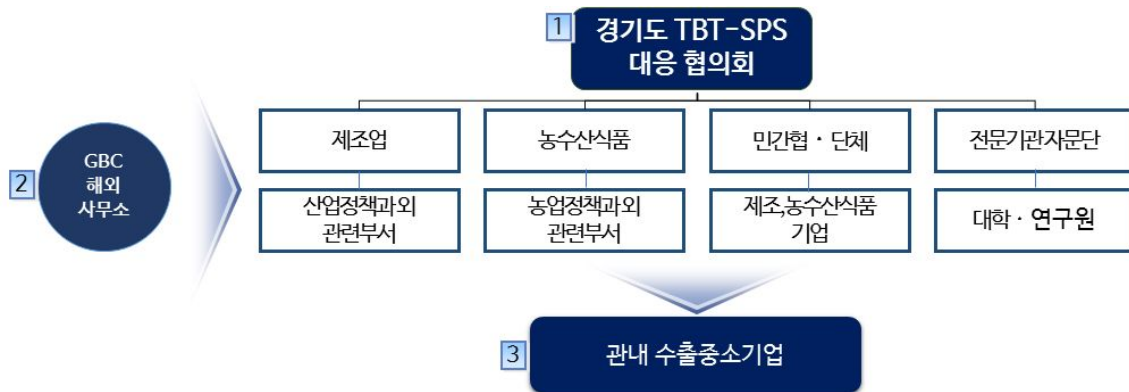


4. 경기도의 TBT-SPS 대응방안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해외 비관세장벽에 관한 정부협의체와 민관협의체를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정부 내 협의체의 경우 무역대표부(USTR) 내 무역정책실무협의체와 그 산하에 TBT 관련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TBT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1년에 3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이슈 발생 시 별도의 비공식 협의 및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민관협의체의 경우 무역대표부와 상무부가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미국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정책개발 및 협상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계, 분야별 협회 및 단체, 전문가 등 약 18명 내외로 구성하고, 운영방식은 분야별 소위를 운영하며, 연간 횟수에 제한 없이 회의를 개최하고 비관세장벽 관련 분야별 실질적인 정보 제공 및 의견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업자는 무역 관련 불만 호소 핫라인을 통해 해외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TBT 중앙사무국에서 총괄 대응하고 있다. TBT 중앙사무국은 TBT 대응 컨소시엄이라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부처와 업계 공동으로 관련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하고 있다. 전기·전자, 화학·생활, 기계·금속, 식·의약품 등 산업분야별 19개 협·단체, 기업, 시험기관 등 총 27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TBT-SPS에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관세청의 해외통관지원센터에 해당 내용을 접수하고 있으나, 해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TBT-SPS 관련 국제회의 등에 기술표준원이 대표성을 갖고 참석하지만, 농수산물, 식품 등에 대해서는 기술표준원보다 농림수산당국이 대응하고 있으며, 문제 제기를 받을 경우 사안에 따라 대응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수출자의 수출애로가 수입국이 적법한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인가에 대한 법률 및 실무적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속성상 TBT-SPS 해결에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대부분 정부간 통상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TBT-SPS 문제 직면시 가급적 정부의 관련 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을 경기도 기업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2-5> 경기도 TBT-SPS 대응협의회 구성·운영



중소기업들이 중앙정부의 TBT 중앙사무국에 접근하는데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이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경기도수출지원센터에 부여하고, 경기도의 주요 교역국가인 중국과 미국 중심의 비관세장벽 조치에 관한 정보수집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수출지원센터’(제VI장 논의)가 ‘경기도 TBT-SPS대응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협의회 구성은 앞서 소개한 사례를 참조하여 경기도 제조업·농수산물 부서와 민간협회 및 단체 그리고 전문기관의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정부의 TBT 및 SPS 대응기관, 외교부, KOTRA 등의 비관세장벽 조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TBT-SPS 대응협의회 정기 안건으로 상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안건 유형과 시급성에 따라 정기 혹은 수시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한 후, 관내 수출중소기업에게 전파·확산하여 주요 수출 국가들의 비관세장벽 조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제 III 장. 세계통상현안 분석과 경기도 수출입에 대한 영향

최근 몇 년 사이 미중 통상갈등,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세계무역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행히 한미 FTA 개정협상은 픽업트럭(SUB)을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고, 우리나라 통상당국은 남미공동시장과의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했다. 또한 CPTPP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가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세계통상현안 분석과 경기도 수출입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고, 이들 이슈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미·중 통상갈등

가. 배경

‘위대한 미국 재건’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집권하게 된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공약실현에 나섰고, 전통적인 우방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위상에 도전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에 돌입하였다. 상대국의 대응이 곤란하도록 상대국의 약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무역조치를 연쇄적으로 발동하여 상대국의 기선을 제압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게이트 등 국내 정치현안을 덮고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중국 강경정책을 유지하고, 2년 후 재선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구조를 재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중간선거를 전후하여 고위 당국자의 언급을 종합하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완전히 따돌리기 위한 목적이 깔려있다.

중국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조치 이행과 국유기업의 비시장경제적 관행 시정 조치를 받아내 중국의 발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꿈(中國夢)’과 ‘중국굴기’를 내세우며 2013년 중국 최고지도자로 등극한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헌장에 반영시킨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중국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특히 미국과 대등

한 국제관계를 수립해야 국내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은 과거와 달리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조치에 상응하는 대응조치, 즉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12월 초 부에노스아이레스 세계 주요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90일간 상호 무역보복을 자제하고 협상을 통해 통상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언론에서는 ‘휴전’을 언급하고 있으나, 금년 중 발동된 조치는 그대로 두고 내년에 25%로 인상하는 관세를 3월초까지 유예한다는 것이다. 비록 협상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합의, 즉 ‘중전’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미국은 중국의 비시장경제 요소 철폐를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국영기업의 역할을 현저하게 줄이는 것은 현재의 정치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중국이 수용하기 어렵다. 지난 12월 18일 ‘개방개혁 4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게 줄 양보안을 언급할 것이란 예상과 반대로 그동안 중국 경제성장의 실적과 체제의 장점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더구나 시진핑 정부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 ‘중국제조 2025’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1단계(2025년)까지 일본과 독일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3단계(2045년)에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산업기술국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기술발전을 위해 외국의 기술기업을 인수하거나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표 3-1>에서 보듯이, 제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의 경우, 2020년까지 응용분야에서 세계 수준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2030년에는 이론분야를 포함한 전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로 발전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표 3-1>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목표와 주요 내용

기간	전략 목표	주요 내용
2020년	기술 및 응용 세계 선두권	인공지능 기술 표준 및 서비스 체계 구축
		글로벌 선도 기업 육성, 핵심 산업 규모 1,500억 위안 초과, 관련 산업 규모 1조 위안
		인공지능 정책 규범 마련 등
2025년	인공지능 이론 발전	새로운 인공지능 연구 성과 확보
		제조, 의료, 도시, 농업, 국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핵심 산업 규모 4,000억 위안 초과, 관련 산업 규모 5조 위안
2030년	인공지능 이론 및 기술, 응용 전 분야 세계 선두	인공지능 법률 규범 및 이론 범위 체계 구축 등
		뇌 알고리즘, 스마트제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과 확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확보, 핵심 산업 규모 1조 위안, 관련 산업 규모 10조 위안
		인공지능 법률, 법규, 정책 체계 완성 등

자료: 국내대책본부(2018)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셜 301조를 발동하여 중국의 기술획득에 제동을 걸고 있다.²¹⁾ ‘중국제조 2025’는 현 중국 정부의 대외정책인 중국굴기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잔재로 중국당국이 ‘중국제조 2025’ 기업에게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고,²²⁾ 중국특색사회주의경제질서가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기술 탈취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미국은 스페셜 301조를 발동한 것이다. 더 나아가 USMCA에서는 비시장경제(즉 중국) 국가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차단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나. 중국의 대응과 예상 시나리오

무역불균형 시정, 불법기술탈취 중단 등을 대중국 무역제재의 명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패권경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의 등을 통해 통상갈등 완화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미중 통상갈등은 패권경쟁 구도이므로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지식재산권 보호 위반을 이유로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동일한 금액으로 미국의 조치에 보복대응하였다. 이어 2천억달러 중국산 상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7월 11일 발표하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1,300억달러에 불과한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응할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8월 1일 2천억달러 10% 관세를 25% 인상으로 검토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에 지시하자, 이틀 후인 3일 중국 상무부는 600억달러 미국산 제품에 대해 5~25%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하였다.²³⁾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에서 ‘90일간 휴전 협상’을 합의했지만 앞으로 미·중 간 전개될 통상갈등 양상을 예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어느

21) 스페셜 301조는 지식재산권 보호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미국의 국내법

22)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장악하는 걸 목표로 한다. 중국은 민간 기업이 10대 산업에 투자할 때 지방정부와 공기업에서 최대 8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쓰일 돈만 3000억달러(약 320조7000억원)로 추정되고 있다. 또 기업이 이들 산업에서 전략 제품을 개발하면 개발 후 최초 매출도 보장해 준다.”(한국경제신문, “중국, '제조 2025' 전략으로 첨단산업 석권 야망”, 2018년 4월 16일자)

23)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 비스켓, 자동차타이어 등 2,493개 품목에 대해 25%, 냉동딸기, 껌, 초콜릿, 골프공, 연필 등 1,078개 품목 20%, 냉동 옥수수, 닭가슴살 등 974개 품목 10%, 아동 그림책 등 662개 품목은 5%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당초 발표와는 달리 미국은 5~10% 관세를 적용하였음.

국가도 쉽게 양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은 중국 공산당 창설 100주년이 되고, 2020년에는 미국에서 대선이 있게 되므로 정치일정으로도 미중 모두 양보가 어렵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언론과 일부 학자의 지적을 제외하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 거의 없다.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통상갈등의 참상을 인식하고 있어 미·중이 관세폭탄을 주고 받다가 명분을 만들어 극적으로 타협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밖 협상 전술’로 보면 중국과 같이 대응보복하는 국가에 대해 통상갈등을 불사할 가능성이 높다.²⁴⁾

향후 미·중 통상갈등 경로에 대해 몇가지 방향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미·중 양국이 서로 양보해 갈등을 봉합하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고, 이 안이 바람직하겠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느 쪽도 양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양보를 예상해 볼 수 있다. 미·중 갈등으로 양국 모두 피해를 보게 되지만, 중국이 더 불리하다는 점에서 중국이 양보하는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시나리오는 상호보복으로 세계대공황과 같은 최악의 상황 발생도 가능하다.²⁵⁾

두번째 예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명분 축적이 필요하다. 5년전 최고 통치자로서 등극하면서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고, 2018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회(전인대)에서 중국의 최고 이념인 공산당 헌장 수정으로 주석직의 임기까지 삭제하면서 ‘강한 중국’ 건설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는데, 미국에게 굴복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제3의 시나리오를 확신하기도 어렵다. 정치적인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악재에도 불구하고 11월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선방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통상정책을 들 수 있다.(선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자평) 국내 정치스캔들을 극복하기 위해 통상갈등을 이슈화하여 미국 국민들의 이목을 돌려야 하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중국을 불공정무역관행 국가로 응징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중국은 현재의 관세전쟁을 통상갈등으로 대미 보복의 패러다임

24)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밖 협상 전략을 “미치광이 이론(Crazy Man Theory)”으로 묘사하고 있음. 미치광이 이론은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북베트남군을 제압하기 위해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화력을 집중하도록 한 닉슨 대통령의 전략에서 비롯된 것임.

25) 미국의 Smoot-Hawley 법이 통과되자 캐나다와 유럽국가들이 무역보복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이후 4년동안 미국의 수출은 61% 떨어졌고, 미국 GNP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세계 75개 국가의 수입은 1929년의 1/3 수준으로 떨어져 세계경제는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게 되었음.

을 바꾸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관세 부과를 관세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를 대상으로 비관세장벽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에서 봤듯이,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할 수 있는 비관세조치는 적지 않다.

다. 한국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대중국 무역수지적자 규모 축소와 세계 최강의 제조업 지위 회복을 강조해 온 미국은 ‘중국제조 2025’를 통한 중국 제조업 발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몽 실현을 위해 중국은 제조업 육성 전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의 통상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어 양국 간 대화로 일시적인 타협은 가능하지만 미·중 간 통상갈등은 불가피하고 장기화될 것이다.

미·중 통상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우리 통상당국은 예상했었다. 미·중 갈등을 양국 간에 한정된 무역문제로 인식했고, 전례에 따라 일시적인 갈등 후 봉합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제3국 입장에서 미·중 갈등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우리 통상당국은 연구기관의 낮은 피해 추정치(총 수출의 0.1% 감소)에 안도했을 수 있다.²⁶⁾

하지만,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관세장벽과는 별도로 비관세장벽을 적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위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다. 비관세장벽은 미국 기업에게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차별적인 조치로 인한 법적 공방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기업에게 적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출과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지 못하면 중국 경제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국유기업의 부채 누적(GDP 168%), 그림자금융(제2금융권, GDP의 62%) 부실 가능성, 부동산 버블 등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리스크가 많은 가운데, 미·중 갈등이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게 되면 중국 경제의 리스크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참고로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8%, 경상수지 흑자의 절반을 창출하는 시장이다.

만약 미·중이 대화로 통상갈등을 봉합하더라도 우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26) 우리나라의 대중 전체 수출과 미국으로 우회수출 구조 등을 고려하여 무역연구원은 대중 수출 감소액이 1.9억달러(0.1%)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비슷한 방식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출 감소액을 5.9억달러(0.4%)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들 전망은 지나친 낙관론이 아닐 수 없음.

아무런 조건 없이 통상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것이며, 최소한 미국은 중국이 대미 무역수지흑자를 대폭 줄이는 조건을 요구할 것이다. 중국이 대미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품목은 자본재일 가능성이 높고, 일반 소비재 수입 가능성은 낮다. 자본재는 중국이 많이 수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제3국산 수입이 미국산으로 대체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18%가 자본재인데, 대중국 자본재 수출이 막히면 국내 제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대미 수출을 줄이는 대신 제3국 수출을 늘리면서 제3국에서의 수출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만약 위엔화 가치가 평가절하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만약 미·중이 전면적인 통상갈등을 불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피해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미·중에 대한 수출 비중이 40%대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다른 국가들이 보복무역을 하게 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피해(GDP 기준)가 세계에서 가장 클 수 있음을 페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Bown and Kolb 박사가 전망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교수 역시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다. 세계 평균 관세가 현재 10%에서 40%대로 인상되면 세계 무역은 지난해의 1/3로 낮아지고, 우리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Byrne(2018)은 세계 평균 관세가 현재의 10%에서 20%로 인상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과 GDP가 각각 506억 달러와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통상갈등을 지속할 경우 당사국 못지않게 우리 경제의 피해 규모도 엄청나게 클 수 있다. 미·중 통상갈등을 양 당사국 간 갈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피해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중에 대한 수출기회가 생기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단기적으로 수출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에 비교하면 수출 이익은 미미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7%(2017년 기준)²⁷⁾가 중국과 미국으로 향하고 있고, 중국 현지에서의 가공무역을 위한 원부자재의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중 통상갈등은 국내 중소기업의 영업에 결정타가 될 수 있다. 국내 제조업의 가치사슬체계가 중국과 맞물려 있는 측면이 많아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는 국내 산업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중 통상갈등은 장기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 예상 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7) 2018년 1~10월 누적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38.8%임(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계량경제 모형으로 추정되지 않는 손실도 적지 않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 확산, 교통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자유로운 국제통상환경으로 글로벌가치사슬(GVC)이 확산·심화되어 왔고, 만약 현재와 같은 통상갈등이 1-2년 지속되면 GVC에 입각한 국제분업 구조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경제 규모에 비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것은 GVC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GVC가 훼손된다면 통상갈등의 피해액 계산은 관세를 인상의 몇 배에 달할 수 있다. G2 통상갈등에 대해 우리나라 산업통상당국이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며, GVC 훼손에 대한 대응책은 정부보다는 기업이 마련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통상이슈의 현황과 파급영향을 기업들에게 널리 알려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상갈등으로 수출 시장이 위축되므로 생산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나마 부품조달이 용이한 지역으로 생산설비의 이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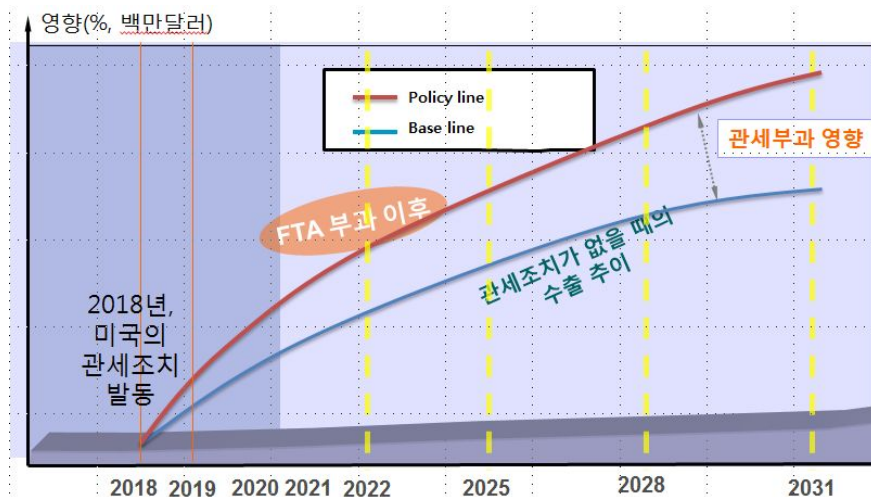
라. 경기도 산업의 수출입 영향 추정

미·중 통상갈등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통상환경의 변화나 통상정책의 변화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주로 부분균형모형(과거)이나 일반균형모형(최근)을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오늘날과 같이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었기에 모형 사이즈가 작은 부분균형모형이 사용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개인용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일반균형모형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일반균형분석은 일반균형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분석방법으로, 정부, 기업,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이 서로 맞물려 계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다른 주체에게 영향을 주고, 최종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고 모든 시장균형이 달성되는 상황에서 계산결과(해, solution)를 도출하게 된다. 모형에는 노동과 자본의 일치함수, 국내생산 재화의 균형조건, 수입상품시장에 대한 균형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에는 왈라스(Leon Walras)와 파레토(Pareto)의 일반균형이론이 뒷받침되었고, 이론의 추가적인 발전과 컴퓨터 성능 발전으로 동태적인(dynamic)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으로 동태 GTAP모형(RunDynam)을 사용하였다. 동태 모형은 관세부과 외에 FTA 체결, 비관세장벽 개선이나 무역원활화 등의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RunDynam모형은 Hertel, Walmsley & Itakura(2001) 및 Ianchovichina, and Walmsley(2012) 등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국내외 다수 연구에 사용된 바 있다. 분석 시나리오에 따라 특정 시점에서의 영향을 추정할 수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특정 시점의 정책변화를 관세화한 수치로 모형에 적용시키게 되면 기존 수출 추이(base line)와 다른 policy line을 계산하고 policy line과 base line 간 차이가 정책변화의 영향이 된다.

<그림 3-1> 대외통상환경 변화 혹은 통상정책 영향 추정 모형



미중 통상갈등을 다음과 같은 3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할 수 있다.

- 시나리오 1: 미중간 관세전쟁에 한정되는 경우. 제3국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란 가정
- 시나리오 2: 미중간 관세전쟁, 제3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미국이 다자형식으로 추가 관세 부과
- 시나리오 3: 미중간 관세전쟁, 제3국에 대한 미중의 추가 관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가정

<표 3-2> 계량 분석 시나리오

시나리오	가정	비고
시나리오 1	미중이 25% 관세 부과(전산업)	단기적 상황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 + 제3국에 대한 미국의 10% 관세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 제3국에 대한 미중의 10% 관세	가능성 높음

시나리오 1: 미중간 관세전쟁에 한정되는 경우

미-중이 상호간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경기도 대미국 수출에 긍정적 효과가 미칠 것으로 분석되며, 대표적인 산업으로 전기전자, 정밀기기, 기계장비 제조업이다. 반면, 경기도 대중국 수출은 미국과 동일한 산업에서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대미국 수출은 전기전자 제조업 48억 3,600만달러, 정밀기기 제조업 1억 8,900만달러,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억 1,600만달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국 수출은 전기전자 제조업 9억 7,600만달러, 정밀기기 제조업 5,700만달러,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700만달러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3> 시나리오 1: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기도 수출입에 대한 영향

(단위: 백만달러, 2031년 기준)

KSIC	2017년 실적				영향(변동액)			
	미국		중국		미국		중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농림수산업	20	521	23	206	1	24	4	1
음식료업	149	1,419	174	589	11	-3	8	21
목재/종이/인쇄	138	250	74	341	38	-5	-1	19
섬유, 가죽제품	213	289	438	1,713	158	-33	-13	72
석탄, 석유제품	5	1,335	70	13	0	-49	0	1
화학제품	949	2,126	3,180	3,349	93	-78	15	246
1차 금속제품	791	245	610	2,119	112	-10	-4	116
금속제품	328	201	436	851	46	-8	-3	46
비금속광물제품	119	183	112	828	33	-3	-1	45
전기, 전자기기	6,033	4,256	30,029	18,718	4,836	-733	-976	1,190
정밀기기	564	6,427	6,739	1,490	189	-361	-57	86
기계 및 장비	1,539	1,825	4,332	2,160	516	-102	-37	124
운송장비	3,039	301	565	404	119	-12	18	22
기타 제조업	148	165	125	1,285	41	-3	-2	70
광업	1	183	12	89	0	-3	0	5
합계	14,036	19,726	46,918	34,155	6,193	-1,378	-1,048	2,065

시나리오 2: 미중간 관세전쟁, 제3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시나리오 2에서는 미-중이 25% 관세를 부과하며, 제3국에 대한 미국의 10% 관세가 부과되면서 제3국의 대미국 수출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대미국 수출이 줄어들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전기전자, 기계장비, 운송장비 제조업을 들 수 있다. 반면 대중국 수출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며, 대표적으로 전기전자, 정밀기기, 기계장비 산업이 해당된다.

대미국 수출은 전기전자 제조업 8억 5,900만달러,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억 2,500만달러, 운송장비 7억 8,7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고, 대중국 수출은 전기전자 제조업 2억 2,500만달러, 정밀기기 제조업 2억 3,700만달러,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억 5,200만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4> 시나리오 2: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기도 수출입에 대한 영향

(단위: 백만달러, 2031년 기준)

KSIC	2017년 실적				영향(변동액)			
	미국		중국		미국		중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농림수산업	20	521	23	206	-6	-20	4	6
음식료업	149	1,419	174	589	-38	-309	8	17
목재/종이/인쇄	138	250	74	341	-31	-66	1	8
섬유, 가죽제품	213	289	438	1,713	-31	-129	1	13
석탄, 석유제품	5	1,335	70	13	-1	-725	2	1
화학제품	949	2,126	3,180	3,349	-221	-1,156	85	143
1차 금속제품	791	245	610	2,119	-230	-98	14	61
금속제품	328	201	436	851	-95	-80	10	24
비금속광물제품	119	183	112	828	-27	-48	2	21
전기, 전자기기	6,033	4,256	30,029	18,718	-859	-2,418	225	577
정밀기기	564	6,427	6,739	1,490	-156	-2,607	237	75
기계 및 장비	1,539	1,825	4,332	2,160	-425	-740	152	109
운송장비	3,039	301	565	404	-787	-113	47	22
기타 제조업	148	165	125	1,285	-33	-44	2	32
광업	1	183	12	89	0	-49	0	2
합계	14,036	19,726	46,918	34,155	-2,941	-8,602	790	1,110

시나리오 3: 미중간 관세전쟁, 제3국에 대한 미중의 추가 관세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중이 25% 관세를 부과하고, 제3국에 대해 미중 모두가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제3국의 수출이 시나리오 2에서보다 더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는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제조업 등이다. 반면 중국의 수출은 미국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며 대표적인 산업은 전기전자, 정밀기기,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미국 수출은 화학제품 1억 9,700만달러, 1차금속제품 1억 9,600만달러, 기계 및 장비 3억 1,100만달러, 운송장비 6억 8,1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출은 전기전자 62억 9,100만달러, 정밀기기 12억 7,600만달러,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억 2,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 3-5> 시나리오 3: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기도 수출입에 대한 영향

(단위: 백만달러, 2031년 기준)

KSIC	2017년 실적				영향(변동액)			
	미국		중국		미국		중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농림수산업	20	521	23	206	-6	-25	-2	-1
음식료업	149	1,419	174	589	-36	-321	-25	-20
목재/종이/인쇄	138	250	74	341	-23	-68	-10	-23
섬유, 가죽제품	213	289	438	1,713	-16	-124	-105	-115
석탄, 석유제품	5	1,335	70	13	-1	-734	-12	-2
화학제품	949	2,126	3,180	3,349	-197	-1,169	-527	-632
1차 금속제품	791	245	610	2,119	-196	-94	-114	-232
금속제품	328	201	436	851	-81	-77	-81	-93
비금속광물제품	119	183	112	828	-20	-50	-15	-55
전기, 전자기기	6,033	4,256	30,029	18,718	-74	-2,284	-6,291	-2,128
정밀기기	564	6,427	6,739	1,490	-114	-2,484	-1,276	-139
기계 및 장비	1,539	1,825	4,332	2,160	-311	-706	-820	-201
운송장비	3,039	301	565	404	-681	-112	-67	-32
기타 제조업	148	165	125	1,285	-25	-45	-16	-85
광업	1	183	12	89	0	-50	-2	-6
합계	14,036	19,726	46,918	34,155	-1,781	-8,342	-9,363	-3,765

마. 경기도 시군의 주요 영향 품목

시나리오별 경기도 수출입에 대한 영향은 <표 3-6>에 제시되어 있다. 미중 간 추가관세 부과시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수출을 62억달러 늘리게 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21억달러 늘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대한 수출을 줄이고 미국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 중국산 부품 수입을 늘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나리오 2에서 미국이 제3국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대신 중국과의 교역이 활성화된다. 다만, 대중국 교역 확대 규모는 대미국 위축 규모보다 훨씬 작게 되어 결과적으로 경기도 경제에 부담이 된다. 미중이 모두 제3국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기도의 수출과 수입은 최소 230억달러 줄어들게 되어 지역 경제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3-6> 시나리오별 영향 종합

(단위: 백만달러, 2031년 기준)

구분	영향(변동액)			
	미국		중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시나리오 1	6,193	-1,378	-1,048	2,065
시나리오 2	-2,941	-8,602	790	1,110
시나리오 3	-1,781	-8,342	-9,363	-3,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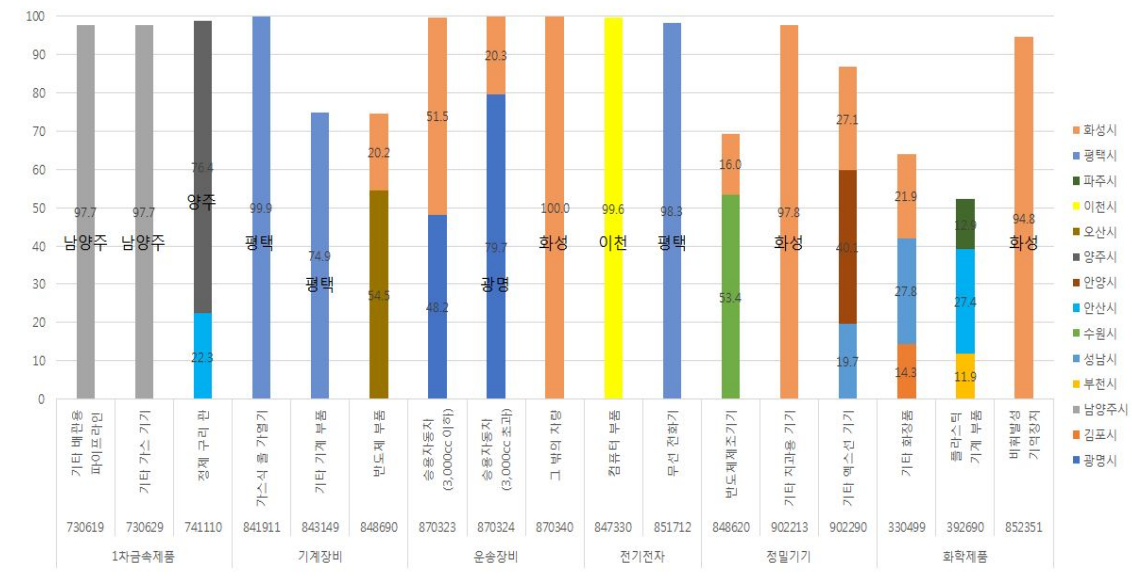
1) 영향 분석

가) 수출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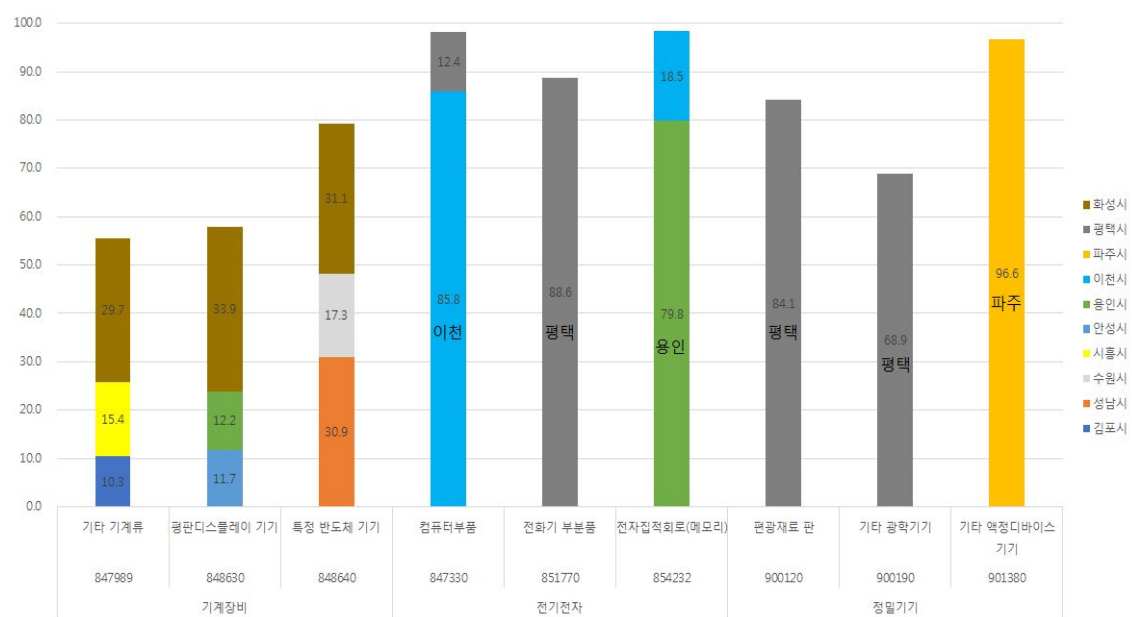
3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대미국 수출영향은 화학제품, 1차금속제품, 전기전자, 정밀기기, 기계장비, 운송장비 제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중국 수출영향은 전기전자, 정밀기기, 기계장비 제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별 대중국 수출은 영향 차이만 있을 뿐 전기전자, 정밀기기, 기계장비 산업에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시나리오 1과 3의 경우,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며, 시나리오 2의 경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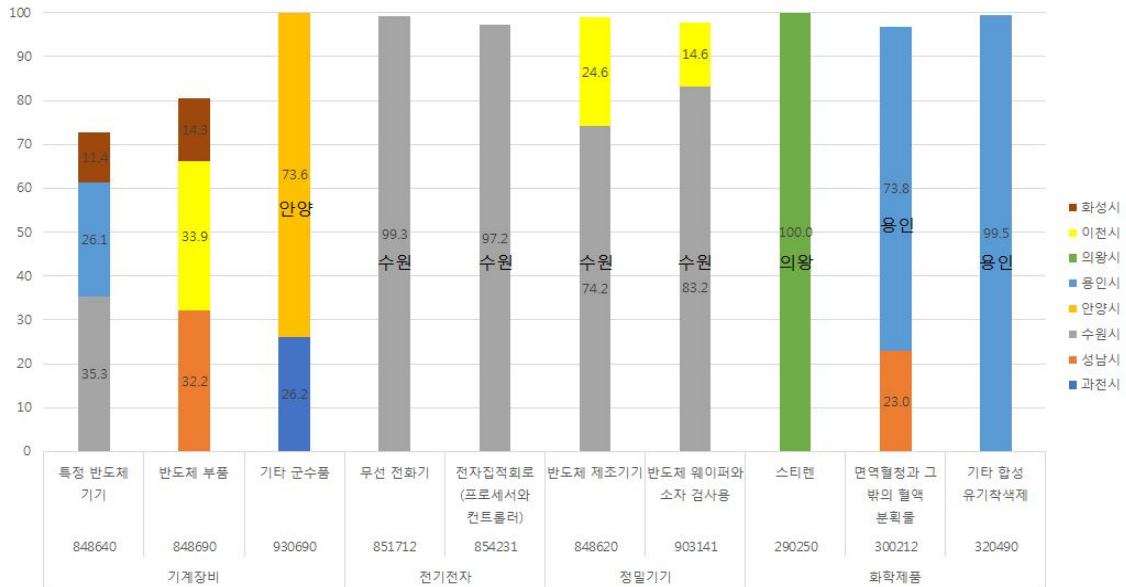
<그림 3-2> 경기도 대미수출 시군별 영향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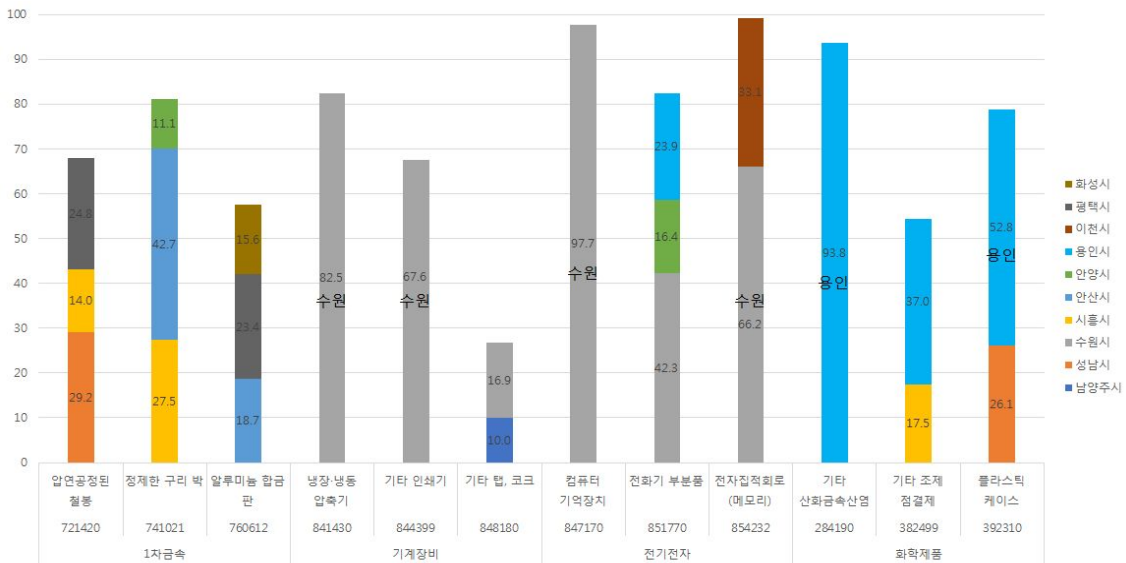
<그림 3-3> 경기도 대중수출 시군별 영향 품목



<그림 3-4> 경기도 대미수입 시군별 영향 품목



<그림 3-5> 경기도 대중수입 시군별 영향 품목



대미 수출 중 경기도 화학제품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기타 화장품(HS330499), 기타 플라스틱 기계용 부분품(HS392690), 비휘발성 기억장치(HS852351)이다. 기타 화장품(HS330499)은 2017년 8,100만달러 수출되었으며, 화학제품 산업 중 8.5%를 차지하고 있다. 김포시(14.3%), 성남시(27.8%), 화성시(21.9%)에서 주로 수출된다. 기타 플라스틱 기계용 부분품(HS392690)은 5,500만달러 수출되었으며, 5.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 규모가 큰 시군은 부천시, 안산시, 파주시로 각각 11.9%, 27.4%, 12.9%를 차지하고 있다. 비

휘발성 기억장치(HS852351)는 4,900만달러로 화학제품 산업 중 5.1%를 차지하며, 화성시가 94.8%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대미 수출 중 1차금속제품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기타 철강으로 만든 관(HS730629), 기타 배관용 파이프라인(HS730619), 정제한 구리 관(HS741110)이다. 기타 철강으로 만든 관(HS730629)은 1차 금속제품 산업 전체 대비 29.9%를 차지하며, 2억 3,600만달러로 수출되고 있다. 이 품목의 주요 수출 시군은 남양주시이며 2억 3,100만달러로 97.7%의 비중을 차지한다. 기타 배관용 파이프라인(HS730619)은 1억 5,500만달러로 19.6%를 차지하며, 이 품목 또한 남양주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비중은 97.7%이다. 정제한 구리 관(HS741110)은 5,400만달러로 6.8%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로 안산시(22.3%), 양주시(76.4%)에서 수출하고 있다.

대미 수출 중 경기도 전기전자 산업의 주요 품목은 컴퓨터 부품(HS847330), 무선 전화기(HS851712)이다. 컴퓨터 부품(HS847330)은 23억 4,200만달러로 전기전자 산업 전체 중 38.8%를 차지하며, 주요 수출 시군은 인천시로 99.6%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다. 무선 전화기(HS851712)는 16억 700만달러로 26.6%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수출 시군은 평택시로 전체 98.3%의 비중으로 경기도 무선 전화기의 생산기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 대미 수출 중 정밀기기 산업의 주요 품목은 반도체 제조기기(HS848620), 기타 엑스선 기기(HS902290), 기타 치과용 기기(HS902213)이다. 반도체 제조기기(HS848620)는 9,600만달러로 정밀기기 산업 중 17.1%를 차지하며, 주로 수출하는 시군은 수원시, 화성시임. 수원시는 53.4%, 화성시는 16%를 점유하고 있다. 기타 엑스선 기기(HS902290)는 11.2%의 비중을 차지하며, 6,300만달러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주로 성남시, 안양시, 화성시에서 수출하며, 각각 19.7%, 40.1%, 2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치과용 기기(HS902213)는 3,800만달러로 약 6.7% 비중을 차지하며, 화성시 수출이 97.8%로 사실상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대미 수출 중 경기도 기계장비 산업의 주요 품목군은 반도체 부품(HS848690), 물 가열기(HS841911), 기타 기계용 부분품(HS843149)이다. 반도체 부품(HS848690)은 3억 2,200만달러로 전체 기계장비 산업 중 20.9%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시군은 오산시, 화성시로 각각 54.5%, 20.2%로 양분되어 있다. 물 가열기(HS841911)는 8%의 비중을 차지하며, 1억 2,300만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기타 기계용 부분품(HS843149)은 1억 300만달러로 6.7% 비중을 차지하며, 두 품목군의 주요 수출 시군은 평택시이다. 물 가열기(HS841911)는 99.9%, 기

타 기계용 부분품(HS843149)은 74.9%로 높은 비중으로 수출되고 있다.

경기도 대미 수출 중 운송장비 산업의 주요 품목은 3,000cc 초과 승용차(HS870324), 그 밖의 차량(HS870340), 1,500cc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HS870323)이다. 3,000cc 초과 승용차(HS870324)는 전체 운송장비 산업 중 37.2%를 차지하며, 주로 기아차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광명시(79.7%), 화성시(20.3%)에서 수출하고 있다. 그 밖의 차량(HS870340)은 8억 2,900만달러로 27.3% 비중을 차지하며, 화성시에서 100%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 1,500cc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HS870323)는 3억 1,600만달러로 10.4%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수출시군은 광명시(48.2%)와 화성시(51.5)로 거의 두 시군에서 양분해서 수출하고 있다.

<표 3-7> 경기도 대미국 수출 영향 품목과 시군

(단위: 백만달러, %)

산업	품목별		2017 수출		시군별		
	HS6	품목명	금액	비중	시군	수출액	비중
화학제품	330499	기타 화장품	81	8.5	김포시	12	14.3
					성남시	22	27.8
					화성시	18	21.9
	392690	기타 플라스틱 기계용 부분품	55	5.8	부천시	7	11.9
					안산시	15	27.4
					파주시	7	12.9
1차금속제품	852351	비휘발성 기억장치	49	5.1	화성시	46	94.8
	730629	기타 철강으로 만든 관	236	29.9	남양주시	231	97.7
	730619	기타 배관용 파이프라인	155	19.6	남양주시	152	97.7
	741110	정제한 구리관	54	6.8	안산시	12	22.3
					양주시	41	76.4
전기전자	847330	컴퓨터 부품	2,342	38.8	이천시	2,332	99.6
	851712	무선 전화기	1,607	26.6	평택시	1,579	98.3
정밀기기	848620	반도체 제조기기	96	17.1	수원시	51	53.4
					화성시	15	16.0
	902290	기타 엑스선 기기	63	11.2	성남시	12	19.7
					안양시	25	40.1
	902213	기타 치과용 기기	38	6.7	화성시	17	27.1
기계장비	848690	반도체 부품	322	20.9	오산시	175	54.5
					화성시	65	20.2
	841911	가스식 물 가열기	123	8.0	평택시	123	99.9
	843149	기타 기계용 부분품	103	6.7	평택시	78	74.9
운송장비	870324	3,000cc 초과 승용차	1,130	37.2	광명시	901	79.7
					화성시	229	20.3
	870340	그 밖의 차량	829	27.3	화성시	829	100.0
	870323	1,500cc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	316	10.4	광명시	152	48.2
					화성시	163	51.5

주 1) 2017년 수출액의 비중(%)은 해당 산업에서 해당 HS코드가 차지하는 비중임.

주 2) 시군별 수출액 비중(%)은 해당 HS코드에서 해당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경기도 대중 수출 중 전기전자 산업의 주요 품목은 전자집적회로(HS854232), 전화기 부분품(HS851770), 컴퓨터 부품(HS847330)이다. 전자집적회로(HS854232)는 192억 7,300만달러로 64.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수출 시군은 용인시(79.8%)와 이천시(18.5%)이다. 전화기 부분품(HS851770)은 18억 7,400만달러로 6.2%의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수출시군은 평택시로 16억 6,100만달러이며, 이 품목은 경기도 전체 수출의 88.6%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컴퓨터 부품(HS847330)은 15억 8,300만달러로 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시군은 이천시와 평택시로 이천시의 경우 85.8%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대중국 수출 중 경기도 정밀기기 산업의 주요 품목은 기타 액정 디바이스 기기(HS901380), 편광재료로 만든 판(HS900120), 기타 광학기기(HS900190) 등이다. 기타 액정 디바이스 기기(HS901380)는 2017년 43억 4,000만달러로 수출되었으며, 64.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부분 LG디스플레이가 소재하고 있는 파주시에서 수출되며, 수출실적은 41억 9,500만달러로 96.6%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편광재료로 만든 판(HS900120)은 4억 8,500만달러로 7.2%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평택시에서 수출된다. 평택시의 수출액은 4억 800만달러로 84.1%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기타 광학기기(HS900190)는 3억 2,900만달러로 4.9%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수출시군은 평택시(68.9%)이다.

경기도 대중 수출 중 기계장비 산업의 주요 품목은 평판디스플레이 기계(HS848630), 기타 기계류(HS847989), 특정 반도체 기기(HS848640)이다. 평판디스플레이 기계(HS848630)는 12억 8,500만달러로 2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안성시(11.7%), 용인시(12.2%), 화성시(33.9%)에서 수출되고 있다. 기타 기계류(HS847989)는 6억 3,200만달러로 1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 시군은 김포시(10.3%), 시흥시(15.4%), 화성시(29.7%)이며, 특정 반도체 기기(HS848640)는 3억 8,500만달러로 8.9%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성남시(30.9%), 수원시(17.3%), 화성시(31.1%)에서 수출되고 있다.

<표 3-8> 경기도 대중국 수출 영향 품목과 시군

(단위: 백만달러, %)

산업	품목별		2017 수출		시군별		
	HS6	품목명	금액	비중	시군	수출액	비중
전기전자	854232	전자집적회로 (메모리)	19,273	64.2	용인시	15,388	79.8
					이천시	3,563	18.5
	851770	전화기 부분품	1,874	6.2	평택시	1,661	88.6
	847330	컴퓨터부품	1,583	5.3	이천시	1,358	85.8
정밀기기					평택시	196	12.4
	901380	기타 액정 디바이스 기기	4,340	64.4	과주시	4,195	96.6
	900120	편광재료 판	485	7.2	평택시	408	84.1
	900190	기타 광학기기	329	4.9	평택시	227	68.9
기계장비	848630	평판디스플레이 기계	1,285	29.7	안성시	150	11.7
					용인시	157	12.2
					화성시	436	33.9
	847989	기타 기계류	632	14.6	김포시	65	10.3
					시흥시	97	15.4
					화성시	188	29.7
	848640	특정 반도체 기기	385	8.9	성남시	119	30.9
					수원시	67	17.3
					화성시	120	31.1

주 1) 2017년 수출액의 비중(%)은 해당 산업에서 해당 HS코드가 차지하는 비중임.

2) 시군별 수출액 비중(%)은 해당 HS코드에서 해당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나) 수입 부문

시나리오 1하에서 미중이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경기도 대미국 수입에 영향이 큰 산업은 전기전자, 정밀기기,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인 반면, 경기도 대중국 수입에 영향이 큰 산업은 화학제품, 전기전자, 기계장비 제조업이다. 대미국 수입은 전기전자 제조업 7억 3,300만달러, 정밀기기 제조업 3억 6,100만달러,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억 2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국 수입은 화학제품 제조업 2억 4,600만달러, 전기전자 제조업 11억 9,000만달러,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억 2,4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 2하에서 미중이 25% 관세를 부과하며, 제3국에 대한 미국의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미국 수입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며, 대표적인 산업은 화학제품, 전기전자, 정밀기기 제조업이다. 반면 대중국 수입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며, 대표적으로 화학제품, 전기전자,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미국 수입은 화학제품 11억 5,600만달러, 전기전자 24억 1,800만달러, 정밀기기 26억 7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대미국과 반대로 대중국 수입은 화학제품 제조업 1억 4,300만달러, 전기전자 제조업 5억 7,700만달러,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억 9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이 25% 관세를 부과하고, 제3국에 대한 미중의 10% 관세가 부과되는 시나리오 3의 경우, 경기도의 미중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화학제품, 전기전자, 정밀기기 제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중국 수입 또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며, 대표적인 산업으로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전기전자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국 수입은 화학제품 제조업 11억 6,900만달러, 전기전자 제조업 22억 8,400만달러, 정밀기기 제조업 24억 8,4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며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중국 수입은 화학제품 제조업 6억 3,200만달러, 1차 금속제품 제조업 2억 3,200만달러, 전기전자 제조업 21억 2,800만달러로 전기전자 제조업의 감소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3개 시나리오하의 추정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대미국 수입 영향은 화학제품, 전기전자, 정밀기기,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중국 수입 영향은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전기전자,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대미 수입 중 화학제품 산업의 주요 품목군은 스티렌(HS290250), 기타 합성 유기착색제(HS320490),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HS300212)이다. 스티렌(HS290250)은 1억 6,100만달러가 수입되었으며, 전체 화학제품 산업 중 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의왕시의 비중이 100%이다. 기타 합성 유기착색제(HS320490)는 1억 2,700만달러 수입되며 6% 비중을 차지하고, 대부분 용인시에서 수입하고 99.5%의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HS300212)은 1억 1,400만달러로 5.4%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시군은 성남시(23%)와 용인시(73.8%)가 될 수 있다.

경기도 대미 수입 중 전기전자 산업의 주요 품목은 프로세서와 컨트롤러(HS854231), 무선 전화기(HS851712)가 될 수 있다. 프로세서와 컨트롤러(HS854231)는 26억 3,800만달러로 전기전자 산업 중 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수입 시군은 수원시로 97.2%의 높은 비중으로 수입하고 있다. 무선 전화기(HS851712)는 4억 9,700만달러로 11.7%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시군 또한 프로세서와 컨트롤러와 같이 수원시이며, 무선통신용 전화기 중 99.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대미 수입 중 정밀기기 산업의 주요 품목은 반도체 제조기기

(HS848620),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검사용(HS903141) 품목이다. 반도체 제조 기기(HS848620)는 43억 1,300만달러로 전체 정밀기기 산업 중 67.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수입 시군은 수원시와 이천시이고 각각 74.2%, 24.6%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검사용(HS903141) 품목은 5억 2,000만달러 수입되었으며, 8.1%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시군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동일한 수원시와 이천시이며, 수원시 비중이 83.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대미 수입 중 기계장비 제조업의 주요 품목은 반도체 부품(HS848690), 기타 군수품(HS930690), 특정 반도체 기기(HS848640)이다. 반도체 부품(HS848690)은 8억 2,300만달러로 기계장비 제조업의 45.1%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로 성남시(32.2%), 이천시(33.9%), 화성시(14.3%)에서 수입하고 있다. 기타 군수품(HS930690)은 1억 7,200만달러로 9.4%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로 과천시(26.2%), 안양시(73.6%)에서 수입하고 있다. 특정 반도체 기기(HS848640)는 4.1% 비중으로 7,500만달러 수입되고 있으며, 주요 수입 시군은 수원시(35.3%), 용인시(26.1%), 화성시(11.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9> 대미국 경기도 수입 영향 품목과 시군

(단위: 백만달러, %)

산업	품목별		2017 수입		시군별		
	HS6	품목명	금액	비중	시군	수입액	비중
화학제품	290250	스티렌	161	7.6	의왕시	161	100.0
	320490	기타 합성 유기착색제	127	6.0	용인시	127	99.5
	300212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114	5.4	성남시	26	23.0
전기전자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2,638	62.0	수원시	2,564	97.2
	851712	무선 전화기	497	11.7	수원시	494	99.3
정밀기기	848620	반도체 제조기기	4,313	67.1	수원시	3,202	74.2
					이천시	1,061	24.6
	903141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검사용	520	8.1	수원시	432	83.2
					이천시	76	14.6
기계장비	848690	반도체 부품	823	45.1	성남시	265	32.2
					이천시	279	33.9
					화성시	118	14.3
	930690	기타 군수품	172	9.4	과천시	45	26.2
					안양시	127	73.6
	848640	특정 반도체 기기	75	4.1	수원시	27	35.3
					용인시	20	26.1
					화성시	9	11.4

주 1) 2017년 수출액의 비중(%)은 해당 산업에서 해당 HS코드가 차지하는 비중임.

2) 시군별 수출액 비중(%)은 해당 HS코드에서 해당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경기도 대중 수입 중 화학제품 산업의 주요 품목은 기타 산화금속산염(HS284190), 플라스틱 케이스(HS392310), 기타 조제 점결제(HS382499)이다. 기타 산화금속산염(HS284190)은 2억 6,700만달러로 화학제품 수입 중 8%의 비중을 차지하며 용인시의 수입이 93.8%로 압도적으로 높다. 플라스틱 케이스(HS392310)는 1억 3,100만달러로 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주로 성남시, 용인시에서 수입하며, 각각 26.1%, 5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조제 점결제(HS382499)는 1억 2,900만달러 수입되며, 3.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 시군은 시흥시(17.5%)와 용인시(37%)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기도 대중 수입 중 1차 금속제품 산업의 주요 품목은 압연공정된 철봉(HS721420), 알루미늄 합금 판(HS760612), 정제한 구리 박(HS741021) 등이다. 압연공정된 철봉(HS721420) 품목은 1억 4,500만달러로 수입되며, 1차 금속제품의 6.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시군은 성남시(29.2%), 시흥시(14%), 평택시(24.8%)가 해당된다. 알루미늄 합금 판(HS760612)은 9,100만달러 수입되며 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안산시(18.7%), 평택시(23.4%), 화성시(15.6%)에서 수입하고 있다. 정제한 구리 박(HS741021)은 9,100만달러 수입되며, 시흥시(27.5%), 안산시(42.7%), 안양시(11.1%)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경기도의 대중국 수입 중 전기전자 제조업의 주요 품목은 메모리(HS854232), 컴퓨터 기억장치(HS847170), 전화기 부분품(HS851770)이다. 메모리(HS854232)는 68억 3,200만달러로 전체 전기전자 산업 중 36.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수입 시군은 수원시와 이천시이다. 수원시는 경기도 전체 수입의 6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천시가 33.1%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컴퓨터 기억장치(HS847170)는 14억 1,300만달러로 7.5% 비중을 차지하며, 거의 수원시(97.7%)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전화기 부분품(HS851770)은 4.7% 비중을 차지하며, 8억 8,100만달러 수입되고 있다. 주요 수입 시군은 수원시(42.3%), 안양시(16.4%), 용인시(23.9%)이다.

경기도 대중국 수입 중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주요 품목은 파이프 및 보일러 동체, 탱크(HS848180),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HS841430), 기타 인쇄기(HS844399)이다. 파이프 및 보일러 동체, 탱크(HS848180) 품목은 1억 2,400만달러로 5.7%의 비중을 차지하고, 남양주시(10%)와 수원시(16.9%)의 수입비중이 높은 품목이나, 경기도 시군에 전반적으로 수입되는 품목이다.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HS841430)는 1억 200만달러로 4.7% 비중을 차지하며 수원시 수입 비중이 82.5%로 높다. 기타 인쇄기(HS844399)는 8,400만달러 수입되며, 기계장비 제조업 중 3.9% 비중을 차지하고, 시군별로 살펴보면, 수원시가 5,700만달러를 수입하여 67.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대중국 경기도 수입 영향 품목과 시군

(단위: 백만달러, %)

산업	품목별		2017 수입		시군별		
	HS6	품목명	금액	비중	시군	수입액	비중
화학제품	284190	기타 산화금속산업	267	8.0	용인시	250	93.8
	392310	플라스틱 케이스	131	3.9	성남시	34	26.1
					용인시	69	52.8
	382499	기타 조제 점결제	129	3.9	시흥시	23	17.5
					용인시	48	37.0
1차금속	721420	압연공정된 철봉	145	6.9	성남시	42	29.2
					시흥시	20	14.0
					평택시	36	24.8
	760612	알루미늄 합금판	91	4.3	안산시	17	18.7
					평택시	21	23.4
					화성시	14	15.6
	741021	정제한 구리 박	91	4.3	시흥시	25	27.5
					안산시	39	42.7
					안양시	10	11.1
전기전자	854232	메모리	6,832	36.5	수원시	4,525	66.2
					이천시	2,264	33.1
	847170	컴퓨터 기억장치	1,413	7.5	수원시	1,381	97.7
					수원시	372	42.3
	851770	전화기 부분품	881	4.7	안양시	145	16.4
					용인시	210	23.9
기계장비	848180	파이프, 보일러 동체, 탱크	124	5.7	남양주시	12	10.0
					수원시	21	16.9
	841430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102	4.7	수원시	84	82.5
	844399	기타 인쇄기	84	3.9	수원시	57	67.6

주 1) 2017년 수출액의 비중(%)은 해당 산업에서 해당 HS코드가 차지하는 비중임.

2) 시군별 수출액 비중(%)은 해당 HS코드에서 해당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 대책 및 대응방안

작금의 미중 통상갈등은 상당부분 패권경쟁 성격을 갖고 있고, 미중간 갈등이어서 우리나라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없다.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2019년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나, 양국 간 통상갈등이 봉합된 것은 아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반중국 연대’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참여를 미국이 요구할 경우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경기도의 대중국 수출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추정치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대부분 국가에게 유사한 상황일 것이므로,

‘반중국 연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을 참고하여 미국의 중국 고립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중앙정부가 EU, 일본 등과 논의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참여

또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중앙정부의 참여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WTO 위상 회복 및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견국가를 중심으로 WTO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 최근 WTO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하다. WTO DDA 협상을 되살리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WTO가 복수국간 협정 추진을 허용하도록 규범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경기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피해산업 발생시 기업 지원

현재의 통상마찰로 인한 수출시장 축소에 대응하고, 향후 신규 수출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²⁸⁾ 기업의 R&D 역량 및 국제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입규제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최종재보다는 중간재 위주의 수출구조 변화를 모색하도록 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미중 통상갈등 과정에서 FTA 활용 수입 증가로 인한 무역피해 발생시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취약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

중국 철수 기업에 대한 지원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의 제3국 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유력 이전 국가로 보이며, 이들 지역으로의 이전시 지역 정보, 비즈니스 컨설팅 등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탈중국’ 경기도 기업의 제3국 이전 지원을 위해 KOTRA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유턴기업 지원제도 소개 및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경제 리스크 정보 수집 및 공유

미중 통상갈등 외에 중국경제의 리스크 심화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련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중국의 대미국 정책, 중국 경제 위협 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과 기업 등 관련 기관과의 공유로 미중 통상마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중 갈등 봉합시 이면합의 내용 파악 및 경기도에 대한 영향

28) 수출바우처 등 활용. 이에 대해서는 <첨부 3> 참조

을 분석해야 한다. 중국은 대미국 수출을 줄이기보다는 대미국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특히 경기도 기계장비 업종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즉, 미중 갈등이 해소되더라도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경기도의 대중국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CPTPP 협정과 주요 이슈²⁹⁾

가. TPP 협정 구조와 한·미 FTA와의 비교³⁰⁾

2015년 10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의 통상장관들은 미 애틀란타에서 마지막 협상을 개최하고 TPP 협상 최종타결을 선언했다. 이후 2016년 2월 뉴질랜드에서 협정을 공식서명하였다.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이 주도하여 미국을 제외한 11개 회원국(TPP11) 체제로 전환되었다.

회원국들은 TPP11을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TPP(CPTPP)’ 타이틀로 체결하였다. 기존 TPP에 포함되어 있던 민감한 22개 사항들을 삭제하거나 적용을 보류하고 발효 요건을 변경하면서 명칭까지 변경하였다.³¹⁾

<표 3-11> CPTPP 협정 유예조항 및 수정사항 예시

	유예 조항/수정 사항
지식재산권	- 의약품 특허보호 절차 및 자료보호 - 생물·의약품 특허 - 저작권 보호 기간 - 위성 및 케이블사업자 보호
투자 조항	ISDS 적용 범위
서비스 분야	- 특송화물서비스 보조금 및 독점적 지위 제한 - 금융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투자자 권리
투명성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산정 절차 투명성
협정 발효	회원국 50% 이상 혹은 6개국 이상 비준
신규 회원국 가입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국간 합의

자료: CPTPP 협정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29) 이 절은 정인교(2018), 정인교·조정란(2014), 산업통상자원부(2015), KOTRA(2013a,b)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30) 이 부분은 정인교(2016) “TPP 협정 상 신규도입 통상규범에 관한 연구” 등을 참고하여 작성

31) TPP 협정상 회원국 GDP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이 비준하지 않으면 비준 불가 구조이었고, 발효 요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발효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음. 이에 CPTPP에서는 발효 요건을 완화시켰음.

미국을 포함한 1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TPP는 세계 GDP와 무역의 37.4%와 25.9%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이 제외된 CPTPP는 각각 13.5%와 15%로 줄어들게 되어 무역블록으로서의 위상은 크게 축소되었다.

<표 3-12> TPP와 CPTPP 주요 경제지표

	TPP	CPTPP
회원국	12개국(미국 포함)	11개국(미국 탈퇴)
세계 인구비중	11.1%(8억 명)	6.9%(5억 명)
세계 GDP비중	37.4%(28.8조달러)	13.5%(10.2조달러)
세계 무역비중	25.9%(8.5조달러)	15%(4.8조달러)

자료: WTO, 한국무역협회

총 30개 장(chapter)으로 구성된 TPP 협정 내용은 내용면에서나 구조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하면서도 국유기업, 개발지원 등에 새로운 무역규범을 추가하였다. Palit(2014)가 지적하고 있듯이, 한·미 FTA는 TPP 협상에서 기본 교재로 사용되었다. <표 3-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설된 장을 제외하면 TPP와 한·미 FTA 간 장별 유사성이 높다. 회원국별 관세 철폐율이 95~100%로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이고, 장별 구성과 규범 분야가 유사하나 TPP에는 신규 규범(국유기업, 협력,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지원, 중소기업 배려, 회원국간 규제조화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서비스·투자 시장접근 확대, 정부조달 규범 개선 및 개방 최저한도(threshold) 축소, 지적권 보호 분야 확대, 전자상거래 규범 등에서 TPP가 한·미 FTA를 부분적으로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3> TPP와 한·미 FTA 장별 비교

TPP(30개 Chapter)	Ch	한·미 FTA	TPP(30개 Chapter)	Ch	한·미 FTA
최초규정 및 정의	1		경쟁	16	
상품분야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2		국영기업 및 지정독점 (Designated Monopolies)	17	경쟁, 신규
원산지	3		지적재산권	18	
섬유 및 의류	4		노동	19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	5		환경	20	
무역 규제	6		협력 및 역량 강화	21	신규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7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22	신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8		개발협력	23	신규
투자	9		중소기업	24	신규
국경 간 서비스 무역	10		규제 조화	25	
금융 서비스	11		투명성 및 반부패	26	투명성
기업인의 일시 입국	12	신규	행정 및 제도 규정	27	의약품

통신	13		분쟁 해결	28	통합 챕터
전자상거래	14		예외	29	
정부조달	15		최종 규정	30	

자료: 정인교(2016a)

TPP 규범분야 신규 장(Chapter)으로 분류되는 6개의 장 중 국영기업-지정 독점(제17장)과 협력-역량강화(제21장)는 한·미 FTA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다만, 4개의 장(기업인의 일시입국, 개발협력, 경쟁력-비즈니스 촉진, 중소기업)은 기존 FTA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TPP에서는 원칙적인 내용을 제시할 뿐 관련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

<표 3-14> 산업통상자원부의 TPP 신규 6개 장(Chapter)의 내용 요약

Chapter	주요 내용
기업인의 일시 입국	- 역내 기업인의 일시 입국과 관련된 요건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
국영기업	- 민간기업과의 공정경쟁 위해 차별없는 대우 보장 - 상대국 제소 시 분쟁절차를 밟을 수 있음
협력 및 역량 강화	- 다양한 경제수준의 국가들이 TPP 협정을 원활히 이행하고 협정의 이익을 함께 향유 할 수 있도록 함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 각 당사국과 아태지역 국가들이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 마련 - 중소기업 역내 GVC 참여 기회 확대에 주안점
개발	- 회원국의 개발과 장기적인 경제 발전 도모를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여성의 경제개발 참여, 교육 및 과학기술 등 경제 개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규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TPP의 실질적 혜택을 향유하도록 보장
규제조화	- 당사국간 국내 규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일반 원칙을 정하고 협력하도록 권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5), 김형주, 이지홍(2016) 재인용

나. 일본과의 시장접근 경쟁

TPP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시장개방 수준은 대체로 98~100%로 TPP와 유사한 수준이다. 공산품(이하 수입액 기준)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는 이미 발효 후 관세철폐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므로 TPP가 당초 예상과 같이 2017년 발효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시장선점효과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2015) 전망한 바 있다.³²⁾

32) 2017년 기준으로 한·미 FTA(발효 6년차) 체제하에서 미국 공산품 관세의 95.8%가 철폐되었으며, 캐나다 95.9%(발효 3년차), 호주 96.0%(발효 4년차) 철폐되므로 오히려 TPP 회원국보다 교역상 유리한 조건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임.

<표 3-15> TPP 회원국의 대일 공산품 개방 및 우리나라 기체결 FTA 비교
(수입액 기준)

구분		미국	캐나다	호주	페루	싱가포르
TPP 대日 양허	관세철폐율	100%	100%	99.8%	100%	100%
	즉시철폐율	67.4%	68.4%	94.2%	98.2%	100%
韓 기체결 FTA	관세철폐율	100%	100%	100%	100%	100%
	무관세율('17.1)	95.8%	95.9%	96.7%	89%	100%

주: TPP의 관세철폐율/즉시철폐율은 일본(경제산업성)에서 공개한 자료를 인용
자료: 산업자원부(2016)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

다. CPTPP 전망과 우리나라의 가입

2018년 12월말 CPTPP가 발효되었다. CPTPP 규정에 따라 협정 발효 이후 신규 회원국 가입 논의가 시작될 수 있고, 회원국내 협의 및 가입 협상 등을 감안하면 12번째 회원국은 202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태국과 대만은 각각 지난해 6월 및 금년 1월에 CPTPP 가입 의사를 표명했으며, 우리나라는 TPP ‘관심’을 표명한 상태이다.

CPTPP는 아태 지역 최초 메가 FTA로, 국제통상 규범 제정자로서 일본의 위상을 제고시켰지만, 미국의 탈퇴로 국제무역 흐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 참여한 TPP보다 CPTPP에 대한 가입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양자 및 다자(메가) FTA를 적극 추진하여 해외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한다. 또한 신규 회원국 가입 절차가 개별국과의 가입 조건 협상 타결로 간소화되었다. 일본 등 주도국들은 미국의 탈퇴 공백을 메우기 위해 CPTPP에 신규 회원국을 영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재권, ISDS 등에서 우리나라에게 민감한 조항의 적용이 일부 유예되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TPP(CPTPP) 가입 최대 애로 요인은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이다. CPTPP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나라의 FTA 파트너 국가이다. 멕시코와는 태평양동맹(PA)에서 FTA 협상을 논의하고 있어 CPTPP 가입은 사실상 ‘한일 FTA’가 된다. 지난 2004년말 ‘한일 FTA’ 협상 결렬 이후 독도 등 영토문제, 위안부와 소녀상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 외에 경제적 파급영향 우려로 일본의 협상 재개 요청에 우리나라가 응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 대신 일본이 CPTPP 주도국가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회원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더 커졌고, 일본은 CPTPP 가입을 그동안 일본이 우리나라에 요구했던 각종 통상현안을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PTPP 가입의 거시경제 효과가 미미한 반면,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이 우리나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므로 산업계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통상산업당국은 가입 여부에 신중한 편이다.

라. 경기도 수출입에 대한 파급영향 추정

CPTPP 가입은 사실상 한·일 FTA임을 전제로 파급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전품목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CPTPP의 취지에 따라 전면 자유화를 가정하되, 자유화 달성 시점을 다르게 설정하고자 한다.

- 시나리오 1은 6년후 전면 자유화를,
- 시나리오 2는 11년후 자유화를 가정하는 것이다.

<표 3-16> 계량 분석 시나리오

시나리오	가정	비고
시나리오 1	즉시 50%, 1년후 40%, 6년후 10%	높은 가능성
시나리오 2	즉시 50%, 6년후 40%, 11년후 10%	

CPTPP 참여시 경기도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62억달러에서 85억달러까지 악화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나리오 1에서는 경기도의 대일본 수출이 5억달러 정도 늘어나나 수입은 84억달러~91억달러 증가하고, 시나리오 2에서도 유사한 영향이 예상되나 그 영향은 조금 작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CPTPP 가입이 경기도의 대일본 수출입에 미칠 영향(종합)

(단위: 백만달러, 변동액)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추정 연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2021년	510	8,377	394	6,606
2026년	542	8,927	526	8,858
2031년	564	9,050	551	9,004

2가지 시나리오별 경기도의 대일본 수출입에 대한 연도 및 산업별 영향은 다음 3개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화학제품, 정밀기계, 기계 및 장비 등에 대

한 대일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시군별 영향을 상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표 3-18> CPTPP 가입이 경기도의 대일본 수출입에 미칠 영향(2021년 기준)

(단위: 백만달러, 변동액)

KSIC산업분류	2017년 실적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농림수산업	36	14	8	8	6	7
음식료업	101	79	153	301	114	208
목재/종이/인쇄	72	181	10	68	8	54
섬유, 가죽제품	111	74	60	67	47	51
석탄, 석유제품	30	18	6	10	5	8
화학제품	832	4,606	168	2,517	134	1,981
1차금속제품	179	1,528	7	180	6	146
금속제품	289	571	12	67	9	55
비금속광물제품	105	505	15	189	12	150
전기, 전자기기	1,021	1,659	8	45	5	37
정밀기기	342	5,644	8	2,827	6	2,244
기계 및 장비	1,154	3,767	27	1,886	20	1,497
운송장비	124	323	1	156	1	123
기타 제조업	180	140	26	53	21	42
광업	3	8	0	3	0	2
합계	4,580	19,118	510	8,377	394	6,606

<표 3-19> CPTPP 가입이 경기도의 대일본 수출입에 미칠 영향(2026년 기준)

(단위: 백만달러, 변동액)

KSIC산업분류	2017년 실적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농림수산업	36	14	8	8	8	8
음식료업	101	79	156	299	156	299
목재/종이/인쇄	72	181	11	69	11	69
섬유, 가죽제품	111	74	61	68	60	68
석탄, 석유제품	30	18	6	10	6	10
화학제품	832	4,606	168	2,610	165	2,589
1차금속제품	179	1,528	9	195	8	189
금속제품	289	571	14	73	13	71
비금속광물제품	105	505	16	194	16	192
전기, 전자기기	1,021	1,659	19	49	15	44
정밀기기	342	5,644	10	3,080	9	3,062
기계 및 장비	1,154	3,767	34	2,056	30	2,044
운송장비	124	323	2	159	2	158
기타 제조업	180	140	28	54	27	53
광업	3	8	0	3	0	3
합계	4,580	19,118	542	8,927	526	8,858

<표 3-20> CPTPP 가입이 경기도의 대일본 수출입에 미칠 영향(2031년 기준)

(단위: 백만달러, 변동액)

KSIC산업분류	2017년 실적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농림수산업	36	14	9	8	9	8
음식료업	101	79	159	293	158	293
목재/종이/인쇄	72	181	11	69	11	69
섬유,가죽제품	111	74	61	68	61	68
석탄,석유제품	30	18	6	10	6	10
화학제품	832	4,606	171	2,624	169	2,607
1차금속제품	179	1,528	9	198	9	194
금속제품	289	571	15	74	14	72
비금속광물제품	105	505	17	194	16	193
전기,전자기기	1,021	1,659	24	47	21	43
정밀기기	342	5,644	11	3,147	10	3,138
기계 및 장비	1,154	3,767	39	2,100	35	2,094
운송장비	124	323	3	158	2	158
기타 제조업	180	140	29	54	28	54
광업	3	8	0	3	0	3
합계	4,580	19,118	564	9,050	551	9,004

마. 경기도 시군별 영향

1) 영향 분석

CPTPP 체결에 따라 대일본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경기도의 산업은 화학제품과 음식료업이며, 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경기도의 산업은 화학제품, 정밀기기, 기계장비 제조업이다. 시나리오별 한국의 대일본 수출입 전망과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2021년의 경우, CPTPP 가입 이후 경기도의 수출은 5억 1,000만달러가 증가, 수입은 83억 7,700만달러가 증가하여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17년의 경우 수출액은 45억 8000만달러, 수입은 191억

1,800만달러)

2026년의 경우, CPTPP 가입 이후 경기도의 수출은 5억 4,200만달러가 증가, 수입은 89억 2,700만달러 증가하여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31년에 경기도의 수출은 5억 6,400만달러가 증가하고, 수입은 90억 5,000만달러가 증가하여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시나리오 1하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CPTPP 가입으로 경기도의 대일본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은 화학제품, 정밀기기, 기계 및 장비이다. 2021년 화학제품 수출은 25억 1,700만달러, 정밀기기는 28억 2,700만달러, 기계 및 장비는 18억 8,600만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6년의 경우 화학제품은 26억 1,000만달러, 정밀기기는 30억 8,000천만달러, 기계 및 장비는 20억 5,600만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1년 화학제품 26억 2,400만달러, 정밀기기 31억 4,700만달러, 기계 및 장비 21억달러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CPTPP 가입에 따라 경기도의 대일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은 화학제품이다. 2021년의 경우 음식료업 수출은 1억 5,300만달러, 화학제품은 1억 6,8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음식료업 수출은 1억 5,600만달러, 화학제품은 1억 6,800만달러 증가가 예상된다. 2031년에는 음식료업 1억 5,900만달러, 화학제품 1억 7,100만달러의 경기도 수출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시나리오 2:

2021년의 경우, CPTPP 가입 이후 경기도의 수출은 3억 9,400만달러가 증가하고 수입은 66억 600만달러가 증가하여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17년의 경우 수출액은 45억 8000만달러, 수입은 191억 1,800만달러) 2026년의 경우, 경기도의 수출은 5억 2,600만달러가 증가하고, 수입은 88억 5,800만달러가 증가하여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1년에 경기도의 수출은 5억 5,100만달러가 증가, 수입은 90억 400만달러가 증가하여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CPTPP 가입에 따라 경기도의 대일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은 화학제품, 정밀기기, 기계 및 장비이다. 2021년 화학제품은 19억 8,100만달러, 정밀기기는 22억 4,400만달러, 기계 및 장비는 14억 9,700만달러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 화학제품은 25억 8,900만달러, 정밀기기는 30억 6,200만달러, 기계 및 장비는 20억 4,400만달러 수

출 감소가 예상된다. 2031년에는 수출 감소가 늘어나, 화학제품은 26억 700만달러, 정밀기기는 31억 3,300만달러, 기계 및 장비는 20억 9,400만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CPTPP 가입에 따라 경기도의 대일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은 음식료업과 화학제품이다. 2021년 음식료업은 1억 1,400만달러, 화학제품은 1억 3,400만달러 대일본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2026년의 경우 CPTPP 가입에 따라 음식료업은 1억 5,600만달러, 화학제품은 1억 6,500만달러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2031년 음식료업 1억 5,800만달러, 화학제품 1억 6,900만달러 수출 증가가 전망된다.

CPTPP 체결에 따라 대일본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음식료업과 화학제품 제조업 중 경기도의 대일본 주요 수출 품목과 시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PTPP에 따른 경기도 음식료업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조제식품류(210690)와 리큐르(알코올음료)류(220870), 그 밖의 발효주(220600)이다. 조제식품류는 2017년 3,400만달러가 수출되었으며, 음식료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39%이다. 조제식품류를 수출하는 주요시군은 이천시이며, 이천시는 1,500만달러를 수출하여 44%를 차지하고 있다. 리큐르(알코올음료)류는 2017년 1,300만달러가 수출되었으며, 음식료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68%이다. 리큐르(알코올음료)류를 수출하는 주요 시군은 이천시이며, 이천시는 1,300만달러를 수출하여 비중은 100%이다. 그 밖의 발효주는 2017년 1,200만달러가 수출되었으며, 음식료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35%이다. 발효주를 수출하는 주요 시군은 이천시이며, 이천시는 1,000만달러를 수출하여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CPTPP 가입에 따른 경기도 화학제품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392062), 반도체매체(852349), 미용관련용품(330499)이다.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는 2017년 5,600만달러가 수출되었으며, 화학제품의 6.74%의 비중이다.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를 수출하는 주요 시군은 평택시와 수원시이며, 평택시의 경우 3,100만달러를 수출하여 경기도 화학제품 수출의 55.4%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매체를 수출하는 주요 시군은 수원시이며, 3,400만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화학제품 수출의 68.88%에 해당된다. 미용관련 용품을 수출하는 주요시군은 화성시와 김포시이며, 화성시의 경우 1,900만달러를 수출하여 경기도 화학제품 수출의 44.42%를 담당하고 있다.

<표 3-21> CPTPP에 따른 수출 영향 품목과 시군

(단위: 백만달러, %)

산 업	품목별		2017년 수출		시군별		
	HS6	품목명	금액	비중	시군	수출액	비중
음식료업	210690	기타 (조제식품류)	34	33.39	이천시	15	44
	220870	리큐르 (알코올음료) 류 등	13	12.68	이천시	13	100
	220600	그 밖의 발효주	12	11.35	이천시	10	85
화학제품	39206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 등	56	6.74	평택시	31	55.40
	852349	기타 (반도체매체)	49	5.89	수원시	23	40.76
	330499	기타 (미용관련용품)	43	5.12	수원시	34	68.88
					화성시	19	44.42
					김포시	11	25.99

주 1) 2017년 수출액의 비중(%)은 해당 산업에서 해당 HS코드가 차지하는 비중임.

2) 시군별 수출액 비중(%)은 해당 HS코드에서 해당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CPTPP 체결에 따라 대일본 수입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정밀기기, 화학제품, 기계장비 제조업 중 경기도의 대일본 주요 수입 품목과 시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PTPP에 따른 경기도 정밀기기 제조업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반도체 디바이스 관련 상품(848620)이다. 반도체 디바이스 관련 상품은 2017년 37억65백만달러가 수입되었으며, 정밀기기 제조업 전체 수입의 66.70%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디바이스 관련 상품을 수입하는 주요 시군은 수원시와 이천시이며, 수원시의 경우 23억61백만달러를 수입하며 이는 경기도 전체 수입의 62.7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CPTPP에 따른 경기도 화학제품 제조업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전자공업에 사용되는 화학원소(381800), 초산 셀룰로오스의 기타 판(392073), 화학 조제품(382499)이다. 전자공업에 사용되는 화학원소를 수입하는 주요 시군은 수원시와 이천시이며, 수원시의 경우 2억83백만달러를 수입하며 경기도 전체 수입의 52.53%에 해당한다. 초산 셀룰로오즈 기타판을 수입하는 주요 시군은 평택시와 용인시이며, 평택시는 1억 8,100만달러를 수입하며 경기도 전체 수입의 53.77%를 차지하고 있다. 화학조제품을 수입하는 주요 시군은 평택시와 용인시이다. 평택시의 경우 9,300만달러를 수입하며 이는 경기도 전체 수입의 32.12%이다.

CPTPP에 따른 경기도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평판 디스플레이제조용 기계와 기기(848630), 반도체용 부분품과 부속품(848690), 특정한 기계와 기기(848690)이다. 디스플레이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수입하는 주요 시군은 용인시이며, 수입액은 12억6,200만달러이다. 이는 경기도 전체 수입의 99.45%로 사실상 대부분이다. 반도체용 부분품과 부속품을

수입하는 주요 시군은 이천시와 화성시이며, 이천시의 경우 1억100만달러를 수입하며 전체 수입의 21.77%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한 기계와 기기를 수입하는 주요 시군은 수원시와 이천시이며, 수원시의 경우 2억2,600만달러를 수입하며 이는 경기도 해당 품목 전체 수입의 58.39%가 된다.

<표 3-22> CPTPP에 따른 수입 영향 품목과 시군

(단위: 백만달러, %)

산 업	품목별		2017년 수입		시군별		
	HS 6	품목명	금액	비중	시군	수입액	비중
정밀기기 제조업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 등	3,765	66.70	수원시 이천시	2,361 1,366	62.73 36.29
화학제품 제조업	381800	전자공업에 사용하는 화학원소 등	540	11.88	수원시 이천시	283 209	52.53 38.73
	392073	초산 셀룰로오즈의 기타 관 등	336	7.41	평택시 용인시	181 155	53.77 46.10
	382499	기타 (화학 조제품 등)	293	6.45	평택시	93	32.12
					용인시 수원시	67 35	23.22 12.15
기계 장비 제조업	848630	평판디스플레이제조 용기계와기기	1,269	34.47	용인시	1,262	99.45
	848690	반도체용 부분품과 부속품	467	12.68	이천시	101	21.77
					화성시 평택시	98 78	21.10 21.09
	848640	특정한 기계와기기 (이 류의 주제 9호 다목)	424	11.52	수원시 이천시	226 75	58.39 19.45

주: 1) 2017년 수입액의 비중(%)은 해당 산업에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2) 시군별 수출액 비중(%)은 해당 HS코드에서 해당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의 정밀기기 제조업의 수입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반도체 디바이스 관련 품목(HS 848620)으로 주요 수입 국가는 미국(32.11%), 일본(27.94%), 네덜란드(24.93%)이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관세율은 모두 0%이다. 만약 CPTPP가 발효되어도 기존 무관세가 유지됨으로서,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화학제조업의 수입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전자공업에 사용되는 화학원소(HS 381800), 초산 셀룰로오즈 관련 품목(HS 392073), 화학 조제품 관련 품목(HS 382499)이다. 전자공업에 사용되는 화학원소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37.92%), 일본(32.60%), 싱가포르(11.83%)이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관세율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모두 0% 수입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초산 셀룰로오즈 관련 품목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만약

CPTPP가 발효되어 관세가 기존 6.5%에서 철폐될 경우, 수입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과의 거래에서 바이어 파워를 활용하거나 수입다각화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학 제조품 관련 품목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50.51%), 중국(18.89%)이며, 0%의 수입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의 기계장비 제조업의 수입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평판디스플레이 관련 기기(HS 848639)와 반도체용 부분품(HS 848690)과 특정기계와 기기(HS 848640)이다. 평판디스플레이 관련 기기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65.48%)과 대만(29.11%)이며, 반도체용 부분품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36.52%), 일본(34.07%)이며, 이들 품목들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특정기계와 기기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42.64%)과 싱가포르(32.28%)이며, 이들 품목들 또한 관세는 0%이다.

<표 3-23> 한국의 구체적인 수입품목의 국가별 순위

(단위: 백만달러, %)

산 업	HS코드	품목명	대 세계			
			국가	수입액	관세율	비중
정밀기기 제조업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 등	미국	4,365	0%	32.11
			일본	3,798	0%	27.94
			네덜란드	3,388	0%	24.93
화학제품 제조업	381800	전자공업에 사용하는 화학원소 등	중국	685	0%	37.92
			일본	589	0%	32.60
			싱가포르	214	0%	11.83
	392073	초산 셀룰로오즈의 기타 관 등	일본	491	6.5%	99.70
	382499	기타 (화학 조제품 등)	일본	897	0%	50.51
			중국	335	0%	18.89
기계 장비 제조업	8486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기계와기기	일본	1,910	0%	65.48
			대만	849	0%	29.11
	848690	반도체용 부분품과 부속품	미국	930	0%	36.52
			일본	868	0%	34.07
	848640	특정한 기계와기기	일본	519	0%	42.64
			싱가포르	393	0%	32.28

한국의 정밀기기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 중 대일본 수입액의 비중이 높은 품목은 반도체 디바이스관련 품목이다. 이 중에서 반도체관련 재료(HS 8486208410)는 대일본 수입 비중이 31.67%를 차지하며, 반도체 관련 기계류(HS 8486204000)는 대 일본 수입 비중이 29.02%로 다소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들 품목은 이미 관세율이 모두 0%로 CPTPP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수입이 예상된다.

한국의 화학제품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 중 대일본 수입액의 비중이 높은

품목은 전자공업에서 사용되는 화학원소(HS 3818001000)로 대일본 수입 비중이 47.96%를 차지하며, 초산셀룰로오스(HS 3920730000)는 대일본 수입 비중이 99.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제 점결제(HS 3824999090)는 대일본 비중이 37.48%를 차지하며, 도금용 조제품(HS 3824997100)은 대일본 비중이 77.7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품목의 대일본 관세율은 화학원소를 제외하고 6.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만약 CPTPP 가입으로 인해 관세가 철폐가 된다면, 대일본 수입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기계장비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 중 대일본 수입액의 비중이 높은 품목은 모두 반도체 관련 품목이다. 그중 반도체 관련 품목(물리적 방식)과 디스플레이용 관련기기는 대일본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대일본 수입 비중이 100%를, 반도체 부품관련 품목(HS 8486902010, 8486904010)의 대일본 수입 비중은 각각 27.78%와 57.87%를, 반도체 소자관련 기기는 대일본 비중이 34.75%를, 패턴형성기의 대일본 수입 비중은 65.12%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24>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의 대일본 수입 상세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산 업	HS코드	품목명	대 세계		대 일본		
			수입액	비중	수입액	관세율	비중
정밀기기 제조업	8486208410	반도체 관련 재료	3,694	27.18	1,170	0%	31.67
	8486204000	반도체 관련 기계류	3,539	26.03	1,027	0%	29.02
화학제품 제조업	3818001000	화학원소 (전자공업사용)	1,151	63.72	552	0%	47.96
	392073000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92	100	491	6.5%	99.80
	3824999090	조제 점결제	1,182	66.59	443	6.5%	37.48
	3824997100	도금용 조제품	225	12.68	175	6.5%	77.78
기계 장비 제조업	8486305041	반도체 관련 (물리적 방식)	956	32.76	956	0%	100
	8486302000	디스플레이용관련기기	729	24.98	729	0%	100
	8486902010	반도체 부분품관련	1,962	77.01	545	0%	27.78
	8486904010	반도체 부분품관련	216	8.50	125	0%	57.87
	8486403010	반도체소자 관련 기기	636	52.27	221	0%	34.75
	8486401010	패턴형성기	172	14.15	112	0%	65.12

경기도의 정밀기기 제조업의 수입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반도체 디바이스 관련 품목(HS 848620)으로 주요 수입 국가는 미국(32.11%), 일본(28.03%), 네덜란드(25.20%)이며, 이들 품목들의 수입관세율은 모두 0%이다. 만약 CPTPP

가 발효되어도 기존 무관세가 유지됨으로서,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 화학제조업의 수입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전자공업에 사용되는 화학원소(HS 381800), 초산 셀룰로오즈 관련 품목(HS 392073), 화학 조제품 관련 품목(HS 382499)이다. 전자공업에 사용되는 화학원소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51.01%), 싱가포르(20.15%)이며, 이들 품목들은 무관세 적용 대상이다. 초산 셀룰로오즈 관련 품목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된다고 봐도 무방하며, 만약 CPTPP가 발효되어 관세가 기존 6.5%에서 철폐될 경우, 수입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화학 조제품 관련 품목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49.49%), 중국(21.79%)이며, 이 또한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경기도의 기계장비 제조업의 수입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평판디스플레이 관련 기기(HS 848639)와 반도체용 부분품(HS 848690)과 특정기계와 기기(HS 848640)이다. 평판디스플레이 관련 기기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57.51%)과 대만(37.81%)이며, 관세율은 모두 0%이다. 반도체용 부분품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42.95%), 일본(24.34%)이며, 특정기계와 기기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44.70%)과 싱가포르(34.96%)이며, 이들 품목 또한 현재 관세는 없다.

<표 3-25> 경기도의 구체적인 수입품목의 국가별 순위

(단위: 백만달러, %)

산 업	HS코드	품목명	대 세계			
			국가	수입액	관세율	비중
정밀기기 제조업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 등	미국	4,313	0%	32.11
			일본	3,765	0%	28.03
			네덜란드	3,385	0%	25.20
화학제품 제조업	381800	전자공업에 사용하는 화학원소 등	일본	540	0%	51.01
			싱가포르	213	0%	20.15
	392073	초산 셀룰로오즈의 기타 관 등	일본	336	6.5%	99.77
	382499	기타 (화학 조제품 등)	일본	293	0%	49.49
기계 장비 제조업	848630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 기계와기기	중국	129	0%	21.79
			일본	1,269	0%	57.51
	848690	반도체용 부분품과 부속품	대만	834	0%	37.81
			미국	823	0%	42.95
	848640	특정한 기계와기기	일본	467	0%	24.34
			일본	424	0%	44.70
			싱가포르	332	0%	34.96

경기도의 정밀기기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 중 대일본 수입액의 비중이 높은 품목은 반도체 디바이스관련 품목 중 반도체관련 재료(HS 8486208410)

는 대일본 수입 비중이 31.73%를 차지하며, 반도체 관련 기계류(HS 8486204000)는 대일본 수입 비중이 29.47%로 다소 낮은 편이다.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모두 0%로 CPTPP가입 이후에도 동일한 수준의 수입이 예상된다.

경기도의 화학제품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 중 대 일본 수입액의 비중이 높은 품목은 화학원소(HS 3818001000)와 초산셀룰로오스(HS 3920730000)로 대일본 수입 비중이 각각 52.86%와 99.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조제 점결제(HS 3824999090)와 도금용 조제품(HS 3824997100)은 대일본 비중이 각각 42.29%와 77.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품목의 관세율은 화학원소를 제외하고 6.5%의 관세가 적용되며, CPTPP 가입으로 인해 관세가 철폐가 된다면 대일 수입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 기계장비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 중 대일본 수입액의 비중이 높은 품목은 반도체 관련 품목이다. 그중 반도체 관련 품목(물리적 방식)(HS 8486305041)과 디스플레이용 관련기기(HS 8486302000)는 대일본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대일본 수입 비중이 100%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부품 관련 품목은 HS코드 8486902010와 8486904010로서 대일본 수입 비중은 각각 17.85%와 58.3%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소자 관련 기기(HS 8486403010)는 대일본 수입 비중이 32.65%를, 패턴형성기(HS 8486401010)는 91.06%를 차지하여 전체 일본 수입에서 차지하는 경기도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26> 경기도의 구체적인 수입품목

(단위: 백만달러, %)

산 업	HS코드	품목명	대 세계		대 일본		
			수입액	비중	수입액	관세율	비중
정밀기기 제조업	8486208410	반도체 관련 재료	3,684	27.43	1,169	0%	31.73
	8486204000	반도체 관련 기계류	3,471	25.84	1,023	0%	29.47
화학제품 제조업	3818001000	화학원소 (전자공업사용)	980	92.65	518	0%	52.86
	392073000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337	100	336	6.5%	99.70
	3824999090	조제 점결제	428	72.28	181	6.5%	42.29
	3824997100	도금용 조제품	109	18.49	85	6.5%	77.98
기계 장비 제조업	8486305041	반도체 관련 (물리적 방식)	645	29.24	645	0%	100
	8486302000	디스플레이용관련 기기	512	23.21	512	0%	100
	8486902010	반도체 부품품관련	1,602	83.59	286	0%	17.85
	8486904010	반도체 부품품관련	168	8.75	98	0%	58.33
	8486403010	반도체소자 관련 기기	582	61.35	190	0%	32.65
	8486401010	패턴형성기	123	12.99	112	0%	91.06

2) 대응방안 및 협상 시사점

우리나라 입장에서 CPTPP 혹은 한·일 FTA 협상의 최대 난점은 제조업에 대해서 일본의 국제경쟁력이 매우 높으면서 관세수준이 매우 낮다는(사실상 제로) 점이다. 그동안 일본은 전면적인 무역자유화를 주장해 온 바 있어 향후 가입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CPTPP 체결로 인해 경기도 산업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쟁력이 높은 화학제품, 정밀기기, 기계장비 수입이 늘어나 경기도 해당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들 품목은 경기도 제조업 가동을 위해 수입해야 하는 품목이고, 다수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제로이다. 다만, 38류(각종 화학공업 생산품)와 39류(플라스틱) 일부에 대해 6.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관세철폐 일정을 부여하도록 협상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27> 한·일 FTA 개방민감 경기도 품목 예시

HS	품목명	대 세계	대 일본		
		수입액	수입액	비중	관세율
392073000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337	336	99.70	6.5%
3824999090	조제 점결제	428	181	42.29	6.5%
3824997100	도금용 조제품	109	85	77.98	6.5%

한편, 일본은 농축산물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경기도 상품의 수출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에 제공한 수준으로 일본 시장개방 관철을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공산품과 달리 먹거리 상품은 소비자인식 등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현재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미래 수출을 고려하여 일본의 개방을 요구하되, 일본 역시 우리나라 농업 시장개방과 연계시킨 협상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므로 탄력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무역통계 분석으로 포착되지 않는 피해산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내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나마 “한·일FTA협의회”를 조직하여 세부 품목별 요청사항을 정리하고 협상당국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브렉시트: 배경, 전망과 영향

가. 브렉시트 배경³³⁾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의 내부적 요인은 영국인들의 뿌리깊은 반유럽 정서와 영국 사회의 계층간 갈등을 들 수 있고, 외부적 요인으로서는 난민 유입과 EU 분담금 불만, EU 공동정책 확대에 의한 정책주권의 위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스, 네덜란드, 헝가리, 폴란드 등에서도 EU 탈퇴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많아 브렉시트 도미노 가능성이 보이자, EU는 영국에 대해 관대한 탈퇴를 허용하기 어렵게 되었다.³⁴⁾ 2018년 11월말 어렵사리 브렉시트안인 합의 및 서명되었지만, 영국내 반대로 브렉시트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2010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EU 통합을 지지하는 자유민주당(LD: Liberal Democrat)과 연합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보수당-LD 연립정부는 여전히 보수당 입장에서 EU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유로존 위기와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영국의 반EU 정서가 확산되자 2013년 캐머런 당시 총리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우게 되었다. 즉, 보수당이 단독 집권할 경우 2017년까지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했고, 실제로 2015년 총선에서 과반을 조금 넘겨 승리했다.

연립정부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캐머런 총리는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일자를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영국내 다수 여론조사가 EU 잔류가 탈퇴보다 많을 것이란 결과를 발표했기에 캐머런 총리는 잔류 결정 국민투표로 정치적 입지를 굳힐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 예상치를 뒤엎고 EU 탈퇴로 결정되자, 영국과 EU는 물론이고 전세계가 충격을 받았다.

나.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전략³⁵⁾

2017년 3월말 영국 정부는 EU 탈퇴를 위한 협상 개시 의사를 EU에게 공식 통보함으로써 리스본협정 제50조에 따른 2년 시한의 브렉시트 절차가 가동되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을 통해 이민통제와 사법주권의 회복 등을 탈퇴분야 최우선 과제로 천명함에 따라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33) 김홍종 외(2017)를 참고하여 작성

34) 이 부분은 정인교(2018m)를 참조하여 작성

35) 이 부분은 양효은(2017)의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

추진하면서,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고자 하는 소프트 브렉시트(Soft Brexit)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EU는 회원국 역내 인력, 상품, 자본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이미 밝혔고, 영국은 이민통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어 EU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하드 브렉시트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양측이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7개월 만인 11월말 협상을 마무리했다.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과 영국-EU FTA 구축 등 미래 관계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테레사 메이 행정부가 합의한 브렉시트안에 대한 의회 비준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금년 영국 의회가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브렉시트안에 대해 하원 비준을 의무화했다. 부결 우려로 당초 금년으로 예정된 의회 표결을 내년으로 연기했으나 영국내 절차에 차질이 생길 경우 영국은 2019년 3월 29일자로 EU 회원국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만약 소멸 시점 이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영국은 EU 회원국 지위를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므로 탈퇴국인 영국이 협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었다. 영국은 탈퇴 협상과 탈퇴 후 EU-영국 관계 설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영국의 탈퇴를 곱지않게 보고 있는 EU가 이를 수용하지 않다가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통해 FTA 형태로 무역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초 EU는 선 영국의 탈퇴 협상, 후 관계 설정 협상을 요구했다. 브렉시트 협상은 4주 간격으로 열렸고, 양측 협상단은 2017년 12월까지의 전반기 협상 내용을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표한 바 있다. 전반기 주요 협상 의제는 영국과 EU 상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브렉시트 이전과 이후 권리,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문제, 영국의 EU 재정 의무 및 권리 정산³⁶⁾ 등이었다. 하지만, 첫 1년간 협상이 부진했고, 시장접근 등 나머지 사항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었다.

EU 탈퇴 협상 기한이 몇 개월 정도 남아 있었지만,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가능성을 예고하며 기업의 대응을 주문하면서 EU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으려 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영국과 EU는

36) 참고로 2014/15년 영국의 EU 분담금은 178억파운드이고, 브렉시트 비용은 520억파운드로 연간 분담금의 3배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4년 EU의 총 예산 1,430억유로이고, 영국은 EU 회원국 중 4번째로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이다. 1위는 독일로 20%, 2위 프랑스 18%, 3위 이탈리아 13%이다. 4개 주요 회원국의 분담금이 총 EU 예산의 절반에 해당

‘소프트 브렉시트’ 내용으로 브렉시트안에 타결했으나,³⁷⁾ 영국내 반대기류가 강해 테레사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1월말까지 브렉시트안이 영국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하게 되면 2019년 3월 EU가 영국의 회원국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하게 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영국은 WTO의 일반 규정에 따라 EU와 무역을 해야 하므로 손실은 EU보다 영국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 통상분야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막판에 영국 의회가 비준하거나 EU가 특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노딜 브렉시트’ 파국을 피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기존 EU 제도에 익숙한 우리 기업들은 브렉시트 후 영국의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를 예를 들어 보면,³⁸⁾ 유럽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EU는 회원국의 차별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범지역 차원의 제도 조화(Harmonization)를 추구해 왔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유럽에서 발전했으며, EU는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야를 통합해 왔음. 특허제도는 EU와 별도로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EU 회원국 지위와는 무관하다.³⁹⁾

브렉시트로 인해 당장 영향을 받는 것은 상표와 디자인 분야가 될 것이다. EU 상표제도는 EU 규정(Regulation)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영국은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기존의 EU 상표(EU Trade mark)는 더 이상 영국에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한국행정연구원 2016) 이는 EU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영국에서 상표권을 주장하려면 EU 상표와는 별도로 영국 상표(National UK Trade Mark)를 획득함을 의미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력이 소요된다. 잠정적으로 EU 상표(EUTM)를 영국 상표로 전환하기 위해 별도의 전환조치(Transitional Arrangements)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영국과 EU 간 협상이 불가피하지만 아직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EU 상표가 영국 상표로 전환이 필요한 건수는 백만 건이 넘을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행정적 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디자인도 비슷한 상황이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었음에도 브렉시트 이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차원 혹은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EU와의 시장

37) 소프트 브렉시트는 브렉시트 후 영국과 EU가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

38) 한국행정연구원(2016)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

39) 즉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등 EU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유럽특허조약에 가입하면 유럽 특허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개방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영국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은 매출 격감이 불가피할 것이다. 상품의 상표 등에 대해 영국의 제도를 충족시켜야 하며, 국가적으로는 무엇보다 영국과의 양자간 FTA 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⁴⁰⁾ 한-EU FTA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과 함께, 한-영 양국의 관심사항을 추가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브렉시트 후 영국과의 협상을 조기에 종료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입장 및 관심사항을 미리 연구해 두어야 한다.

다. 경기도 수출입에 대한 영향

브렉시트와 관련하여 아래 2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자 한다.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나리오 1과 같이 하드 브렉시트 혹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다. 소프트 브렉시트가 이루어지고 단기간내 한-영국 FTA가 체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시나리오 2로 가정하고자 한다.

<표 3-28> 계량 분석 시나리오

시나리오	가정	비고
시나리오 1	하드 브렉시트	높은 가능성
시나리오 2	한-영 FTA 체결	

내년 1월말까지 영국과 EU는 양측이 합의한 브렉시트안에 대해 의회비준을 마쳐야 하나, 현재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안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고 테레사 메이 총리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영국내 정치 지형으로 보면 1월말까지 비준 처리가 어렵고, 최악의 상황일 수 있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나리오 1(하드 브렉시트)의 경우, 경기도의 대영국 수출은 3천 2백만달러 감소하고 수입은 2억 75백만달러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대영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은 음식료업, 화학제품, 운송장비 제조업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하드 브렉시트에 따라 음식료업은 1,400만달러, 화학제품 제조업은 1,000만달러, 운송장비 제조업은 500만달러 수출이 감소될 수 있다.

40)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간 정상회담(유엔 본부)을 갖고 한·영 FTA 추진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표 3-29> 브렉시트 관련 경기도의 대영국 수출입에 미칠 영향

(단위: 백만달러, 변동액, 2030년 기준)

KSIC 산업분류	2017년 실적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농림수산업	36	14	0	0	0	1
음식료업	101	79	-14	-4	17	12
목재/종이/인쇄	72	181	0	-1	0	1
섬유, 가죽제품	111	74	0	-15	0	31
석탄, 석유제품	30	18	0	0	0	0
화학제품	832	4,606	-10	-28	10	46
1차금속제품	179	1,528	0	-3	0	4
금속제품	289	571	0	-2	0	2
비금속광물제품	105	505	0	-1	0	1
전기, 전자기기	1,021	1,659	-2	-26	2	31
정밀기기	342	5,644	-1	-9	1	15
기계 및 장비	1,154	3,767	-1	-14	1	23
운송장비, 부품	124	323	-5	-169	6	258
기타 제조업	180	140	0	-2	0	3
광업	3	8	0	0	0	0
합계	4,580	19,118	-32	-275	38	429

브렉시트 이후 한국과 영국이 FTA를 체결하는 경우 경기도의 대영국 수출은 3천 8백만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4억 29백만달러 증가하여 대영국 무역수지 적자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17년 적자액은 2억 62백만달러) 한-영 FTA를 체결하는 경우 국내 산업 중 경기도의 대영국 수출의 긍정적 효과가 큰 산업은 음식료업, 화학제품, 전기전자, 운송장비 제조업이 될 수 있다. 수출은 음식료업에서 1,700만달러, 화학제품은 1,000만달러, 운송장비 제조업은 6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경기도 시군별 영향

1) 영향 분석

가) 수출부문

시나리오 1과 2를 종합해 한국의 수출 영향을 살펴보면, 하드 브렉시트와 이후 한-영 FTA 체결에 따라 음식료업, 화학제품, 운송장비 제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브렉시트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 주요 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시군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브렉시트와 한-영 FTA 체결에 따른 경기도 파급영향을 살펴보고 대응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브렉시트에 따른 경기도 음식료업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조제식료품(210690)과 파스타(190230)가 될 것이다. 조제식료품은 2017년 330만달러 수출되었으며 음식료업 전체 수출의 52.3%를 차지하며 높은 비중을 보이는 품목이다. 조제식료품을 수출하는 주요 시군은 하남시, 성남시와 화성시이며 하남시의 경우 180만달러를 수출하며 경기도 전체 수출의 54.4%를 담당하고 있다. 파스타(라면 포함)는 2017년 110만달러 수출되었으며 음식료업 전체 수출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 파스타를 수출하는 주요 시군은 시흥시와 이천시이다. 이들 두 시군은 각각 50만달러와 40만달러를 수출하며 전체 파스타 수출의 87.9%를 담당하고 있다.

<표 3-30> 브렉시트에 따른 수출 영향 품목과 시군

(단위: 백만달러, %)

산 업	품목별		2017년 수출		시군별		
	HS6	품목명	금액	비중	시군	수출액	비중
음식료업	210690	조제식료품	3.3	52.3	하남시	1.8	54.4
					성남시	0.6	19.7
					화성시	0.6	19.1
	190230	파스타 (라면포함)	1.1	17.5	시흥시	0.5	47.8
화학제품	852351	반도체 매체	19.2	22.5	이천시	0.4	40.1
					화성시	18.9	98.0
					화성시	7.1	99.8
	392690	기타플라스틱	5.9	6.9	수원시	2.0	34.0
운송장비	870332	1,500~2,500cc 승용차	195.8	41.4	고양시	1.7	29.5
					화성시	129.4	66.1
	870322	1,000~1,500cc 승용차	108.1	22.9	평택시	44.2	22.6
					화성시	63.8	59.0
	870321	1,000cc 이하 승용차	87.9	18.6	광명시	44.3	41.0
					화성시	44.4	50.5
					광명시	43.5	49.5

주 1) 2017년 수출액의 비중(%)은 해당 산업에서 해당 HS코드가 차지하는 비중임.

2) 시군별 수출액 비중(%)은 해당 HS코드에서 해당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브렉시트에 따른 경기도 화학제품 제조업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반도체 매체(852351), 합성섬유(550320), 기타플라스틱(392690)이다. 반도체 매체는 2017년 1,920만달러 수출되었으며, 화학제품 제조업 전체 수출 중 2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주로 화성시에서 수출된다. 합성섬유는 2017년 710만달러 수출되었으며 전체 화학제품 제조업 수출 중 8.3%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플라스틱은 2017년 590만달러 수출되었으며 주로 수원시(34%)와 고양시(29.5%)에서 수출하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한 경기도 운송장비 제조업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승용차(8703)이다.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승용차는 주로 3,000cc 이하의 준중형, 소형, 경형 자동차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시군은 화성시, 평택시와 광명시이며 3개 시군의 비중은 전체 수출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나) 수입부문

시나리오 1의 하드 브렉시트에 따라 경기도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산업은 화학제품, 전기전자, 운송장비 제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하드 브렉시트에 따라 화학제품은 2,800만달러, 전기전자 제조업은 2,600만달러, 운송장비 제조업은 1억 6,900만달러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이후 한국과 영국이 순조롭게 FTA를 체결하는 경우 국내 산업 중 경기도의 대영국 수입의 긍정적 효과가 큰 산업은 섬유가죽, 화학제품, 전기전자, 운송장비 제조업이 될 수 있다. 수입은 섬유가죽제품에서 3,100만달러, 화학제품은 4,600만달러, 전기전자는 3,100만달러, 운송장비 제조업은 2억 58백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나리오 1과 2를 종합해 한국의 수입 영향을 살펴보면, 하드 브렉시트와 이후 한-영 FTA 체결에 따라 섬유가죽, 화학제품, 전기전자, 운송장비 제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4개 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주요 수입 품목과 시군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브렉시트와 한-영 FTA 체결에 따른 경기도 파급영향을 살펴보고 대응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브렉시트에 따른 경기도 섬유가죽제품 제조업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기타 가죽케이스(420219, 420299)와 스키슈트, 수영복의 의류(621149) 등이 될 수 있다. 가죽케이스(420219)는 2017년 1,800만달러 수입되었으며 섬유가죽 제조업 전체 수입의 14.1%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 시군은 수원시, 성남시와 고양시이며 대표적으로 수원시는 21만달러 수입하였으며 전체 가죽케이스 수입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가죽케이스(420299)는 2017년 600만달러 수입되었으며, 섬유가죽 제조업 전체 수입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 시군은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등이나 여러 시군에 고루 분포 되어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스키슈트, 수영복의 의류는 2017년 800만

달러 수입되었으며, 이는 섬유가죽 제조업 전체 수입의 6.7% 수준이다. 주요 시군은 성남시, 고양시와 용인시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브렉시트에 따른 경기도 화학제품 제조업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비타민 C 유도체(293627)와 의약품(300490)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C 유도체는 2017년 1,970만달러 수입되었으며 화학제품 제조업 전체 수입의 10.7%를 차지하고 있다. 비타민 C 유도체를 수입하는 주요 시군은 성남시, 화성시와 안산시이며, 성남시의 경우 1,140만달러를 수입하며 경기도 전체 수입의 57.8%를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은 2017년 5,100만달러 수입되었으며 화학제품 제조업 전체 수출의 27.6%를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을 수출하는 주요 시군은 남양주시와 안양시이며, 남양주의 경우 4,220만달러를 수입하며 의약품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브렉시트에 따른 경기도 전기전자 제조업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마이크로 웨이브 관(854079), 컴퓨터부품(847330)과 1,000볼트 이하 전기제어기(853710)이다. 마이크로 웨이브 관은 2017년 850만달러 수입되었으며 전액 모두 용인시에서 수입하고 있다. 컴퓨터부품은 2017년 280만달러 수입되었으며, 전체 전기전자 제조업 중 4.3%의 비중으로 낮은 편이다. 수입은 주로 성남시, 광명시와 이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기제어기는 350만달러 수입되었으며, 주요 수입 시는 안산시, 화성시와 용인시이다.

브렉시트에 따른 경기도 운송장비 제조업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승용차(870324), 자동차엔진(840820)과 주거·캠핑용 트레일러(871610)이다. 승용차는 3,000cc 이상의 대형승용차에 해당하며 운송장비 전체 수입의 10.4%를 차지하고 있다. 승용차는 주로 성남시에서 수입되며 2017년 550만달러가 수입되며 전체 승용차의 86%에 해당된다. 자동차엔진은 2017년 750만달러 수입되었으며, 운송장비 전체 수입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대부분 부천시에서 이뤄지며 2017년 부천시의 수입액은 740만달러이다. 주거·캠핑용 트레일러는 2017년 580만달러가 수입되며, 전체 운송장비 수입의 9.4%를 차지한다. 수입은 주로 안양시, 성남시와 용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3-31> 브렉시트에 따른 수입 영향 품목과 시군

(단위: 백만달러, %)

산 업	품목별		2017년 수입		시군별		
	HS 6	품목명	금액	비중	시군	수입액	비중
섬유가죽	420219	기타가죽 케이스	1.8	14.1	수원시	0.21	11.7
					성남시	0.17	9.8
					고양시	0.17	9.3
	420299	기타가죽 케이스	0.6	5.1	용인시	0.071	11.1
					고양시	0.064	9.9
					성남시	0.063	9.9
					수원시	0.063	9.8
	621149	스키슈트, 수영복의 의류	0.8	6.7	성남시	0.138	16.4
					고양시	0.100	11.9
					용인시	0.097	11.6
화학제품	293627	비타민 C 유도체	19.7	10.7	성남시	11.4	57.8
					화성시	4.0	20.2
					안산시	3.9	19.7
	300490	의약품	51.0	27.6	남양주	42.2	82.7
전기전자	854079	마이크로 웨이브 관	8.5	13.2	용인시	8.5	100.0
	847330	컴퓨터부품	2.8	4.3	성남시	1.1	39.9
					광명시	0.5	17.9
					이천시	0.5	17.0
	853710	1,000볼트 이하 전기제어기	3.5	5.4	안산시	1.1	32.7
					화성시	0.8	23.6
					용인시	0.5	15.2
운송장비	870324	3,000cc 초과 승용차	6.4	10.4	성남시	5.5	86.0
	840820	자동차엔진	7.5	12.2	부천시	7.4	99.5
	871610	주거, 캠핑용 트레일러	5.8	9.4	안양시	2.6	44.5
					성남시	1.3	22.9
					용인시	1.2	20.7

주 1) 2017년 수출액의 비중(%)은 해당 산업에서 해당 HS코드가 차지하는 비중임.

2) 시군별 수출액 비중(%)은 해당 HS코드에서 해당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 협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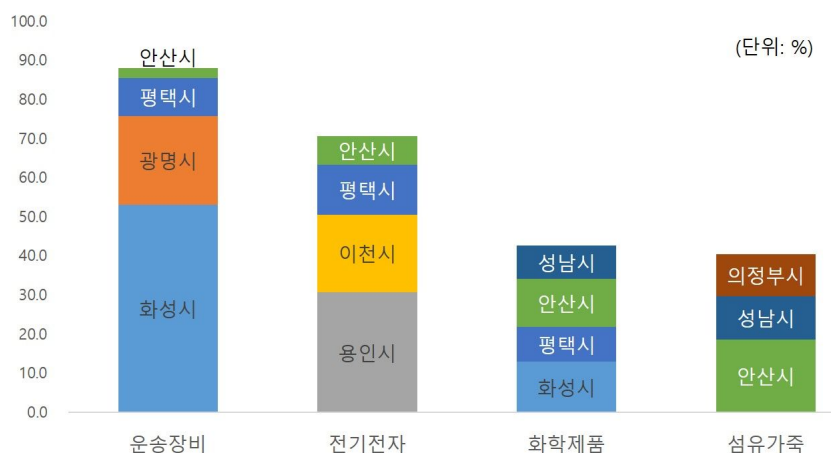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영국과의 FTA는 수세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제조업 대부분에 대해 저관세 체계를 가진 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관세수준이 높아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이 높다. 수출 효과는 음식료업, 화학제품 등에서 천달러 수준에 그치는 가운데, 수입증가 효과는 운송장비(부품), 화학제품, 섬유가죽과 전기전자 제조업 등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운송장비 제조업의 수입증가는 2억 58백만달러 규모로 매우 큰 편이다.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 한-영 FTA 체결 추진 시 피해가 예상되는 제조업 분야의 관세 양허에 신중하도록 통상당국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무역조정지원제도 등 국내 기업이 국내보완대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할 필요가 있다.

한-영 FTA 추진에 따라 피해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의 경기도 과급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산업에서 수출이 이루어지는 시군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먼저, 운송장비를 수출하는 주요 시군은 화성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로 화성시의 경우 경기도 전체 운송장비 수출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전자기기를 수출하는 주요 시군은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와 안산시이며, 용인시와 이천시가 전기전자 제조업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0.7%와 19.9%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주요 시군은 화성시, 평택시, 안산시와 성남시이다. 섬유가죽제품을 수출하는 주요 시군은 안산시, 성남시와 의정부시이다.

산업별로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과 시군에 대해 경기도는 FTA 협상과정에서 관세가 단기에 철폐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를 구하며, 기업이 국내보완대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안산시는 4개 산업 모두에 공통적으로 대영국 주요 수출 시군으로 자리 잡고 있어 한-영 FTA 체결에 따른 수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도 피해업종 중 운송장비, 전기전자, 화학제품 등 세 곳이 중복될 수 있다. 이외에도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서 수출이 이루어지는 시군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3-6> 한-영 FTA에 따른 피해산업의 시군별 대영국 수출 비중 분포



자료: 무역통계 활용 연구진 분석

한-영 FTA 추진으로 예상되는 피해산업 중 경기도에서 수출되는 품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품목이 한-EU FTA에서 어떻게 양허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한-영 FTA 추진 시 경기도에서 보호해야 할 품목을 통상당국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승용차의 MFN 관세는 8% 수준이며 한-EU FTA에서는 3년내 철폐되었으나 1,000~1,500cc의 소형자동차의 경우 5년내 철폐되었다. 경기도의 승용차 대세계 수출액은 10억달러 이상의 규모이지만, 한-영 FTA 체결로 승용차 수출보다는 수입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분품과 부속품 생산의 경우 중소기업이 다수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EU FTA에서 즉시 철폐된 품목이므로 한-영 FTA 추진 시에도 영국 측에서 즉시철폐를 요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도는 도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해 기업의 입장을 통상당국에 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의 경우 한국의 관세율이 대부분 0%이며, 정보기술협정(ITA)을 통해 선진국 간 관세율이 자유화되어 한-영 FTA 추진에 따른 협상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3-32> 품목별 MFN 관세와 한-EU FTA 양허유형

(단위: 백만달러)

산 업	HS code	품목명	MFN	한-EU FTA 양허유형	경기도의 대세계 수출
운송장비	8703.23-1010	2,000cc 이하 승용차	8%	3년내 철폐	1,254
	8703.24-1010	3,000~4,000cc 승용차	8%	3년내 철폐	1,904
	8703.22-7000	1,000~1,500cc 승용차	8%	5년내 철폐	1,428
	8708.99-9000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8%	즉시철폐	1,184
화학제품	3304.99-1000	기초화장용제품	8%	5년내 철폐	488
	3919.9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 필름	6.5%	즉시 철폐	702
	3926.90-9000	기타 플라스틱	8%	3년내 철폐	417
섬유가죽	6004.10-0000	탄성사 함유량 5% 이상인 편물	10%	즉시 철폐	317
	4107.92-0000	그레인스플릿 처리한 동물가죽	5%	즉시 철폐	291
	5903.20-0000	폴리우레탄의 것	10%	즉시 철폐	22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tat), 관세법령정보포털, 한-EU FTA 협정문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품목이 매우 다양하며 MFN 관세는 6.5~8.0% 수준이다. 품목에 따라 수출액도 상이하며 2017년 기준 기초화장품의 경우 4.9억 달러, 플라스틱 판과 필름은 7억달러, 기타 플라스틱은 4.2억달러 수출되고 있다. 기초화장품의 경우 8%의 관세가 한-EU FTA에서 5년 철폐되었다.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판과 필름 역시 6.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다. 기타 플라스틱으로 분류되는 품목의 경우 8%의 관세가 3년 철폐되었다.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도 최소 5년 철폐를 통관당국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섬유가죽 제조업의 경우 HS코드 세번이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한-EU FTA에서 대부분 즉시 철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제품 수출은 품목마다 2.2 ~ 3.2억달러 이상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영국과의 FTA를 통해 섬유제품의 관세가 EU와 마찬가지로 즉시 철폐되는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섬유산업 품목별 규모에 차이가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섬유분야 즉시철폐하되 가죽제품 등 영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는 5년 내외의 관세철폐 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파급영향

가. 한-메르코수르 FTA 의의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이뤄진 중남미 최대 경제블록으로, 중남미 전체 인구의 70%(2억6000만명), 국내총생산(GDP)의 76%(2조8000억달러)를 차지하는 성장 잠재력 높은 유망시장이다.

세계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하나이면서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시장이지만, 메르코수르는 전통적으로 내부지향적인 경제성장전략을 추구해 왔고 대외시장개방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약 20여개의 주권국과 속령 등으로 구성된 남미를 대표하는 무역협정인 메르코수르는 대체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하며 자국 산업 보호에 치중하고, 자체 통합도가 낮으며 FTA 체결실적이 부진하다.

최근 친시장적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메르코수르는 개방적인 대외통상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우리나라와의 무역협정(TA) 공식협상이 진

행 중이다. 최근 역내 국가들이 친(親)무역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정치경제적 변수가 많아 협상 진행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메르코수르 국가의 전체 지출 중 투자 비중이 20% 이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 역량이 취약해 칠레 등 인근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대외통상 협력 기반이 부실하다.

<표 3-33> 메르코수르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현황	대상국	체결일	협정 종류
체결/발효	이스라엘	2007.12.18	FTA
	이집트	2010.8.2	
	인도	2004.1.25	무역협정
	모로코	2004.11.26	
	멕시코	2002.9.27	자동차협정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2008.6.27	특혜무역협정
	안데스공동체(CAN)	2004.10.18	경제보완협정 (ECA)
	볼리비아	1996.12.17	
	칠레	1996.6.25	
	페루	2005.11.30	
협상단계	캐나다		FTA 혹은 무역협정
	EU		
	멕시코		
	한국		
추진단계	GCC		미정
	요르단		
	중미통합체제(SICA)		
	파나마		
	카리브공동체(CARICOM)		

개도국들은 자본재와 중간재를 수입하고 최종재를 가공수출하는 무역구조가 일반적인데 비해, 메르코수르는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무역산업의 구조적 특징이 보호무역주의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지역경제공동체를 구축하였지만, 메르코수르의 회원국간 산업별 분업화가 그다지 진전되지 않았으며, 회원국 전체적으로 농업 비중이 높고 역내 분업 수준은 낮은 편이다.

<표 3-34> 메르코수르의 지출 형태별 구성

구 분	민간소비	투자	정부	순수출
아르헨티나	65.5%	16.9%	18.5%	-0.8%
브라질	63.8%	17.6%	19.7%	-1.2%
파라과이	69.6%	16.8%	12.8%	0.8%
우루과이	66.8%	19.7%	13.8%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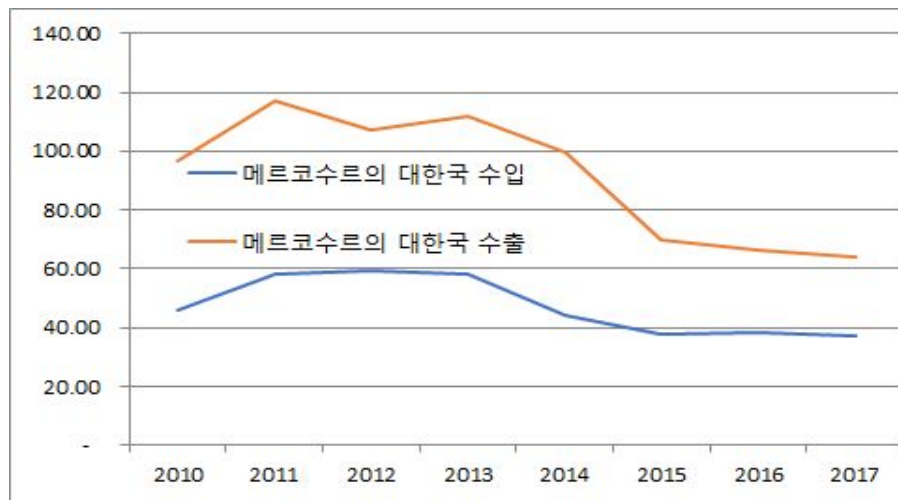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Indicator, 2017

우리나라는 메르코수르에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재료와 1차 산품을 수입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으로 양 지역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 및 모바일인터넷의 높은 보급률, 스마트시티 시장 성장성, IT·바이오·식품 분야 기술 기반형 혁신기업 확산 등은 최근 메르코수르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통해 두 지역의 자원·기술·인력 교류는 물론 신산업분야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

양 지역간 무역협정 협상이 체결될 경우,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의 남미 대륙을 대표하는 무역협정을 통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선점 효과가 클 수 있다. 우리나라는 메르코수르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해 왔으나, 최근 들어 중국의 현지 진출이 늘어나면서 교역 및 흑자 규모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더구나 남미 최대 경제국가인 브라질의 경제회복으로 자동차와 부품, 전기 전자기기 등을 비롯한 내구재와 소비재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수출의 미·중 의존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고 있어 수출시장 다변화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브라질 경제의 회복은 우리에게 큰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부품 및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센서, 합성수지 등은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소비재 수출은 50%의 높은 증가율에도 아직까지 수출 규모가 미미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무역협정을 통한 관세 인하로 소비재 수출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3-7> 메르코수르의 대한국 수출입 변화 추이

(단위: 억달러)



자료: K-STAT(무역협회)

최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신정부가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면서 메르코수르의 대외통상기조도 전환기를 맞고 있어, 우리나라는 이 기회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조기체결을 위한 외교통상적 노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시 전자제품·기계류 등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대브라질 수출 유망품목은 자동차 부품, 전기기기, 의약품, 전화기 부품품,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및 변압기 등이 될 수 있고,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화물차와 무선전화기 및 부품이, 우루과이와 파라과이 시장에서는 소형 승용차, 무선전화기, TV 수신용 기기, 이륜자동차 등의 수출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나. 메르코수르의 통상정책과 무역협정 전망

1) 메르코수르의 통상정책

메르코수르는 ‘관세동맹’에서 ‘공동시장’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으나(Estevadeordal et al. 2008), 시간이 갈수록 메르코수르가 발전하기 보다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Limão 2006, Karacaovali and Limão 2008) 무역장벽이 완화된다고 보다는 반대로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경제통합을 이끌어내야 할 브라질의 역할이 제한적이란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행히 내년 1월 집권하게 될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

령 당선인이 "이전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브라질을 이끌 것"임을 주장하고 있어 통상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새 정부는 시카고대 출신 경제학자를 다수 영입하여 각종 개혁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통합 발전단계상 관세동맹 수준인 메르코수르는 0%~20% 수준의 역외공동관세(CET)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동맹에 대한 예외가 많아 교역품목의 약 70%(총 9,750여 개 품목)에 대해서만 대외공동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질적으로 관세동맹으로서 한계가 있다. 즉 역외공동관세를 설정하면서도 다수 민감 품목에 한해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설정을 허용하고 있어 관세동맹으로서의 특색이 약한 편이다.

메르코수르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지만, 국별 경제규모와 발전단계가 상이한 남미 국가의 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FTA 추진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더구나 메르코수르는 '남-남 협력'을 강조하는 탈자유주의 지역주의(Post-Liberal Regionalism)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무역규범을 선도하는 선진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회피하는 성향을 보여 왔다. 지금까지 체결한 협정은 시장접근 측면에서 모두 낮은 수준이며, 포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협상의 기본 원칙으로 지역 대 지역 접근, 포괄적 협정을 지향하면서도 민감품목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역경제통합 목표 달성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FTA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서는 관세동맹으로서 통상분야 제도 통합이 부진하다. 메르코수르는 공식적으로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지만, FTA에 대한 기피현상이 적지 않다. 따라서 FTA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RTA(지역무역협정) 또는 TA(무역협정)라는 단어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특유의 국제정치적 환경을 반영하여 '남-남 협력'을 중시하며, 농산물 수출시장 확보를 실질적으로 최대의 협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브라질 등 메르코수르 국가 대부분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하고 낙후된 통상규범을 유지하고 있어 국내조치는 물론이고, 국경조치(on-the-border)상의 무역장벽도 높다.

전통적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경제력이 강한 무역강국과는 FTA 추진을 꺼리는 경향을 갖고 있다. 메르코수르의 FTA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역외국가 중 이스라엘, 이집트와 FTA를 체결했으며, 인도 및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과는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特惠무역협정(PTA)을 체결하였다. 역외 선진국인 미국과 EU와의 FTA를 추진한 바 있지만, 미국과의 FTA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은 2005년 중단되었고, EU와의 FTA 협상은 거의 20년

제 진행하고 있으나 EU측 전망과는 달리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협상 재개 이후에도 EU와의 FTA 협상은 여전히 부진하며, 역내·외 경제 상황 및 국별 이해관계 차이가 커 높은 수준의 타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EU측은 브라질의 신임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개방정책에 기대하고 있다.

2)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전망

메르코수르의 정치경제적 여건, 산업적 특성, 산업-통상 정책으로 보면, FTA를 체결하더라도 적극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으로 수입대체전략(ISI)을 추진해 왔고 아직도 보호무역주의적 정책 잔재가 남아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FTA보다는 메르코수르가 수용할 수 있는 형태를 추진해야만 일정기간내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다.

한-메르코수르 경제협력을 SWOT 구조로 분석해 보면, 먼저 강점(Strengths)은 우리 기업의 상대적으로 앞선 품질 및 기술 경쟁력, 우리 기업의 우수한 인적자본, 메르코수르 진출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다양한 무역·투자 지원 서비스 제공 및 메르코수르 국가 내 한국 교민사회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약점(Weaknesses)도 제기된다. 중국 등과 비교하여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낮고, 물리적 위치, 남미의 비즈니스 관행과 소비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및 FTA 미체결 등이 우리나라의 약점이 될 수 있다.

메르코수르는 무선통신,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보호를 위하여 FTA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이나, 우리나라는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경쟁국인 EU, 중국보다 우선하여 남미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현재 메르코수르는 메르코수르-EU FTA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한국과의 무역협정은 후순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메르코수르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할 수 있는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한국 입장의 의제는 첫째, 한국의 우위산업인 전자, 자동차, 뷰티,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개방 요구
- 둘째, 메르코수르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공동 개발 투자를 제안하며, 이에 따른 소유 및 경영권 인정, 과실송금 보장, 정부 금융지원 및 규제완화와 같은 제도적 보장을 함께 요구
- 셋째, 메르코수르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 확대 방안 모색

반면, 메르코수르는 농업분야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하며, 상호 ‘원-원’ FTA를 위한 인력이동, SPS, 투자, 기술협력 등을 요구할 것이다.

양측의 요구사항을 비교·분석해 보면, 민감 분야 처리와 협상범위 등에 대한 이견, 이해관계 그룹의 반대 등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되기 보다는 절충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3)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이슈 평가

EU-메르코수르 FTA 협상과 같이 20년 이상에 걸친 협상보다는 단기적인 실적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협정 발효 일정 시점 후 추가 자유화 논의 장치를 협정에 포함시켜, 양측간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협정의 추가자유화 협상을 통해 경제이익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양측의 협상당국은 일정 기간내 타결가능한 협상 목표를 설정하고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양측의 경제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높고 포괄적인’ 협정보다는 양측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 상호 입장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협상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양측은 각각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고 무역협정 체결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수준의 FTA에 대한 메르코수르의 거부감을 고려해 양측 모두 정치적 부담과 경제적 파장이 크지 않도록 최소한의 개방에 만족하는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 체결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공식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무역협정’ 추진을 제시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아세안 상품분야 무역협정을 모델로 민감품목 자유화 예외 인정, 장기간의 이행기간 부여, 상품관련 무역규범 추가 등 내용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

관세양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농업을 고려하여 일정 개수(비중)의 민감품목을 설정하고 일반품목에 대해서는 단기간내 관세철폐를, 메르코수르는 우리나라에게 농축산물을 양허대상에 포함시키고 일반품목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관세철폐 일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르코수르 국가들에게 협상 지속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 관심품목의 시장접근을 일정 수준 허용해야 할 것이다.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제공하거나 상대국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관세율할당(TRQ): 관세율할당 설정을 통해 농축산물에 대한 메르코수르 국가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전략도 검토할 필요⁴¹⁾

- TBT와 SPS: TBT와 SPS는 상품 시장접근에서 관세못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므로 양측이 제기할 수 있는 사항임. TBT는 우리나라의 관심사항으로 TBT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WTO+ 형태의 내용을 제안해야 할 것이고, 메르코수르측은 축산물 수출을 위한 검역절차와 관련된 SPS 개선사항을 요구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대응이 필요함.

<표 3-35> 한-메르코수르 FTA 관심사항

구분	한국 관심사항	메르코수르 관심분야	비고
TBT	○		기술표준, WTO+ 형태
SPS		○	검역절차
인력이동		○	
전자상거래	○	○	민감사항 제외
원산지기준 완화	○		
환적 규정		○	
누적 규정	○		
정부조달	○		

- 인력이동 허용: 메르코수르는 상품분야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농축산물 시장접근 확대 외에 인력이동 허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한·인도 CEPA에서 보듯이 독립전문가(IP)를 허용하는 조건과 범위에 따라 실제 인력이동 허용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수 있음. 하지만 FTA에 인력이동을 처음으로 포함시키게 되면 메르코수르의 역내 홍보효과로 협상에 탄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인력이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함.
-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는 양측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이슈로 평가됨.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센터 국외 허용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이 유사하므로 큰 쟁점이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원산지기준: 메르코수르의 역내 부가가치 비중 60% 원산지기준을 대폭 완화시켜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과 간접검증을 채택해야 함. 우리나라에서 남미까지 운송로를 감안하면 일정 조건하에 환적이 탄력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교차누적(Cross Cumulation) 허용 제안
- 정부조달: 메르코수르는 정부조달 분야에 대해 강력한 보호장치 적용 중

41) 관세율할당(TRQ) 제도는 FTA 협정에서 정한 물량에 대하여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본 관세를 부과하여 개방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과도한 수입증가 방지를 위한 이중관세제도임. 수출국들에게 낮은 세율로 일정량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관세를 철폐할 경우, 과도한 수입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임. 무역협정을 통해 정부조달 개방을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현재 EU가 메르코수르와의 FTA에서 정부조달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 협상의 추이를 감안하여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정부조달 시장접근 챗터를 협상전략 차원에서 제기하거나, 협정 발효 후 논의하는 의제(built-in agenda)로 설정하는 전략 추진이 가능할 것임.

최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메르코수르 국가들이 우리 수출품에 대한 다양한 보호무역조치를 적용하고 있고, 신흥경제권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시장선점 차원에서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을 조기에 타결해야 할 것이다.

다. 경기도에 대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파급영향

1) 관세 수준

경제통합 발전단계상 관세동맹 수준인 메르코수르는 0%~20% 수준의 역외 공동관세(CET)를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동맹이 느슨한 형태여서 교역 품목의 약 70%(총 9,750여 개 품목)에 대해서만 대외공동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국가별 관세율 수준도 차이가 있다. 가공정도 및 부가가치에 따른 경사 관세구조를 가지며 생산단계에 따라 2%씩 총 11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원자재는 0~12%, 농산품은 10~12%, 자본재는 12~16%, 소비재는 18~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표 3-36> 메르코수르 4개국의 주요 공산품 MFN 실행관세율

(단위: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석유제품	0.1	0.1	0.1	0.1
화학제품	8.3	8.2	7.8	7.6
섬유	23.3	23.3	16.4	16.3
의류	35.0	35.0	20.0	20.6
기계	12.8	13.4	3.3	2.4
전기전자	14.1	14.8	11.3	7.0
수송기계	18.2	18.5	9.0	6.6
기타 제조업	15.3	15.7	13.1	10.9
비농산물 전체	14.1(10.3)	14.3(12.8)	10.5(9.2)	9.8(6.2)

주 1) MFN 실행관세율은 2016년 기준(단순평균)

2) 괄호 안은 가중평균

자료 : WTO World Tariff, 무역협회(2018) 재인용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역외공동관세를 설정하면서도 일부 품목에 한해 국가별로 다른 관세율 설정을 허용하고 있다. 2016년 브라질의 비농산물 MFN 가중평균세율은 14.1%(단순평균 10.3%)이고, 아르헨티나 14.1%, 우루과이 10.5%, 파라과이 9.8% 순이다. 브라질의 WTO 양허세율은 평균 31.4%로 실행세율의 2배 이상 높게 설정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 관세율을 현행 2배 이상 올릴 수도 있다. 2009년 말 브라질은 경기부진을 이유로 낙농, 장난감, 가방, 백팩, 여행용 가방 등 수백 종류의 상품 관세를 양허세율 수준까지 올렸고, 이로 인해 주요 교역국들과 통상갈등을 겪은 바 있다.

2) 메르코수르 수출 유망 품목(무역협회, KOTRA)

금년 들어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무역협회와 KOTRA는 무역협정 체결시의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무역협회는 현재 메르코수르의 품목별 수입실적이 높은 5개 품목(HS6단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메르코수르 수출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선정하였는데, 기타 의약품(300490), 전화기 부분품, 면역혈청, 기타 자동기기, 반도체 등 5개 품목이다. 메모리와 전화기 부분품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현지 시장 점유율이 낮은 품목들이다.

<표 3-37> 대브라질 수출 유망품목(무역협회 선정)

(단위 : 백만달러, 2016년 기준)

수입액 상위 5개 품목						
HS1)	품목명	수입액	연평균 증가율2)	대한국 수입액	한국 점유율	MFN3)
300490	기타 의약품	2,447.0	-2.5	1.1	0.0	0~14
851770	전화기 부분품	2,223.3	-8.8	222.0	10.0	2~16
300210	면역혈청	1,723.5	-8.1	41.4	2.4	0~8
903289	기타 자동기기	745.8	-9.3	27.5	3.7	12~18
854232	메모리 반도체	716.5	-10.5	494.0	69.0	0~8

주 1) HS코드 6단위 기준

2) 2013년~2016년 기준

3) 해당품목의 MFN 실행관세율

자료 : WTO, UN Comtrade, 무역협회(2018) 재인용

한편, KOTRA는 현지 무역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현지 바이어와 현지 소비자 뽑은 한국의 히트 상품을 발표하였다. 현지 바이어가 선호하는 품목은 자동차, 배터리, 중장비, 이음관, 진공펌프, 의료기기, 화장품 등이다. 현지 소

비자는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비비크림, 샴푸, 프라이팬, 주스, 조미김, 공구 등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다.

<표 3-38> 메르코수르 현지 한국 히트 상품

현지 바이어가 뽑은 한국의 히트 상품		현지 소비자가 뽑은 한국의 히트 상품	
품목	관세율	품목	관세율
자동차(브라질)	35%	타이어	5%
자동차(파라과이)	10-25%	브레이크 패드	18%
자동차용 배터리	10%	비비크림	35%
중장비	14%	샴푸	15%
석유·가스 전용 이음관	14-18%	프라이팬	20%
진공펌프	14%	과일·야채주스	14%
의료기기	14%	조미김	6%
화장품	18%	다이아몬드 공구	6%
윈도우 필름	16%		
낙시용품	17%		

자료: KOTRA(2018) 요약

3) 경기도 수출입에 대한 영향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협상이 초기단계라 양측의 시장개방안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무역개방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5개 시나리오는 무역자유화 수준과 일정을 다양화하면서 농업 개방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농업의 경우, 검역 등 수입 흐름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무역개방안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추정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39>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무역자유화 시나리오

	무역개방 가정
시나리오 1 (S1)	즉시 50% 관세 인하, 2년차 50% 인하로 완전철폐
시나리오 2 (S2)	즉시 50% 관세 인하, 2년차 20%, 6년차 20%, 11년차 10%
시나리오 3 (S3)	즉시 50% 관세 인하, 2년차 20%, 6년차 20%
시나리오 4 (S4)	즉시 50% 관세 인하, 2년차 20%, 6년차 10%
시나리오 5 (S5)	즉시 50% 관세 인하, 6년차 20%

<표 3-40>과 <표 3-41>은 시나리오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수출입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대메르코수르 수출 증

가액이 수입 증가액보다 높아 무역수지흑자 개선과 경기도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간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는 시나리오 1하에서 경기도의 대메르코수르 수출은 13억60백만달러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7년 경기도의 대메르코수르 수출액 14억92백만달러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자유화 수준이 떨어지는 시나리오 5하에서 수출 증가액은 8억57백만달러로 시나리오 1에 비해 크게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3-40> 시나리오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수출입 영향(1)

(단위: 백만달러, 변동액)

KSIC산업분류	2017년 실적		S1(변동액)		S2(변동액)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농림수산업	1	187	0	320	0	246
음식료업	6	209	5	357	4	274
목재/종이/인쇄	4	5	5	6	5	6
섬유,가죽제품	14	14	36	9	36	9
석탄,석유제품	1	0	0	0	0	0
화학제품	149	44	131	2	131	2
1차금속제품	12	18	10	1	10	1
금속제품	26	2	23	0	23	0
비금속광물제품	2	1	2	0	2	0
전기,전자기기	871	13	586	1	586	1
정밀기기	194	2	170	0	170	0
기계 및 장비	78	1	68	0	68	0
운송장비	128	5	315	3	315	3
기타 제조업	8	0	9	0	9	0
광업	0	0	0	0	0	0
합계	1,492	501	1,360	700	1,358	543

<표 3-41> 시나리오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수출입 영향(2)

(단위: 백만달러, 변동액)

KSIC산업분류	2017년 실적		S3(변동액)		S4(변동액)		S5(변동액)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농림수산업	1	187	0	295	0	160	0	201
음식료업	6	209	4	330	3	179	3	224
목재/종이/인쇄	4	5	4	5	4	5	3	4
섬유,가죽제품	14	14	30	8	25	7	20	6
석탄,석유제품	1	0	0	0	0	0	0	0
화학제품	149	44	114	2	98	2	83	1

1차금속제품	12	18	9	1	8	1	6	1
금속제품	26	2	20	0	17	0	14	0
비금속광물제품	2	1	1	0	1	0	1	0
전기,전자기기	871	13	516	1	448	1	384	1
정밀기기	194	2	148	0	128	0	108	0
기계 및 장비	78	1	59	0	51	0	43	0
운송장비	128	5	267	3	223	3	184	2
기타 제조업	8	0	8	0	6	0	5	0
광업	0	0	0	0	0	0	0	0
합계	1,492	501	1,182	645	1,013	356	857	439

라. 경기도 시군별 영향

1) 영향 분석

가) 수출부문

한-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따라 경기도의 대메르코수르 수출은 최소 8억 57백만달러에서 최대 13억 6천만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대메르코수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은 전기전자기기, 운송장비, 정밀기기 제조업이다. 한-메르코수르 FTA로 전기전자기기는 최대 5억 86백만달러, 운송장비는 3억 15백만달러, 정밀기기 제조업은 1억 7천만달러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3가지 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주요 수출 품목과 시군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한-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따른 경기도 파급영향을 살펴보고 대응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따른 경기도 전기전자기기 제조업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전화기부품(851770)과 TV부분품(852990)이다. 전화기부품은 2017년 5억 2,840만달러가 수출되고 있고, 전기전자기기 제조업 전체 수출의 60.4%를 차지하며 특정품목 수출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화기부품 수출은 대부분 평택시에서 수출되고 있었으며 2017년 수출액은 5억 1,620만달러로 전체 전화기부품 수출의 97.9%를 차지하고 있다. TV부분품은 2017년 1억 360만달러가 수출되었으며, 이는 전기전자기기 제조업 전체 수출의 11.8%에 해당된다. TV부분품 수출의 주요 수출 시군은 수원시와 평택시이며, 두 시군의 2017년 TV부분품 수출 비중은 각각 52.8%와 36.3%인 것으

로 계산된다.

한-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따른 경기도 운송장비 제조업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제동장치(870830), 승용차(870332), 수송자동차(870210)이다. 제동장치는 2017년 2,600만달러가 수출되었으며, 운송장비 제조업 전체 수출의 20.2%를 차지한다. 수출은 대부분 평택시에서 수출되며 전체 제동장치 수출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1,500~2,500cc 중형 승용차의 2017년 수출은 2,060만달러이며, 전체 운송장비 제조업 수출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 시군은 화성시와 평택시이며 화성시의 2017년 수출은 1,550만달러로 전체 중형 승용차 수출의 75.2%를 담당하고 있다. 15~35인용 수송자동차의 2017년 수출액은 1,490만달러로 전체 운송장비 제조업 수출의 11.6%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은 대부분 광명시에서 수출되며 2017년 광명시 수출은 1,480만달러로, 이는 전체 수송자동차 수출의 99.4%에 해당된다.

<표 3-42> 한-메르코수르 FTA에 따른 수출 영향 품목과 시군

(단위: 백만달러, %)

산 업	품목별		2017년 수출		시군별		
	HS6	품목명	금액	비중	시군	수출액	비중
전기전자	851770	전화기부품	528.4	60.4	평택시	516.2	97.9
	852990	TV부분품	103.6	11.8	수원시 평택시	54.7 37.6	52.8 36.3
운송장비	870830	제동장치	26	20.2	평택시	25.8	99.0
	870332	1,500~2,500cc 승용차	20.6	15.9	화성시 평택시	15.5 4.2	75.2 20.7
	870210	15~35인용 수송자동차	14.9	11.6	광명시	14.8	99.4
정밀기기	901380	액정디바이스	146.4	75.2	파주시 수원시	77.6 68.8	53.0 47.0
	900190	프리즘,반사경	12.2	6.3	수원시	12.2	99.8

주 1) 2017년 수출액의 비중(%)은 해당 산업에서 해당 HS코드가 차지하는 비중임.

2) 시군별 수출액 비중(%)은 해당 HS코드에서 해당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따른 경기도 정밀기기 제조업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액정디바이스(901380)와 프리즘, 반사경 등 렌즈(900190) 등이다. 액정디바이스는 2017년 1억 4,640억달러가 수출되었으며 전체 정밀기기 제조업 수출의 75.2%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액정디바이스를 많이 수출하는 시군은 파주시와 수원시로, 2017년 수출액은 각각 7,760만달러와 6,880만달러로 액정디바이스 수출의 53.0%와 47.0%를 차지하고 있다. 프리즘, 반사경 등 렌즈는 2017년 1,220만달러 수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정밀

기기 제조업 수출의 6.3% 수준이다. 수출은 대부분 수원시 지역에서 수출되며 2017년 수원시의 수출은 1,220만달러로 전체 렌즈 수출의 99.8%를 차지하고 있다.

나) 수입부문

한-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따라 경기도의 대 메르코수르 수입은 최소 4억 39백만달러에서 최대 7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대 메르코수르 수입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은 농림수산업과 음식료업이고, 수입 증가액은 각각 최대 3억 2천만달러와 3억 57백만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따른 경기도 농림수산업 중 가장 수입액이 클 수 있는 세부 품목은 옥수수(100590)와 커피(090111)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는 2017년 1억 5,150만달러가 수입되었으며 이는 전체 경기도 농림수산업 수입액의 대부분인 80.8%를 차지하였고, 수입은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안산시 등 여러 시군에 걸쳐 수입되며, 이들 시의 수입 비중은 각각 27.4%, 25.6%, 18.1%와 15.9%이다.

커피의 2017년 수입액은 1,590만달러이며 전체 농림수산업 수입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 시군은 광주시, 파주시와 성남시이며 전체 커피 수입 중 해당시군의 비중은 각각 18.3%, 14.2%와 13.9%이다.

한-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따른 경기도 음식료업 중 가장 큰 수입 영향을 받는 품목은 사료용 대두유박(230400), 닭고기(020714)와 대두유(150710)이다. 사료용 대두유박은 콩기름을 짜내고 난 찌꺼기를 의미하며 2017년 수입액은 8,670만달러로 전체 음식료업 수입의 41.4%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 시군은 이천시, 안산시와 평택시이며, 이들 3개 시가 경기도 전체 대두유박 수입의 60%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브라질로부터 수입되는 닭고기는 2017년 6,220만달러 수입되었으며 이는 전체 음식료업 수입의 29.3%에 해당된다. 주요 수입 시군은 안양시, 용인시, 광주시, 파주시와 안산시로 여러 시군에 걸쳐 수입되고 있다. 콩기름을 뜻하는 대두유는 2017년 3,090만달러가 수입되었으며 전체 음식료업 수입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대부분 평택시에 이루어지며 2017년 평택시의 대두유 수입은 2,850만달러이며, 이는 경기도 전체 대두유 수입의 92.1%에 해당되는 비율이다.

<표 3-43> 한-메르코수르 FTA에 따른 수입 영향 품목과 시군

(단위: 백만달러, %)

산 업	품목별		2017년 수입		시군별		
	HS6	품목명	금액	비중	시군	수입액	비중
농림수산물	100590	옥수수	151.5	80.8	평택시	41.4	27.4
					안성시	38.8	25.6
					이천시	27.4	18.1
					안산시	24.2	15.9
	090111	커피	15.9	8.5	광주시	2.9	18.3
					파주시	2.3	14.2
					성남시	2.2	13.9
음식료	230400	사료용 대두유박	86.7	41.4	이천시	22.9	26.4
					안산시	19.9	22.9
					평택시	17.4	20.0
	020714	닭고기	62.2	29.7	안양시	18.4	29.6
					용인시	10.8	17.3
					광주시	9.4	15.1
					파주시	8.4	13.5
					안산시	6.3	10.1
	150710	대두유 (Soybean oil)	30.9	14.8	평택시	28.5	92.1

주 1) 2017년 수출액의 비중(%)은 해당 산업에서 해당 HS코드가 차지하는 비중임.

2) 시군별 수출액 비중(%)은 해당 HS코드에서 해당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 협상 시사점

메르코수르 국가의 제조업 기반은 대체로 취약하며, 주요 수출품은 지하자원, 원자재, 농축산물 등인 반면 다른 남미국가와 마찬가지로 소비성향이 높으며 소비재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옥수수, 대두, 커피 등은 우리나라가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고 관세율도 낮은 반면, 메르코수르 국가의 수출품인 축산물에 대해서는 10%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다수 농축산 품목에 대해 위생검역(SPS)으로 수입을 차단하고 있어 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우리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보면, 다수 제조업 품목의 수출 증가 가능성이 높으므로 메르코수르와의 조기 무역협정 타결을 협상당국에 요청해야 한다.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체결은 무역수지 흑자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전기전자, 운송장비, 정밀기기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수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3-44> 품목별 MFN 관세와 경기도의 대메르코수르 수입액

(단위: 백만달러)

산 업	HS code	품목명	MFN	수입국가	2017년 수입액
음식 료업	0202.30-0000	뼈없는 냉동쇠고기	30%	우루과이	3.8
	0207.14-1010	신선·냉장 닭다리	18%	브라질	62.2
	0303.82-0000	메로(어류)	10%	아르헨티나 브라질	0.9 0.7
	0306.17-9090	기타 새우(갑각류)	20%	아르헨티나	2.7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tat), 관세법령정보포털, 한-EU FTA 협정문

따라서 한-메르코수르 FTA 체결 추진 시 수출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제조업 분야의 대메르코수르 수출종합지원이 필요하며, 농업분야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내 농가들이 국내보완대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따라 수입 증가가 전망되는 품목은 쇠고기, 닭고기, 메로(어류)와 새우(갑각류) 등이다. 이들 품목의 MFN 관세는 모두 10% 이상이며 FTA 체결에 따른 단기간 내 관세 철폐는 경기도 내 농·어업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특히, 브라질산 닭고기의 경우 2017년 6,220만달러가 수입되었으며, 메르코수르와의 FTA 체결에 따라 국내 양계 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들 농·어업분야의 수입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는 사전에 농업계와 어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한-메르코수르 FTA 협상 이전에 수렴된 의견을 통상당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농업의 경우 검역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관세 양허보다 위생검역(SPS) 기준 통과 여부가 국내 파급효과에 몇배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축산물의 경우 8단계까지 존재하는 동물검역의 수입위험분석을 통과하면 국내 수입이 가능해진다. 2018년 초 브라질 내 산타카타리나 지역의 돼지고기가 해당 지역에 한정되었지만, 수입위험분석 8단계를 통과하며 수입이 개방되었다. 이외에 브라질산 쇠고기,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이 상대국의 수입검역 요청을 받아 수입위험 분석이 진행 중에 있다. 향후 이들 품목에 대한 검역해제로 국내 농업계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동물검역과 식물검역 등 수입검역조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경기도 내 농·어업인에게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표 3-45> 메르코수르 국가의 수입검역 요청사항

국가	품목	접수일자	요청내용	단계
브라질	우육	2008.11.19	수입금지지역 해제 구제역지역화 인정	4단계
	돈육	2008.09.17	수입금지지역 해제 지역화 인정	8단계
아르헨티나	우육	2004.06.21	수입금지지역 해제	4단계
	가금육	2004.08.25	수입금지지역 해제	5단계
	면양육	2017.08.30	수입금지지역 해제	1단계

자료: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 동물검역(<http://www.qia.go.kr>)

어업의 경우 해양수산부는 어류·패류·갑각류, 전복류와 새우류를 지정검역 물로 지정하여 검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산검역은 동물검역과 다르게 검역 증명서를 국내에서 발급받도록 하지 않고 수출국의 정부에서 발행하는 검역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6조) 검역방법에 따른 처리기간도 동물검역과는 다르게 서류검사는 2일, 임상검사는 3일, 정밀검사는 15일로 정하여 단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

어류의 위생검역 조건은 동물검역과 다르게 단시간 안에 처리하고 오염 발생에 이후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기도는 도내 어업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입 어류의 오염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지체 없이 중앙정부 부처에 조사를 요청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미국의 자동차 무역규제

가. 자동차와 무역확대법 232조

2만여개의 부품으로 조립되는 자동차는 제조업의 총아로 불리며, 오늘날 선진국들은 이미 20세기에 자동차산업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던 적이 있고, 독일과 일본은 지금도 자동차 강국이다. 오랫동안 ‘빅3(Big 3)’로 군림해 온 포드, 제너럴모터스(GM), 크라이슬러는 국제경쟁력에서 유럽과 아시아는 물론 미국에서도 일본과 독일 브랜드에 밀리고 있다. 지난 30년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금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를 1962년 제정된 무역확대법 232조 안보통상규정으로 수입제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상무부에 지시했다.

빅3가 2017년 미국내 생산한 자동차가 860만대나 되고, 외국계 자동차 회사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870만대를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음에도 내수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수입자동차가 미국의 국방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안보적 측면은 물론이고 시장경제 논리로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외국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우리나라 등 수출국의 자동차산업, 더 나아가 거시경제실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미국 자동차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고율의 관세(최대 25%)를 수입 자동차에 적용하면 미국 내 일자리 손실이 8만2000개에서 최대 75만 개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GDP 손실은 64억 달러에서 최대 62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한국경제신문 2018)

반중국 국제연대에 세계 주요국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에서 자동차 232조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만의 힘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은 다분히 중국을 겨냥해 왔는데,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중국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미국은 약 28만대의 차량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6만5천대를 수입하므로 중국에 대해 90억달러 내외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승용차의 대부분은 GM사의 뷰익으로, 2017년의 경우 미국으로 수출된 중국산 4만대의 자동차는 GM의 본지사간 거래이고, 나머지 8천대는 Volvo를 포함한 외국계 메이커 자동차이다.

지난 7월 중순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자동차 추가 관세 공청회는 미국의 통상정책을 비판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국적을 막론하고 참석자 대부분은 무역확대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 관세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지어 수입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 자동차업체도 자국의 통상당국 비판에 동참하였고, 관세 부과가 미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을 지적했다.

<표 3-46> 미국산 자동차의 주요 수출국 현황(2017)

(단위 : 천대, 백만달러)

구분	승용차		트럭		버스		합계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캐나다	568	14,309	435	13,129	10	759	1,014	28,197
중국	276	10,600	3	177	0	2	279	10,780
멕시코	194	3,140	44	909	3	38	241	4,087
독일	190	6,033	1	39	0	1	191	6,073
UAE	136	1,706	6	248	0	0	142	1,954
사우디	59	1,622	5	180	0	0	64	1,802
호주	54	1,645	6	209	0	0	60	1,854
나이지리아	52	322	3	31	0	1	55	354
한국	54	1,554	0	14	0	3	55	1,571
영국	54	1,883	0	15	0	1	54	1,899
합 계	2,222	52,333	601	17,566	17	843	2,839	70,743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빅3 자동차메이커들은 캐나다와 멕시코 외에 세계 주요 지역에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고 있으며, 기업내무역과 산업내무역이 활발하다. 전 세계에 판매시설과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부품조달에서 완제품 판매까지 말그대로 ‘글로벌가치사슬(GVC)’을 형성하고 있다. 트럼프식 무역제한적인 고관세가 부과되면 현재의 GVC가 유지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산업 보호 명분의 트럼프 정책을 오히려 해당 업계가 나서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수많은 부품회사들도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25% 자동차 관세를 오늘날 자동차 생산비 구조에서 보면, 사실상 수입금지적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국산 자동차 매출액의 12%가 인건비인데, 인건비 2배 수준의 관세를 물고 수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국내 생산 자동차의 23.8%가 미국에 수출되고 있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GM과 삼성르노는 국내 시장 의존도가 낮고 대미 의존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무역피해를 넘어 기업경영 애로가 심각해질 것임에 틀림없다.⁴²⁾

42) 유진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25% 동률 관세부과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이 경우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이 31~3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한국, 일본, 유럽, NAFTA 등 주요국 관세를 25%로 동률 상향을 가정할 경우 손실 금액은 현대차가 1조1000억 원, 기아차 6810억 원으로 전망한다”며, “이는 2018년 영업이익 추정치 대비 각각 31.4%, 37.6% 감소한 것”이라고 추정. 참조: 이투데이(2018), “미국 자동차 관세 부과시 현대·기아차 영업이익 31~37% 감소”, (7월 31일자)

나. 경기도 수출입에 대한 영향

미국의 자동차 232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략 3가지 가능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시나리오 1: 가능성이 낮지만, 중국견제 외 다른 제재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가정
- 시나리오 2: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 추가관세 부과
- 시나리오 3: 한국산 자동차에만 추가관세 부과

<표 3-47> 미국 자동차 232조 영향 분석 시나리오

	가정
시나리오 1	중국견제용 외 실질적인 조치없음
시나리오 2	미국이 모든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시나리오 3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만 25% 관세 부과

시나리오 내용으로 보더라도, 시나리오 1은 국산 브랜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시나리오 2에서는 미국이 모든 수입자동차 및 부분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 시나리오의 영향을 추정해보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산업 수출은 34.61%, 대미 수입은 11.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한국산 수입자동차에 한하여 25%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3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산업 수출은 69.94% 감소, 수입은 4.8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48> 미국 자동차 232조 영향 시나리오별 수출입 영향

(단위: % 변동률)

	한국의 대미 수출	한국의 대미 수입
시나리오 1	-	-
시나리오 2	-34.61	-11.2
시나리오 3	-69.94	-4.85

다. 경기도 시군별 영향

1) 영향 분석

가) 수출부문

시나리오를 종합하여 검토하면, 전 세계 관세부과 시나리오에 비하여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가 대미 수출을 감소시키는 반면, 수입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승용차의 경우, 관세부과에 따라 운송장비제조업 수출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승용차(제8703호)가 될 것이다.

승용차는 제8703.24호(실린더 3,000cc초과), 제8703.40호(하이브리드 엔진), 제8703.23호(실린더 3,000이하) 품목으로서 경기도 운송장비제조업 수출중 비중이 각각 37.2%, 27.3%, 10.4%이며, 이들의 합계는 경기도 운송장비 총 수출의 75%에 해당된다. 승용차 주요 수출 시군은 광명시와 화성시이며, 3개 품목 모두 이들 2개 시에서 생산되고 있다. 즉 피해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운송장비 총 수출 중 내연기관의 수출은 5.3%를 차지하며, 이들 품목은 모두 화성시에서 수출되고 있다. 특히 내연기관 중 제8407.34호(실린더 1,000cc초과)는 미국에 진출한 국산 자동차 메이커의 생산 설비에서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9> 미국 자동차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 영향 품목과 시군

(단위: 백만달러, %)

산 업	품목별		2017년 수출		시군별		
	HS6	품목명	금액	비중	시군	수출액	비중
운송장비	870324	승용차	1,130	37.2	광명시	901	79.7
					화성시	229	20.3
	870340		829	27.3	화성시	829	100
	870323		316	10.4	화성시	163	51.5
					광명시	152	48.2
	840734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161	5.3	화성시	161	100
	870899	차량용 부분품	140	4.6	시흥시	96	65.5
					화성시	16	11.2
					안산시	11	7.9

주 1) 2017년 수출액의 비중(%)은 해당 산업에서 해당 HS코드가 차지하는 비중임.

2) 시군별 수출액 비중(%)은 해당 HS코드에서 해당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차량용 부분품(제8708.99호)은 운송장비 수출 중에서 4.6%를 차지하는 품목이며, 승용차 및 엔진과 달리 차량용 부분품은 주로 3개 시에서 수출되고 있

다. 시흥시의 비중이 65.5%로 가장 높고, 화성시 11.2%, 안산시 7.9% 순이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로 인한 영향은 경기도의 특정 시군(화성시, 광명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관세부과를 가정한 시나리오 3에 따르면, 운송장비 수출의 약 70%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화성시 및 광명시는 수출 감소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나) 수입부문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는 부분품 수입을 감소시키나, 감소율은 대한국 관세부과보다 대세계 관세부과하에서 더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운송장비제조업 수입의 41.8%는 항공기 부분품으로서, 자동차 관세부과로 인한 수입감소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용 부분품(제8708호), 모터사이클(제8711호), 승용차(제8703호) 등이 주요 수입품목으로서 이들 품목의 합계는 총 2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8708.95호(차량용 에어백)과 제8708.99호(기타 차량용 부분품)은 화성시와 평택시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8711.50호(모터사이클)은 용인시, 제8703.24호(실린더 3,000cc초과)는 남양주시, 하남시, 성남시의 비중이 높아, 품목별로 다양한 시군에서 수입하고 있다.

<표 3-50> 미국 자동차 관세부과에 따른 수입 영향 품목과 시군
(단위: 백만달러, %)

산 업	품목별		2017년 수입		시군별		
	HS6	품목명	금액	비중	시군	수입액	비중
운송장비	870895	차량용 부분품	29	9.5	화성시	29	99.9
	871150	모터사이클	22	7.4	용인시	20	88.1
					과천시	3	11.4
					평택시	7	45.7
	870899	차량용 부분품	16	5.3	화성시	2	15.2
					성남시	1	7.6
					남양주시	5	34.6
	870324	승용차	14	4.7	하남시	3	19.6
					성남시	1	8.9

주 1) 2017년 수입액의 비중(%)은 해당 산업에서 해당 HS코드가 차지하는 비중임.

2) 시군별 수입액 비중(%)은 해당 HS코드에서 해당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동차 관세부과로 인한 한국의 대미 수입감소폭은 제한적이며, 수입품목의 비중 및 시군별 비중 역시 분산화 되어 있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동차 수출감소로 인한 영향을 화성시와 광명시가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화성시에서 수입하는 부품품(제8708호)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입감소 영향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이들 두 개의 시군에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응방안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완성차(광명), 부품(화성, 용인 등) 산업이 여러 지역에 포진해 있어 지역경제의 핵심 부분이다. 자동차에 대한 232조 적용은 우리나라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의 대미 수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되고, 국내 및 미국 내 가동 중인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의 대형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USMCA 협상 타결 과정에서 사실상 관세면제를 해주었고, EU 및 일본은 외교적 협상을 통해 면제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통상당국은 아래와 같은 논리로 미국을 설득하여 자동차 추가관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금년 3월 한·미 FTA 개정협정을 타결했고, 서명(2019.9)에 이어 비준을 앞둔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 부과는 한·미 FTA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이 경우 국내에서 한·미 FTA 폐기 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의 10배인 25% 관세 부과는 한국산 자동차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맹국가에게 통상안보규정인 232조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며, 북핵 등에서 한·미 동맹의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붕괴는 경제를 악화시키고 실업을 확대시켜 한·미 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임을 미국에게 적극 설명해야 한다.

6. 한·미 FTA 개정협상과 영향

가. 개정협상에 대한 통상당국의 평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공식방문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이 한·미 FTA 개정협상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이후 한·미 양국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거쳐 2018년 3월말 개정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고, 9월 중순 공식서명을 완료하였다. 우리 국회는 12월 7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통상당국은 개정협상 결과를 양호하게 평가하고 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나라의 민감분야(red-line)에 대한 양보없이 개정협상을 타결했고, 한·미 FTA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협상범위의 최소화로 신속하게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개정협상 장기화를 방지하였다는 것이다. 투자자정부제소권(ISDS)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섬의류 제품에서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음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제시했다. ISDS 관련 동일한 조치에 대한 중복 제소 제한했고, ISDS 등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최혜국 대우(MFN) 조항 원용 금지를 명확화 함으로써 분쟁의 가능성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ISDS를 청구하는 경우 투자자는 주장에 대한 모든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화 했다는 점 등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낸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통상당국은 ISDS 제도를 개선시킨 것으로 주장하지만, 미국의 관련 제도 개정이 없으며 주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통상당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과 연계하여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 면제를 세계 최초로 받아낸 것으로 홍보했지만, 철강 관세 면제 요건으로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 허용 물량을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268만톤)로 낮췄고, 관세보다 무역왜곡이 심한 쿼터를 설정하면서 일몰기한을 합의하지 않았으며,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타결했다는 점을 들어 협상당국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나. 우리나라의 대미국 양보 내용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과 마찬가지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최대 관심사항은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로 개정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양보한 최대 분야는 자동차이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항인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여 2041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FTA에 따라 휘발유차량 배출가스 기준은 미국 기준과 이미 조화시켰고, 다만 제작사별로 연간 50,000대(현행 2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관련 현행기준을 유지(2016-2020)하되, 차기 기준(2021-2025) 설정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고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배출가스와 관련하여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방식을 미국의 규정과 조화시키기로 하였다.

미국의 관심사항인 이행 이슈도 합의되었다. 원산지검증에 대한 불만 해소를 위해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우대약가제도 이행을 약속하였다. 이 제도는 2007년 한·미 FTA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그동안 미국은 우리나라가 관련 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16.7월 발표)	
국내 보건의료 기여도가 높고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한 혁신신약에 한해 10% 약가 우대 및 신속등재 적용	
- 혁신신약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허가 받은 신약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	
- 국내 전공정 생산, 국내-외 기업간 공동계약 개발, 사회적 기여도	
② 임상시험 국내 수행	
③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	
현행 기준 (17.7.7)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만족시 약가 우대	
①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 또는 국내 전공정 생산 또는 국내외 기업간 공동계약 개발 또는 사회적 기여도	
② 임상시험 국내 수행	
③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평균 이상 또는 국내외 기업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성과 창출	
개정안 발표(18.11.7)	
추가	

다. 통상전문가들의 평가⁴³⁾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정협상 이익의 균형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미국의 무역확대법 232조와 글로벌 수입제한조치에 아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한·미 FTA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은 개정협상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면제 협상 결과에 대한 통상전문가들의 평가는 ‘불리한 여건에서 선방했다’와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교육지책’으로 나뉘지

43) 연합뉴스(2018), 매경이코노미(2018), 한국일보(2017), 아시아경제(2017), 헤럴드경제(2018), 뉴스1(2018), 뉴스워커(2018) 등의 보도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논리적으로 전방위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펴는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최소한으로 양보하고 최악의 경우를 피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수익성이 높은 픽업트럭 분야 관세철폐를 20년이나 연장한 것은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고,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출자율규제와 같은 선례를 철강 분야에 적용하기로 한 것은 WTO 발전을 강조해야 할 우리나라가 부적절한 선택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FTA 개정협상을 타결하면서 1962년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조치 적용 예외를 확보하지 못했고,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구제조치,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한 시장상황(PMS) 등에 대한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통상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 IV 장. 경기도 FTA종합지원대책

1. 세계통상현안과 경기도 기업지원전략

경기도 무역구조 분석(제2장)과 주요 세계통상현안이 경기도 경제에 미칠 영향(제3장)을 바탕으로 경기도 산업지원전략 구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세계통상현안은 미중 통상갈등 등 5개로 분류할 수 있고,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산업을 대표적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출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 수혜산업으로, 반대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면 피해산업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가. 세계통상현안과 경기도 경제

1) 산업별 분석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세계통상현안은 미중 통상갈등 등 5개로 분류할 수 있고,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산업을 대표적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수혜산업으로, 반대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면 피해산업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수혜산업으로는 CPTPP 가입과 한-영 FTA 체결에 따라 음식료업과 화학제품제조업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한-메르코수르 FTA에 따라 전기전자, 운송장비, 정밀기기제조업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산업으로는 미-중 통상갈등과 CPTPP 가입에 따라 화학, 전기전자, 정밀기기, 기계장비, 운송장비제조업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한-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따라 농림수산업과 음식료업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5개 세계통상현안 중 미국 자동차 232조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한정되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미중 통상갈등이 확산될 경우, 피해산업은 전기전자, 화학제품, 정밀기기, 기계장비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다. 하지만, 미중 간 관세부과에 한정하는 경우(시나리오1) 우리나라는 전기전자와 기계장비 분야에서 제한적이거나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 나머지 3개 현안이 실현될 경우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4-1> 세계통상현안별 경기도 산업별 영향

	대표적 수혜산업	대표적 피해산업
미-중 통상갈등	전기전자 / 기계장비	화학 / 전기전자 / 정밀기기 / 기계장비
미국 자동차 232조	-	운송장비
CPTPP 가입(한-일 FTA)	음식료 / 화학	화학 / 정밀기기 / 기계장비
브렉시트(한-영 FTA)	음식료 / 화학	운송장비와 부품
한-메르코수르 FTA	전기전자 / 운송장비 / 정밀기기	농림수산 / 음식료

<표 4-2>는 여러 시나리오하의 추정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지만, 세계통상현안별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미·중 통상갈등 분석 시나리오 중 최악의 상황인 미-중이 25% 관세를 부과하고, 제3국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각각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시나리오 3) 경기도의 미중 양국에 대한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중국 수출은 대미국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미국 수출에서는 화학제품, 1차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등에서, 대중국 수출은 전기전자, 정밀기기,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에서 피해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한-일 FTA가 됨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에 따른 파급영향을 분석해 보면, 제조업부분은 수입이, 농림수산업 부분은 수출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CPTPP 가입(시나리오 2)에 따라 경기도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대일본 무역수지가 악화되며 구체적으로 정밀기기, 화학, 기계 및 장비 산업의 대일본 수입은 19억 달러에서 28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식음료업과 화학제품에서는 1억 달러 이상 대일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드 브렉시트와 한-영 FT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영국 수출입은 음식료업, 화학제품, 운송장비 제조업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파급효과 분석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기도의 수출이 수입 증가를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의 메르코수르 수출은 11억 달러(시나리오 3), 수입은 6억4천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증가는 전기 및 전자기기에서, 수입은 농림수산업과 음식료업 등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 세계통상현안별 경기도 수출입 영향

(단위: 백만 달러)

산업	미중 통상갈등(S3)				CPTPP가입(S2)		브렉시트: 한영FTA		한-메르코수르(S3)	
	대미국		대중국		대일본		대영국		대메르코수르	
KSIC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농림수산업	-6	-25	-2	-1	8	8	0	1	0	295
음식료업	-36	-321	-25	-20	153	301	17	12	4	330
목재/종이/인쇄	-23	-68	-10	-23	10	68	0	1	4	5
섬유, 가죽제품	-16	-124	-105	-115	60	67	0	31	30	8
석탄, 석유제품	-1	-734	-12	-2	6	10	0	0	0	0
화학제품	-197	-1,169	-527	-632	168	2,517	10	46	114	2
1차 금속제품	-196	-94	-114	-232	7	180	0	4	9	1
금속제품	-81	-77	-81	-93	12	67	0	2	20	0
비금속광물제품	-20	-50	-15	-55	15	189	0	1	1	0
전기, 전자기기	-74	-2,284	-6,291	-2,128	8	45	2	31	516	1
정밀기기	-114	-2,484	-1,276	-139	8	2,827	1	15	148	0
기계 및 장비	-311	-706	-820	-201	27	1,886	1	23	59	0
운송장비	-681	-112	-67	-32	1	156	6	258	267	3
기타 제조업	-25	-45	-16	-85	26	53	0	3	8	0
광업	0	-50	-2	-6	0	3	0	0	0	0
합계	-1,781	-8,342	-9,363	-3,765	510	8,377	38	429	1,182	645

2) 세계통상현안과 주요 영향 시군

이슈별 예상 수혜업종 및 피해업종

세계통상현안별 경기도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수혜 산업과 피해 산업 모두에서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혜 산업 중 평택시는 FTA 체결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며, 음식료업과 제조업 모두 생산기반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평택시는 미국 자동차 232조를 제외한 다른 4개 통상현안에서 다수 피해 산업이 분포되어 있어 대외 취약성이 우려된다.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에 무역에 대한 영향으로 수혜 산업과 피해산업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분석상 편의를 위해 동일 산업 내에서 업종별 순효과(=수출증가분 - 수입증가분)에 따라 수혜업종(수출증가분 > 수입증가분) 및 피해업종(수출증가분 < 수입증가분)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최

근 세계통상현안별 수혜 및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미중 통상갈등(중국)과 CPTPP(일본)의 피해수준이 가장 크며, 미중 통상갈등(미국)은 수혜 가능성이 제기된다.

- 수혜업종: 섬유·가죽제품, 석탄·석유제품, 기타 제조업, 광업 등
- 피해업종: 수혜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으로서, 대표적으로 기계 및 장비산업이 가장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어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화학제품 등에 대한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임.

본 보고서 제2장의 <표 2-2> 시군 데이터를 제3장의 수혜·피해 산업과 매칭시켜 경기도내 피해 시군과 수혜 시군을 <표 4-3>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3> 세계통상현안별 피해 시군과 수혜 시군

(단위: 백만 달러)

산업	미중 통상갈등(S3)		CPTPP가입(S2)	브렉시트, 한영FTA	한-메르코수르(S3)	총합	주요 시군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메르코수르		
농림수산업	19	-1	0	-1	-295	-278	-
음식료업	285	-5	-148	5	-326	-189	포천, 화성
목재/종이/인쇄	45	13	-58	-1	-1	-2	파주, 화성
섬유, 가죽제품	108	10	-7	-31	22	102	양주, 포천
석탄, 석유제품	733	-10	-4	0	0	719	광주, 동두천, 시흥, 안산, 안성, 오산, 평택
화학제품	972	105	-2,349	-36	112	-1,196	화성
1차 금속제품	-102	118	-173	-4	8	-153	김포, 시흥, 안산, 화성
금속제품	-4	12	-55	-2	20	-29	시흥, 안산, 화성
비금속광물제품	30	40	-174	-1	1	-104	포천, 화성
전기, 전자기기	2,210	-4,163	-37	-29	515	-1,504	부천, 안산, 화성
정밀기기	2,370	-1,137	-2,819	-14	148	-1,452	성남, 화성
기계 및 장비	395	-619	-1,859	-22	59	-2,046	시흥, 화성
운송장비	-569	-35	-155	-252	264	-747	시흥, 안산, 화성
기타 제조업	20	69	-27	-3	8	67	김포, 파주, 화성
광업	50	4	-3	0	0	51	-
합계	6,561	-5,598	-7,867	-391	537	-6,758	

- 피해 우려 시군: 피해규모가 큰 산업인 기계 및 장비, 정밀기기, 전기·전자기기, 화학제품 4개 산업에 생산활동이 많은 시군은 시흥, 화성, 성남, 부천, 안산이다. 특히 화성시는 피해규모가 큰 4개 산업 모두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시군에 비하여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수혜 가능 시군: 수혜규모가 큰 산업은 섬유·가죽제품, 석탄·석유제품, 기타 제조업, 광업 4개 산업으로서 이들 시군에는 양주, 포천, 광주, 동두천, 시흥, 안산, 안성, 오산, 평택, 김포, 파주, 화성 등이 될 수 있다.

세계통상현안별 수출과 수입 영향을 종합하여 산업별로 정리해 보면 <표 4-4>가 된다. 경기도 총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약 94억 달러 감소이며, 수입 감소액은 33억 달러로,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에 비해 3배 많다. 이는 국제 무역과 경기도 경제의 전반적인 위축을 의미한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기계 및 장비 분야에서 수출 감소가 크며, 수입측면에서는 전기·전자기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입 감소액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4> 산업별 수출입 영향과 주요 수출입 시군

(단위: 백만 달러)

주요시군 산업	수출 증감*	주요 수출입산업으로 하는 시군	수입 증감*	주요 수출입산업으로 하는 시군
농림수산업	0		277	
음식료업	82		286	광명, 광주, 하남
목재/종이/인쇄	-19		-19	
섬유, 가죽제품	-31	구리, 의정부, 포천	-179	구리
석탄, 석유제품	-7		-726	
화학제품	-452	김포, 과천, 양주, 연천, 의왕, 하남	690	김포, 남양주, 안성, 여주, 연천, 의왕
1차 금속제품	-294	남양주	-148	고양, 시흥, 양주
금속제품	-130		-105	
비금속광물제품	-19		83	
전기, 전자기기	-5,843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용인, 이천, 평택, 군포, 부천, 여주	-4,392	성남, 수원, 안산, 안양, 파주, 화성, 과천, 부천, 의정부
정밀기기	-1,235	파주, 동두천	195	이천, 군포, 동두천
기계 및 장비	-1,046	시흥, 광주, 안성, 오산	965	용인, 오산
운송장비	-485	화성, 광명	-154	
기타 제조업	-7	고양	-79	포천
광업	-2		-53	평택
합계	-9,484		-3,360	

주: ※ 세계통상현안 모두의 수출증가액 합계와 수입증가액의 합계

수출입 영향을 제2장 <표 2-1>의 시군별 주요 수출입 산업과 연계시켜 보

면, 전기·전자기기산업을 주요 수출입 산업으로 하는 경기도 시군의 수가 가장 많다. 또한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정밀기기, 기계 및 장비 등 제조업 산업을 주요 수출입산업으로 하는 시군의 수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수산업, 목재/종이/인쇄업, 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의 경우 수출입 영향도 크지 않으며, 이들 산업을 주요 수출입산업으로 하는 시군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나. 산업정책 및 기업지원정책 고려사항

1) 경기도 제조업 육성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미 브루킹스연구소는 국가별 제조업 경쟁력 비교를 위해 글로벌 제조업 스코어카드를 개발한 바 있다.⁴⁴⁾ 이에 따르면 제조업 경쟁력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경기도의 제조업 육성정책개발 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제조업 경쟁력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 및 경제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전략과 개방적 무역정책이 중요하다. 둘째, 혁신, 교육 및 노동력 개발을 위해 적절한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법인세 인하, R&D 조세 감면, 설비투자 조세 감면, 정부 보조금, 정부 대출 등을 포함한 재정 인센티브 개발은 제조업 발전 지원에 매우 중요하다. 셋째, 빅데이터, 자동화, 인공지능과 같은 21세기 첨단산업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초기 설계부터 배송까지 제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선진국의 경우 생산단가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과의 연계와 활용이 필수적이다. 넷째, 기술개발과 확산, 교육을 통한 근로자 역량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기술개발과 이들 기술의 제조부문 확산은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다 역량이 높은 노동력을 창출할 것이며, 개인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역량 있는 근로자를 육성할 수 있게 되고 기업과 산업 경쟁력도 높아지게 된다.

OECD(2018)에 따르면, 산업 발전을 위해 올바른 제도 및 규제 개선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규제 내용을 파악하거나 표준적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보통 중소기업이 행정

44) 글로벌 제조업 스코어카드는 제조업과 관련된 영역으로, 전체적인 정책 및 규제, 조세정책, 에너지, 운송 및 의료비용, 노동력의 질, 인프라와 혁신 등에 대해 평가함.

기능에 투입하는 자원의 비율은 대기업보다 높으며, 글로벌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국가 간 규제 차이로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동안 OECD 국가에서는 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정책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인허가, 조세 등에서의 규제로 기업 활동에 장애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1월 말 주한국 EU상공회의소(ECCK)는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unique) 규제들이 많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입니다."라고 주장하며 123건의 규제완화를 제안한 바 있다.

2)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조업 경쟁력

국내 중소제조기업 수출의 최대 경쟁국가는 중국, 일본,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가격 및 마케팅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이유진 2018)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중소 제조업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원가절감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오고 있다. 규제를 줄여 기업의 비용을 줄이면서 생산단가를 줄일 수 있는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원가절감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전략이나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경우에는 특허 획득에, 독일과는 R&D를 통한 품질개선에, 베트남에서는 유통채널 강화에 보다 주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내 중소 수출기업들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 3대 수출 국가인 중국, 미국, 베트남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와 일반기계, 디스플레이는 중국이 최대 시장이며, 자동차부품과 섬유는 미국이 최대 시장으로, 해당 품목은 기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 수출기업은 기존의 수출시장을 확장하는 데 관심이 많으며, 특히 중국 시장진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미중 통상갈등이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미국, ASEAN, 일본, EU 등이 주요 시장인 기업들도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해 현재 수출하고 있는 시장 외 진출 희망 국가로 중국을 선택하고 있어 미중 통상갈등으로 인한 피해 축소를 위해 중국 비중을 줄여야 하는 현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조사기업 중 해외생산거점을 보유한 기업 중 절반 가량이 중국을 해외 생산거점으로 삼고 있고, 베트남 비중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본적으로 주요 수출시장 내 생산거점을 두는 방안이 선호되는 것으

로 보이나, 중국과 일본이 주요 수출시장일 경우 중국이, 그 외의 경우에는 베트남을 비롯한 ASEAN 국가의 생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해외 생산 확대를 계획 중인 기업의 경우 향후 생산거점으로 베트남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조사결과가 경기도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 수출기업들은 수출경쟁국가에 따라 차별적인 경쟁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따라서 수출지원 정책수립 시, 경쟁국가 차이에 따라 정부지원 프로그램도 차별적·맞춤형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둘째, 수출 확대 희망 지역은 주로 기존 품목의 최대 시장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기업들은 업종별 최대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WTO는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기술개발이나 기술인력 양성, 환경보호, 정보제공, 중소기업에 대한 전시회 참여 지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즉, 예산 등의 제약도 있지만, WTO에서 허용되는 방식으로 산업/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수출지원정책의 성과와 타당성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지원을 하는 이유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국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관되게 수출지원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규 수출기업보다 기존 수출기업들의 수출 성과가 높고, 일반적으로 수출 집중도보다는 수출 다양도를 높이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한형·최현호(2018)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실증 연구결과를 통하여, 첫째, 기업규모나 업력에 관계없이 수출 규모가 3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의 수출증가율이 두드러진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둘째, 기업 규모와 수출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업력이 높을수록 신규수출 가능성과 기존 수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출지원사업은 종업원 수 20인 미만인 기업군에서 고용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첫째, 중소제조업에 대한 수출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나 업력에 관계없이 수출 규모 300만 달러 미만인 기업들을 수출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타겟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수출지원사업의 목표를 고용 증대에 둔다면, 종업원 수 20인

미만인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는 경기도의 기존 수출지원정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가능하나, 향후 보다 세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수출지원정책으로 인해 수출과 고용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기업 규모와 업력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경기도 산업발전정책: 기본적인 접근

1) 개요

오늘날 WTO 체제하에서 수출산업에게만 한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은 금지된다. 즉,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내수기업 모두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에 대한 정책은 국내정책과 무역정책으로 양분할 수 있고, 이들 정책은 생산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 토지, 기술, 제도 등 6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Warwick 2013)

먼저 국내정책의 경우, 생산시장 정책으로 피해 산업에 대한 일시적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노동시장 정책으로 수혜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력훈련 지원과 피해산업의 임금부담을 낮추기 위한 일시적 보조정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 정책으로는 수혜산업이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토지 정책으로 수혜산업의 선별적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지자체 차원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피해산업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발굴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정책이란 수출기업의 수출촉진과 피해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생산시장 정책으로 수혜기업에 대해 환리스크 관리 지원으로 거래 상대국과 안정적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고, 피해산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노동시장 정책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수출 활용과 관련한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피해 산업의 경우 타산업으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 재훈련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자본시장 정책으로 수출 기업이 수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피해 산업의 경우 긴급융자 등을 통한 도산을 방지하거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토지 정책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물류인프라 설립 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제

도적으로는 수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해외시장 정보를 수출기업에게 전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표 4-5>의 국내정책과 무역정책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환리스크 관리 등 일부 내용은 WTO 국제통상규범이 허용하는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세계통상환경 악화와 FTA 통상정책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수입증가 피해를 보거나 수출확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수혜기업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여건에 따라 피해 규모와 수혜 여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산업지원 차원에서 4가지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피해산업이면서 한계기업인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피해의 원인이 수입증가인 경우 무역조정지원제도(TAA) 활용 안내
- 피해산업이지만 경쟁력있는 내수기업: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경기도 FTA종합지원대책
- 수혜산업이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및 수출지원
- 수혜산업이고 경쟁력있는 기업: 경기도 FTA종합지원대책, GBC 활용

<표 4-5> 일반적인 경우의 국내정책과 무역정책

		수혜산업	피해산업
국내정책	생산시장	-	일시적 보조금 지원
	노동시장	인력훈련 지원	일시적 임금보조
	자본시장	신용보증	-
	토지	클러스터 정책	-
	제도	전략산업 선정	신산업 발굴
무역정책	생산시장	환리스크 관리 지원	무역조정지원
	노동시장	컨설턴트 지원	인력 재훈련
	자본시장	수출보험	긴급융자
	토지	물류인프라 지원	-
	제도	정보제공	-

크게 보면, 경기도의 산업발전전략은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지원 등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은 본 장의 제5절 라항에서 상술하고 있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프로그램은 본 절의 라항에서 논의하고 있다. 제III장 4절(경기도 TBT-SPS 대응협의회), 제IV장 2~5절, 제V장(GVC) 등에서는 경기도 기업의 수출지원정책을 포괄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표 4-6> 피해/수혜 여부와 기업지원

피해 /수혜	기업의 상황	대책의 방향	본 보고서 관련 부분
피해	한계기업	구조조정, TAA	제IV장 5절 라항
	경쟁력있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지원	제IV장 2~5절 대부분 제IV장 4절(GVC) 제III장 4절(TBT-SPS)
수혜	경쟁력 취약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지원	
	경쟁력있는 기업	수출지원	

2) 피해산업이면서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정책

피해산업이면서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지원대상인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 경영 기술컨설팅, 취업상담, 직업정보, 전직지원 서비스, 훈련연장급여 등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면 자동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되므로 피해기업이나 산업에 대해 경기수출지원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조정지원 컨설팅을 권유하고, 관련 증빙서류 작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피해기업을 회생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FTA를 통한 경제 효율성 향상의 속도를 둔화시킨다는 비판도 정책당국은 감안해야 한다. 피해기업의 퇴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폐업비용이 높아 퇴출이 용이하지 않은 기업들도 많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관련 컨설팅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기업 퇴출에 필요한 비용도 일부 보조하는 것도 고려해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 시, 일본의 대표적인 구조조정지원 기구의 역할도 참조할 필요가 있으나,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 융자 지원 프로그램의 운용 시 WTO 보조금 협정과 상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구조조정보다는 재생이란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며(경제재생, 산업재생 등), 사업재생을 위한 리스크머니 공급과 주식회사 형태의 민간운영방식으로 사업재생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표 4-7> 일본의 구조조정지원 기구 비교

		정리회수기구	산업재생기구
주요대상		사업규모/업종 불문 지원대상 기업명 비공개	대기업 지원대상 기업명 공개
기능	채권매입	○	○
	출자		○
	융자		○
	인재파견		○
	경영자문	○	○
목적		2001년부터 기업재생업무 시작, 회수 극대화를 위한 부실채권 처리	2003년 설립, 부실채권처리와 기업(사업)재생
형태		예금보험기구 100% 출자의 주 식회사	예금보험기구가 대주주(98.5%) 인 주식회사

자료: 현석(2017)

3) 수혜기업이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

수출경쟁력 취약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경쟁력이 취약한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수출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다. 경쟁상대 국가에 따라 수출중소기업들은 정책지원에 대한 차별적 수요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차별적 정책지원을 지양하고, 차별적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출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부족하고, 자금 및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는 실태조사결과도 향후 정책지원 수립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문병기·이도형, 2018) 수출 비중이 낮은 기업일수록 해외시장정보 제공 등을 필요로 한 반면, 수출을 시작한지 9년차가 넘어가면 주력상품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신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 수요가 점차 증가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수출규모가 100억 ~1,000억 원 미만인 기업은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정보 제공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으며, 1,000억~2,000억 원 미만 기업의 경우 비관세장벽 사전 대비 지원, 5,000억 원 이상 기업은 FTA 체결 확대(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출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해외시장으로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인도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수혜기업이지만, 수출경쟁력이 취약한 기업들의 경우 해당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제공부터 성장단계별로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에 대한 고려가 정책지원 수립 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업력, R&D역량, 수출실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수출강소기업으로 편입시켜 단계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해당 영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포지셔닝이 매우 모호하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은 수출보다는 내수위주의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크므로 해외진출시장 정보 제공, 수출바우처 제도를 활용한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해외바이어 발굴 등 수출초보기업들을 위한 정책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한 정책은 지자체의 지역산업정책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역산업정책은 산업 내 정책과 산업 간 정책으로 구분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박재곤 외, 2014)

<표 4-8> 지역산업정책의 유형과 범위

구 분	산업 내	산업 간
정책	지역 내 산업조직정책	지역 내 산업구조정책
전략	각 산업의 고도화 또는 경쟁력 강화	쇠퇴산업 → 성장산업
		지역 내 가치사슬 강화 (소재-부품-제품 간)

자료: 박재곤 외(2014)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수정

산업 내 정책은 산업조직 측면에서 접근해야하며 산업조직 차원의 정책은 각 산업을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산업조직 정책을 통한 각 산업의 고도화 또는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는 ① 기술혁신, ② 조직 혁신과 ③ 마케팅 역량 강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의 산업 간 정책은 구조조정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며 기업이 쇠퇴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지역 내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⁴⁵⁾ 지역 내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장산업의 선정과 신산업 발굴이 필요

45) 지역 내 구조조정은 산업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음. 그러나 산업 간 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은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간 격차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설계됨을 전제로 함. 따라서 지역 간 격차는 줄어들고, 지역 내 산업 간 격차는 확대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가의 자원배분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하며, 지역 내에서 고부가가치 생산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전후방 연관 산업을 함께 육성하여 소재, 부품, 제품의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Warwick(2013)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정책은 대부분의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반적 정책과 특정 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선별적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대부분의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반적 산업정책은 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영역이다. 다음으로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선별적 산업정책은 유망산업이나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지자체 차원의 지역 산업정책을 설계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선별적 산업정책을 통해 경기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선별하여 국내 유망 중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표 4-9> 분류별 산업정책

구 분	일반적 산업정책	선별적 산업정책
생산시장	- 간접세 - 환율정책	- 보조금(WTO 허용 범위내) - 수출촉진, 가격규제(WTO 위반소지)
노동시장	- 임금보조 - 소득 및 고용 세율 인하	- 산업인력 훈련 지원
자본시장	- 신용 보증 - 법인세 감면	- 투자 펀드 조성 - 긴급융자
토지	- 계획 규제 - 토지이용계획	- 클러스터 정책 - 인프라 지원
기술	- R&D 세제 지원 -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 기술 펀딩 조성 - 전문지식센터 조성
제도	- 정보 제공 - 전반적 경쟁전략	- 전략산업 선정 - 산업별 경쟁전략

자료: Warwick(2013)을 바탕으로 연구자 수정

Aiginger(2014)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GDP 위주의 양적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은 크게 ①인센티브 제도와 ②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센티브 제도는 민간에게 제공하며 이때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기술적 진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기업에게 기술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지자체는 수출과 고용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한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정부의 인력 육성과 연구 지원도 인센티브 제도와 마찬가지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수행하는 인력 육성과 연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로써 EU와 일본의 지역 산업정책을 통해 경기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며, 먼저 EU의 지역 산업정책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EU Commission, 2012).

첫째, 우리나라는 지역 산업정책이 당해 투입된 예산을 토대로 사업을 평가하고 차기 연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방식을 가지는 반면, EU는 7년 단위로 지역사업을 운영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지역 정부가 조정을 거쳐 집행하는 반면, EU는 지역 단위의 산업정책을 상향식으로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정책과의 목표가 상충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셋째, EU에서는 최근 지역별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를 위해 지식기반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구와 기술개발 및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에서 기술을 지원하고 민간의 투자를 장려하며 미세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현재 시행 중인 지역 산업정책이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일본경제산업성연보 2013) 일본의 지역 산업정책은 과거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한 발전전략을 중앙정부가 주도한 반면, 2010년 이후 EU의 지역 산업정책과 비슷하게 지자체 중심의 지역 주도형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지역 발전을 위해 외부 기업을 유치하거나 공공부문의 투자에 의한 개발이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산업 클러스터 계획을 통해 지역 내 산학 간 네트워크 구축, 산학 공동 기술개발, 지역금융기관과 연계 등으로 지역에 집적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민간과 중앙정부 주도의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민간과 지자체가 연계되어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과 투자가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고 있다.

EU와 일본의 사례가 경기도에 시사하는 점은 경기도의 지역 산업정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①선별적 산업육성을 통해 ②지역 내 집적된 자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기술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③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④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의 산업발전 사업은 ⑤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WTO 국제통상규범을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입에 영향이 큰 산업정책을 채택하기는 어렵다. 대부분 국가들이 중앙정부 차원의 일반적 산업정책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나, 지방정부의 선별적 산업정책은 기술개발 지원이나 지역균형개발(클러스터) 논리가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한계도 뚜렷하다. 현실적으로 보면, 산업발전 정책이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가 주로 관장하고 있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발전정책을 정밀검토하고 지자체에 적합한 산업을 집중육성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2017년 12월 18일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중국 등 후발 경쟁국의 빠른 추격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고, 산업정책 역할을 재조명하면서 사람 중심의 혁신성장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현 정부 산업정책의 핵심은 주요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이다.

<표 4-10> 주요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추진방향

구 분	중점 추진방향
자동차	전기차·자율차 핵심부품 개발 중견기업 집중 지원 완성차 대기업-중소 협력사 공동 R&D 및 해외마케팅
반도체·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소재 패키지 개발 추진 반도체·디스플레이 대기업-소재·장비·부품 중견기업 공동 R&D
바이오·헬스	글로벌 바이오 스타 프로젝트 추진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서비스 창출
석유화학	중견기업 특성에 맞는 스페셜티 기업 육성(첨단 정밀화학, 플라스틱 필름 등)
섬유패션	고기능성 화학섬유 및 산업용 섬유 중견기업 육성 바이어 맞춤형 제품 공동개발 및 기술협력 추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현안보고(2017)

2019년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군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보고하였다.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ICT 업종에서는 초격차 전략을, 자동차와 선박 등 전통산업에 대해서는 재도약 전략을, 섬유류와 가전 등 신흥국에게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탈바꿈(업그레이드)’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1> 산업군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

(2) 제도약: 자동차 선박	(1) 초격차: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 일감확보 - 자금지원(단기 유동성 공급) - 미래 전환(친환경차, 자율운항선박)	- 선제적 대규모 투자 - 기술확보 - 기술보호, 인력양성
(3) 탈바꿈: 섬의류/가전	(4) 자립화·글로벌화: 소재부품/장비
- IT접목 디지털 패션 생태계 구축 - 친환경, 고기능화 - 스마트공장 추진 등 생산혁신	- 기술확보(매년 1조 투자) -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개정 - 개발방식 변화(AI 적용 등)

자료: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2018.12.17.)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작성

2018년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빅데이터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분야 스타트업 12개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로 했으며, 물류, 유통 관리, 전자투표 등에 대한 블록체인 실증 시범사업 4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4-12>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내용 요약

구분	내용
빅데이터	데이터분야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12개사) 청년 대상 전문교육 및 일자리 연계(2018년 400명) 데이터 과학자 양성(대학 ICT 연구센터 선정)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 100억(IoT 센서 데이터, 대용량 의료정보) 블록체인 실증 시범사업 42억(물류, 유통 관리, 전자투표) 블록체인 아카데미, 오픈포럼 등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국가 R&D	예비타당성 기간 단축(현행 1년 이상 -> 개선 6개월 내) 부처 간 칸막이 제거(R&D 112개 규정 -> 특별법) 연구데이터의 국가자산화, 실험실 창업 선도대학 지원

경기도는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산업 수출구조를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므로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을 기초로 도의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경기도는 수도권규제 등 복합적인 규제로 투자가 제한되고 있어 신산업 창출 지연과 대기업 중심의 취약한 기업 생태계로 인해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혁신성장 역량 확보가 미진한 편이다. 특히 중국의 홍색 공급망(紅色 供給網)⁴⁶⁾ 강화 등으로 인해 한·중·일의 분

업구조가 악화되고 베트남, ASEAN, 인도 등의 참여자들로 인해 새롭게 생산 거점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경쟁력이 있지만 점차 비교우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세계통상현안이 악화될 경우 이들 산업의 생산기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산업발전정책은 산업부의 중견기업 육성 추진방향을 정밀검토하여 경기도만의 강점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전기전자기기, 석유화학, 자동차 등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강점을 기반으로 경기도만의 산업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도는 주력 수출산업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큰 만큼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중견기업 비전 228047))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혁신 클러스터 중심으로 지역 대표 중견기업 50개사를 선정하여 육성⁴⁸⁾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MIP100(Middle-market Innovation Project)"으로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고려한 상향식(Bottom-up) 방식의 후불형 R&D 추진이다. 중앙정부의 중견기업 육성 추진방향과 더불어 경기도가 가진 고유의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피해가 예상되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과 수혜산업이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을 선별하여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기도식 중견기업 육성 추진방향 설립이 필요하다.

라. 세계통상현안에 따른 경기도 대응전략

세계통상현안에 따라 경기도에 미칠 피해는 크게 수혜 산업에 대한 지원과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혜 산업 중 상대적으로 국내 취약산업인 경우는 음식료업으로 CPTPP(한-일 FTA)와 브렉시트(한-영 FTA) 시나리오에 따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음식료 제품은 국내 농업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산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CPTPP 가입과 한-영 FTA 체결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국내 중소기업이 누리기 위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과 전반적 수출프로세스에 대한 중점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46) 중국 정부가 수입 중간재 대신 자국 제품을 사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가공무역 비율은 2000년 45.2%에서 2015년 27.1%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현지조달은 32.7%에서 44.0%로 증가함.

47) 매출 1조원 이상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2015년 현재 34개에서 2020년까지 80개 육성, 그 외 중견기업 5,500개, 지역거점 중견기업 50개, 수출 중견기업 비중 50%를 달성하여 신규 일자리 13만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

48) 2022년까지 1년에 10개사를 선정하여 공동 R&D, 수출 및 마케팅 등의 패키지 지원

수혜 산업 중 국내 주요 수출 제조업은 한-메르코수르 FTA 체결로 수출증대를 예상할 수 있다. 국내 제조업의 경우 이미 수출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수출역량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제IV장에서 제안하는 ‘경기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고품질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KOTRA 등 수출지원전문기관과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4-13> 통상현안별 피해의 구분과 정부의 대책

	시나리오	FTA 종합대책
상대적 취약산업인 경우	CPTPP 가입 브렉시트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전반적 수출프로세스 중점지원
주요 수출산업인 경우	한-메르코수르 FTA	수출역량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상품 이외 분야 컨설팅 전문성 강화

다음으로 수입 증가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중 통상갈등과 미국의 자동차 232조 발동 시나리오에서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는 산업 중 한계기업은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활용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내수기업인 경우 수출기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피해 산업 중 수출 증가보다 수입 증가가 월등히 큰 경우는 CPTPP 가입(한-일 FTA), 브렉시트(한-영 FTA), 한-메르코수르 FTA의 경우이다. 이들 산업에 대한 피해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 펀딩 조성 및 전문지식센터 조성 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참고로 경기도는 섬유 분야 전문지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표 4-14> 통상현안별 피해의 구분과 정부의 대책

	시나리오	피 해	FTA 종합대책
수출입 모두 감소하는 경우	미-중 통상갈등 미국 자동차 232조	단중기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 정부의 수출환경 개선
수입 증가가 월등히 큰 경우	CPTPP 가입 브렉시트 한-메르코수르 FTA	중장기	기술혁신(경쟁력 강화) 산업 구조조정

마. KOTRA의 내수기업의 신규수출기업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KOTRA의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하거나 5만 달러 미만인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량진단 및 소정의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1년간 KOTRA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기업 및 바이어 등을 연결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로 탈바꿈하는 지원 사업이다.

신규수출기업화 업체 선정은 글로벌역량진단테스트(GCL Test: Global Competence Level Test)를 거쳐 결정되며, 지원 사항으로는 (1) 수출기업화를 위한 종합컨설팅 서비스와, (2) 해외 바이어 인콰이어리 지원 및 방한 바이어 상담주선 서비스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를 통해 KOTRA 해외무역관에서 발굴한 기업 등 바이어와의 상담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종합 컨설팅 지원 서비스를 받아 수출기업화가 되면 졸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표 4-15> 신규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1) 신청대상 기업
-전년도(2017)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한 내수기업 3,000개사 -전년도(2017) 해외 직접수출액 5만달러 미만 기업 - 샘플 수출(금액 무관) 기업 1,000개사
(2) 업체선정 기준
○ 2017년도 직접수출 실적이 없거나 5만달러 미만 기업 중 -전년도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하거나 5만 달러 미만인 지방소재 기업 우대 -수출 준비 및 의지가 있는 기업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과한 기업
(3) 지원 사항
○ 수출기업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역량강화 적합 공사 사업, 유관기관 지원 사업 연계 -수출전문위원의 수출실무 상담, 해외시장 정보 및 타겟시장 선정 등 종합 수출 컨설팅 등 ○ 해외 바이어 인콰이어리 지원 및 방한 바이어 상담 주선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발굴한 인콰이어리 연결 등 -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 등
(4) 진행절차
1.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업체 모집 공고 2. 각 지원기관별 홈페이지신청 3. 심사 및 선정 4. 종합 컨설팅 지원 서비스 5. 졸업 및 수출기업화

자료: KOTRA 홈페이지

세부적으로 글로벌 역량진단을 통한 수출역량 분석과 컨설팅이 이루어지며 해당 기업의 제품, 수출의지, 기업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 1단계: 전년도 수출실적이 전무한 기업을 대상으로 잠재적 고객을 발굴하며, 글로벌역량진단을 통해 해당기업의 역량을 분석한 후 마케팅 전략 및 컨설팅을 통해 타겟시장 선정 후 지원이 이루어짐.

<표 4-16> 세부절차 1단계 : 글로벌 역량 진단

- 업종 : 제조 및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규모 : 전년도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한 내수기업		
구분	내용	협조
① 잠재고객 발굴	전년도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한 내수기업 중 수출 희망기업	해외진출 종합상담 센터
② 기업역량 분석	글로벌역량진단을 통한 기업역량 분석	
③ 수출마케팅전략 및 타겟시장선정	역량분석을 토대로 마케팅전략 컨설팅 및 전략적 목표시장 선정 지원	

자료: KOTRA 홈페이지

- 2단계: 멘티기업 선정, 무역상담 지원과 동시에 기업 역량별로 단계별 바이어 상담지원과 수요 견인형 수출기회 발굴, 해외시장 진로 개척을 위한 수출상담회,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참가 지원

<표 4-17> 세부절차 2단계 : 밀착지원기업 선정

구분	내용	협조
④ 멘티 기업 선정 및 수출 실무지원	글로벌역량진단 및 해외무역관 시장성 평가 등을 통한 멘티기업 선정, 단계별 무역실무 상담 및 지원 (BuyKorea.org 등록 및 사이버 상담 등)	해외진출 종합상담 센터
⑤ 기업역량 분석	바이어 상담 단계별 전담지원, 수요견인형 인콰이어리 등 수출기회 발굴	
⑥ 해외시장 진로 개척	수출상담회,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참가 지원	

자료: KOTRA 홈페이지

2. 경기도 FTA활용지원 내용 및 평가

가. 우리나라 FTA 정책 및 FTA 활용 현황

2018년 10월 현재 우리나라는 15개 FTA를 발효시켰으며, 중미 5개국과 FTA와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표 4-18>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기발효 FTA	서명완료 FTA	협상진행 FTA 혹은 여건 조성
칠레, 싱가포르, EFTA ¹⁾ , ASEAN ²⁾ ,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5개국 ³⁾ , 미국 (개정)	한·중·일, RCEP ⁴⁾ , 메르코수르 ⁵⁾ , 에콰도르, 이스라엘, 러시아, 우즈베크 기발효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 칠레, 아세안, 인도, EU 등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2) ASEAN :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

3)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4)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5)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한·미FTA 체결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FTA국내대책 조직을 출범시켜 중소기업의 FTA 활용, FTA 홍보 및 피해산업 대책 등을 추진해 왔다. 2008년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실단위 규모의 조직(1본부 3단 12팀)으로 출범했다가, 기재부로 이관되면서 1급 조직(1본부 1단 6팀)으로 조정되었다. 2013년 산업부 국단위 조직으로 재편되었고, 2018년 4월 산업부 조직개편으로 대부분의 업무는 통상국내정책국으로, FTA 홍보·설명회 등 일부 업무는 新통상전략실로 이관되었다.⁴⁹⁾

통상국내정책국 감독하에 무역협회내에 FTA종합지원센터를 운영 및 예산 지원하고 있으며, FTA종합지원센터는 지역FTA센터와 공동으로 연간 100억 내외의 예산으로 FTA 활용 지원,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FTA 역량이 낮은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원산지증명 컨설팅 등) 확대를 통해 FTA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범정부 컨설팅 수혜기업은 1.9만 개(2017년)로, 잠재 FTA 컨설팅 대상기업 약 17만개사(수출기업 9만개, 협력

49) 통상협정 국내대책추진 예산은 2018년 124.7억원이고, 내년도 신청예산은 139.3억원임(14.6억 증액). 금년도 중소기업 FTA 활용지원 예산은 99억62백만원이고, 내년 예산으로 111억 8천만원 산업부 신청

기업 8만개)이므로 컨설팅 지속이 필요하다.

정부는 FTA 체결국 진출 촉진을 위해 FTA 해외지원센터와 차이나데스크를 설치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현재 FTA 해외지원센터는 13개 지역(중국 7, 베트남 2, 콜롬비아 1, 인니 1, 호주 1, 인도 1, 태국 1)이고, 차이나데스크는 무역협회 13개 지역본부에 설치되어 있다. 향후 해외지원센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지원센터는 KOTRA 무역관 활동과 연계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부담(건당 30만원)을 할 경우 현지시장 조사 등의 서비스도 가능하다.

2011년 이후 FTA컨설팅 건수를 지속적으로 늘림에 따라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컨설팅 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할 측면이 다소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은 60% 내외로 대기업의 70%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중소·중견기업 FTA 수출활용률은 2015년 65%, 2016년 56%, 2017년 58%이고, 소규모 기업의 경우, FTA 활용애로와 활용 한계가 작용하고 있다.⁵⁰⁾ 따라서 지금까지의 지원성과와 최근의 통상환경을 분석하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경기도 지원활동

경기지역 FTA활용지원센터는 경기남부센터(수원) 및 북서부센터(고양시) 2개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컨설팅(상담), 설명회, 교육 등과 경기도의 해외마케팅(FTA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을 추가 실시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소속으로 총 21명의 직원(남부센터 14명, 북서부센터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예산은 17억56.8백만원(도비 9억33백만원, 국비 8억23.8백만원)이다.

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와 연계된 사업은 주로 중소기업 FTA 컨설팅, 원산지확인, 활용상담, 설명회 등이다. 금년에 450개 기업(2017년 430개 기업)을 대상으로 FTA종합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사업 예산은 2억98백만원으로 297개 기업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지역순회 맞춤형 교육 및 설명회 사업(1억47.4백만원)을 통해 총 2,460개 기업에게 FTA 교육/설명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FTA 활용 홍보를 위해 총 12회 간담회/기관협의와 70회에 걸쳐 200개 기업에게 기업방문 1:1 설명회 + SCM 설명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였다.

50) 2017년 3월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FTA활용 주요 애로로 사내 전문인력 부족을 호소(①원산지증명 애로 40.5%, ②FTA전문인력 및 자금 부족 34.6% 등임.

또한 수출 프로세스와 연계한 경기도 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해외마케팅 사업(전액 도비)을 수탁하여 수출과 FTA를 연계하는 ‘경기도 FTA 활용 시장개척단 11회(또는 통상촉진단, 예산 500.3백만원), 경기도 FTA 활용 해외전시회 2회(104.5백만원)’등을 추진 중이며, 유관기관들의 무역사절단(시장개척단) 진행시 기업체들이 FTA를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20여 차례 이상 파견 전 FTA교육과 각 기업별 FTA 관세혜택 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표 4-19> 경기FTA활용지원센터의 예산 및 주요 활동(2018년)

(단위: 천원)

예산총액: 1,756,800			
도비		국비	국비(무협)
933,000		458,800	365,000
주요 사업 및 예산			
주요 사업		경기남부	경기북서부
컨설팅, 상담	FTA전문 상담센터 및 상담소 운영	187,000	124,000
	기업방문 1:1 FTA 종합컨설팅	350,500	214,000
	수출기업-협력사 FTA전산시스템 패키지 지원	83,500	—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사업	193,000	105,000
설명회, 협의, 연구	지역순회 맞춤형 교육 및 설명회 사업	81,300	66,100
	FTA활용 홍보 간담회/기관협의	30,000	33,600
	FTA활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19,800	—
교육	미래세대 통상 전문가 양성	24,300	14,400
	FTA활용 해외지역 전문가	17,000	21,700
기타	FTA활용 사업 운영비	72,400	119,200

다. 평가 및 개선 방안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적극적인 FTA 활용지원 정책으로 FTA 활용률 제고, 우수사례 창출, 대기업 FTA활용 인식 제고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률(%)은 2014년 이후 60% 내외를 기록하였다.(2016년 65.0%, 2017년 57.7%)

경기도의 FTA 활용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수출성사 차원에서 컨설팅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중소기업의 FTA컨설팅 수요가 존재하며, 소요 채원의 상당부분이 국비로 충당되므로 기존 컨설팅 사업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수는 3,600,882개사(2015년 기준)이며, 이중 수출 중소기업의 수는 92,420개사(2017

년, 코트라)이다. 경기도에는 전국 중소기업 수의 21.5%인 76만개가 영업하고 있고, 전국 수출중소기업 중 32.5%인 3만개가 운영되고 있다. 2011년 이후 8년간 연간 4천개 기업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2017년 4,500개, 2018년 4,800개 계획)

2010년 기재부 국내대책본부가 확립한 FTA 활용지원체계가 아직까지 그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도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지원내용 개발은 부족한 상황이다. 도비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출기업-협력사 FTA전산시스템 패키지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의 틀속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의 FTA관련 수요에 맞는 사업을 지속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FTA노하우는 수출프로세스 일부로 파악할 때 수출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의 수입 위주 FTA컨설팅을 수출위주로 전환하지 않으면, 컨설팅을 받더라도 수출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FTA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FTA활용지원은 품질 여부를 떠나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므로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FTA활용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지원내용을 평가하고, 수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제공체제를 전환시켜야 한다. FTA활용지원의 핵심은 컨설팅이며,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현실적으로 수출이 어려우므로 수출가능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고품질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기지역FTA지원센터는 경기중기청, 지역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지역 유관기관 및 각 협회 등과 FTA홍보, FTA협의회, 간담회, 실무 교육 및 설명회 등은 효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경기도 수출 대표기관인 GBC와는 FTA 협업업무 채널이 없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정비해야 하겠다.

3. 우리나라 FTA 컨설팅 현황과 평가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이며, 이 절에서는 FTA 컨설팅 현황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FTA 컨설팅 현황

2010년 FTA 활용지원 입안단계에서 전액 예산지원으로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여러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면서 저가-저품질 컨설팅 구조가 고착되었다. 현재 정부 지원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사업은 크게 무역협회의 'OK FTA'와 관세청의 'YES-FTA'가 대표적이며, 중소기업청 FTA컨설팅사업은 2017년부터 산업부로 이관되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직전 2년내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표 4-20> 중앙정부의 FTA 활용 지원 사업 내용

구분	관세청 YES-FTA 컨설팅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FTA현장컨설팅	중소기업청 FTA·수출컨설팅사업
사업 목적	성장동력 발굴 및 가격 경쟁력 강화 위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전문지식 및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FTA활용 전반을 컨설팅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맞춤형 컨설팅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원 내용	○(A형 : FTA활용 종합 컨설팅) 인증수출자 취득, BOM 작성, FTA-PASS 구축, 운영 등 지원 *(지원금액) 최대 400만원 지원, 8일 이내	○(전담컨설팅) 품목분류에서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등 전반사항 종합적으로 컨설팅 지원 *(지원금액) 224만원(8일)~400만원(10일)지원	○(FTA컨설팅) 원산지확인 및 증명서,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관리시스템 컨설팅 *(지원금액) 180만원~258만원(43만원/1일) 지원
	○(B형 : 사후검증 대응 맞춤형컨설팅) 사전진단 자율 점검표 작성, 자료보관실태 진단, 모의검증 등 지원 *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지원, 8일 이내	○(영세기업 원산지관리 대행) 원산지확인(증명)서 발급관련 서류작성, 원산지판정 등 집중적 지원 *(지원금액) 최대 400만원 지원 *(지원일수) 6개월간 10~12일(Man Day) 이내	○(수출컨설팅) 수출시 필요한 계약서 검토작성, 수출통관, 관세환급, 국제입찰등 * 80만원~114만원(1일 38만원), 3회, 7일 이내
	○(C형 :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품목분류 등 지원 *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 8일 이내		○(연계수출컨설팅) FTA+수출 컨설팅 * 1일 38~43만원지원, 3회 20일 이내 ○(FTA대행컨설팅) 품목분류, FTA판정시스템 구축, FTA컨설팅교육 등 지원, 월 최대 80만원

자료: 이익재(2017) 수정보완

나. FTA 컨설팅 실적 평가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장 컨설팅, 교육설명회 등 초보컨설팅 지원은 물량(건수) 위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 컨설팅은 전국 기준 연간 4,500여건(금년도 경기도 450건 계획) 제공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내용은

품목분류, 원산지 확인·증명서발급, 사후검증 등이고, FTA1380 콜센터 및 FTA포털을 통한 상담은 연간 2만여건에 달한다.(2017년 20,300건) 교육·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은 연간 1만5천여명(2017년 14,659명)이며, 종합지원센터와 지역센터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2016년 무역협회에서 실시한 FTA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약 95% 수준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태진 2018). OK FTA컨설팅에 대한 “매우 만족” 비율이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원산지관리 컨설팅에 대한 “매우 만족” 비율도 59.8%로 60%에 육박하고 있다.

FTA 활용도가 개선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부 설문조사 결과로 FTA 컨설팅 실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응답기업(337개 기업)의 44.5%가 컨설팅 당시 수출을 하고 있으나, 55% 기업은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는 사례도 있다. 산업부의 OK FTA컨설팅이 관세청 원산지관리 컨설팅보다 참여도가 높으며, 수출실적도 OK FTA컨설팅 기업이 양호한 편이다.

<표 4-21> FTA활용 수출실적

구분	OK FTA컨설팅	원산지관리 컨설팅	합계	비중(%)
수출실적 있다	107	43	150	44.5
수출실적 없다	143	44	187	55.5
계	250	87	337	100.0

구분	업체 수			수출액(천달러)		
	전체	신규	비중(%)	전체	신규	비중(%)
OK FTA컨설팅	107	64	59.8	47,754	26,961	56.4
원산지관리 컨설팅	43	19	44.1	2,716	1,070	39.4
합계	150	83	55.3	50,470	28,031	55.5

자료 : 2016년 FTA컨설팅 지원 설문조사 결과(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2017)‘FTA활용 및 경영성과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4~2016 최근 3년간 FTA 컨설팅 업체 1,000여개사 중 응답업체(217개)의 81.1%(176개)가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176개사 중 수출업체(127개사)만 선별해 매출, 수출, 거래선 확대의 3가지 지표에 대한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업체가 FTA를 활용해 실제 경영실적 제고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매출 52.8%, 수출 49.6%, 거래선 확대 46.5%가 도움 받은 것으로 응답)

<그림 4-1> 무역협회의 FTA 컨설팅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 기여⁵¹⁾



자료: 2017 FTA활용 및 경영성과 설문조사 결과(한국무역협회)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무역협회 사업은 전국 지역FTA센터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며, 정기적으로 지역FTA센터는 매년 초(1월중순경)에 산업부와 무역협회에서 공동으로 지역센터의 전년도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각 지역별 사업 만족도 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평가 실시하여 지역센터별 사업비 배분 등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컨설팅 받은 이후에도 자사의 FTA 활용 역량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77.8%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지원요건 완화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교육 등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업체별로 증명서(확인서) 발급빈도가 상이하므로, 향후 업체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획일화된 중복적 컨설팅

무엇보다 컨설턴트의 역량 부족으로 형식적인 컨설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저가 컨설팅과 중소기업의 공짜심리가 결합되어 발생하는 ‘정부예산의 낭비’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정재완, 2014)

기관별 컨설팅 내용의 중복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13년 기관별 중복 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침이 만들어졌으나, 컨설팅 예산이 늘어나

51) <http://kidd.co.kr/news/196345>

면서 다수 기관이 유사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FTA컨설팅을 서로 비슷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 컨설팅 기관간의 업무구분이 모호하며, 정부기관 간 차별성과 협업이 부족하다. 2017년 업무조정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형평성을 이유로 각 기관은 저가·저품질 컨설팅서비스 제공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표 4-22> 컨설팅 기관별 특화방안

구분	산업통상자원부 (FTA종합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FTA센터)	관세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관 특화 사업	공급망 합동컨설팅, 업종별 협력단체 연 계컨설팅	지역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 지역특화산 업 컨설팅	원산지증명서, 인증 수출자, 품목분류, 사후검증	FTA·수출 연계 컨설팅, 무역전반 종합컨 설팅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3.10.30.)에서 인용

여전히 기관별 컨설팅 지원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무역협회)의 FTA 컨설팅 지원 내용은 원산지판정,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사후검증 대비 컨설팅 등 전담컨설팅 체제를 갖춘 반면, 관세청은 원산지확인서의 사전확인컨설팅, 사후검증대응, FTA 활용 측면에서의 종합컨설팅(인증수출자격 취득, BOM작성, FTA-PASS 구축 및 운영 등)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컨설팅 내용은 유사하다.

컨설팅 중복사업의 조정과 민간시장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된다.(이익재, 2017) 국가기관이 유사·중복적으로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장기적으로 정부지원 컨설팅은 점차 축소하고, 민간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 중심의 FTA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산업부와 관세청이 독자적으로 FTA관리시스템(산업부: FTA-KOREA, 관세청 : FTA-PASS)을 개발함으로써 정부 예산의 중복투입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기관 컨설팅의 차별성 및 시기 중복해소 필요성이 제기된다.(김남섭, 2017) 정부의 무료저가 컨설팅이 민간전문가 육성 및 컨설팅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각 기관의 컨설팅 사업기간이 1~10월로 동일하여 11월과 12월에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컨설팅이 불가하며, 대부분 1회성인 컨설팅으로 추가적인 컨설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저가무료 컨설팅 서비스 지속으로 전문성이 취약하더라도 영업력이 강한 관세법인이 정부컨설팅 사업을 독식하고 있으며, 정부의 컨설팅정책이 민간전문가의 육성을 저해하는 측

면이 있다.(고태진 2018).

FTA컨설팅 업무범위가 불명확하며, 과도하게 낮은 수입단가로 동일한 저품질 컨설팅 자료를 모든 기업에게 적용하고 있어 컨설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안병수·김중근 2013), 기업의 무역가치사슬 단계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관세사 이외에도 각 단계별 분야별로 적절한 전문컨설턴트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김희열·곽근재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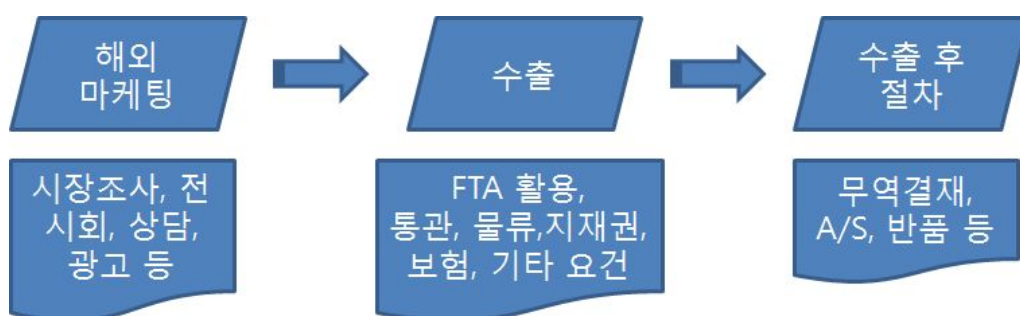
수출기업-협력사 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우, FTA 전산시스템 활용 지원이 목적인 바, 83.5백만원의 예산으로 55개사를 지원하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업방문 1:1 설명회 + SCM 설명회의 경우, 70회-200개 기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회당 평균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문제점이 노출되는 바, 기업방문 1:1 설명회는 1:1 컨설팅으로 전환하고, SCM 설명회를 수출기업과 협력사가 많이 모일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FTA 협정별 원산지규정이 다르고 복잡하며 전문인력과 시스템 구축 등에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FTA 활용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FTA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수출시장정보 및 해외 바이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애로는 FTA 활용 자체보다는 수출 애로인 경우가 여전히 많다.

2) 수출 성사를 위한 협업체계 부족

FTA 컨설팅은 수출프로세스의 일부이지 수출의 충분요건이 되지 않으며, FTA 외 물류통관, 표준인증, 지적권 등 많은 요건이 충족될 때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4-2> 수출절차 및 FTA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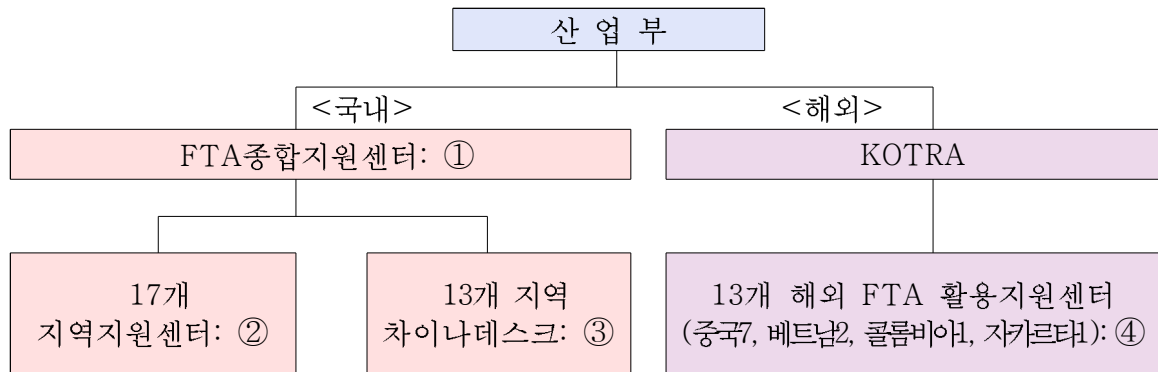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해외마케팅, 금융지원, 규격인증, 상표권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KOTRA의 수출지원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많은 개도국들이 KOTRA 수출지원시스템을 벤치마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 효율화 제고를 위해 수출바우처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경기도와 산업부(무역협회) 용역사업 실행기구일뿐 경기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공정책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기중기청, 상공회의소 및 경제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회의 및 공동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수립되도록 경기도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GBC, G-FAIR 등 경기도내 수출지원기구 및 활동과의 협력이나 참여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유사 역할을 하는 기관 간 시너지 효과가 약한 문제점이 있다.

<표 4-23> 수출지원기구 요약

경기도내 수출지원기구	범국가차원의 수출지원기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 G-Fair 등 수출촉진 활동	종합 수출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KOTRA) - 전세계 120여개의 무역관 운영 - FTA 해외지원센터
경기비즈니스센터(GBC) - 10개 국가 13개 센터		중소기업벤처부 - 수출바우처
중소기업수출 경기지원단(중기벤처부) - 수출전문위원 37명 포함 총 43명		중소기업진흥공단 - 수출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업무
지역 상공회의소	해외마케팅	한국무역협회
무역협회 지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관세청 세관	금융 및 보험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무역보험공사
-	인증, 규격	산업부 국가표준원
-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세청
-		특허청

3) 수출지원 인프라 활용 부족

우리나라의 FTA 활용지원은 산업부 국내대책국(정책당국) 무역협회내 「FTA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17개 지역센터, 13개 차이나데스크 및 11개 해외센터를 지정·운영 중이다. 2017년 기준 종합지원센터 60.5억원, 17개 지역센터 25억, 해외센터 15억원, 원산지시스템 1.5억 등 산업부 예산 총 102억을 지원하고 있다.



- ① 무역협회 본부내 설치(4실 44명 : 6개 정부부처, 8개 지원기관 및 FTA 전문가로 구성)
- ② 대한상의(10), 지자체법인(3), 무역협회(2), 지역단체(2) / 지역센터별 4~9명
- ③ 13개 지역 무역협회지부
- ④ 중국(북경, 상해, 청도, 청두, 광저우, 다롄, 톈진),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콜롬비아(보고타), 인니(자카르타), 호주, 터키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을 위해 경기도는 중앙정부 FTA활용지원 인프라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경기지역센터는 2011년 당시 기재부 소속 국내대책본부의 방침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종합지원센터의 지역 담당 기관으로 출발했으나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늘어나면서 경기도 종합지원센터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 예산 일부와 운영 지침을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컨설팅 건 수 등에서 기존 업무를 확대해 왔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활용지원 인프라를 경기도 중소기업 FTA 컨설팅에 활용하는 체계가 미흡하다.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컨설팅 업체를 통해 고품질의 FTA 활용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기능이 부족하다.

더구나 수출성사를 위해서는 해외시장정보와 마케팅 활동이 필수적인데, GBC는 물론이고 13개 차이나데스크 및 13개 해외센터 활용이 미흡하다. 무역협회의 FTA종합지원센터의 범국가적 조정 노력이 부족하다.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컨설팅, 교육, 설명회 등 산업부 요청사항을 성실히 수행했지만, 중소기업의 수출성사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4. 경기도 FTA종합지원대책

통상환경의 변화로 해외의 수입 수요, 상품 경쟁력, 통관물류 등 수입요건 등에 대한 정보가 수출 성공에 결정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공급자 중심 시장질서에서 수요자 중심 질서로 변화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수출시장 경쟁 심화, 미중 통상갈등 등 글로벌 차원의 환경악화와 국가에 따라

기술표준, 위생검역, 지적권 보호 등 현지 수입요건이 강화되고 있다.

경기도 차원의 FTA 활용지원은 크게 수출종합컨설팅(종합컨설팅) 서비스와 FTA특화 컨설팅(FTA컨설팅)으로 구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2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방안 1: 현행과 같이 관세와 원산지 중심 컨설팅
- 방안 2: 상품 분야 외 투자, 서비스, 지적권, 협력 분야 컨설팅(경기수출지원센터와 협업)

현재의 단순 컨설팅(방안 1)을 넘어 FTA활용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성사 프로세스의 일부로 FTA활용지원을 자리매김하고, 경기도내는 물론이고 범국가적인 수출지원 인프라를 경기 중소기업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컨설팅 대상 기업의 수출역량 분석을 통해 종합컨설팅 기업과 FTA컨설팅 기업으로 구분하고,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조건에 따라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FTA컨설팅 위주의 사업을 지속하되, 기업 수요에 맞는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전문역량을 확충해야 한다. 종합컨설팅은 FTA컨설팅을 포함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반을 담당하는 경기수출지원센터에 설치되어야 한다.

<표 4-24> FTA활용지원 콜센터 애로유형

분야 \ 연도	2016년	2017년
원산지증명	11,985	9,913
원산지결정기준	1,864	1,273
품목분류	5,747	4,085
관세환급통관	959	658
인증수출자	1,578	1,473
사후검증	363	384
기타	5,159	3,786
총 계	27,655	21,572

수출을 하지 않고 있거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려는 다수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정보의 부족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 소규모 중소기업들은 일반적인 원산지관리 혹은 품목분류 등에 관심이 높다. 무역협회에 접수된 기업의 FTA활용 지원 관련 애로 상담 현황 건(분야별, 2016~2017)을 분

석해 보면, 원산지증명, 품목분류에 질문 빈도가 가장 높다.

경기수출지원센터는 무역협회와 연관된 원산지관리 서비스 위주의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에 주력하도록 업무지침이 필요하며, 종합컨설팅 제공을 위해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하여 산하기관으로 흡수·운영해야 할 것이다.

경기FTA지원종합대책

- ◆ 수출초보,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 확대
- ◆ 수출성사를 위한 FTA종합지원 서비스의 고품질화
- ◆ 개방취약업종의 FTA무역피해 최소화

분야별 추진과제

① 컨설팅 개선, 수출종합지원 강화

- 수출기업화 목표로 FTA 활용지원
- 수출역량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 비용분담으로 고품질 컨설팅
-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② 경기수출지원센터 설립 운영

- 수출프로세스 중점지원
- FTA활용지원 서비스 총괄
- 무역피해(TAA), 농수산업 수출 지원
- FTA지원 사후관리(평가)

③ 수출초보, 영세기업 중점지원

- 수출지원 차원에서 FTA활용
- 국내 및 관내 지원기관과의 협업
- 컨설턴트의 전문성 강화(국제무역, 비관세분야, 규범 등)

④ FTA 무역피해 최소화 및 지원

-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
-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내수 확대
- 수입국 검역 등 수출환경 개선
- 한계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가. 컨설팅 개선으로 수출종합지원 강화

1) 국내 FTA 환경 변화에 따른 FTA활용지원의 질적 개선

국내 FTA 환경 변화에 따라 FTA활용지원을 질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2010년 이후 몇 년간은 기존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 마인드 제고 및 컨설팅

제공이 주효했으나, 이제는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컨설팅 구조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컨설팅 기관이 ‘을’이 되어 컨설팅 수요기업을 찾아다니는 상황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은 해외시장정보, FTA 활용의 경제성, 가격협상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FTA 활용 컨설팅은 차순위이다.

2) 컨설팅 효과가 높은 기업 위주의 컨설팅 제공 체계 마련

저가의 획일화된 컨설팅 내용으로 개별 기업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FTA 활용으로 수출증진 가능하나 원산지검증 실패 시 막대한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리스크를 기업들은 중시하고 있다. FTA 컨설팅으로 바로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FTA 활용 컨설팅은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일 뿐 수출 성사를 위해서는 많은 마케팅 노력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동안 FTA컨설팅 수혜 기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향후에는 컨설팅 효과가 높은 기업 위주의 컨설팅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전반적인 수출역량을 평가하여 컨설팅의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중소기업을 수출기업화하려고 하지만, FTA 활용률은 최대 70% 수준이며 60%인 현재 활용률로 볼 때 현재 수준의 컨설팅 목표 기업 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이러한 사유로 중소기업이 실제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FTA 수출활용률을 66.2~73.3%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2015.8월)

전체 수출 5,737억달러 ('17년)		
<대 FTA체결국> : 4,156억불(72%)		<대 미체결국>
특혜관세 非대상 2,655억달러(64%)	특혜관세 대상 1,501억달러(36%) FTA활용 수출 1,051억달러 (70%) 미활용 수출 450억달러	: 1,581억달러(28%)

※ (수출액) 2017년 FTA 특혜관세 대상 수출 1,501억달러(전체 5,737억달러) 중, 실제 FTA를 활용하여 관세혜택을 받은 수출은 70%(1,051억달러)

※ FTA수출활용률(%) = (수출신고서상 C/O발급 수출액/특혜관세 대상품목 수출액) x 100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8)

3) 투자 등 컨설팅 분야 다변화 필요

FTA 활용지원센터는 상품 분야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컨설팅하고 있으나, FTA 협정을 활용한 투자와 협력 분야의 컨설팅 등 지원분야 다변화가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의 “2018년도 중소 제조기업 수출경쟁력 실태조사” 중 해외 생산거점 관련 조사결과, 55.5%의 기업이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생산 확대를 계획 중이다. 특히, FTA를 체결한 국가인 베트남,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FTA 협정을 활용한 투자 관련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4)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FTA 활용역량 확충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FTA 활용역량을 확충해야 한다. 경기지역센터는 독자적인 활용지원에 치중할 뿐 도내 기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FTA 종합지원센터와 KOTRA 등 수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미흡하다. 더구나 경기도가 독자운영중인 GBC와의 업무협이나 기업지원 체계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

5) 수출이 가능하도록 컨설팅 업그레이드

FTA 발효가 수출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컨설팅 구조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영세기업(매출30억미만, 10인이하) 및 수출초보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FTA컨설팅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업들이 사후검증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FTA전산시스템(KOREA등) 컨설팅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해외시장정보, FTA 활용의 경제성, 가격협상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FTA 활용 컨설팅은 차순위임으로 해외마케팅과 연계하는 컨설팅을 지속 개발하고 해외마케팅을 집중 지원하는 GBC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수출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관세장벽, 지재권 보호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신규 수출시장 확보는 물론이고 기존 시장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경쟁국의 FTA 체결 확대로 FTA 선점효과가 약해지고 있으나, 가격경쟁 우위를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내 FTA 활용지원은 주로 수입분야에 적용되어 왔으며, 수출과 직접 연계된 FTA활용컨설팅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수입자는 FTA특혜관세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는 반면, 수출의 경우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FTA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FTA 경제효과는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발생하나, 지역경제 차원에서 보면 수입보다는 수출 활용이 바람직하다. FTA 수입활용으로 국내 소비자가격과 수입중간재 투입단가를 낮출 수 있으나 국내 산업 파급영향은 생산활동을 수반하는 수출에 비해 작게 된다. FTA 활용으로 수출프로세스에서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수출은 해외시장정보에서 통관물류, 수출 후 A/S 계획 수립까지 긴 프로세스를 거쳐 성사되나 국내 FTA컨설팅에서는 이러한 수출프로세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수출자가 수입국 통관 후 상품인도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FTA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FTA 활용에 앞서 수입국 시장정보와 바이어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 지원 FTA컨설팅은 수출프로세스와 무관하게 수출가능성이 낮은 소규모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하여 왔으며, FTA 활용 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은 오히려 컨설팅 서비스를 부담으로 느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수출역량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FTA컨설팅을 제공해야 하며, 수출의지가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컨설팅 목표 건수 달성을 위해 수출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다수 중소기업에게 ‘FTA피로’ 현상이 누적될 수 있고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6) 비용분담 원칙하에 맞춤형 컨설팅 제공

확실적인 컨설팅에서 벗어나 고품질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비용에 대해서는 수혜기업의 비용부담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단,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무역협회와 관세청도 기업당 컨설팅 비용 총 400만원 중 일부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으므로,⁵²⁾ 컨설팅 서비스 분야와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기업에게 실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2) 참고로 관세청(YES-FTA 컨설팅) 및 무역협회(OK FTA 컨설팅)의 FTA 컨설팅은 기업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 책정.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6단계 차등 분담(1일 단가 40만원 기준으로 하여 업체의 매출액기준에 따라 분담금 비율 적용)

기업 규모별 부담금 비율

① 20억원 이하 : 무료	④ 100억원~500억원 미만 : 30%
② 20억원~50억원 미만 : 10%	⑤ 500~1,000억원 미만 : 40%
③ 50억원~100억원 미만 : 20%	⑥ 1,000억원 이상 : 50%

고품질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필수적이다. 참여 기업의 책임감과 목표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기업에게 고액의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해이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현재 기업당 4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초적인 내용의 획일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한-EU FTA 발효를 전후하여 관세청은 기업당 2천만원 내외의 인증수출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나. 가칭 ‘경기수출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경기도 중소기업의 FTA활용 및 수출지원을 위한 기구와 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가이드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나 조직 설립이 필요하다. 수출바우처 사업,⁵³⁾ 무역협회 종합지원센터, 코트라, 무역협회, 중소기업지원센터 등과 접촉하여 고품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과 동등한 입장에서 접촉하고 협력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이들 지원기관 접촉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컨설팅을 받는데 애로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가칭 ‘경기수출지원센터’ 소속 컨설턴트가 담당할 경우,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해외시장 정보와 바이어 접촉 등을 위해 GBC 13개 해외센터, 무역협회 소속 13개 지역 차이나데스크와 KOTRA 소속 11개 해외 FTA 활용지원센터 외에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적극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프로세스상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기업을 대신하여 종합센터의 전문가가 접촉하여 정보 및 지원사항을 확보함으로써 수출성사 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일정 지원액 이상의 소요 실비에 대해서는 수혜기업이 부담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참고로 다수 중소기업들은 KOTRA 접촉을 어려워하며, KOTRA의 경우 해외시장조사 건당 30만원 서비스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경기수출지원센터’는 경기도 산하기관에 설치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단, 산하기관의 경우 전문성을 구비한 인력을 충원하기보다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게 되므로써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에게 위탁하고, 경기도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53) 수출바우처는 기업이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수출 지원 사업 플랫폼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표 1> 및 <http://www.exportvoucher.com/> 참조

바람직해 보인다. 기구 설치 못지 않게 관리기능이 중요하며, 기대효과 실현을 위해 경기도 경제실의 관리체제 강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경제실의 지휘를 받는 경기수출지원센터는 경기도의 수출 및 FTA 활용지원을 총괄하며, 고품질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수출-FTA 컨설팅 프로그램과 FTA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⁵⁴⁾ 또한 경기 FTA활용지원센터와 GBC를 경기수출지원센터 산하에 설치하여 통합운영할 때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컨설턴트의 전문성 강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FTA 활용은 수출프로세스의 한 부분이고, 해외마케팅의 많은 부분을 자문해 줄 수 있어야만 중소기업의 수출성사에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FTA에 대한 전문성 외에 국제무역, 비관세분야, 통상규범 등에 대한 정통한 통상전문가를 확보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하며, FTA 활용컨설팅 전문가는 관세 업무 이상의 국제비즈니스 전문가이어야 한다.

예산지출의 효과 제고 및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유관 단체 및 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 및 FTA 활용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기수출지원센터는 단순 행정관리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일부 직원은 중소기업의 컨설팅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무역통상분야에 정통해야 한다. 국내외 무역통상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와 수출입 통계 분석을 통해 수출유망 품목을 선정해 기업들에게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필요시 중소기업 컨설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 경기연구원 및 전문기관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경기도 기업에게 유용한 무역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수출마인드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종합컨설팅	FTA컨설팅
- 수출프로세스 차원에서 FTA 컨설팅 - GBC 통합 운영 - 알선, 매니징 기능 - 비용분담(수익자부담) 원칙 - 평가 포함 쌍방향 소통형 컨설팅	- 경기FTA활용지원센터가 기존 업무를 일부 수정하여 서비스 제공 - 원산지 관련 사항 - FTA 관세특혜 - 기타

54) 2017년 9월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에 대해 기업의 약 82%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함. (<http://www.hani.co.kr/arti/economy/startup/812381.html>)

2) 토털 상담체제로 해외진출 성공률 개선

FTA 활용 컨설팅은 수출지원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고, 해외마케팅 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역량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토털 상담체제로 해외진출 성공률을 개선시켜야 한다. 지자체의 전시회 바이어 상담 후 FTA 활용 상담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의 업무 협조가 원활해야 하고, 이 자리에서 FTA 특혜 수준, 인증, 지적권, 통관 등에 대한 자문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해외지원센터 혹은 GBC를 연결해 현지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공될 때 수출성사가 가능할 것이다.

3) 경기도의 수출지원 인프라의 종합관리로 정책의 실효성 제고

수출 지원 관련 각 기관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리 부재로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국내외에서 G-FAIR 행사를 성대히 개최하고 있으나, 바이어 상담 위주로 운영할 뿐 FTA, 물류, 지적권 등 일괄 컨설팅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차원의 지원에 치중할 뿐, KOTRA, 기술진보, 무역보험 등 중앙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인프라 활용을 제시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4) 경기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의 수출프로세스 전반을 담당

경기수출지원센터는 FTA활용지원을 포함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프로세스 전반을 담당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전반의 내용을 숙지하고 도내 기업지원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기존 FTA활용지원 사업을 유지하되 유망수출기업에 특화된 컨설팅 역량 확충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FTA 무역피해 기업 국내대책과 농수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5) 해외시장정보가 중요

FTA는 수출프로세스의 한 단계이며, 수출단계별 지원과 해외시장정보가 중요하다. 해외시장정보 수집과 해외마케팅 활동, 그리고 FTA 특혜관세 장점을 활용할 때 수출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1회성 컨설팅서비스로 수출성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단, 기존 FTA미활용 수출기업의 경우, 원

산지규정 컨설팅으로 FTA수출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산지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게 될 뿐 수출자가 FTA 관세혜택을 바로(직접) 누리는 것은 아니다.

컨설팅 기업 접수를 경기수출지원센터로 단일화하고, 컨설팅 요청 중소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수출컨설팅과 FTA컨설팅 대상 기업으로 분류하여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컨설팅 사후 관리 및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일방적인 서비스제공에서 쌍방향 소통형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 수출초보, 영세기업 중점 지원

수출초보 기업 및 영세기업 CEO 대상 FTA 및 수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작은 기업일수록 수출에 대한 CEO의 인식이 중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FTA 활용 문제점으로 원산지 관련 사항이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원산지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2013, 2017), 산업통상자원부(2013, 20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8), 관세청(2018), 한국무역협회(2017), 대한상공회의소(2013) 등 국내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동일한 문제를 조사한 바 있다.

<표 4-25> FTA 활용에서 원산지 관련 애로 조사결과 예시

기관	년도	주요 애로사항
중소기업중앙회	2013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서류 절차
중소기업중앙회	2017	원자재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증빙서류 준비 애로
산업통상자원부	2013	원산지 인식부족 및 품목분류 어려움
산업통상자원부	2014	정보부족, 원산지관리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아시아에 집중, 대기업에 비해 낮은 활용률
관세청	2018	미국 관세부와 회피를 위한 원산지 증명
한국무역협회	2017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한상공회의소	2013	원산지 증명 및 관리

중소기업중앙회(2017년)가 발표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 (50.5%)
- 원재료를 포함해 제품의 HS code (품목번호) 확인 (17.7%)
- FTA 협정 여부 확인 (6.6%)
- 양허품목 확인 및 양허세율 확인 (6.2%)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6.2%)
- 원산지 결정기준 (PSR) 확인 및 자가 판정 (5.9%)
- 기타 (3.9%), 없다 (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8)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은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에 60% 이상 집중되고 있으나 다수 기업들은 현지 수출에서 FTA 활용 애로를 겪고 있다. 한-중 FTA 발효 이후 수출품목 수 증가율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중이 높지 않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2015년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이 높아지고 수출품목 수도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다.

2017년 상반기 FTA종합지원센터의 FTA 1380 콜센터 등에 접수된 1만 1,600여건의 상담을 협정별, 업종별, 문의유형별로 분석한 한국무역협회(2017)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분야는 한-중 FTA, 화학·화장품, 원산지 증명서 발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중소기업 관심분야

협정별(비중 순)	중국(35.8)	아세안(15.9)	EU(9.8)
업종별(비중 순)	화학/화장품(14.5)	기계(13.3)	전기전자(7.8)
문의별(비중 순)	원산지증명서(42.0)	품목분류(18.3)	원산지결정기준(5.9)

주: 2016년도 협정별 상담 비중은 중국(53.2%), 아세안(11.2%), EU(7.2%) 순

FTA 발효기간이 길어질수록 각 FTA 상대국에 대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비중은 대체로 높아지고 있으나 대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 관련 사항 컨설팅 위주의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초보 수출자 혹은 영세기업의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수입자는 수출자(생산자)가 발부한 원산지증명서를 이용하여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수출자의 경우, 수입자와 가격협상을 통해 수출 단가를 올려야 한다.(물량 증가 등 간접효과도 있을 수 있음) 원산지관리 비용(노력) 외에 원산지검증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FTA특혜관세 혜택의 일부라도 수출자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내용까지 기업지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는 방법은?

- 직접 혜택: 수출자가 직접 수입국 통관을 할 경우(CIF, DDP, DDU)
- 간접 혜택: 수출가격 협상을 통해 수출자와 수입자간 관세혜택 배분
관세 면제로 현지 수입가격 및 소비자가격 인하로 인한 수요 증가
- * 수출자(생산자)는 원산지검증 리스크 부담

내수기업이 수출기업화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서는 FTA보다는 수출프로세스 차원에서 기업의 컨설팅이 필요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내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은 기업의 수출 시도는 무모하며, 장기간에 걸친 세밀한 준비 후에 수출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수출기업화를 위해 국내 및 관내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일정 수준의 수출역량을 확충하게 되면 FTA 활용컨설팅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수출금융 등을 지원받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경기수출지원센터가 주도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할 필요가 있다.

라. GBC 재배치 및 역할 강화

1) 국내 지자체의 해외사무소

국내 다수 지자체가 세계 주요 지역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해외사무소를 철수시켰다. 2011년 서울과 울산이 전면 철수했고, 2017년에는 충남이 해외사무소를 철수시켰다. 13개 시·도에서 9개 국가, 21개 지역, 46개 사무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사무소당 평균 근무인원은 2.46명이고 평균 예산은 2.27억원이다.

다수 지자체는 KOTRA 해외무역관에 공무원을 현지파견하거나 위탁 운영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 해외 사무소의 국가별 분포는 중국이 19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일본에 각 7개소, 베트남 5개소이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해외사무소 설치 지역은 신흥시장(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에 집중 분포되어 있으나 공통점을 찾기는 어렵다. 부산의 경우, 5개 해외 사무소 모두 항구도시(LA, 오사카, 호치민, 상해, 칭다오)에 설치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2) 경기도 GBC

경기도는 13개 사무소 전체를 자체운영하고 있다. 단, 금년에 설치된 나이로비는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체운영은 시도 본청에서 사업소 형태로 직접 설립·운영하는 것이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고 현지 비즈니스 전문가를 대표로 임명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GMS(GBC 마케팅사업)은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도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신하여 시장조사-수출거래선 발굴-거래주선-거래성약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GBC 마케팅사업으로 계약액은 2015년 22.7백만달러에서 2017년 33.1백만달러로 증가했지만, 사무소 간 실적 차이가 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 등은 계약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이다. 이들 GBC의 경우 정밀검토를 거쳐 존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되고 있다.

3) 평가 및 개선방안

경기도는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해외 GBC의 서비스 및 활동을 평가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기존 사업을 평가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가 없다.

<표 4-27> GBC 입지 변경(안)

권역별	기존 GBC 설치 지역	검토안
동북아	상하이, 선양, 광저우, 충칭	각 GBC 역할 강화
동남아	호치민,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GBC 철수 검토 신규 1개소 추가설치 검토
구미주	LA, 모스크바,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GBC 철수 검토
서남아·중동	뮌바이, 테헤란, 나이로비	신규 GBC 역할 강화

자료: <부록: 경기도 시군별 무역구조 및 특징>에서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매년 지속사업이지만 각 사업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환류시스템이 필요하다. 실적부진 해외사무소에 대해 예산과 인센티브를 조정하고 있으나 실적부진 사무소에 대한 통폐합, 폐쇄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수출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수출 성공시까지 지속 지원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

기업의 수출성사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더구나 인적 및 물적 자원이 부족한 GBC가 현지의 수출애로를 극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수출성사를 위해서는 KOTRA와 FTA지원센터를 포함한 여러 수출진흥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은 어떤 형태든 수출지원기관의 현지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므로 일정기간 동안 실적이 우수한 GBC를 유지하되, 실적 부진 GBC 및 대외 통상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재배치 혹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지역별로 상관행 차이가 있으나 미중 통상 갈등, 향후 대중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무소 수 및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와 프랑크푸르트는 수입규제 등을 포함한 경제자유도가 높은 지역으로 시장조사 외 GBC 현지 활동이 제한적일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반사이익이 예상되고, RCEP 체결이 추진 중인 동남아 지역과, 지리적 격차 및 문화적 차이로 우리 기업의 진출애로가 큰 남미 지역으로의 GBC 재배치가 필요하다. 참고로 현재 한·남미공동시장 FTA 협상 중이고, 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체제를 미리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 FTA 무역피해 최소화 및 피해기업 지원⁵⁵⁾

1) 제조업

가) 제조업 FTA 피해

2008년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실시 이후 2018년 8월까지 TAA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164개 기업으로 FTA 무역피해 기업이 당초 예상보다 작다. TAA 제도 도입 과정에서 관세의 조기 완전철폐를 가정하고 TAA 수요를 추정했으나, FTA 협상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장기관세철폐가 합의되었고, 단기간 내 다수 FTA가 발효되면서 수입이 여러 FTA로 분산되면서 FTA 무역피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2008년~2016년도까지 무역피해가 인정된 106개 기업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55)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제5조는 “도지사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산업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FTA 활용지원까지 포함한 대책 마련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가 35.9%를 차지하며 비수도권이 6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TAA 지정 기업 중 경기도 비중이 20.8%(2016년까지 누적)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으나, 전국 사업체 총 수(3,950,200개, 2016년) 중 경기도 비중이 21.6%(856,200개)이므로 전국 평균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8> 지역별 TAA 기업 지정 분포

(단위: 기업 수,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대전	계
사례 수	9	7	22	5	3	7	9	2	5	1	3	15	4	4	9	1	106
비율	8.5	6.6	20.8	4.7	2.8	6.6	8.5	1.9	4.7	0.9	2.8	14.2	3.8	3.8	8.5	0.9	100

주: 08~16년도까지 누적 성과
자료: 2017 사업전환 무역조정 이행실적조사 성과분석 용역보고서

2018년 8월까지의 발효된 FTA별 TAA 지정 기업의 수로 보면, EU가 59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세안이 42개로 많은 편이며, 나머지 중국(22개), 미국(16개)과의 FTA 발효로 인한 무역피해는 많지 않다. EU와 아세안은 회원국이 각각 28개와 10개로 많기 때문에 전체 TAA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가 평균으로 보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체로 협정 발효 초기에 TAA 기업 지정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최근에는 TAA 기업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미국 및 EU와의 FTA 발효로 인한 협정상의 관세가 상당부분 인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TAA 신청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FTA 발효 2년차에 TAA 지정 기업이 14개이었으나 3년차에는 5개로 줄었고, 한-중 FTA 관세양허 구조로 보면 추가적인 TAA 신청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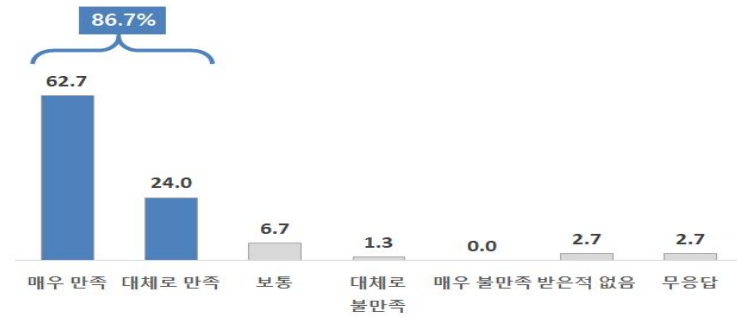
2004년 우리나라 첫 FTA 발효 이후 지금까지의 취약산업에 대한 무역피해 추이로 보면, 당초 예상에 비해 FTA 무역피해가 뚜렷하지 않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정치경제적 고려로 인해 정부는 현 TAA 피해대책을 유지할 것이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수가 많기 때문에 도 내 TAA 지정 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나 경기도 차원의 별도의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FTA 피해기업 혹은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 TAA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나) 무역조정지원제도 평가

중소기업진흥공단(2018)의 조사에 의하면, 무역조정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기준 91.3점, 5점 척도 기준 4.6점으로 나타나 TAA 지정 기업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림 4-3> 무역조정지원사업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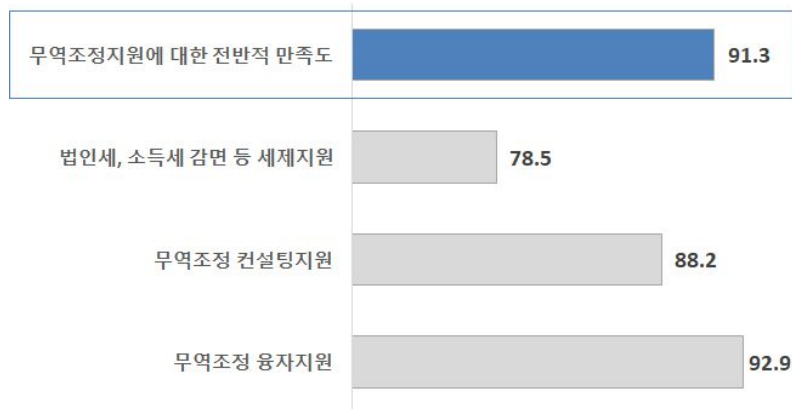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2018)

무역조정지원사업 지원 분야별로 살펴보면, 융자지원의 만족도가 92.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컨설팅지원, 세제지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인 만족도 대비 컨설팅 지원, 세제지원의 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4-4> 무역조정지원사업 지원 분야별 만족도

(단위 : %)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2018)

다) FTA별·시군별 TAA 지정 영향

한편, 지금까지의 FTA 무역피해를 FTA와 산업을 연계시켜 보면, 아세안과의 FTA로 인해 섬유분야 무역피해가 많았고, 한-EU FTA로 인한 식품과 화공 분야 피해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므로 이들 산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양주시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GTC)를 2013년 설립했으나, FTA통상기능을 구비하지 않고 있다.⁵⁶⁾ 향후 경기도수출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섬유업종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도내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4-29> FTA 상대국별 업종별 TAA 기업 지정 분포

구분	섬유	식품	화공	금속	전기전자	기계	잡화	계
칠레		6					1	7
싱가포르			1					1
EFTA		2		3	3	1	1	10
ASEAN	24		4	3	7	3	1	42
인도	2		1					3
EU	4	19	12	7	3	8	6	59
미국	1	4	5	2	1	2	1	16
캐나다	1	2						3
중국	2		5	6	5	3	1	22
베트남		1						1
계	34	34	28	21	19	17	11	164

<표 4-30> 경기도의 대아세안 섬유류 총수입액에서 시군별 수입 비중

(단위: %)

HS	품목명	고양	광명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용인
	대아세안 섬유류 산업 비중	6.1	4.3	3.7	5.7	5.6	27.7	3.4	4.5	2.9	17.0	4.0
62	비편물제 의류	7.6	2.4	0.8	2.8	5.8	32.9	1.1	4.9	0.9	28.4	2.6
61	편물제 의류	4.0	6.7	2.0	13.6	2.3	37.7	0.6	7.2	0.0	4.3	3.4
64	신발류	3.9	16.2	0.9	3.9	25.9	14.0	0.6	0.6	0.0	15.2	1.1
63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3.8	6.8	3.1	6.1	0.0	6.0	0.1	0.1	41.6	1.6	6.6
55	인조스테이플섬유	0.1	0.0	44.8	5.0	0.0	7.5	24.5	3.7	0.0	1.9	0.1
42	가죽제품	17.0	4.8	5.9	6.8	5.5	31.6	4.4	2.1	0.0	1.0	6.6
52	면	0.2	0.0	0.7	21.4	0.1	14.0	55.0	1.0	0.0	0.0	0.0

TAA 지정 기업이 많은 산업은 섬유(특히 한-아세안 FTA), 식품과 화공(한

5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는 섬유업체의 해외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해외 사무소를 통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참가대행, 수출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소개

-EU FTA)이며, 섬유와 식품은 전형적인 중소기업 업종이다. 경기도의 대아세안 섬유류 총수입액에서 시군별 수입 비중이 3%가 넘는 시군은 총 11개이며, 성남시와 안양시의 비중이 높고, 이들 시 소재 섬유류 기업이 FTA 무역피해 빈도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EU로부터 식음료와 화학제품 수입 시군별 품목 및 수입 비중은 <표 4-31>과 <표 4-32>와 같다.

<표 4-31> 경기도의 대EU 식음료 총수입액에서 시군별 수입 비중

(단위: %)

HS	품목명	고양	광명	광주	남양주	부천	성남	안산	안성	안양	용인	이천	하남
	대EU 식음료업 비중	4.4	6.9	7.5	4.7	3.1	14.4	3.8	2.3	3.2	15.5	14.7	4.4
02	육과 식용설육	0.3	0.7	9.5	3.1	12.0	16.2	2.8	6.1	5.8	21.6	1.5	8.3
22	음료 알콜·식초	10.6	0.6	5.2	0.3	0.2	3.5	0.2	0.0	0.6	18.8	55.8	1.3
04	낙농품	4.0	1.7	2.6	16.0	0.0	19.2	13.3	0.1	0.0	14.7	9.4	2.5
19	곡물·곡분·의조제품	1.8	23.2	3.5	8.7	0.9	15.4	2.7	5.2	6.6	6.2	1.3	4.4
15	동물·식물성유지	0.9	20.6	37.5	1.0	0.3	9.0	0.0	0.2	7.3	4.0	9.2	3.3
21	각종의 조제식료품	9.0	7.1	3.6	2.8	1.0	16.7	4.9	0.4	5.1	13.4	0.4	2.0
18	코코아	1.9	33.7	2.0	1.7	0.0	18.2	0.4	2.6	0.2	11.6	0.0	15.3
17	당류·설탕과자	0.3	43.6	9.2	4.0	0.3	7.0	2.7	0.0	0.2	10.6	0.0	3.4

<표 4-32> 경기도의 대EU 화학산업 총수입액에서 시군별 수입 비중

(단위: %)

HS	품목명	광주	김포	남양주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용인	이천	평택	화성
	대EU 화학산업 비중	3.0	4.7	5.9	19.5	7.5	3.1	6.7	6.7	5.3	3.3	12.1	10.3
29	유기화학품	0.1	0.2	1.2	11.2	1.5	2.9	11.5	2.9	3.3	0.1	49.0	9.8
30	의료용품	0.0	20.2	26.6	17.7	0.0	0.6	3.1	6.0	4.3	0.1	0.0	14.5
39	플라스틱	9.5	1.1	0.7	25.7	1.6	4.4	5.2	15.0	2.4	0.9	3.1	14.1
38	각종 화공 제품	2.9	1.3	0.6	33.1	8.1	5.9	5.0	2.9	11.6	11.4	1.7	7.0
85	전기기기	0.1	0.0	0.1	6.0	70.0	0.0	0.3	0.5	1.0	19.1	0.7	1.3
32	유연·착색제	9.9	0.5	0.1	7.9	2.2	4.5	11.7	7.5	22.1	1.0	3.4	3.3
33	향수·화장품	1.1	3.3	3.4	49.1	1.8	1.4	2.3	14.2	4.4	0.5	0.5	2.6
40	고무	0.3	2.1	1.8	5.8	1.3	1.0	2.7	4.1	0.7	2.5	2.9	36.4
34	비누·왁스	6.8	1.6	1.5	24.5	4.2	2.9	23.2	6.9	2.3	0.1	0.9	2.7
28	무기화학품	2.7	1.8	0.0	20.5	2.9	10.5	17.0	6.0	3.0	0.2	9.2	6.9

라) 제조업분야 대책

시군별 TAA 지정 예상 건수와 품목이 차이가 있고, 몇 개 시군에 FTA 무역피해가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별 피해 가능 기업의 집중도에 따라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TAA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표 4-33> 경기도 시군의 산업별 중소기업 분포

(단위: %)

KSIC	가평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1차금속제품	0.0	1.4	0.0	0.9	2.9	0.3	0.6	18.3	3.4	0.2	
광업	3.0	0.0	0.0	0.0	4.0	1.0	0.0	1.0	3.0	0.0	
금속제품	0.1	2.1	0.0	1.0	4.5	0.4	2.9	8.8	4.0	0.1	
기계 및 장비	0.0	1.9	0.0	1.7	3.1	0.2	2.1	8.0	2.6	0.1	
기타 제조업	0.4	8.0	0.2	1.0	10.4	1.2	0.8	7.9	11.6	0.3	
농림수산업	0.5	1.5	1.2	0.2	4.6	0.0	0.0	3.1	3.1	0.2	
목재/종이/인쇄	0.4	14.0	0.1	0.9	6.4	0.5	1.6	8.5	3.9	0.2	
비금속광물	0.6	3.3	0.1	0.9	10.1	0.3	0.5	5.2	4.2	0.3	
석탄, 석유	0.0	0.0	0.0	1.6	1.6	0.0	1.6	11.5	0.0	3.3	
섬유, 가죽제품	0.1	4.2	0.1	1.6	5.3	2.4	0.9	1.9	5.3	1.7	
운송장비	0.1	1.3	0.0	0.9	2.5	0.3	1.0	4.2	2.6	0.0	
음식료업	1.4	5.4	0.2	2.0	3.9	1.2	1.9	3.4	4.6	1.0	
전기 전자	0.0	3.5	0.1	2.3	3.5	0.3	4.6	3.2	2.4	0.2	
정밀기기	0.0	3.8	0.0	2.7	2.5	0.5	6.4	2.8	2.0	0.0	
화학제품	0.1	3.4	0.0	0.9	6.4	0.3	2.5	9.5	4.0	0.2	
총합계	0.2	4.3	0.1	1.4	5.1	0.7	2.4	6.7	4.3	0.4	
KSIC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여주	
1차금속제품	4.9	0.5	0.7	13.8	12.4	2.9	1.0	2.2	0.1	1.2	
광업	0.0	0.0	0.0	0.0	6.0	4.0	2.0	5.0	0.0	9.0	
금속제품	10.4	0.7	1.2	14.1	9.2	1.3	1.7	2.3	0.1	0.4	
기계 및 장비	10.9	1.3	1.9	20.4	7.5	2.0	2.7	1.8	0.0	0.3	
기타 제조업	5.0	2.8	2.6	3.8	3.0	1.3	2.5	2.8	0.4	0.7	
농림수산업	0.5	1.9	1.2	1.5	1.7	13.3	0.2	1.9	7.3	4.8	
목재/종이/인쇄	6.8	1.9	3.5	4.0	5.2	1.7	2.4	2.3	0.3	0.6	
비금속광물	1.9	1.8	1.2	3.4	2.1	3.7	1.2	2.7	0.7	12.2	
석탄, 석유	0.0	4.9	0.0	18.0	13.1	1.6	1.6	3.3	0.0	0.0	
섬유, 가죽제품	6.3	9.5	2.3	2.3	4.2	0.9	3.3	12.7	0.2	0.2	
운송장비	4.1	1.0	1.9	17.6	9.9	4.4	1.8	1.2	0.1	0.1	
음식료업	5.7	7.2	6.3	2.3	4.8	3.4	3.9	2.7	1.8	1.7	
전기 전자	12.7	5.7	5.8	9.0	13.3	0.9	7.4	1.6	0.1	0.1	
정밀기기	12.0	9.8	6.4	7.4	7.2	0.9	7.7	1.2	0.0	0.2	
화학제품	7.7	1.7	1.5	7.0	5.4	2.8	1.9	3.7	0.1	0.6	
총합계	8.5	3.4	2.9	9.5	7.2	1.9	3.2	3.2	0.3	0.8	
KSIC	연천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1차금속제품	0.0	0.7	1.8	0.2	0.2	0.7	3.7	4.1	1.9	0.6	18.4
광업	9.0	0.0	11.0	0.0	1.0	1.0	3.0	2.0	11.0	0.0	24.0
금속제품	0.1	0.6	1.6	0.3	0.3	0.9	2.7	2.8	2.8	0.8	21.7
기계 및 장비	0.0	0.7	2.2	1.2	0.1	0.7	2.4	2.6	2.0	0.6	19.0
기타 제조업	0.1	0.5	4.4	0.4	1.0	1.4	8.1	1.5	8.1	2.4	5.2
농림수산업	2.7	0.5	5.3	0.7	0.7	8.7	4.1	11.1	7.7	0.2	9.2
목재/종이/인쇄	0.2	0.4	4.6	0.6	0.6	1.1	11.0	2.5	4.1	0.9	8.9
비금속광물	0.7	0.3	5.2	0.4	0.7	11.0	5.2	2.5	7.6	1.4	8.6
석탄, 석유	0.0	1.6	3.3	0.0	3.3	0.0	3.3	1.6	3.3	0.0	21.3
섬유, 가죽제품	0.7	0.2	2.2	0.4	5.3	0.7	2.1	1.6	15.7	2.8	2.4
운송장비	0.0	0.6	3.4	0.5	0.1	1.3	2.0	8.0	1.2	0.5	27.2
음식료업	1.3	1.1	5.5	1.0	2.4	3.3	4.6	4.4	4.5	1.5	5.5
전기 전자	0.0	0.9	2.9	1.6	0.7	0.6	2.2	2.1	1.5	0.7	9.7
정밀기기	0.0	0.8	4.5	2.3	1.2	0.8	1.7	2.3	0.5	0.7	11.5
화학제품	0.2	0.6	3.7	0.8	0.3	1.3	4.8	4.2	5.1	1.0	18.7
총합계	0.3	0.6	3.2	0.8	1.0	1.4	4.1	2.9	4.6	1.1	13.5

예를 들어, 섬의류의 경우, 성남시와 안양시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계 섬유기업에 대해 TAA 홍보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FTA 상품분야 협상 및 협정개선 협상에서 경기도는 도내 취약업종에 대한 관세자유화 예외 및 관세철폐 장기화 설정을 위해 통상당국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표 4-34> 경기도 시군의 산업별 근로자 분포

(단위: %)

KSIC	가평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단위: 천원)	
1차금속제품	0.0	0.4	0.0	0.4	1.5	0.2	0.3	15.8	1.6	0.7	
광업	8.4	0.0	0.0	0.0	3.0	0.1	0.0	0.4	2.9	0.0	
금속제품	0.0	1.6	0.0	0.7	4.7	0.2	1.9	9.1	3.5	0.1	
기계 및 장비	0.0	1.1	0.0	1.0	2.6	0.1	2.1	7.6	1.5	0.1	
기타 제조업	0.3	5.7	0.1	0.6	10.9	0.7	0.6	10.2	10.7	0.2	
농림수산업	2.4	0.9	0.8	0.0	3.7	0.0	0.0	2.9	2.0	0.1	
목재/종이/인쇄	0.2	11.3	0.1	0.5	6.1	0.4	1.6	8.7	3.2	0.1	
비금속광물	0.5	3.4	0.0	0.7	8.1	0.7	0.4	4.1	4.1	0.2	
석탄, 석유	0.0	0.0	0.0	0.6	0.2	0.0	0.4	9.0	0.0	5.2	
섬유, 가죽제품	0.1	3.5	0.0	1.3	5.0	1.8	1.6	1.7	4.2	3.2	
운송장비	0.0	0.3	0.0	7.7	0.6	0.1	2.1	2.2	0.6	0.0	
음식료업	1.1	3.6	0.1	0.7	5.3	0.7	2.4	3.2	3.7	1.2	
전기 전자	0.0	1.2	0.0	0.8	1.7	0.1	2.5	1.7	0.9	0.1	
정밀기기	0.0	3.4	0.0	1.4	1.9	0.2	6.0	2.7	1.1	1.5	
화학제품	0.1	1.7	0.0	0.4	4.5	0.2	2.5	7.1	2.2	0.2	
총합계	0.2	2.4	0.0	1.2	3.8	0.3	2.2	5.5	2.5	0.4	
KSIC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여주	
1차금속제품	2.8	0.3	0.7	12.3	18.8	3.2	0.5	3.8	0.0	1.8	
광업	0.0	0.0	0.0	0.0	2.7	3.2	5.7	4.8	0.0	4.0	
금속제품	7.2	0.7	1.0	13.0	12.3	2.1	1.1	2.3	0.1	0.5	
기계 및 장비	7.6	1.5	3.0	14.4	9.9	4.7	2.8	1.3	0.0	0.2	
기타 제조업	4.1	1.9	1.2	3.4	3.6	2.1	1.8	2.7	0.1	0.7	
농림수산업	0.8	2.4	4.7	0.5	1.5	14.6	0.1	0.9	4.8	5.0	
목재/종이/인쇄	3.9	1.2	1.5	4.0	7.4	2.5	1.6	2.1	0.2	0.6	
비금속광물	2.3	1.5	0.9	4.2	3.7	5.8	2.3	2.9	0.9	9.2	
석탄, 석유	0.0	2.7	0.0	16.5	18.7	1.0	0.6	1.5	0.0	0.0	
섬유, 가죽제품	4.5	6.8	1.1	2.7	10.3	1.3	3.8	15.3	0.1	0.1	
운송장비	1.8	0.3	1.9	9.1	11.9	4.3	0.8	0.2	0.0	0.0	
음식료업	3.6	8.2	2.4	3.3	4.6	6.3	2.7	3.4	0.7	1.6	
전기 전자	6.8	5.0	7.1	4.0	12.8	1.1	4.2	1.1	0.0	0.1	
정밀기기	8.5	11.7	5.1	4.0	6.6	1.9	8.7	1.7	0.0	0.4	
화학제품	5.9	1.7	1.9	6.7	9.8	4.3	2.2	3.1	0.1	0.4	
총합계	5.7	3.3	3.2	7.1	10.1	3.0	2.8	2.7	0.1	0.7	
KSIC	연천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1차금속제품	0.0	0.5	2.5	0.1	0.0	1.2	3.4	7.9	2.1	0.2	16.9
광업	6.6	0.0	13.8	0.0	6.6	0.2	2.8	3.1	19.9	0.0	11.7
금속제품	0.1	1.0	1.8	0.3	0.2	1.4	3.8	4.5	2.5	0.7	21.7
기계 및 장비	0.0	1.0	3.0	0.9	0.1	1.3	3.1	5.9	1.4	0.3	21.0
기타 제조업	0.0	0.4	4.7	0.3	0.8	1.7	10.8	2.2	9.5	2.1	5.8
농림수산업	3.3	0.9	3.7	0.9	0.6	10.5	5.5	13.2	6.5	0.1	6.3
목재/종이/인쇄	0.0	0.7	5.2	0.5	0.2	1.6	15.8	4.5	3.4	0.8	10.0
비금속광물	0.8	0.1	4.6	0.5	0.5	6.0	6.9	3.9	7.5	1.1	12.2
석탄, 석유	0.0	6.3	1.2	0.0	1.2	0.0	0.6	1.5	2.3	0.0	30.6

섬유, 가죽제품	1.2	0.2	2.0	0.3	4.2	0.9	1.9	1.3	14.7	2.2	2.5
운송장비	0.0	0.1	1.2	0.1	0.1	1.8	0.4	16.7	0.4	0.1	34.9
음식료업	1.1	0.7	5.2	0.7	0.8	6.3	5.8	7.2	6.3	1.0	6.0
전기 전자	0.0	1.1	8.1	1.2	0.2	5.4	9.4	6.8	0.7	0.3	15.4
정밀기기	0.1	0.6	6.3	1.8	0.8	0.9	2.2	7.0	0.3	0.3	13.1
화학제품	0.2	1.1	4.3	1.2	0.3	1.6	4.5	6.8	3.5	0.8	20.7
총합계	0.2	0.8	4.6	0.8	0.5	2.8	6.0	6.4	3.4	0.7	16.5

또한 한·일 FTA 등 신규 FTA 체결과 한·중 FTA 관세양허 개선 등이 추진 될 경우 별도의 FTA 피해산업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미 FTA 등과 같이 국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예상되는 경우 피해산업대책을 수립해 왔고, 일본과의 FTA에 대해 다수 산업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협상 개시 시점에 보완대책 언급이 필요할 것이다. 제조업 경쟁력 차이로 일본은 국내 제조업에게 가장 큰 무역피해를 입힐 수 있는 FTA 대상국이며, 2003-2004년 한·일 FTA 협상 및 그동안의 CPTPP 가입 논의 과정에서 일본은 제조업 전면개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무역피해 우려로 한·중 양국은 낮은 수준의 관세양허를 합의했으나, 향후 한·미 FTA 수준으로 관세양허를 개선시킬 경우 한·일 FTA 못지않은 무역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이 필요하다.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신청, 영업 중이거나 향후 사용할 상표의 상표 등록이 필요하다.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방어를 위해 상표 불법 도용, 상표 위조 등을 사전에 조사하도록 기업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중요성은 높으나 교육이나 전문기관 소개 및 관련 정보 제공 외 경기도 차원에서 기업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식재산권 위반 여부를 가리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데 이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민형사적 재판으로 사건이 종결되는데 이에 대해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문제가 되는 기업이 있다면 전문기관을 소개시켜 주고 기업과 전문기관 간 계약에 의해 처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안으로는 먼저 국내에서는 변리사회, 경기중앙변호사회와 협력협정으로 중소기업의 법률서비스 접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과 법률기관 간 계약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위반 사항은 국내보다 훨씬 복잡해지게 된다. 세계 주요 KOTRA 무역관에 설치된 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우선 접촉해 자문을 받고 처리를 하도록 기업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농수산업분야

가) FTA 지원현황

FTA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농업과 수산업에 대한 무역피해와 구조조정을 위해 농수산 분야 국내보완대책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직접피해보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운영하며, 농식품 ICT 지원사업 등 보완대책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농업분야의 직접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국내보완대책은 “FTA직접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로 구분된다. FTA피해보전직불제는 상시 모니터링 품목(농업 42개, 수산 52개)과 농·어업인 신청품목을 포함하여 조사하며 전체 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폐업지원제는 FTA피해보전직불제 발동품목 중 하우스나 축사, 양식 등 시설을 포함하여 투자비용이 큰 품목이나, 2년 이상 키운 뒤 수확하는 양식과 과수가 지원대상이다.

먼저 농업분야 수입피해 품목은 FTA가 최초 발효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7개 품목에 대해서 발동되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칠레 FTA로 인한 국내 과수산업 피해로 시설포도와, 복숭아, 키위가 발동되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로 한우와 한우송아지의 가격하락 피해가 발생하여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피해품목으로 선정되었다. 2015년 이후에는 과수품목으로 확산되었으며, 2018년도 발동품목은 귀리, 호두, 양송이 등으로 점차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다.

<표 4-35> FTA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품목

구분	FTA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04~08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2013	한우, 한우송아지	한우, 한우송아지
2014	한우송아지	한우송아지
2015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밥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밥
2016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2017	도라지	-
2018	호두, 도라지, 양송이, 귀리, 염소	호두, 양송이, 염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2016, 2017), 농림축산식품부(2018)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2008년 최초 도입되었고, 2015년 처음으

로 발동된 이후 대상품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피해보전직불금 품목은 가오리, 까나리, 날개다랑어, 복어, 아귀, 전갱이, 참다랑어 등 7개로 주로 중국 산 수산물 수입증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2017년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표 4-36> FTA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품목

구분	FTA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2015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	가리비, 오징어, 참다랑어
2016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2017	가오리, 고등어, 까나리, 날개다랑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갱이, 전복, 참다랑어	가오리, 고등어, 까나리, 날개다랑어, 민대구, 복어, 아귀, 전갱이, 전복, 참다랑어
2018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주꾸미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주꾸미

자료: 해양수산부(2015, 2016, 2017, 2018)

나) 경기도의 농업 현황

경기도의 주요 농산물은 <표 4-37>과 같다.

<표 4-37> 경기도의 주요 농산물

(단위: 천 톤, %)

품 목	최근 3년 평균 (2015~2017)		
	전국	경기도	비중
고구마	222	33	15.0
봄감자	367	46	12.4
파	432	64	14.9
노지파	373	44	11.8
시설파	58	20	35.1
대파	319	57	17.7
노지대파	274	37	13.7
시설대파	46	19	42.0
배추	2,108	178	8.5
가을배추	1,309	137	10.5
시설배추	95	29	30.4
시금치	76	28	37.3
시설시금치	45	27	59.4
상추	93	25	26.7
노지상추	16	3	20.9
시설상추	77	21	27.9
참외	161	2	1.1
노지참외	3	1	25.9
오이	315	45	14.4
노지오이	36	4	11.3
시설오이	279	41	14.8
호박	325	35	10.6
노지호박	171	18	10.8
시설호박	154	16	10.4
배	255	46	18.1
포도	214	29	13.7

자료: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http://kosis.kr>)

통계청 조사를 통해, 전국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 중 경기도 비중이 10% 이상인 품목을 살펴보면 고구마, 봄감자, 파, 대파, 배추, 시금치, 상추, 참외, 오이, 호박, 배, 포도 등 11개 품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11개 품목 중 실제 민감품목으로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상시모니터링 하고 있는 품목은 고구마, 감자, 오이, 상추, 포도 등이다. 실제로 포도는 FTA피해보전직불제 피해품목으로 2015년과 2016년도에 걸쳐 발동되기도 하였다.

42개 상시모니터링 품목 중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을 살펴보면 감자와 상추는 지속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포도는 2016년 대비 5% 증가하였으나 평년대비로는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이와 고구마는 2016년 대비와 평년대비 모두 감소하였다.

<표 4-38> 경기도의 주요 농산물의 수입량 추이

(단위: 천 톤, %)

구분	평년(12~16)	2016년	2017년	평년대비	16년대비
포도	61,879	53,251	55,934	-9.6	5.0
감자	45,062	42,179	46,568	3.3	10.4
오이	18,994	17,387	12,377	-34.8	-28.8
상추	3,860	4,040	3,876	0.4	-4.0
고구마	1,391	492	313	-77.5	-36.4

자료: FTA이행지원센터, 2017년 4분기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경기도의 대세계 농산물 수출품목 중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대표적인 품목은 상추, 치즈, 호박, 사과, 쇠고기가공품, 딸기 등이다. 상추의 경우 2016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년(2012년~2016년) 대비 2017년 수출은 854.4%로 크게 증가하였다. 실제 경기도의 상추 생산 비중은 전국 대비 26.7%를 차지하여 생산과 수출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추는 대미국 수출에 집중되어 있어 FTA 활용 시 관세 혜택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치즈, 호박, 사과, 쇠고기가공품과 딸기의 경우에는 평년대비와 2016년 대비 모두 수출이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FTA를 활용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출이 확대되는 품목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표 4-39> 경기도의 주요 농산물의 수출량 추이

(단위: 천달러, %)

품목명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년 대비	16년 대비
상추 070519	대세계	0	1	4	85	299	286	854.4	-4.5
	미국	0	0	4	84	298	282	861.4	-5.4
치즈 040620	대세계	0	0	15	17	30	170	1,514.7	465.9
	중국	0	0	0	11	30	170	4,536.4	466.7
	베트남	0	0	15	6	0	0	-100.0	-
호박 070993	대세계	12	36	71	82	31	126	172.7	301.3
	일본	12	35	0	0	2	17	264.3	750.0
	홍콩	0	0	69	28	14	19	35.7	35.7
	대만	0	0	0	39	0	77	-	-
사과 080810	대세계	0	8	29	39	64	71	178.7	11.5
	몽골	0	0	0	0	37	49	-	32.4
	인니	0	0	4	0	0	19	-	-
	홍콩	0	0	15	12	11	0	-	-
쇠고기 가공품 160250	대세계	0	16	27	31	79	711	2,828	803.7
	중국	0	4	8	14	53	691	7,873.1	1,203.8
딸기 081010	대세계	238	427	464	645	227	377	0.1	65.8
	말린	35	112	177	136	100	186	60.3	86.0
	싱가폴	0	6	41	2	19	33	266.7	73.7
	태국	57	111	96	121	17	65	-26.1	282.4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다) FTA 농업대책

FTA 무역피해 품목의 경우, 경기도 차원의 대책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내보완대책인 ‘FTA직접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 활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출입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 경기도 농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농업당국의 수출입 모니터링 외에 경기도 차원의 농업품목 정보를 분석해야 한다.

또한 국산 우수농산물이 내수 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업은 우리나라의 피해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품목에서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쟁우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농산물의 경우 국내에서 완전 생산되는 품목으로 우수농산물 인증(GAP), 친환경농산물인증 등을 발급받으면 원산지인증 간소화제도를 통해 FTA혜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수출에 비교우위가 있는 농산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면 농산물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농업 협업체계 강화

경기도의 농업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품목선정 단계부터 유통, 마케팅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의 협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농업 수출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농촌진흥청, 종자원: 농업의 해외수출을 위해서는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해 유망품종을 선정하여야 함.
- 농림수산물검역본부: 위생 및 검역(SPS) 조건 충족을 위해 상대국에서 지정한 수출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적 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경기도농업기술원, FTA활용지원센터: 상대국 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가 단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존재함으로 경기도 차원의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단지 지정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FTA를 활용하기 위한 원산지증명 발급 등의 지원도 필요함.
- aT, NH농협무역: 유통과 마케팅의 경우에도 개별농가의 접근이 어려워 지역 브랜드화를 통한 마케팅이 중요하며 aT와 NH농협무역 등 국산 농산물 수출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국내 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 수출지원제도 적극 활용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을 살펴보면 미국, 중국과 아세안(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FTA 체결국과 일본, 홍콩, 대만 등 FTA 비체결국으로 나눌 수 있다. FTA 체결국을 상대로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 지원 서비스뿐 아니라 상대국 위생 및 검역(SPS) 조건 충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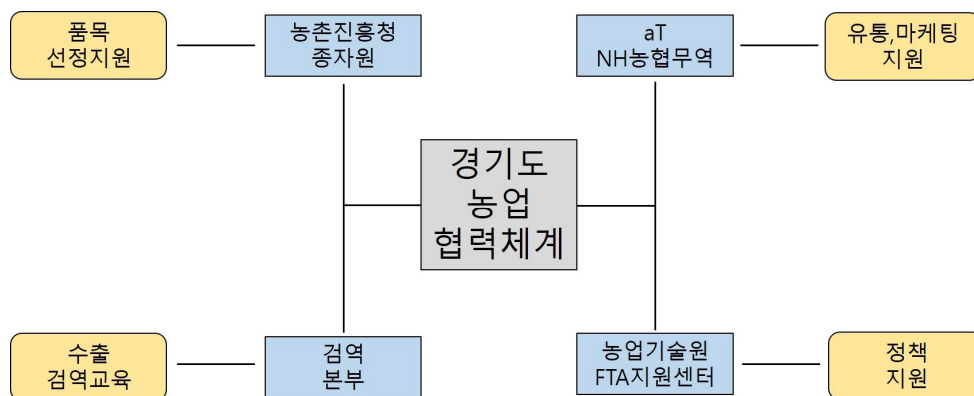
농산물 수출 성공사례의 하나로, 경기도 연천군은 단호박을 수출하기 위해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검역전문기관, NH농협무역을 협업하여 농산물 수출을 성사시켰다.(2018년 8월초) 이 사례는 수출성사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유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연천군은 단호박 생산이 많은 지역임에도 판로문제로 해외로 시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각 단계별 역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품목선정: 연천군은 일본에서 선호하는 1.5~2.5kg의 단호박에 맞춰 생산

- 정책지원: 일본 수출을 위해 연천군에서는 단호박 생산지를 신규 수출 유망단지로 지정해 전문가의 진단과 평가를 받음.
- 검역교육: 수출 상대국 위생 및 검역(PS) 조건을 맞추기 위한 병해충 방제 교육을 실시함.
- 유통지원: NH농협무역은 기존의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판로를 활용 해 일본으로의 수출을 지원하였으며 유통구조에 대한 교육도 실시함.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 수출 지원정책은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출지원과 국내 수급문제로 인한 수출지원 등 2가지로 구분된다. 경기도 차원의 농산물 수출지원 정책은 중앙정부의 지원보다 지역별 농산물 정보 접근이 용이해 특정 지역과 품목에 특화하여 선별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 내에서 품목선정 단계부터 유통, 마케팅 지원까지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 구축되어 있는 기관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경기도 내 농업인과 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4-5> 경기도의 농업 협업체계 구축안



○ 경기도의 농업 생산과 FTA 모니터링 체계 구축

최근 농산물의 해외수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경기도 내 주요 수출 국가는 한국의 주요 수출국과 상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경기도의 주요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상추의 경우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대만으로 2015년 전체 수출 중 대만의 비중은 59.4%를 차지하였으나 그 비중

이 점차 감소해 2017년에는 대만 수출비중이 35.7%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전체 상추 수출 중 대미국 수출 비중은 최근 3년간 9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에 있어 상추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다.

치즈의 경우에는 2015년 전체 치즈 수출 중 대태국 수출 비중이 58.3%로 태국이 한국의 최대 치즈 수출국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 기준으로는 중국이 81.3%로 한국의 최대 치즈 수출국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이 2015년 64.7%에서 2017년 100%로 비중이 증가하였다.

딸기의 경우에는 2015~2017년 기간 동안 전체 딸기 수출 중 대홍콩 수출 비중이 40%대로 홍콩이 한국의 최대 딸기 수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도의 최대 딸기 수출국은 말레이시아로 2015년 대말레이시아 수출 비중은 21.1%로 나타났으나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해 2017년에는 49.3%로 경기도 딸기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0> 주요 농산물의 대세계 수출과 경기도의 수출 비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천달러)	비중 (%)	금액 (천달러)	비중 (%)	금액 (천달러)	비중 (%)
상추	한국의 대세계	926	100.0	1,126	100.0	872	100.0
	한국의 대대만	550	59.4	229	20.3	311	35.7
	한국의 대미국	320	34.6	298	26.5	292	33.5
	경기도의 대세계	85	100.0	299	100.0	286	100.0
	경기도의 대미국	84	98.8	298	99.7	282	98.6
치즈	한국의 대세계	72	100.0	71	100.0	209	100.0
	한국의 대태국	42	58.3	12	16.9	9	4.3
	한국의 대중국	11	15.3	48	67.6	170	81.3
	경기도의 대세계	17	100.0	30	100.0	170	100.0
	경기도의 대중국	11	64.7	30	100.0	170	100.0
딸기	한국의 대세계	31,971	100.0	32,450	100.0	42,982	100.0
	한국의 대홍콩	12,775	40.0	12,422	38.3	17,347	40.4
	한국의 대말련	3,649	11.4	2,809	8.7	3,548	8.3
	경기도의 대세계	645	100.0	227	100.0	377	100.0
	경기도의 대말련	136	21.1	100	44.1	186	49.3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

이처럼 한국의 주요 수출국과 경기도의 주요 수출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생산과 수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주요 농산물 수출 상대국의 수급상황(가격, 경쟁시장, 병해충 발생여부 등)을 파악하여 국산 농산물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FTA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제 V 장. 결론 및 시사점

1. 산업발전전략과 무역통상정책

가. 우리 기업의 분야별 수출경쟁력

2018년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⁵⁷⁾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은 주요 수출국 대비 품질과 서비스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격과 판매마케팅은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과 판매마케팅의 열위가 나타난 원인을 분석해보면, 현재 지원정책이 전시회 참가와 고객사 직접방문 등의 전통적인 수단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원인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실제 중소기업의 71.3%가 해외마케팅 수단으로 전시회 참가와 고객사 직접방문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통적 수단으로만 해외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오늘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SNS활용과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응답기업의 65.6%가 SNS채널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10.5%만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정부의 노력 외에 R&D와 신제품 개발 등과 함께 제조의 스마트팩토리화 등으로 생산단가를 낮추고 불량률을 감소시켜야 한다. 실제로 신발메이커인 아디다스는 독일 내 스마트팩토리 공장으로 리쇼어링하여 가격과 불량률을 낮추고 있다. 저렴한 인건비로 비용을 낮추는 방식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도록 생산성을 앞세운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판매마케팅에 있어서도 판매의 디지털화, 온라인 시장으로의 진출 등이 필요하며, SNS교육 및 마케팅의 활용을 통해 판매마케팅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시점이다.

나. 산업(기업)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는 다이아몬드이론, 제품수명론, 산업입지론 등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전통제조업의 경우, 생산기술이 국제적으로 이미 보편화되었고 우리나라가 개도국보다 앞서기는 어려

57) 무역협회(2018) “2018년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실태조사” 참조

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의 전통제조업은 구조조정 대상 또는 업그레이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경쟁력은 기존 산업을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혹은 경쟁여건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거나 높은 생산성을 가진 산업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태적인 개념이지 정태적인 현상 유지가 아니다. 기존 전통제조업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산업발전단계가 높아지거나 소득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전통제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구조조정 혹은 산업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통제조업의 강화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전략이다. 대표적으로는 리쇼어링(re-shoring), 스마트팩토리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첨단기술을 제품화하거나(예: Dyson 청소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예: 제약) 또는 제품에 서비스를 결합하는 형태(예: LG 케어솔루션) 등이 있다. 둘째, 선진국 기업들이 주로 수행하는 핵심부품 혹은 생산공정의 특화이다. 이는 동아시아에 구축된 글로벌가치사슬(GVC)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소프트 3달러’(soft 3 dollar) 전략이다. 제품의 소비자 가격이 4달러라고 한다면 이에 투입되는 제조원가는 1달러에 불과하며, R&D, 품질관리, 마케팅 등 서비스 분야에서 나머지 3달러가 창출된다는 것이 소프트 3달러이다.

<그림 5-1> 소프트 3달러 전략



교통통신의 발달과 무역자유화로 국제무역의 거래비용이 낮아지면서 GVC가 확장되었고, 선진국 제조기업들은 핵심부품 및 생산공정에 특화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매출과 순이익 등 경영실적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GVC 참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일 커브에서 보듯이,⁵⁸⁾ 제품 생산의 부가가치가 낮아지고 있지만, R&D, 마케팅,

디자인, 특허 등 신기술과 서비스분야의 부가가치는 더 커지고 있다.

다. 산업정책과 무역통상정책의 연계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총매출이나 수입에서 국내 비중과 해외 비중을 비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글로벌 무역자유화가 상당수준 진행된 현 상황에서 국내시장과 해외시장 간 구분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고, 해외시장이 국내시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등 내수시장이 큰 국가의 기업들도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더 큰 경영실적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수규모가 어중간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들이 내수에만 의존해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다.

산업정책은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며 무역통상정책과 연계가 되어야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2013년 우리나라는 산업과 통상의 연계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출범시켰다. 지자체의 산업지원정책 역시 무역통상정책과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세계통상환경 악화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이 필요하다. 점차 수출지원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업정책과 무역통상정책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세계통상환경으로 보면 적극적인 통상정책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은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정책을 의미한다. 정부의 지원정책에 있어 WTO 다자체제는 기본적인 통상인프라이며, 우리나라 총수출의 75%를 차지하는 FTA 네트워크 역시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의 지원은 허용 가능한 보조금에 한정해서는 안 되며, R&D를 통한 신기술 개발, 디자인 혁신, 마케팅, 브랜딩, 전시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수입품 경쟁력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직적무역특화를 확대해야 한다. 수직적무역특화란 국내 제품 생산에 투입된 수입중간재를 의미한다. 수출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상정책은 FTA 활용만을 지원하는 현재의 프로그램에서 수출성사를 위한 수출프로세스의 일부로 FTA 활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이에 대한 상세내용은 본 보고서의 IV장 중장기 FTA활용지원전략에서 제시하였다.

58) 스마일 커브는 상품개발에서 부품·소재의 생산, 제조, 판매와 A/S로 이어지는 각 단계 별 가치를 계산해 보면,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핵심 부품 개발과 소재, 마케팅 등 서비스에서 창출되고 제조의 부가가치는 가장 낮다는 개념. 이는 핵심부품, 소재,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마케팅 등 서비스 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것임.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전략은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지자체가 자체적인 산업발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정부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와 부합되는 적합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분석팀의 역할이다. 다수 중소기업들은 중앙정부의 기업지원 제안서 작성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경기도 차원에서 적합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찾아내고 이들 기업의 제안서 작성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2. 경기도 통상정책

경기도 지역 GDP는 한국 전체의 약 10% 수준이나, 수출은 GDP 비중의 2배 이상인 21.6% (2011년 15.8%에서 5.8%p 증가)이다. 수출비중은 2011년 15.8%에서 5.8%p 증가하였다. 특히 2011년~2017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한국 전체보다 11배 높으며, 같은 기간 수입증가율은 5.8%로 한국 전체 수입증가율 -1.52%와 대비된다. 즉, 경기도는 GVC 참여 역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보호무역주의 등 외부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절에서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과 수출 구조분석을 통한 경기도 산업지원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경기도 TBT-SPS 대응 협의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지자체의 대응은 느슨한 편이다. 미국, 인도, 브라질 등 많은 국가들이 가장 빈번하게 발동하는 무역조치는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검역조건(SPS) 등 무역구제조치이다. 무역구제조치는 정부 정책이므로 정부 간 통상외교로 해결해야 하며 지자체나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 어렵다. 조기에 수입국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조치가 발동되면 양자간 협의로 해결이 어렵고 WTO TBT 혹은 SPS 위원회 제소를 거쳐 국제통상이슈화하고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수입국이 조치를 변경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중앙정부와의 TBT/SPS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것이며, 민간에서는 통상당국 및 지자체와 무역구제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공유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수출지원센터에서 경기도 TBT-SPS 대응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관내 수출중소기업의 무역구제 조치를 조기에 파악하고 통상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는 체제를 제안하고 있다.

나. 수출규모별 기업지원

본 보고서의 제II장 및 부록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보다 수출의존도가 높으나 세계통상환경 악화 시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 특히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의 일부 산업에 대한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 산업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중국산 전기·전자제조업의 국내시장 침투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미중 통상갈등 심화와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수출의 대중국 의존도는 여전한 반면, 최근에는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여기서는 경기도의 수출구조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산업별 산업지원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출금액에 따른 산업별 지원대책분석을 위하여 경기도 수출품목(HS 6단위 기준)을 1억달러 이상, 1천만달러 이상, 1백만달러 이상으로 구분하고, 해당 금액별 수출품목을 각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수출품목(HS 2단위)으로 재분류 및 분석하였다.(모든 품목 및 수출금액은 부록 제2부 <첨부 4> 참고)

1) 1억달러 이상 품목

1억 달러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제85류(전기기기), 제84류(기계류), 제87류(자동차), 제90류(광학·측정·의료기기), 제39류(플라스틱) 등이다. 총 품목수(HS 2단위 기준)는 22개 품목, 수출금액은 101,409백만 달러며, 제85류(전기기기)의 수출비중은 51.0%로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경기도의 주요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기기기, 기계, 자동차, 광학산업 모두 고부가가치산업에 해당된다. 해당 산업에 대한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통하여 최근 국제 통상 현안으로 인한 수혜기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기기기, 기계류, 자동차 등 1억달러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경기도 산업이라기보다 오히려 한국 주력산업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중앙정부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세부계획을 마련, 추진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표 5-1> 경기도 1억달러 수출품목(HS 2단위 기준)

(단위 : 백만달러)

류	HS	수출금액	비중	류	HS	수출금액	비중
85	전기기기	51,746	51.0	38	화학공업생산물	435	0.4
84	기계류	17,111	16.9	32	유연·착색제	352	0.3
87	자동차	12,216	12.0	29	유기화학품	304	0.3
90	광학·측정·의료기기	10,396	10.3	41	원피·가죽	291	0.3
39	플라스틱	2,517	2.5	37	사진·영화용재료	276	0.3
73	철강제품	1,154	1.1	82	비금속제의공구	269	0.3
33	정유·화장품	1,068	1.1	30	의료용품	267	0.3
74	구리	938	0.9	59	침투·도포직물	225	0.2
94	가구·조명기구	496	0.5	21	조제식료품	151	0.1
71	진주·귀석·귀금속	480	0.5	89	선박	141	0.1
60	편물	445	0.4	76	알루미늄	131	0.1

1억달러 이상 수출품목의 경우 전기기기와 기계류 및 자동차 등 수출 최상위 수출품목에 지원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동 산업에 해당하는 수출품목들은 수출기업들의 역량이 이미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기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보다는, 중앙정부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한 국가 전체 차원의 수출지원체계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업무계획보고 제조업 혁신 가속화에 따르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이행을 위하여 다음을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소재·부품·장비 :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 추진
- ②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 추월 불가능한 격차 유지
- ③ 자동차·조선 : 친환경 스마트화를 통한 재도약
- ④ 섬유·가전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

2) 1천만달러 이상 품목

1천만달러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1억달러 동일 수출품목 상위 5개 제외) 제29류(유기화학품), 제73류(철강제품), 제32류(유연·착색제), 제76류(알루미늄), 제74류(구리) 등 주로 철강 및 비철금속제품과 화학제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품목 수(HS 2단위 기준)는 61개 품목, 수출금액은 18,528백만달러이며, 상위 5개 수출품목의 비중은 1천만달러 수출품목 중 54.0% 수준이다.

<표 5-2> 경기도 1천만달러 수출품목(HS 2단위 기준)

(단위 : 백만달러)

류	HS	수출금액	비중	류	HS	수출금액	비중
84	기계류	3,528	19.0	94	가구·조명기구	107	0.6
85	전기기기	2,755	14.9	61	편물제의류	104	0.6
39	플라스틱	1,712	9.2	12	채유용종자·과실	90	0.5
90	광학·측정·의료기기	1,419	7.7	55	인조스테이플섬유	90	0.5
29	유기화학품	594	3.2	59	침투·도포직물	86	0.5
73	철강제품	564	3.0	93	무기	86	0.5
32	유연·착색제	524	2.8	56	워딩·펠트	84	0.5
76	알루미늄	492	2.7	62	비편물제의류	82	0.4
74	구리	423	2.3	69	도자제품	78	0.4
87	자동차	408	2.2	21	조제식료품	68	0.4
72	철강	387	2.1	65	모자	67	0.4
38	화학공업생산물	332	1.8	41	원피·가죽	65	0.4
60	편물	328	1.8	96	잡품	65	0.3
48	종이와그제품	323	1.7	49	인쇄물	54	0.3
82	비금속제의공구	302	1.6	58	특수직물	53	0.3
83	비금속제의각종제품	256	1.4	22	음료·주류	47	0.3
30	의료용품	250	1.3	88	항공기	38	0.2
68	돌·시멘트제품	237	1.3	97	예술품·골동품	36	0.2
70	유리	233	1.3	64	신발	30	0.2
54	인조필라멘트	220	1.2	50	견	28	0.2
28	무기화학품	211	1.1	92	악기	21	0.1
33	정유·화장품	191	1.0	13	식물성수액	19	0.1
71	진주·귀석·귀금속	189	1.0	86	철도차량	15	0.1
19	곡물·곡분의조제품	176	1.0	67	우모·조화·인모제품	14	0.1
34	비누·왁스	168	0.9	20	채소·과실의조제품	13	0.1
35	단백질	159	0.9	81	기타비금속	13	0.1
27	광물성연료	142	0.8	47	펄프	13	0.1
63	기타방직용섬유제품	137	0.7	57	양탄자류	13	0.1
40	고무	128	0.7	78	납	13	0.1
03	어류	120	0.6	79	아연	10	0.1
95	완구·운동용구	116	0.6				

경기도 1천만달러 이상 수출품목들은 여전히 수출금액이 높고, 산업별 수출 집중도가 높은 품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1억달러 수출품목에 비하여 다소 취약성이 존재하는 산업들이 존재한다. 특히 제29류(유기화학품), 제32류(유연·착색제) 등 화학제품 수출의 경우, CPTPP 가입 시 높은 수준의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으로서 대일본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의 특성에 맞는 스페셜티 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에 따른 수요감소에 사전대비차원에서 공공부

문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투자를 통한 수요창출을 모색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19 업무보고) 다만, 제73류(철강제품), 제76류(알루미늄), 제74류(구리) 등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들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수입제한 품목들로서 한국은 관세부과를 면제받은 바 있으나,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부과대 상으로서 경기도로서는 기회의 측면도 존재한다.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임을 증빙하여, 저율의 관세로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긴급관세나 덤핑방지관세 등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제재조치에 걸리지 않도록 자율적인 무역수지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3) 1백만달러 이상 품목

1백만달러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제84류(기계류), 제85류(전기기기) 등 대부분의 업종이 1억달러 및 1천만달러 수출산업과 중복되나, 이 외에도 다양한 산업들이 이 그룹에 포함된다. 총 품목수(HS 2단위 기준)는 90개이고, 수출금액은 총 3,721백만달러로서 1천만달러 그룹의 약 1/5 수준이다.

<표 5-3> 경기도 1백만달러 수출품목(HS 2단위 기준)

(단위 : 백만달러)

류	HS	수출금액	비중	류	HS	수출금액	비중
84	기계류	634	17.0	52	면	20	0.5
85	전기기기	270	7.2	91	시계	20	0.5
73	철강제품	160	4.3	61	편물제 의류	17	0.5
29	유기화학품	160	4.3	15	동·식물성지방	17	0.5
39	플라스틱	150	4.0	88	항공기	16	0.4
72	철강	134	3.6	80	주석	16	0.4
90	광학·측정·의료기기	129	3.5	63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14	0.4
48	종이와 그 제품	97	2.6	89	선박	14	0.4
54	인조필라멘트	91	2.4	26	금속광물	12	0.3
28	무기화학품	81	2.2	51	모	11	0.3
82	비금속제의 공구	75	2.0	75	니켈	10	0.3
96	잡품	75	2.0	23	사료	10	0.3
76	알루미늄	65	1.7	17	당류·설탕과자	10	0.3
32	유연·착색제	63	1.7	47	펄프	10	0.3
87	자동차	63	1.7	93	무기	10	0.3
74	구리	60	1.6	35	단백질	8	0.2
38	화학공업생산물	59	1.6	16	육·어류조제품	8	0.2
30	의료용품	57	1.5	86	철도차량	8	0.2
40	고무	56	1.5	08	과실·견과류	8	0.2
83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53	1.4	05	기타 동물성생산물	8	0.2
03	어류	51	1.4	65	모자	7	0.2

94	가구·조명기구	48	1.3	78	납	7	0.2
33	정유·화장품	47	1.3	18	코코아	6	0.2
60	편물	47	1.3	12	채유용종자·과실	6	0.2
34	비누·왁스	45	1.2	37	사진·영화용재료	5	0.1
55	인조스테이플섬유	44	1.2	27	광물성연료	5	0.1
56	워딩·펠트	43	1.2	06	산 수목 및 절화	5	0.1
58	특수직물	42	1.1	04	낙농품	5	0.1
41	원파·가죽	39	1.0	24	담배	5	0.1
62	비편물제 의류	39	1.0	44	목재	5	0.1
42	가죽제품	37	1.0	79	아연	5	0.1
71	진주·귀석·귀금속	36	1.0	31	비료	4	0.1
49	인쇄물	32	0.8	67	우모·조화·인모제품	4	0.1
69	도자제품	31	0.8	07	채소	3	0.1
64	신발	30	0.8	09	커피·향신료	3	0.1
81	기타 비금속	29	0.8	97	예술품·골동품	3	0.1
59	침투·도포직물	28	0.7	25	암석광물	3	0.1
68	돌·시멘트 제품	25	0.7	43	모피	3	0.1
22	음료·주류	24	0.6	02	육	2	0.1
95	완구·운동용구	23	0.6	50	견	2	0.1
21	조제식료품	22	0.6	10	곡물	2	0.0
92	약기	22	0.6	57	양탄자류	2	0.0
70	유리	22	0.6	01	산 동물	1	0.0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20	0.5	11	밀가루·곡분	1	0.0
19	곡물·곡분의 조제품	20	0.5				

3. 세계통상현안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5대 세계통상현안으로 미·중 통상갈등, 자동차 제 232조, CPTPP가입, 브렉시트, 한-메르코수르 FTA 5가지를 선정하고, 이들 세계통상현안이 경기도에 미칠 영향 추정과 경기도의 산업발전전략을 모색하였다.

가. 세계통상현안의 경기도에 대한 영향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세계통상현안은 경기도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체결 등 긍정적인 현안도 있으나, 미-중 통상갈등,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 세계통상환경의 악화로 경기도가 받을 타격은 클 수 있을 것으로 나

타났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손실이 발생하지만, 업종에 따라 수혜기회를 예상할 수도 있다. 경기도에 미칠 영향을 수혜산업과 피해산업으로 구분해 보면, 수혜산업으로 CPTPP 가입과 한-영 FTA 체결로 음식료업과 화학제품제조업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메르코수르 FTA에 따라서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정밀기기제조업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중 통상갈등과 CPTPP 가입으로는 화학제품, 전기전자, 정밀기기, 기계장비, 운송장비제조업 등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 한-메르코수르 FTA 체결로 농림수산업과 음식료업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 시군에 대한 영향을 종합해 보면,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등이 세계통상환경의 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세계통상현안별 경기도 산업별 시군별 영향

	대표적 수혜산업		대표적 피해산업	
	산업	시군	산업	시군
미-중 통상갈등	전기전자 기계장비	평택시 이천시	전기전자 화학제품 정밀기기 기계장비	평택시 수원시 용인시
자동차 232조	-		운송장비	화성시 광명시 용인시
CPTPP 가입(한-일 FTA)	음식료 화학	이천시 평택시 수원시	화학제품 정밀기기 기계장비	수원시 이천시 평택시 용인시
브렉시트(한-영 FTA)	음식료 화학제품	성남시 화성시 평택시	운송장비	화성시 광명시 평택시
한-메르코수르 FTA	전기전자 운송장비 정밀기기	평택시 수원시 화성시	농림수산 음식료	평택시 안양시 안산시

그렇다면 경기도 피해산업 및 기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현재까지는 보조금 또는 일회성 재정지원에 많이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정보호 애로 등 명백한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원 결정보다는 지원 지속이 더 어렵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생산성 향상이나 구조조정과 결부되어야 하며, 일회성 지원으로 기업이 생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통상환경상의 악재가 지속된다면 경기도의 대처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과거와 달리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원정책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재원 마련 방안과 더불어 지원방안이

WTO 다자통상규범에 배치되지 않는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

나. 제조업발전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산업정책은 크게 국내정책과 무역정책으로 나눌 수 있고, 피해산업보다는 수혜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이 다양하다. 국내정책과 무역정책 모두 중앙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경기도는 도내 기업들이 이들 정책들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경기도의 피해산업과 수혜산업별로 구분하여 중앙정부의 대책을 평가하고 부족한 경우 보완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는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산업정책은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로 요약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센서 등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가격 인하와 불량률 감소를 위해 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가 필요하다. 기업당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스마트팩토리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판매의 디지털화, 온라인시장의 진출, SNS교육 및 마케팅활동 등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판매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경기도 차원의 산업지원방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선정 시 기준과 선정 방식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영세한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서류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포용적인 산업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리 역량도 강화되어야 한다.

다. 중앙정부 산업발전 프로그램 분석팀 신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중소기업 지원액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점은 다양한 정책으로 예산이 나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일부 기업에게만 돌아간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경쟁력 있는 성장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집중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산업발전정책이 지자체보다 우수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정책은 국내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되고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분야와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이 많다. 경기도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석유화학,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산업 수출구조를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므로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을 기초로 도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종합해보면, 경기도의 지역산업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구조조정 혹은 기술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도내 성장기업들이 중앙정부의 산업발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의 산업발전 프로그램을 분석해야 한다.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거나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분석팀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분석팀은 경기도에 적합한 사업을 중앙정부 프로그램 중에서 선정하여 성장기업 혹은 적합기업이 동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성장기업 혹은 적합기업 선정을 위한 경기도의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혹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기업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도 해야 한다. 특히 이들 기업이 경기도 지역경제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차년도 산업발전전략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4. 경기도 FTA 종합지원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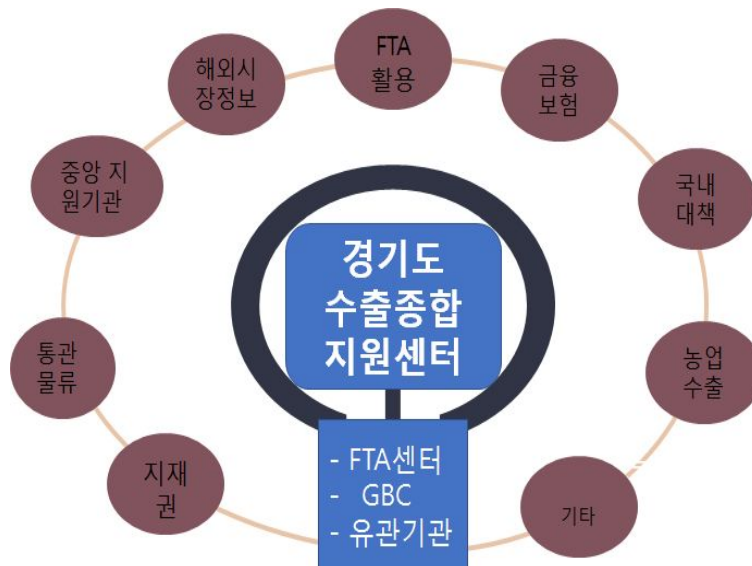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도 내 다른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이 부족하고, GBC 및 코트라 등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기관과의 협력채널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FTA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으나, 수출프로세스 차원에서 FTA활용을 파악하고 기업의 FTA 부가가치 실현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경기도 기업의 수출지원 내실화를 위해 경기수출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하고, 중소기업 수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TAA, 폐업지원 등의 중앙정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경기수출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경기수출지원센터는 경기도 경제실의 지휘를 받으며 경기도의 수출 및 FTA 활용지원을 총괄하고, 고품질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수출-FTA 연계형 컨설팅 프로그램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FTA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또한 보다 시너지효과를 내기위해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GBC를 경기수출지원센터 산하에 설치하여 통합운영 하도록 한다. 현재 세계 13개 지역에 설치된 GBC를 그간 실적과 현재의 통상환경을 고려하여 재배치하거나 구조조정하고, FTA센터와의 협력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컨설턴트의 전문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토털 상담체제로 해외진출의 성공률을 개선해야 한다. 경기도는 수출지원 인프라를 종합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며 경기수출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수출프로세스 전반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경기수출지원센터는 가장 일차적 자료인 해외시장정보의 제공부터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코트라, 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통관물류 정보, FTA 활용정보, 금융보험, 국내보완대책, 농업수출, 지식재산권, 기타 사항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5-2> 경기수출지원센터 역할 및 조감도



나. 컨설팅 개선으로 수출종합지원 강화

경기수출지원센터의 컨설팅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살펴보면, 국내 FTA 환경의 변화에 따라 FTA활용지원은 이제 양적인 만족도에서 벗어나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시점이다. 컨설팅은 효과가 높은 기업 위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FTA 컨설팅뿐만 아니라 투자 등 컨설팅 분야의 다변화도 모색되어야 한다. 기업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FTA 활용역량이 자체적으로도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결국에는 수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컨설팅이 전액 무료로 지원되기 보다는 기업과 비용을 분담하는 원칙하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수출 초보, 영세기업 중점 지원

경기수출지원센터는 수출 초보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중점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출초보 기업과 영세기업에 있어서는 CEO에 대한 교육이 중점이 되어야 하므로 CEO를 대상으로 FTA와 수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수출 초보기업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에서 가장 대표적인 애로사항은 원산지과 관련된 사항이다. 2017년 상반기 FTA종합지원센터의 FTA1380 콜센터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주요 관심분야는 한·중 FTA, 화학·화장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인 것으로 나타나 해당 분야에 있어서 경기도의 수출 초보 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교육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FTA 무역피해 최소화 및 피해기업 지원

다음으로 경기도 FTA종합지원대책이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피해기업에 대한 대책이다. FTA 무역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활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TAA 수혜기업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TAA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농수산물분야의 피해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농수산물분야도 제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져 있는 무역피해 최소화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농업분야는 직접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국내보완대책으로

서 ‘FTA직접피해보전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로 구분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농업에는 42개, 수산에는 52개 품목이 피해가능 품목으로 지정되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폐업지원의 경우에는 시설 등이 투자되었을 경우에 대한 피해도 보상하고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국내보완대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도 자체적으로 농식품의 국내 수출입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농업품목 정보를 농가에게 제공하여 경기도의 농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는 있다. 또한 농업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농산물 수출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기도의 농업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KOTRA(2013a), “2013년 일본 TPP의 현주소”, 글로벌윈도우 12월 6일자
- KOTRA(2013b), “2013년 일본의 통상정책, 메가 FTA시대로의 본격 진입”, 글로벌윈도우 12월30일
- KOTRA(2017), “한·미 FTA 개정협상 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 참관기”, 코트라 워싱턴무역관
- KOTRA(2018), “메르코수, 시장이 좋아하는 한국 상품”, Global Market Report 18-015
- 고태진. 2018. FTA컨설팅 수혜기업의 수출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학 박사학위논문.
- 관세청. 2017. FTA컨설팅 받은 기업 FTA딛고 수출 쑥쑥. 관세청 보도자료.
- 국내대책본부(2018), “차이나는 중국 AI 산업”, 함께하는 FTA, 7월 7일
- 국제무역연구원(2017),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방향과 우리 수출 영향”, 한국무역협회 8월 16일
- 국제무역연구원(2017),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한국무역협회
- 기르소망 외(2013), “한국의 창조경제와 문화-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제의 미래 그리고 TPP”, 세계경제연구원
- 김규관, 이형근, 이정은, 김제국(2017)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통상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남섭. 2017. FTA유형과 수출 컨설팅 전략. 석사학위논문.
- 김대중(2014), “TPP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년도 춘계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 155-178
- 김종덕, 강준구, 이주미, 엄준현(2014),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현중(2016), “한·미 FTA를 말하다”, 흥성사
- 김형주, 이지홍(2016), “TPP 이후 주목해야 할 사업환경 변화”, LGERI 리포트 (3월3일자), LG경제연구원
- 김형주, 이지홍(2016), “TPP 이후 주목해야 할 사업환경 변화”, LG Business Insight 2016. 3. 2.
- 김홍중 외(2017),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희열·곽근재. 2014. 중소기업의 FTA 컨설팅 효율성 제고방안. 관세학회지 15(4).

뉴스1(2018), “한국당, 한·미FTA 개정협상 “빠 주고 살 취한 것” 비판”, 3월30일

뉴스워커(2018), “한·미FTA 개정협상 타결, ‘선방 VS 내주기만 했다’ 평가 엇갈려”, 3월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유럽통합의 과정과 시사점”, 내부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 “TPP의 파급영향 분석”, 내부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6), “TPP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내부자료

대한민국 정부(2007), “한·미 FTA 상세 설명자료”, 정부 합동발표자료

동아일보(2018), “대국굴기 샴페인 일찍 터뜨린 시진핑의 내외외환”, 8월 16일

매경이코노미(2018),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철강·자동차·신약 양보로 상처뿐인 재계”, 4월2일

매일경제신문(2018), “美, 이번엔 일본 통상압박…무역회의 앞두고 FTA 요구”, 8월7일

문병기·이도형(2018), “수출 강소기업의 성장전략 및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TRADEFOCUS 2018년 1호

미디어펜(2018), “바른사회 “한·미 FTA 개정 협상, 처음부터 끝까지 끌려다녀” 4월 2일자

박재곤·최윤기·김영수·송하율·김찬준·최준석·김현우·김영민·정준호·나카무라 코지로(2016), “지역산업 정책의 주요 이슈와 추진방향”, 산업연구원.

박태호(2018), “미-중 통상갈등의 배경과 전망”, 전국경제인연합회 세미나 (7월 17일) 발표자료

박혜리(2014), “TPP 협상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2016), “기업의 산학연 협력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6-801

산업연구원(2017), “새로운 지역산업 발전전략, 스마트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산업경제분석

산업자원부(2016)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 - 정부 「협정문 분석 T/F」 에서 정밀 검토 착수 -”,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 보도자료(11월5일자)

산업통상자원부(2017),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보도자료(10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2018),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도출”, 보도자료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보고(2017),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산업통상자원부

성한경(2015a), “TPP 와 TTIP 가 한국 중국 일본에 미치는 동태적 경제효과 연구”, 서강시장경제연구소, 시장경제연구(44-1), pp:93-124

성한경(2015b), “동아시아 경제 통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의 경제적 효과 연구: CGE 분석과 게임이론의 활용”, 국제경제연구 21(1), PP:83-104

아시아경제(2017), “美민간자문위 "FTA재협상, 북핵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8월 18일

안병수, 김중근. 2013. FTA컨설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4(3).

안준성(2017), “한·미 FTA 재협상: Think Big 전략으로 대비해야” 동아시 아재단 정책논쟁 제76호

안현실(2018) “김현종,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한국경제신문(4월6일)

양효은(2017),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추진 전망과 향후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합뉴스(2018), “한·미 FTA 협상 결과에 전문가 ‘선방’ vs ‘고육지책’”, 3월 26일

연합뉴스(2018), “한·미FTA 협상 결과에 전문가 "선방" vs "고육지책””, 3월 26일

유새별(2016), “TPP 무역상 기술장벽(TBT)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준구(2014), “환태평양경제공동체(TPP)의 정치·경제적 의의: 협상 쟁점과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이유진(2018), “2018년 중소 제조기업 수출경쟁력 실태조사”,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34호

이유진(2018), “2018년 중소 제조기업 수출경쟁력 실태조사”,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34호

이익재(2017), “FTA 국제경쟁력 강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중소기업 FTA컨설팅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정인교(2014), “TPP에 참여할 것인가?: 협상의 실상을 보라”, GSnJ 시선집 중 제173호

정인교(2016a), “TPP 협정 상 신규도입 통상규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

지 17권3호

정인교(2016b), “FTA 통상론” 을국출판사

정인교(2017a) “한·미 FTA 평가와 개정협상”, 경기도 산업진흥원 내부자료

정인교(2017b), “국회 ‘한·미 FTA 특위’ 필요한 이유”, 문화일보 시론 (10월 17일자)

정인교(2017c), “한·미 FTA 5년 평가” 자유경제원 CFE Report 201703

정인교(2017d), “[시론]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산업부의 통상 역량” 서울경제신문 9월 12일자

정인교(2017e), “한·미 FTA 개정협상 대응 방안” 서울신문 10월 30일자

정인교(2017f), “한·미 FTA”, 매경아웃룩 2018 대예측, 매일경제신문

정인교(2017g), “한·미 FTA 개정 공청회, 제대로 해야 한다” 서울경제신문 11월 21일자

정인교(2017h), “세계 무역질서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대응”, 국가표준원 S-Life

정인교(2017i), “한·미 FTA 개정협상 대응 방안”, 서울신문 10월30일

정인교(2018a), “미중 통상갈등 확산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자유연맹, 자유마당 8월호

정인교(2018b), “美·中 무역 분쟁 미봉과 北核 변수”, 문화일보, 5월24일

정인교(2018c), “미중 통상갈등 악화에 대비해야”, 서울신문 8월7일

정인교(2018d), “[정인교칼럼]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에 대비하자”, 서울경제신문 7월 31일

정인교(2018e), “미·중 통상갈등의 배경”, 국회보 2018년 8월호 특집(글로벌 통상갈등과 한국 경제의 대응)

정인교(2018f), “미·중 통상갈등과 시사점”, 국회 [예산추천 2018 봄호] “NABO 논란”

정인교(2018g), “[정인교칼럼]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에 대비하자”, 서울경제신문 7월 31일

정인교(2018h), “무역확대법 232조와 자동차 관세”, 매경이코노미 8월20일자

정인교(2018i), “한·미 FTA 개정협상 평가” 국회예산처 세미나(한·미 FTA 개정협상 평가) 토론자료

정인교(2018j), “TPP 출범과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통상브리프

정인교(2018k), “CPTPP 가입 시점을 잡아라” 한국경제신문 3월 15일

정인교(2018m), “[정인교칼럼] 높아지는 소프트 브렉시트 가능성”, 서울경제신문 9월 12일자

정인교(2018n), “미중 통상갈등의 현황과 전망,” 외교 제127호(2018.10)

정인교·조정란(2014) “TPP 협상의 실상과 시사점”(제1차 DDA/FTA 농업협상 포럼 발표자료)

정인교·홍경서(2017), “한·미 FTA 5년 평가”, 자유기업원 CFE Report

정재완. 2014. FTA 관세특혜와 관련한 전문가의 컨설팅에 관한 연구. 관세사지.

정철, 김영귀, 배찬권, 정영식, 최장호, 김원기, 이형근, 강민지(2017), “미국 트럼프 정부 100일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5월12일)

조동희(2018), “브렉시트 협상 현황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진(2017), “브렉시트와 유럽 통합의 향방”,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2017) “미·중 정상회담 계기로 본 미·중 갈등과 협력의 역사적 사례”, 통상 이슈 브리프 2017년 2호

중앙일보(2018a), “[김현기의 시사각각] 트럼프 경제의 위험, 한국 경제의 위기”, 8월8일

중앙일보(2018b), “트럼프가 WTO 탈퇴 시사한 건 중국과 협상용 발언”, 8월 11일

중앙일보(2018c), “중국 LCD는 어떻게 한국을 넘어섰나”, 8월 2일

중앙일보(2018d), “2001년 중국 WTO 가입 후원한 미국, 제 발등 찍었나”, 8월 2일

최남석(2015), “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 KERI Insight /15 (53), 한국경제연구원

최석영(2016), “FTA 협상노트”, 박영사

통상교섭본부(2010), “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 결과 상세 설명자료”, 외교통상부

파이낸셜뉴스(2018), “英 장관들 잇따라 브렉시트 협상 결렬 경고”, 8월 6일

표한형·최현호(2018),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의 성과는 있는가?, KOSBI 중소기업포커스, 제18-27호

한겨레신문(2018), “한·미 FTA 철강 쿼터, 관세 방식과 비교때 득실 논란”, 3월 28일

한국경제신문(2018), “수입車 고관세 부과면 美 일자리도 75만개 사라진

- 다”, 8월8일
- 한국무역협회(2017), “FTA활용 및 경영성과 설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
- 한국무역협회(2018), “한-메르코수르 TA 추진 필요성과 수출 유망품목”, KITA 통상리포트 2018-02
- 무역협회(2018) “2018년 중소 제조기업 수출경쟁력 실태조사”, TRADE Focus
- 한국일보(2017), “美의회 “한국과 FTA, 신중히 협상하라”... 동맹 훼손 우려 표시” 7월18일
- 한국행정연구원(2016), “Brexit 이후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과 전망: ‘하나의 유럽’, 통합의 끝은 어디인가”, 행정포커스 9월호: pp.: 94-98
- 허윤(2018), “글로벌 통상갈등 속 생존전략”, 국회보 2018년 8월호 특집(글로벌 통상갈등과 한국 경제의 대응)
- 헤럴드경제(2018), “한·미 FTA 개정 협상시, 환율 합의 포함여부 놓고 ‘논란’”, 3월30일
- 현석(2017), “기업구조조정의 한계와 향후 정책과제”,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정책 세미나
- 高増明 & 奚俊芳(2012), 日本と中国の農業に関する TPP 参加の経済効果のシミュレーション: GTAP モデルによる推計. 関西大学社会学部紀要, 第43卷 第2号, 2012.03.31., 1-31
- 經濟産業省(2013), 平成25年度經濟産業省年報.
- Aiginger, K.(2014), “Industrial Policy for a Sustainable Growth Path”, WWWforEurope Policy Paper No. 13. WIFO Studies.
- Brookings(2018), “Global manufacturing scorecard: How the US compares to 18 other nations”, Brookings, 2018. 7.
- Byrne, Thomas(2018), “US-China Trade War - Impacts on the Korean Economy”, FKI Conference(August 10)
- European Commission.(2012), “Guide to Research and Innovation Strategies for Smart Specialisations(RIS3)”, European Commission.
- Fergusson, Cooper, Jurenas, Williams(2013).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Negotia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Fergusson, Ian F., Mark A. McMinimy and Brock R. Williams(2014),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Negotia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ertel, T. W., Walmsley, T., & Itakura, K.(2001), “Dynamic effects of the new ag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Singapore”.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446–484.

Ianchovichina, Elena and Terrie Walmsley(2012), *Dynamic Modeling and Applications in Global Economic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e, Hiro, & Itakura, Kenige(2015), “Mega–regional free trade agreements in the Asia–Pacific: How do productivity gains, cost mitigations and agricultural policy reforms affect the results?”, *The 18th Annual Conference on Global Economic Analysis*, Melbourne Convention Centre

OECD(2002), “Benchmarking Industry–science Relationships”.

OECD(2018), “Improving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SMEs through effective regulation”.

Palit, Amitendu(2014), *The Trans Pacific Partnership, China and India: Econo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Oxford, UK: Routledge 1st edition

Petri, P. A., & Plummer, M. G. (2016),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w Estimate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16–2)*

Pyper, Doug(2016), “Brexit: employment law,” House of Commons Library, Briefing Paper, No. CBP 7732. (November)

Stiglitz, Joseph E.(2018), “The US is at Risk of Losing a Trade War with China”, Project Syndicate, July 30

Trade Union Congress(2016), “UK Employment rights and the EU.” (February)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2016), “Economic Impact of Trade Agreements Implemented Under Trade Authorities Procedures, 2016 Report“, USITC Publication Number: 4614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2017), “The Year in Trade 2016 – Operation of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USITC Publication Number: 4711

USITC(2016),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Likely Impact on the U.S. Economy and on Specific Industry Sectors”, Washington D.C.: USITC

USTR(2018), "Statement By U.S. Trade Representative Robert Lighthizer on

Section 301 Action", August 1st.

Warwick, K.(2013), "Beyond Industrial Policy: emerging issues and new trend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Policy Papers, No 2. OECD Publishing

Worldbank(2016), "Potential Macroeconomic Implication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Washington D.C.: Worldbank

부록: 경기도 주요 시군별 무역구조 및 특징

제 I 부. 경기도 시군별 교역규모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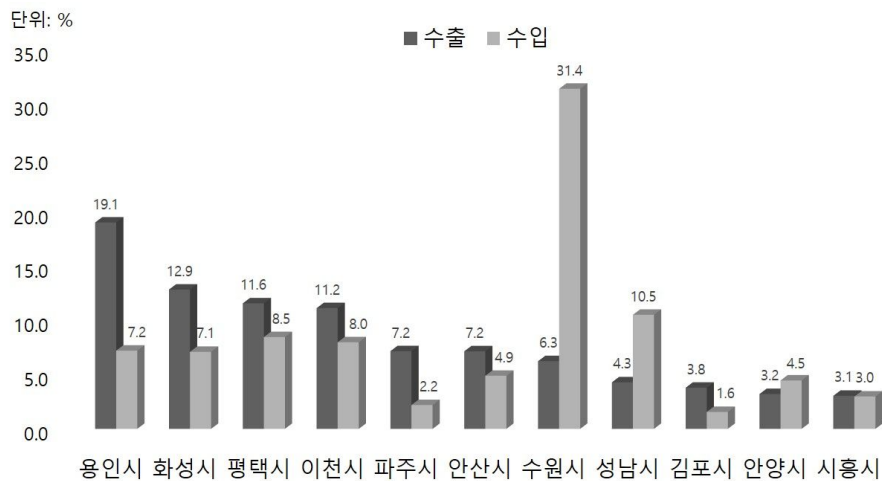
- FTA 이행에 따른 경기도 지역 내의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군별 교역규모와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시군은 총 31개이나, 시군의 경제규모가 작고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군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따라서 총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교역규모와 산업별, 국가별 교역을 살펴보고자 함.
 - 구체적으로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로 선정함.
-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역을 살펴보는데 있어 주요 산업은 총 15개 산업을 대상으로 함.
 - 15개 산업은 HS코드 6단위를 기준으로 2017년 KSIC 분류에 따름.
 - 구체적으로 산업은 농림수산업, 광업, 음식료업,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장비, 비금속광물, 석탄석유, 섬유가죽, 운송장비,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화학제품, 기타 제조업, 목재/종이/인쇄업으로 선정함.
- 그러나 교역구조를 살펴보는데 있어 시군별 교역 자료 수집의 한계로 2016년부터 2개 연도에 대한 자료만을 살펴봐야 하는 한계가 발생함.
 - 자료의 한계로 시군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지만, 2017년도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의 경기도 내 시군별 산업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래에서는 경기도 시군별 교역규모, 주요 교역 국가, 주요 산업과 주요 세부 품목을 살펴보고자 함.

2. 주요 시군별 교역

가. 주요 시군의 국가별 수출입 비중

- 시군별 대세계 수출입 비중은 수출 기준 상위 국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수출과 수입 비중이 3% 미만인 시군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가장 수출이 많은 시군은 용인시(19.1%)이며, 그 다음으로 화성시(12.9%), 평택시(11.6%) 순임.
- 가장 수입이 많은 시군은 수원시(31.4%)이며, 그 다음으로 성남시(10.5%), 평택시(8.5%), 이천시(8.0%)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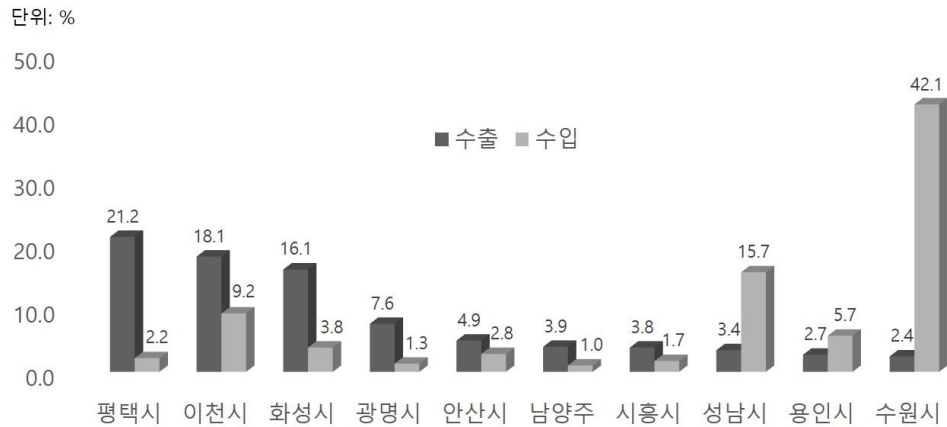
<그림 I-1> 2017년 주요 시군별 대세계 수출입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대미국 수출이 가장 많은 시군은 평택시(21.2%)이며, 그 다음으로 이천시(18.1%), 화성시(16.1%) 순임.
- 대미국 수입이 가장 많은 시군은 수원시(42.1%)이며, 그 다음으로 성남시(15.7%), 이천시(9.2%)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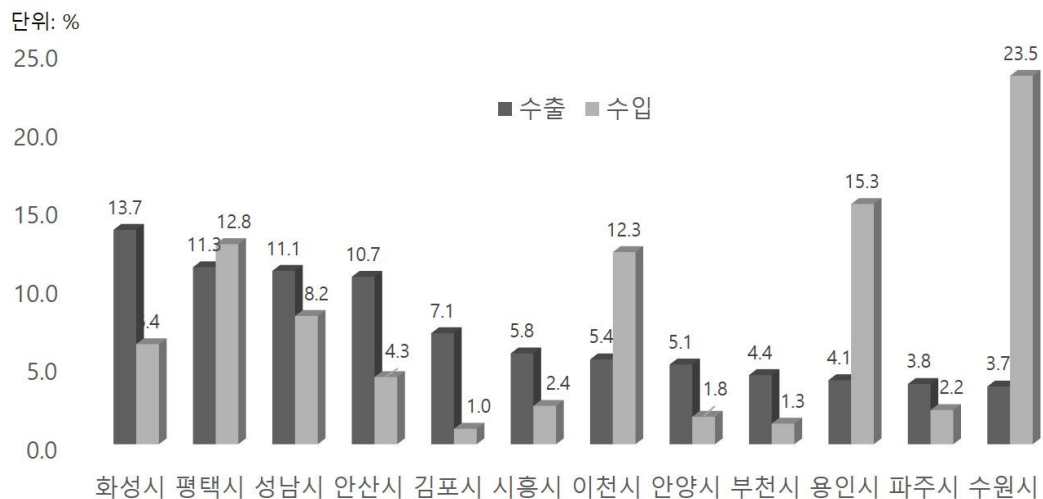
<그림 I -2> 2017년 시군별 대미국 수출입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대일본 수출이 가장 많은 시군은 화성시(13.7%)이며, 그 다음으로 평택시(11.3%), 성남시(11.1%) 순임.
- 대일본 수입이 가장 많은 시군은 수원시(23.5%)이며, 그 다음으로 용인시(15.3%), 이천시(12.3%)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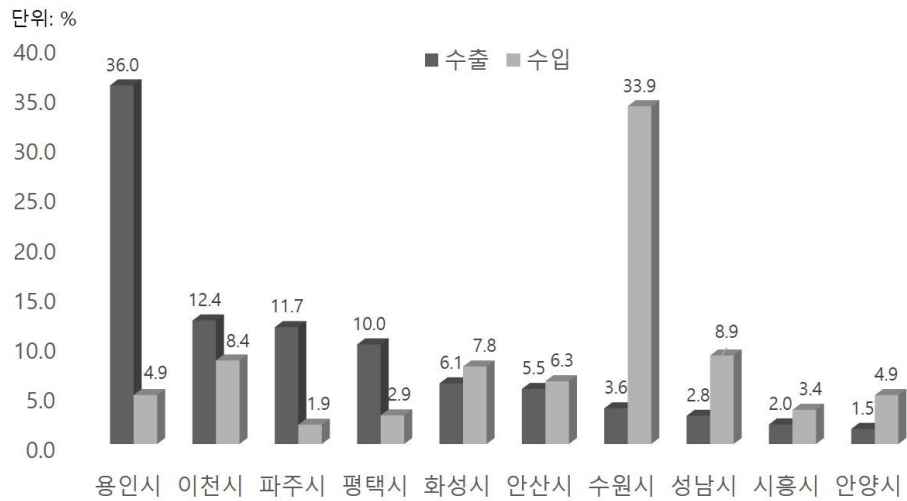
<그림 I -3> 2017년 시군별 대일본 수출입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대중국 수출이 가장 많은 시군은 용인시(36.0%)이며, 그 다음으로 이천시(12.4%), 파주시(11.7%) 순임.
- 대중국 수입이 가장 많은 시군은 수원시(33.9%)이며, 그 다음으로 성남시(8.9%), 이천시(8.4%)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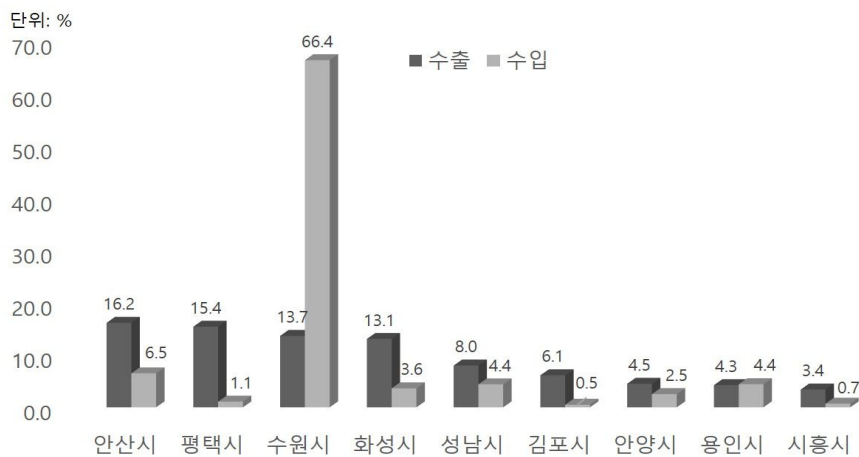
<그림 I -4> 2017년 시군별 대중국 수출입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대베트남 수출이 가장 많은 시군은 안산시(16.2%)이며, 그 다음으로 평택시(15.4%), 수원시(13.7%) 순임.
- 대베트남 수입이 가장 많은 시군은 수원시(66.4%)이며, 그 다음으로 안산시(6.5%), 화성시(3.6%) 순임.

<그림 I -5> 2017년 시군별 대베트남 수출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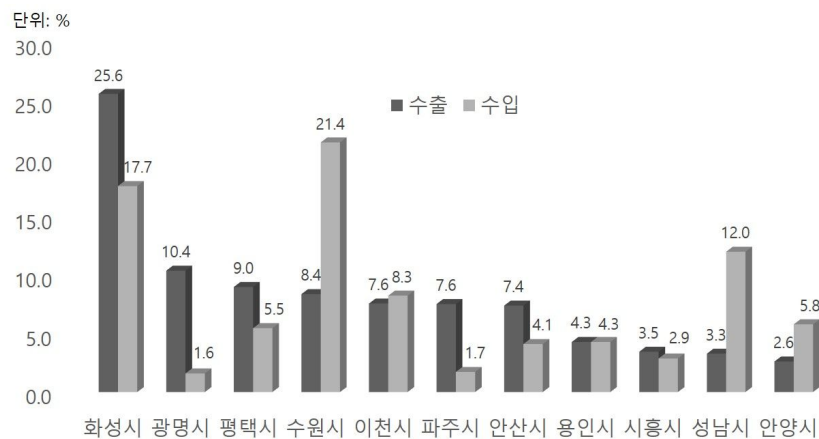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나. 주요 시군의 경제권별 수출입 비중

- 대EU 수출이 가장 많은 시군은 화성시(25.6%)이며, 그 다음으로 광명시(10.4%), 평택시(9.0%) 순임.
- 대EU 수입이 가장 많은 시군은 수원시(21.4%)이며, 그 다음으로 화성시(17.7%), 성남시(12.0%)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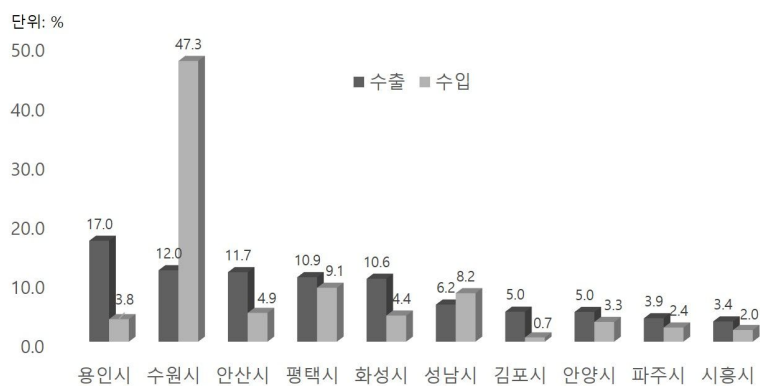
<그림 I-6> 2017년 시군별 대EU 수출입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대아세안 수출이 가장 많은 시군은 용인시(17.0%)이며, 그 다음으로 수원시(12.0%), 안산시(11.7%) 순임.
- 대아세안 수입이 가장 많은 시군은 수원시(47.3%)이며, 그 다음으로 평택시(9.1%), 성남시(8.2%)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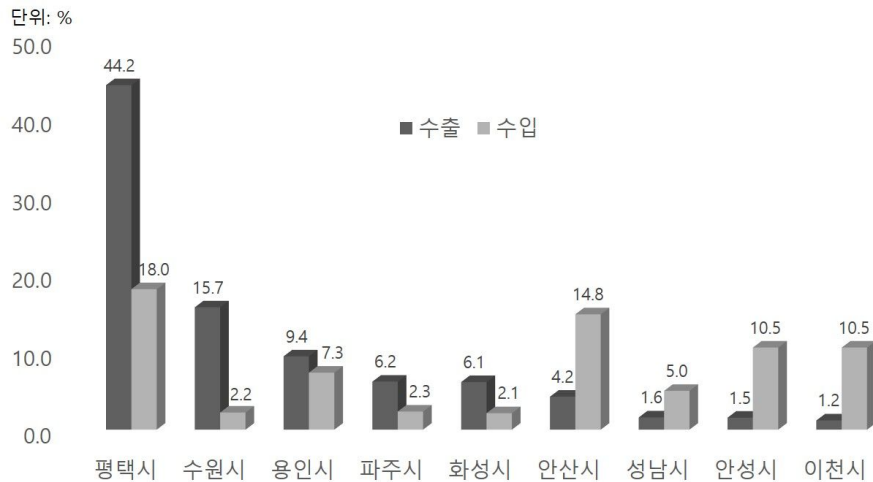
<그림 I-7> 2017년 시군별 대아세안 수출입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대메르코수르 수출이 가장 많은 시군은 평택시(44.2%)이며, 그 다음으로 수원시(15.7%), 용인시(7.3%) 순임.
- 대메르코수르 수입이 가장 많은 시군은 평택시(18.0%)이며, 그 다음으로 안산시(14.8%), 안성시와 이천시(10.5%) 순임.

<그림 I-8> 2017년 시군별 대메르코수르 수출입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3. 시군의 주요 수출입 산업

- 15개 산업에서 대세계 수출입 비중이 10% 이상인 시군은 총 13개임.
 - 구체적으로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임.
- 수출 비중이 10%가 넘는 산업이 가장 많은 시군은 안산시(7개)이며, 그 다음으로 화성시(6개), 성남시(5개) 순임.
 - 안산시의 주요 수출 산업은 1차 금속, 목재, 비금속광물, 석탄석유제품, 섬유가죽제품, 화학제품 제조업 등임.
 - 화성시의 주요 수출 산업은 1차 금속, 금속, 기계장비, 운송장비, 정밀기기, 화학제품 제조업 등임.
 - 성남시의 주요 수출 산업은 농림수산업, 음식료, 석탄석유제품, 섬유가죽제품, 정밀기기 제조업 등임.

- 수입 비중이 10%가 넘는 산업이 가장 많은 시군은 성남시(7개)이며, 그 다음으로 수원시(5개), 용인시(5개) 순임.
 - 성남시의 주요 수입 산업은 금속, 기타제조, 비금속광물, 석탄석유제품, 섬유가죽제품, 음식료, 화학제품 제조업 등임.
 - 수원시의 주요 수입 산업은 기계장비, 비금속광물,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화학제품 제조업 등임.
 - 용인시의 주요 수입 산업은 금속, 기계장비, 목재/종이/인쇄, 음식료, 화학제품 제조업 등임.

- 주요 시군에서 1개 산업의 수출입 비중이 10%가 넘는 시군은 고양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양시로 나타남.
 - 고양시의 경우 기타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29.1%로 나타나 타 시군에 비해 기타제조업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남양주시의 경우 1차 금속제품의 수출 비중이 18.5%로 타 시군에 비해 1차 금속제품 제조업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흥시의 경우 1차 금속제품의 수입 비중이 17.0%로 나타나 타 시군에 비해 1차 금속제품을 중간재로 활용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안양시의 경우 1차 금속제품 제조업의 수출과 수입 비중이 각각 13.7%와 17.4%로 나타나 1차 금속제품을 이용한 가공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I -1> 2017년 시군의 주요 산업

구 분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1차 금속제품					0							0	0	0	0	0									0	
광업			0																					0		
금속제품								0					0					0							0	0
기계 및 장비										0								0			0				0	0
기타 제조업	0							0																		
농림수산업								0		0				0											0	
목재/종이/인쇄													0	0				0			0			0		
비금속광물제품								0		0			0										0			0
석탄석유제품			0					0	0				0										0			
섬유가죽제품								0	0				0													
운송장비																								0	0	0
음식료업			0					0	0									0	0							
전기전자기기										0							0		0				0			
정밀기기								0		0	0									0			0		0	
화학제품									0		0		0					0			0			0	0	
합 계	1	0	3	0	1	0	5	7	2	5	0	1	7	3	1	1	1	5	2	1	3	0	5	4	6	4

주: 0 는 해당 산업에서 시군의 대세계 수출입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가. 고양시

○ 고양시의 주요 수출 산업은 기타제조업.

○ 고양시의 주요 수출 산업인 기타 제조업은 미국 수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중국과 아세안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기타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3억 5천만달러이며 그중 대미국 수출액은 1천 9백만달러이며 5.5%를 차지함.
- 기타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1억 4천만달러이며 중국과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액은 8천 4백만달러와 2천 6백만달러로 각각 59.9%와 18.6%를 차지함.

<표 I -2> 2017년 고양시의 기타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19.6	5.5	15.6	11.1
일본	9.0	2.6	2.9	2.1
중국	2.3	0.7	84.3	59.9
베트남	2.1	0.6	20.2	14.3
EU	5.8	1.7	3.3	2.3
아세안	6.6	1.9	26.2	18.6
메르코수르	0.1	0.0	0.0	0.0
대세계	352.9	100.0	140.8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고양시는 수출에 있어 소비재 수출이 44억 5천만달러로 전체의 44.5%를 차지하며, 수입은 중간재 수입이 8억 7천만달러로 전체의 45.8%를 차지함.

- 수출에 있어 소비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단계는 중간재로, 전체 수출의 34.9%를 차지한 3억 3천만달러임.
- 수입에 있어 중간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단계는 소비재로, 전체 수출의 38.1%를 차지한 7억 2천만달러임.

<표 I-3> 2017년 고양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1차산품	12.1	1.3	41.4	2.2
소비재	426.4	44.5	725.8	38.1
자본재	184.9	19.3	244.1	12.8
중간재	334.6	34.9	871.6	45.8
기타	1.0	0.1	20.5	1.1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나. 김포시

- 김포시의 주요 수출 산업은 광업,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음식료업임.
- 주요 수출 산업인 김포시의 광업은, 주로 일본과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미국(16.6%)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광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5백만달러이며, 그 중 대일본 수출액은 2백만달러로, 전체의 35%를 차지, 대중국 수출액은 1백 60만달러로 27%를 차지함.
 - 수입의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가장 많으며, 나머지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은 미미함.

<표 I-4> 2017년 김포시의 광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0.0	0.1	13.7	16.6
일본	2.0	35.3	2.4	2.9
중국	1.6	27.8	3.5	4.3
베트남	0.1	0.9	2.2	2.7
EU	0.0	0.0	3.8	4.7
아세안	1.0	17.0	2.5	3.1
메르코수르	0.0	0.0	0.3	0.3
대세계	5.8	100.0	82.1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김포시의 주요 수출 산업 중 하나인 석탄 및 제조업 수출입의 경우, 대중국(80.6%) 수출이 압도적으로 높음. 수입의 경우도 중국(62.3%)이 가장 비중이 높으며 나머지 국가는 미미함.

-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3천 7백만달러이며 그중 대중국 수출액은 3천만달러이며 80.6%를 차지함.
-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8백만달러이며 그중 대중국 수출액은 5백만달러이며 62.3%를 차지함.

<표 I -5> 2017년 김포시의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0.0	0.1	0.0	0.1
일본	0.1	0.3	0.4	5.2
중국	30.0	80.6	5.3	62.3
베트남	0.8	2.1	0.0	0.0
EU	0.0	0.0	0.2	2.5
아세안	4.4	11.9	0.0	0.0
메르코수르	0.0	0.1	0.0	0.0
대세계	37.3	100.0	8.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김포시의 주요 수출산업인 음식료업의 수출액은 모두 중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음.
- 음식료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1억 8천만달러이며 그중 대중국 수출액은 8천 1백만달러로 전체의 43.1%를 차지함.
- 음식료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5천 8백만달러이며 그중 대중국 수입액은 천 8백만달러로 전체의 10.6%를 차지함.

<표 I -6> 2017년 김포시의 음식료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7.2	3.8	4.4	7.6
일본	17.4	9.2	0.4	0.7
중국	81.2	43.1	18.6	31.7
베트남	16.3	8.7	6.2	10.6
EU	20.0	10.6	4.5	7.7
아세안	29.0	15.4	10.6	18.2
메르코수르	0.1	0.0	1.9	3.3
대세계	188.3	100.0	58.5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김포시의 수출에 있어 중간재 수출이 21억 8천만달러로 전체의 47%를 차지하며, 수입은 중간재 수입이 가장 높은 9억 8천만달러로 전체의 50.3%를 차지함.
- 수출에 있어 중간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단계는 소비재로 전체 수출의 29%를 차지한 1억 3천만달러임.
- 수입에 있어 중간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단계는 소비재로 전체 수입의 24.3%를 차지한 4억 7천만달러임.

<표 I -7> 2017년 김포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1차산품	72.4	1.6	139.9	7.2
소비재	1,346.4	29.0	475.9	24.3
자본재	1,004.3	21.6	345.2	17.6
중간재	2,183.9	47.0	984.2	50.3
기타	37.0	0.8	10.7	0.5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다. 남양주시

- 남양주시의 주요 수출산업은 금속제품 제조업임.
- 남양주시의 주요 수출산업인 금속제품 제조업은 수출에 있어 미국, 수입의 경우 중국(59.9%)과 일본(37.3%)이 차지.
 - 금속제품의 대세계 수출액은 6억 5천만달러이며, 그 중 대미국 수출액은 5억 1천만달러이며 79%를 차지함.
 - 금속제품의 대세계 수입액은 3억 8천만달러이며, 그 중 대중국 수입액은 2억 3천만달러이며 59.9%를 차지함.

<표 I-8> 2017년 남양주시의 금속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518.5	79.0	0.7	0.2
일본	24.8	3.8	145.2	37.3
중국	3.2	0.5	233.2	59.9
베트남	1.1	0.2	1.3	0.3
EU	19.0	2.9	3.6	0.9
아세안	19.0	2.9	2.1	0.5
메르코수르	0.3	0.1	0.0	0.0
대세계	656.2	100.0	389.4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남양주의 수출에 있어 중간재 수출이 7억 8천만달러로 전체의 78.5%를 차지하며, 수입 또한 중간재 수입이 9억 7천만달러로 전체의 50.3%를 차지함.
- 수출에 있어 중간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단계는 소비재로 전체 수출의 12.9%를 차지한 1억 2천만달러임.
- 수입에 있어 중간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단계 또한 소비재로 전체 수출의 37.9%를 차지한 7억 3천만달러임.

<표 I-9> 2017년 남양주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1차산품	7.9	0.8	22.0	1.1
소비재	129.7	12.9	738.4	37.9
자본재	77.9	7.8	200.7	10.3
중간재	788.8	78.5	978.1	50.3
기타	0.5	0.1	7.2	0.4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라. 성남시

- 성남시의 주요 수출산업은 농림수산업, 정밀기기 제조업임.
- 수입 산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기타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임.

- 수출입모두 주요 산업인 경우는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섬유 및 가죽 제품 제조업, 음료업임.
- 주요 수입 산업인 금속제품 제조업은 수출의 경우 중국과 일본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금속제품의 대세계 수출액은 1억 4천만달러이며 그 중 중국 수출액은 6천 1백만달러로 43%를 차지함.
 - 금속제품의 대세계 수입액은 2억 7천만달러이며 그 중 일본 수입액은 1억 1천만달러로 41.5%를 차지함.

<표 I-10> 2017년 성남시의 금속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4.1	2.9	42.6	15.3
일본	46.5	32.5	115.3	41.5
중국	61.4	43.0	69.5	25.0
베트남	8.2	5.7	4.7	1.7
EU	3.8	2.6	33.6	12.1
아세안	13.0	9.1	7.8	2.8
메르코수르	0.4	0.3	0.0	0.0
대세계	142.9	100.0	277.7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성남시의 주요 수입 산업인 기타제조업은 대아세안 수출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 기타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4천 6백만달러이며 그 중 아세안 수출액은 1천 8백만달러로 40.9%를 차지함.
 - 기타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2억 6천만달러이며 그 중 중국 수입액은 1억달러로 38.2%를 차지함.

<표 I-11> 2017년 성남시의 기타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1.8	3.8	23.1	8.7
일본	3.4	7.3	42.7	16.1
중국	10.0	21.6	101.5	38.2
베트남	2.4	5.2	23.8	9.0
EU	3.7	8.0	36.9	13.9
아세안	18.9	40.9	44.1	16.6
메르코수르	0.0	0.0	0.0	0.0
대세계	46.4	100.0	265.4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성남시의 주요 수출 산업인 농림수산업은 대일본, 아세안 수출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미국,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 농림 수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3천 2백만달러이며 그 중 일본 수출액은 1천 3백만달러로 40.1%를 차지함.
 - 기타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1억 3천만달러이며 그 중 미국 수입액은 4천 8백만달러로 34.9%를 차지함.

<표 I-12> 2017년 성남시의 농림수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1.2	3.8	48.7	34.9
일본	13.0	40.1	3.4	2.4
중국	1.4	4.2	29.9	21.4
베트남	0.8	2.4	7.7	5.5
EU	0.1	0.4	6.4	4.6
아세안	12.4	38.3	16.1	11.5
메르코수르	0.0	0.0	3.3	2.4
대세계	32.4	100.0	139.7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성남시의 주요 수입 산업인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은 대일본 수출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2천 3백만달러이며 그 중 일본 수출액은 1천 2백만달러이며 51.4%를 차지함.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2억 4천만달러이며 그 중 중

국 수입액은 9천 9백만달러이며 41.0%를 차지함.

<표 I-13> 2017년 성남시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3.6	15.5	51.1	21.0
일본	12.0	51.4	39.8	16.4
중국	3.3	14.0	99.8	41.0
베트남	1.1	4.6	0.5	0.2
EU	0.2	1.0	28.0	11.5
아세안	1.6	6.7	15.9	6.5
메르코수르	0.0	0.0	0.1	0.0
대세계	23.3	100.0	243.3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주요 수출입 산업인 성남시의 석탄 및 석유제품은 대중국 수출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 석탄 및 석유제품의 대세계 수출액은 2천 9백만달러이며 그 중 중국 수출액은 2천 8백만달러이며 96.7%를 차지함.
- 석탄 및 석유제품의 대세계 수입액은 18억 7천만달러이며 그 중 미국 수입액은 1억 3천만달러이며 70.4%를 차지함.

<표 I-14> 2017년 성남시의 석탄 및 석유제품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0.1	0.4	1,320.2	70.4
일본	0.2	0.7	0.6	0.0
중국	28.7	96.7	2.1	0.1
베트남	0.0	0.0	0.1	0.0
EU	0.0	0.0	3.8	0.2
아세안	0.4	1.3	10.3	0.6
메르코수르	0.0	0.0	0.0	0.0
대세계	29.7	100.0	1,876.4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성남시의 주요 수출입산업인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은 수출의 경우에는 아세안, 수입의 경우에는 중국과 아세안이 대부분을 차지함.
-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3억달러이며 그 중 대아세안 수출액은 1억 8천만달러로 60.7%를 차지함.

- 섬유 및 가죽제품의 대세계 수입액은 7억 3천만달러이며 그 중 대중국 수입액은 2억 8천만달러로 38.8%를 차지함.

<표 I-15> 2017년 성남시의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17.7	5.8	11.7	1.6
일본	16.5	5.4	11.8	1.6
중국	38.3	12.6	286.0	38.8
베트남	113.1	37.1	179.5	24.3
EU	6.1	2.0	102.6	13.9
아세안	185.0	60.7	267.4	36.3
메르코수르	0.0	0.0	1.6	0.2
대세계	304.6	100.0	737.3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성남시의 주요 수출입산업인 음식료업은 수출입에 있어 미국에 집중하고 있음
 - 음식료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8천만달러이며 그 중 대미국 수출액은 3천 5백만달러로 43.9%를 차지함.
 - 음식료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7억 6천만달러이며 그 중 대미국 수입액은 2억 4천만달러로 32.5%를 차지함.

<표 I-16> 2017년 성남시의 음식료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35.1	43.9	248.5	32.5
일본	7.4	9.3	12.3	1.6
중국	6.7	8.4	68.9	9.0
베트남	1.6	2.0	31.7	4.2
EU	7.9	9.8	128.4	16.8
아세안	5.8	7.2	104.0	13.6
메르코수르	0.9	1.1	9.6	1.3
대세계	80.0	100.0	763.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성남시의 주요 수출산업인 정밀기기 제조업은 수출에 있어 아세안, 수입의 경우 미국이 대부분을 차지함.
 - 정밀기기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7억 9천만달러이며 그 중 대아세안

수출액은 2억 1천만달러이며 26.6%를 차지함.

- 정밀기기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13억 8천만달러이며 그 중 대미국 수입액은 3천만달러이며 30.6%를 차지함.

<표 I-17> 2017년 성남시의 정밀기기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73.3	9.3	422.7	30.6
일본	70.2	8.9	179.5	13.0
중국	158.0	20.0	108.2	7.8
베트남	146.0	18.4	4.4	0.3
EU	58.0	7.3	315.0	22.8
아세안	210.7	26.6	180.5	13.1
메르코수르	10.7	1.3	1.1	0.1
대세계	791.6	100.0	1,382.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성남시의 주요 수입 산업인 화학제품 제조업은 수출의 경우에는 중국, 수입의 경우에는 EU가 대부분을 차지함.
 - 화학제품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9억 4천만달러이며 그 중 대중국 수출액은 3억 6천만달러이며 39.3%를 차지함.
 - 화학제품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18억달러이며 그 중 대 EU 수입액은 2억달러이며 27.9%를 차지함.

<표 I-18> 2017년 성남시의 화학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101.6	10.8	260.0	14.4
일본	84.4	9.0	301.4	16.7
중국	369.8	39.3	330.5	18.3
베트남	58.0	6.2	6.4	0.4
EU	104.3	11.1	505.3	27.9
아세안	124.6	13.2	203.1	11.2
메르코수르	1.8	0.2	8.3	0.5
대세계	941.3	100.0	1,808.9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성남의 수출에 있어 중간재 수출이 31억 5천만달러로 전체의 59.9%를 차지하며, 수입 또한 중간재 수입이 85억 2천만달러로 전체의 64.2%를 차지

함.

- 수출에 있어 중간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단계는 자본재로 전체 수출의 30.2%를 차지한 15억 8천만달러임.
- 수입에 있어 중간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단계 또한 자본재로 전체 수출의 18.6%를 차지한 24억 6천만달러임.

<표 I-19> 2017년 성남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1차산품	86.4	1.6	256.8	1.9
소비재	438.7	8.3	1,983.8	14.9
자본재	1,589.3	30.2	2,466.3	18.6
중간재	3,153.6	59.9	8,525.1	64.2
기타	0.5	0.0	43.2	0.3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마. 수원시

- 수원시의 주요 수출산업은 농림수산업, 정밀기기 제조업이며, 수입산업은 기계 및 장비, 비금속광물제품,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화학제품 제조업임.
- 주요 수출산업인 농림수산업은 미국, 중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중국에 대해 높게 나타남.
 - 수원시의 농림수산업 대세계 수출액은 약 2천 9백만달러이며 그 중 미국이 7.8백만달러, 중국이 6백만달러로 각각 26.3%, 20.4%를 차지함.
 - 수원시의 농림수산업 대세계 수입액은 2천 6백만달러로 그 중 중국이 9.4백만달러로 35.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표 I-20> 2017년 수원시의 농림수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7.8	26.3	4.3	16.3
일본	0.5	1.7	0.0	0.1
중국	6.0	20.4	9.4	35.4
베트남	0.6	2.0	0.4	1.5
EU	1.1	3.7	2.6	9.9
아세안	1.5	5.0	2.6	9.8
메르코수르	0.3	0.9	0.1	0.2
대세계	29.5	100.0	26.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수원시 정밀기기 제조업은 수출입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출은 아세안, 그 중 베트남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는 반면, 수입은 미국과 일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수원시의 정밀기기 대세계 수출액은 18억 9천만달러이며, 아세안이 5억 1천만달러로 그 중 베트남이 약 4억 8천만달러, 25.4%를 차지하여 아세안 중 베트남에서의 정밀기기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원시의 정밀기기 대세계 수입액은 123억달러로 그 중 미국이 39억 8천만달러로 32.3%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 일본이 28억 4천만달러로 23.1% 비중을 보임.

<표 I-21> 2017년 수원시의 정밀기기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93.7	4.9	3,984.4	32.3
일본	19.7	1.0	2,844.4	23.1
중국	325.0	17.1	635.5	5.2
베트남	481.0	25.4	120.7	1.0
EU	278.0	14.7	2,390.8	19.4
아세안	513.3	27.1	1,708.5	13.8
메르코수르	81.5	4.3	0.2	0.0
대세계	1,896.0	100.0	12,338.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주요 수입산업인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수출입 모두 아세안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많음.
 - 수원시의 기계 및 장비 대세계 수출액은 12억 7천만달러로 그 중 아세

안이 4억 6천만달러로 36.5%를 차지하는데 특히, 베트남이 2억 7천만달러로 대세계 대비 21.5%를 차지해 아세안 중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두드러짐.

- 수원시의 기계 및 장비 대세계 수입액은 18억 5천만달러로 그 중 아세안이 7억 8천만달러로 4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I-22> 2017년 수원시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36.7	2.9	121.8	6.6
일본	38.0	3.0	386.8	20.9
중국	318.6	25.0	351.6	19.0
베트남	273.9	21.5	140.6	7.6
EU	121.6	9.5	186.0	10.1
아세안	465.2	36.5	777.1	42.0
메르코수르	9.7	0.8	0.0	0.0
대세계	1,274.2	100.0	1,851.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수원시의 주요 수입산업인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은 수출입 모두에서 아세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베트남의 비중이 높음.

- 수원시의 비금속광물제품 대세계 수출액은 12.8백만달러이며 그 중 아세안이 7.3백만달러, 베트남이 6.6백만달러로 대세계 대비 51.7%를 차지해 아세안 중에서 특히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수입 또한 아세안 중 베트남이 1억달러로 대세계 대비 42.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I-23> 2017년 수원시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0.5	3.8	14.9	5.9
일본	0.4	2.9	26.4	10.4
중국	2.1	16.6	61.7	24.4
베트남	6.6	51.7	106.5	42.1
EU	0.8	5.9	5.2	2.1
아세안	7.3	56.8	143.8	56.8
메르코수르	0.0	0.0	0.0	0.0
대세계	12.8	100.0	253.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주요 수입산업인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은 수출에서 아세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은 중국에서 높게 나타남.
 - 수원시의 전기 및 전자기기 대세계 수출액은 34억 4천만달러이며 그 중 아세안이 12억 5천만달러로 대세계 대비 36.5%를 차지해 높은 비중을 보임.
 - 수원시의 전기 및 전자기기 대세계 수입액은 206억달러이며 그 중 중국이 92억 7천만달러로 전체 45.1%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보임.

<표 I-24> 2017년 수원시의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153.3	4.4	3,237.9	15.7
일본	39.0	1.1	517.0	2.5
중국	708.0	20.5	9,269.1	45.1
베트남	700.3	20.3	4,599.5	22.4
EU	386.1	11.2	246.3	1.2
아세안	1,256.8	36.5	5,990.0	29.1
메르코수르	135.6	3.9	9.7	0.0
대세계	3,447.2	100.0	20,561.8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주요 수입산업인 화학제품 제조업은 수출에서 중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수입은 일본에서 높게 나타남.
 - 수원시의 화학제품 대세계 수출액은 약 7억달러이며 그 중 중국이 2억 7천만달러로 대세계 대비 38%의 비중을 차지함.
 - 대세계 수입액은 15억달러이며 그 중 일본이 5억 9천만달러로 39.3%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보임.

<표 I-25> 2017년 수원시의 화학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31.7	4.5	158.6	10.5
일본	64.7	9.1	593.5	39.3
중국	269.9	38.0	151.2	10.0
베트남	72.5	10.2	31.6	2.1
EU	49.5	7.0	195.8	13.0
아세안	209.7	29.5	259.5	17.2
메르코수르	4.8	0.7	0.1	0.0
대세계	710.8	100.0	1,508.5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수원시는 수출에 있어 중간재 수출이 39억 1천만달러로 수원시 전체 수출액의 51.2%를 차지하며, 수입은 자본재 수입이 189억 6천만달러로 50.9%의 비중을 차지함.
- 수출에 있어 자본재는 중간재 다음으로 45.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반면, 수입은 중간재가 171억 7천만달러로 전체 수입의 46.1%를 차지해 자본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그 차이는 자본재와 크지 않음.

<표 I-26> 2017년 수원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1차산품	30.4	0.4	87.2	0.2
소비재	210.5	2.8	1,027.4	2.8
자본재	3,484.3	45.6	18,965.7	50.9
중간재	3,914.7	51.2	17,174.3	46.1
기타	0.2	0.0	3.3	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바. 시흥시

- 시흥시의 주요 수입 산업은 1차 금속제품 제조업임. 주요 수입 산업인 시흥시의 1차 금속제품 제조업은 수출과 수입 모두 중국 시장 수출입에 집중하고 있음.
- 1차 금속제품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3억 3천만달러이며 그 중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1억 1천만달러로 전체의 34.2%를 차지함.
- 1차 금속제품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11억 9천만달러이며 그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3억달러로 전체의 26.1%를 차지함.

<표 I-27> 2017년 시흥시의 1차 금속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50.1	15.0	45.1	3.8
일본	15.4	4.6	160.5	13.5
중국	114.3	34.2	309.5	26.1
베트남	32.1	9.6	20.2	1.7
EU	4.8	1.4	137.3	11.6
아세안	79.1	23.7	73.1	6.2
메르코수르	1.7	0.5	2.1	0.2
대세계	333.8	100.0	1,186.8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시흥시는 수출에 있어 중간재 수출이 26억 8천만달러로 전체의 71.7%를 차지하며, 중간재 수입은 29억 1천만달러로 전체의 78.2%를 차지함.
- － 중간재 다음으로는 자본재의 수출이 8억 5천만달러로 22.7%이며, 자본재 수입은 4억 1천만달러로 11.1%의 비중을 차지함.

<표 I-28> 2017년 시흥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1차산품	24.4	0.7	212.4	5.7
소비재	172.7	4.6	175.0	4.7
자본재	848.0	22.7	412.1	11.1
중간재	2,677.9	71.7	2,911.8	78.2
기타	9.8	0.3	10.0	0.3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사. 안산시

- 안산시의 주요 수출산업은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목재/종이/인쇄업, 비금속광물제품, 석탄 및 석유제품, 섬유가죽제품, 화학제품 제조업이며, 수입산업은 1차 금속제품, 농림수산업, 목재/종이/인쇄업 제조업임.
- 안산시 주요 수출산업인 1차 금속제품 제조업은 수출입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수출은 주로 아세안, 중국에서 높게 나타나며, 수입은 중국에서 높게 나타남.
 - － 안산시의 1차 금속제품 대세계 수출액은 약 5억달러이며 그 중 아세안이 1억 5천만달러, 중국이 1억 2천만달러로 각각 30.3%, 24.9%의 비중을 차지함.
 - － 대세계 수입액은 약 11억달러이며 그 중 중국이 2억 6천만달러로 24.7%의 비중을 차지함.

<표 I-29> 2017년 안산시의 1차 금속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59.6	12.1	52.4	4.9
일본	33.2	6.7	99.8	9.4
중국	122.9	24.9	262.8	24.7
베트남	67.9	13.7	27.3	2.6
EU	34.9	7.1	45.0	4.2
아세안	149.7	30.3	130.5	12.3
메르코수르	7.9	1.6	14.2	1.3
대세계	494.3	100.0	1,062.5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안산시 주요 수출산업인 금속제품 제조업은 수출입 모두 중국에서 높게 나타남.
 - 안산시의 금속제품 대세계 수출액은 3억 7천만달러이며 그 중 중국이 1억달러로 대세계 대비 26.6%의 비중을 차지함.
 - 대세계 수입액은 1억 2천만달러이며 그 중 중국이 7천만달러로 58.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I-30> 2017년 안산시의 금속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48.6	13.0	3.6	3.1
일본	45.8	12.3	13.1	11.2
중국	99.1	26.6	68.5	58.8
베트남	45.1	12.1	0.7	0.6
EU	27.8	5.6	9.2	0.9
아세안	64.2	13.0	5.2	0.5
메르코수르	10.9	2.2	0.2	0.0
대세계	373.2	100.0	116.4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안산시 주요 수출산업인 목재/종이/인쇄업은 수출입 모두 비중이 높으며, 국가별 수출에서 일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수입은 미국에서 높게 나타남.
 - 안산시의 목재/종이/인쇄업 대세계 수출액은 8천만달러이며 그 중 일본이 2천 7백만달러로 33.4%의 비중을 차지함.
 - 대세계 수입액은 2억 3천만달러이며 그 중 미국이 1억달러로 44%의 높

은 비중을 차지함.

<표 I-31> 2017년 안산시의 목재/종이/인쇄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9.7	12.0	101.8	44.0
일본	27.1	33.4	19.8	8.6
중국	10.0	12.3	13.4	5.8
베트남	2.6	3.3	0.8	0.4
EU	5.4	6.7	29.1	12.6
아세안	16.1	19.8	54.1	23.4
메르코수르	0.3	0.4	0.3	0.1
대세계	81	100.0	231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안산시 주요 수출산업인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은 수출에서 미국, 중국이 2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은 중국에서 높게 나타남.
 - 안산시의 비금속광물제품 대세계 수출액은 1.2억달러이며 그 중 미국이 3천만달러, 중국이 2천 5백만달러로 각각 25.4%, 21.5%의 비중을 차지함.
 - 반면, 대세계 수입액은 약 1억달러이며 그 중 중국이 5천 7백만달러로 55.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I-32> 2017년 안산시의 비금속광물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29.6	25.4	5.4	5.2
일본	5.8	5.0	19.3	18.6
중국	25.0	21.5	57.6	55.5
베트남	5.6	4.8	1.3	1.2
EU	20.3	17.5	13.1	12.6
아세안	15.2	13.1	4.4	4.2
메르코수르	0.1	0.1	0.0	0.0
대세계	116	100.0	104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안산시 주요 수출산업인 석탄 및 석유 제조업은 아세안, 일본, 중국이 1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며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수입은 EU에서 높게 나타남.

- 안산시의 석탄 및 석유 대세계 수출액은 4천 4백만달러이며 아세안, 일본, 중국이 각각 12.3%, 11.2%, 11.0%를 차지해 유사한 수준을 보임.
- 석탄 및 석유 대세계 수입액은 4.6백만달러이며 그 중 EU가 1.8백만달러로 40.2%를 차지해 높은 비중을 보이니, 전체 수입액은 낮은 수준을 보임.

<표 I-33> 2017년 안산시의 석탄 및 석유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4.5	5.5	0.4	8.2
일본	9.1	11.2	1.3	28.6
중국	8.9	11.0	0.1	2.9
베트남	0.9	1.2	0.0	0.0
EU	2.5	5.8	1.8	40.2
아세안	5.4	12.3	0.7	16.0
메르코수르	0.5	1.1	0.0	0.0
대세계	43.5	100.0	4.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안산시 주요 수출산업인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은 수출에서 아세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두드러짐. 반면, 수입은 미국에서 높게 나타남.
- 안산시의 섬유 및 가죽제품 대세계 수출액은 5억 2천만달러이며, 아세안이 2억 2천만달러로 대세계 대비 43%를 차지하며, 그 중 베트남이 1억 2천만달러로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두드러짐.
- 대세계 수입액은 약 3억 2천만달러이며 그 중 미국이 1억 4천만달러로 44.4%의 높은 비중을 보임.

<표 I-34> 2017년 안산시의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21.3	4.1	142.1	44.4
일본	4.8	0.9	7.8	2.4
중국	64.6	12.4	94.5	29.5
베트남	124.3	23.8	37.2	11.6
EU	30.8	5.9	10.9	3.4
아세안	224.1	43.0	43.6	13.6
메르코수르	0.5	0.1	0.7	0.2
대세계	521	100.0	32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안산시 주요 수출산업인 화학제품 제조업은 수출에서 중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은 일본과 중국에서 높게 나타남.
 - 안산시의 화학제품 대세계 수출액은 14억달러이며 그 중 중국이 3억 2천만달러로 23%를 차지함.
 - 대세계 수입액은 약 11억달러이며 그 중 중국이 약 3억달러, 일본이 2억 8천만달러로 각각 27.3%, 25.9%를 차지해 유사한 수준을 보임.

<표 I-35> 2017년 안산시의 화학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92.5	6.7	81.4	7.5
일본	100.1	7.2	282.3	25.9
중국	320.0	23.0	298.0	27.3
베트남	202.0	14.5	25.0	2.3
EU	20.3	1.5	13.1	1.2
아세안	15.2	1.1	4.4	0.4
메르코수르	0.1	0.0	0.0	0.0
대세계	1,390.5	100.0	1,090.9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안산시 주요 수입산업인 농림수산업 제조업은 수출에서 일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수입은 미국에서 높게 나타남.
 - 안산시의 농림수산업 대세계 수출액은 9.8백만달러이며 그 중 일본이 2.6백만달러로 대세계 대비 26.5%를 차지함.
 - 대세계 수입액은 1억 6천만달러이며 그 중 미국이 3천 8백만달러로 23.7%를 차지함.

<표 I-36> 2017년 안산시의 농림수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0.0	0.0	38.4	23.7
일본	2.6	26.5	1.3	0.8
중국	0.0	0.0	8.6	5.3
베트남	1.2	12.2	5.2	3.2
EU	0.0	0.0	7.8	4.8
아세안	1.3	13.5	8.1	5.0
메르코수르	0.0	0.0	25.7	15.9
대세계	9.8	100.0	161.9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안산시 가공단계별 교역은 수출입 모두 중간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중간재 수출은 75억 2천만달러, 수입은 43억달러로 각각 86%, 70%의 비중을 차지함.
- 수출에 있어 자본재 수출이 9억 2천만달러로 안산시 전체 수출 대비 10.6%의 비중을 차지해 중간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수입 또한 자본재가 전체 수입의 11.8%를 차지해 중간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1차 상품이 11.1%를 차지해 자본재와 유사한 수준을 보임.

<표 I -37> 2017년 안산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1차상품	22.1	0.3	681.0	11.1
소비재	279.8	3.2	426.7	6.9
자본재	924.9	10.6	723.0	11.8
중간재	7,524.5	86.0	4,300.4	70.0
기타	0.0	0.0	11.7	0.2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아. 안양시

- 안양시의 주요 수출입산업은 1차 금속제품 제조업임.
- 안양시 주요 산업인 1차 금속제품 제조업은 수출에서 아세안이 높게 나타난 반면, 수입은 주요 FTA 체결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됨.
- 안양시의 1차 금속제품 대세계 수출액은 4억 9천만달러이며 그 중 아세안이 3억 3천만달러로 67.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대세계 수입액은 11억 9천만달러이며 그 중 중국과 아세안이 6%의 비중을 차지하나 주요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표 I-38> 2017년 안양시의 1차 금속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0.8	0.2	26.5	2.2
일본	0.6	0.1	51.7	4.3
중국	59.3	12.1	72.2	6.0
베트남	69.7	14.3	6.3	0.5
EU	0.2	0.0	10.4	0.9
아세안	329.2	67.4	78.2	6.5
메르코수르	0.0	0.0	0.0	0.0
대세계	488.3	100.0	1,194.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안양시는 수출입 모두 중간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중간재 수출은 24억 6천만달러, 수입은 33억 9천만달러로 각각 62.8%, 60.9%의 비중을 차지함.
- 수출에 있어 자본재는 중간재 다음으로 11억 9천만달러로 안양시 전체 수출액 대비 30.3%의 비중을 차지함.
- 수입은 자본재가 11억 7천만달러로 전체 수입의 21%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소비재가 11.2%를 차지해 10%이상의 수준을 보임.

<표 I-39> 2017년 안양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1차산품	5.7	0.1	71.2	1.3
소비재	268.1	6.8	622.6	11.2
자본재	1,189.0	30.3	1,169.9	21.0
중간재	2,466.9	62.8	3,391.0	60.9
기타	0.6	0.0	314.7	5.7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자. 용인시

- 용인시의 주요 수출산업은 전기 및 전자기기이며, 수입산업은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목재/종이/인쇄업, 음식료업, 화학제품임.
- 용인시 주요 수출산업인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은 수출입 모두 중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용인시의 전기 및 전자기기 대세계 수출액은 207억달러이며 그 중 중국이 162억달러로 전체 78.3%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 대세계 수입액은 18억달러이며 중국이 7억 8천만달러로 43.2% 비중을 차지해 수입 비중 또한 높음.

<표 I-40> 2017년 용인시의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122.8	0.6	140.8	7.8
일본	41.3	0.2	53.9	3.0
중국	16,215.9	78.3	779.9	43.2
베트남	119.6	0.6	154.9	8.6
EU	252.2	1.2	51.3	2.8
아세안	3,023.3	14.6	298.3	16.5
메르코수르	44.8	0.2	0.5	0.0
대세계	20,712.5	100.0	1,804.5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용인시 주요 수입산업인 금속제품 제조업은 수출에서 미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수입은 일본에서 높게 나타남.
- 용인시의 금속제품 대세계 수출액은 1억 4천만달러이며 그 중 미국이 4천 7백만달러로 전체 34%의 비중을 차지함.
- 대세계 수입액은 2억 5천만달러이며 그 중 일본이 1억 5천만달러로 62.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I-41> 2017년 용인시의 금속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47.8	34.0	10.8	4.4
일본	18.0	12.8	153.2	62.6
중국	20.1	14.3	37.2	15.2
베트남	9.7	6.9	12.1	4.9
EU	24.1	17.2	15.6	6.4
아세안	12.4	8.8	13.8	5.6
메르코수르	0.3	0.2	0.0	0.0
대세계	140.3	100.0	244.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용인시 주요 수입산업인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수출에서 중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수입은 일본에서 높게 나타남.

- 용인시의 기계 및 장비 대세계 수출액은 8억 5천만달러이며 그 중 중국이 약 3억달러로 35.4%의 비중을 차지함.
- 대세계 수입액은 27억달러이며 그 중 일본이 14억달러로 51.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I-42> 2017년 용인시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60.0	7.1	151.8	5.6
일본	23.7	2.8	1,393.4	51.3
중국	299.6	35.4	140.4	5.2
베트남	205.9	24.4	12.6	0.5
EU	65.6	7.8	89.4	3.3
아세안	248.2	29.4	68.1	2.5
메르코수르	1.1	0.1	0.2	0.0
대세계	845.3	100.0	2,717.9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용인시 주요 수입산업인 목재/종이/인쇄업은 수출에서 미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은 일본에서 높게 나타남.
- 용인시의 목재/종이/인쇄업 대세계 수출액은 6천 6백만달러이며 그 중 미국이 4천만달러로 6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목재/종이/인쇄업 대세계 수입액은 1억 4천만달러이며 그 중 일본이 4천만달러로 29.4%의 비중을 차지함.

<표 I-43> 2017년 용인시의 목재/종이/인쇄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40.5	61.0	16.1	11.8
일본	2.7	4.1	39.9	29.4
중국	12.2	18.3	20.7	15.3
베트남	1.4	2.1	2.3	1.7
EU	3.0	4.4	13.8	10.2
아세안	2.4	3.7	18.7	13.8
메르코수르	0.1	0.1	0.4	0.3
대세계	66.4	100.0	135.8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용인시 주요 수입산업인 음식료업은 수출입 모두 미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 용인시의 음식료업 대세계 수출액은 16.8백만달러이며 그 중 미국이 6.2백만달러로 36.8%를 차지함.
- － 음식료업 대세계 수입액은 약 7억달러이며 그 중 미국이 2억달러로 약 28.6%의 비중을 차지함.

<표 I-44> 2017년 용인시의 음식료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6.2	36.8	202.1	28.6
일본	1.4	8.2	15.3	2.2
중국	1.8	10.5	53.7	7.6
베트남	0.5	3.1	39.5	5.6
EU	0.1	0.7	137.9	19.5
아세안	2.3	13.6	85.7	12.1
메르코수르	0.0	0.1	23.6	3.3
대세계	16.8	100.0	706.3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용인시 주요 수입산업인 화학제품 제조업은 수출에서 중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수입은 일본, 중국에서 높게 나타남.
- － 용인시의 화학제품 대세계 수출액은 약 7억달러이며 그 중 중국이 1억 5천만달러로 21.4%를 차지함.
- － 음식료업 대세계 수입액은 약 19억달러이며 그 중 일본이 6억 7천만달러, 중국이 5억 8천만달러로 각각 34.5%, 30.1%를 차지해 높은 비중을 보임.

<표 I-45> 2017년 용인시의 화학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46.6	6.7	378.6	19.6
일본	22.1	3.2	667.1	34.5
중국	149.4	21.4	581.1	30.1
베트남	43.8	6.3	46.2	2.4
EU	46.2	6.6	138.0	7.1
아세안	101.2	14.5	74.1	3.8
메르코수르	94.2	13.5	0.6	0.0
대세계	699.8	100.0	1,931.1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용인시 가공단계별 수출은 중간재가 216억 4천만달러로 92.9%를 차지해 중간재 수출에 특화되어 있으며, 중간재 수입은 44억 7천만달러로 49.8%의 비중을 차지함.
- － 용인시는 수출에 있어 중간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자본재 비중은 5.1%로 낮은 수준을 보임.
- － 수입은 중간재 다음으로 자본재가 33억 7천만달러로 전체 수입의 37.5%를 차지함.

<표 I-46> 2017년 용인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1차산품	45.9	0.2	155.2	1.7
소비재	311.8	1.3	950.6	10.6
자본재	1,185.2	5.1	3,369.8	37.5
중간재	21,644.8	92.9	4,474.3	49.8
기타	99.7	0.4	37.8	0.4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차. 이천시

- 이천시의 주요 수출 산업은 음식료업과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이며, 주요 수입 산업은 정밀기기 제조업임.
- 주요 수출 산업인 이천시의 음식료업은 일본 시장 수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EU로부터의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 음식료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8천 4백만달러이며 그중 대일본 수출액은 4천 9백만달러로 전체의 58.1%를 차지함.
 - － 음식료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3억 2천만달러이며 그중 대EU 수입액은 1억 3천만달러로 전체의 41.2%를 차지함.

<표 I -47> 2017년 이천시의 음식료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3.7	4.4	60.7	19.1
일본	48.8	58.1	5.9	1.9
중국	6.8	8.0	20.5	6.5
베트남	1.1	1.3	0.7	0.2
EU	3.1	3.6	130.9	41.2
아세안	6.6	7.9	7.4	2.3
메르코수르	0.0	0.0	23.5	7.4
대세계	84.0	100.0	317.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주요 수출 산업인 이천시의 전기전자 제조업은 수출입 모두에서 중국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이천시의 전기전자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130억달러이며 그중 대중국 수출액은 56억달러로 전체의 43.1%를 차지함.
 - 이천시의 전기전자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32억달러이며 그중 대중국 수입액은 24억 7천만달러로 전체의 76.0%를 차지함.

<표 I -48> 2017년 이천시의 전기전자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2,510.0	19.3	47.4	1.5
일본	175.2	1.3	36.1	1.1
중국	5,610.0	43.1	2,473.8	76.0
베트남	95.1	0.7	11.8	0.4
EU	753.3	5.8	31.3	1.0
아세안	302.8	2.3	146.5	4.5
메르코수르	0.2	0.0	0.5	0.0
대세계	13,010.0	100.0	3,254.2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주요 수입 산업인 이천시의 정밀기기 제조업은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 수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중간재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정밀기기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1억 6천만달러이며 그중 대중국 수출액은 1억달러로 전체의 61.6%를 차지함.
 - 정밀기기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43억 8천만달러이며 미국과 일본으

로부터의 수입액은 각각 1억 2천만달러와 1억 6천만달러로 전체의 28.1%와 36.4%를 차지함.

<표 I-49> 2017년 이천시의 정밀기기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2.6	1.6	1,236.4	28.1
일본	5.6	3.5	1,599.7	36.4
중국	99.6	61.6	22.1	0.5
베트남	6.3	3.9	0.0	0.0
EU	6.6	4.1	849.6	19.3
아세안	16.0	9.9	532.4	12.1
메르코수르	0.1	0.1	0.0	0.0
대세계	161.6	100.0	4,397.9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이천시의 수출에 있어 중간재 수출이 125억달러로 전체의 91.8%를 차지하며, 수입은 자본재 수입이 가장 높은 46억달러로 전체의 48.0%를 차지함.

- 수출에 있어 중간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단계는 자본재로 전체 수출의 7.5%를 차지함.
- 수입에 있어 자본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단계는 중간재로 전체 수입의 47.0%를 차지하며 자본재와 비슷한 금액을 보임.

<표 I-50> 2017년 이천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1차산품	4.1	0.0	93.4	1.0
소비재	100.1	0.7	388.6	4.0
자본재	1,019.4	7.5	4,623.4	48.0
중간재	12,503.7	91.8	4,529.8	47.0
기타	0.4	0.0	0.0	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카. 파주시

○ 파주시의 주요 수출 산업은 기계장비 제조업과 목재/종이/인쇄업임.

- 주요 수출 산업인 파주시의 기계장비 제조업은 아세안 수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일본과 중국의 중간재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기계장비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2억 2천만달러이며 그중 대아세안 수출액은 5천 3백만달러로 전체의 24.5%를 차지함.
 - 기계장비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1억 8천만달러이며 일본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각각 4천 7백만달러로 전체의 26.7%와 26.8%를 차지함.

<표 I -51> 2017년 파주시의 기계장비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34.4	15.9	22.3	12.7
일본	23.0	10.7	47.0	26.7
중국	35.9	16.6	47.1	26.8
베트남	15.5	7.2	0.6	0.3
EU	14.3	6.6	41.6	23.7
아세안	53.0	24.5	8.6	4.9
메르코수르	1.0	0.5	0.0	0.0
대세계	216.2	100.0	175.8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주요 수출 산업인 파주시의 목재/종이/인쇄업은 미국 수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중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목재/종이/인쇄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6천 4백만달러이며 그중 대미국 수출액은 3천만달러로 전체의 47.1%를 차지함.
 - 목재/종이/인쇄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1억달러이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5천 6백만달러로 전체의 52.0%를 차지함.

<표 I -52> 2017년 파주시의 목재/종이/인쇄업/종이/인쇄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30.1	47.1	6.4	5.8
일본	2.7	4.2	20.9	19.2
중국	1.6	2.5	56.6	52.0
베트남	5.1	7.9	3.8	3.5
EU	2.6	4.1	4.8	4.4
아세안	8.2	12.8	15.9	14.6
메르코수르	1.7	2.7	0.4	0.4
대세계	64.0	100.0	108.8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주요 수출 산업인 파주시의 화학제품 제조업은 중국과 베트남 수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일본과 중국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화학제품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3억달러이며 그중 중국과 베트남 수출액은 8천 4백만달러와 6천 5백만달러로 각각 전체의 28.5%와 21.8%를 차지함.
- 화학제품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2억 3천만달러이며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8천 9백만달러와 8천 7백만달러로 각각 38.2%와 37.2%를 차지함.

<표 I-53> 2017년 파주시의 화학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30.7	10.4	10.1	4.3
일본	16.8	5.7	89.4	38.2
중국	84.2	28.5	87.0	37.2
베트남	64.5	21.8	2.3	1.0
EU	31.9	10.8	13.7	5.9
아세안	73.2	24.7	19.7	8.4
메르코수르	1.0	0.3	0.6	0.2
대세계	295.8	100.0	234.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파주시의 수출에 있어 자본재 수출이 53억 6천만달러로 전체의 61.1%를 차지하며, 수입은 중간재 수입이 가장 높은 24억달러로 전체의 79.8%를 차지함.
- 수출에 있어 자본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단계는 중간재로 전체 수출의 36.7%를 차지한 32억달러임.
- 수입에 있어 중간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단계는 소비재로 전체 수입의 10.6%를 차지한 3억 3천만달러임.

<표 I-54> 2017년 파주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1차산품	3.6	0.0	31.8	1.0
소비재	184.9	2.1	325.2	10.6
자본재	5,356.3	61.1	258.5	8.5
중간재	3,222.0	36.7	2,441.8	79.8
기타	1.2	0.0	1.7	0.1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다. 평택시

- 평택시의 주요 수출 산업은 목재/종이/인쇄업/종이/인쇄업, 비금속광물, 석탄석유제품, 전지전자기기, 정밀기기 제조업이며 주요 수입 산업은 광업, 농림수산업, 운송장비, 화학제품 제조업임.
- 평택시의 주요 수출 산업인 목재/종이/인쇄업/종이/인쇄업은 베트남과 일본 수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중국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목재/종이/인쇄업/종이/인쇄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1억 2천만달러이며 그중 베트남 수출액은 2천 만달러로 전체의 17.1%를 차지함.
 - 목재/종이/인쇄업/종이/인쇄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6천만달러이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천 7백만달러로 28.0%를 차지함.

<표 I -55> 2017년 평택시의 목재/종이/인쇄업/종이/인쇄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2.7	2.2	8.3	13.1
일본	13.3	10.8	6.4	10.1
중국	4.9	4.0	17.6	28.0
베트남	21.0	17.1	1.2	2.0
EU	1.1	0.9	1.4	2.2
아세안	27.6	22.5	9.7	15.5
메르코수르	0.1	0.1	0.2	0.3
대세계	122.7	100.0	63.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평택시의 주요 수출 산업인 비금속광물 제조업은 수출과 수입에 있어 모두 일본과 중국 수출입에 집중하고 있음.
 - 비금속광물의 대세계 수출액은 9천만달러이며 그중 일본과 중국 수출액은 2천 7백만달러와 2천 4백만달러이며 각각 29.5%와 26.4%를 차지함.
 - 비금속광물의 대세계 수입액은 1억 7천만달러이며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9천만달러와 5천 4백만달러로 각각 51.8%와 31.2%를 차지함.

<표 I-56> 2017년 평택시의 비금속광물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5.3	5.7	3.1	1.8
일본	27.4	29.5	90.0	51.8
중국	24.5	26.4	54.1	31.2
베트남	6.9	7.4	3.0	1.8
EU	4.2	4.5	1.3	0.8
아세안	9.8	10.6	11.6	6.7
메르코수르	0.1	0.1	0.0	0.0
대세계	92.9	100.0	173.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평택시의 주요 수출 산업인 석탄석유 제조업은 대일본 수출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아세안에서 수입하고 있음.
- 석탄석유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2천만달러이며 그중 일본 수출액은 1천 8백만달러로 90.4%를 차지함.
- 석탄석유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1억 1천만달러이며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액은 9천 7백만달러로 88.2%를 차지함.

<표 I-57> 2017년 평택시의 석탄석유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0.0	0.0	0.3	0.2
일본	18.7	90.4	12.0	10.9
중국	0.7	3.5	0.6	0.6
베트남	0.2	0.9	0.0	0.0
EU	0.0	0.2	0.0	0.0
아세안	0.4	2.1	97.1	88.2
메르코수르	0.0	0.0	0.0	0.0
대세계	20.7	100.0	110.1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평택시의 주요 수출 산업인 전기전자 제조업은 중국과 미국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중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기전자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83억달러이며 그중 미국과 일본 수출액은 22억달러와 27억달러로 각각 27.1%와 32.0%를 차지함.
- 전기전자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4억 6천만달러이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억달러로 49.7%를 차지함.

<표 I -58> 2017년 평택시의 전기전자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2,259.6	27.1	19.1	4.1
일본	104.4	1.3	56.0	12.1
중국	2,665.6	32.0	229.5	49.7
베트남	1,206.2	14.5	29.2	6.3
EU	377.3	4.5	19.3	4.2
아세안	1,483.2	17.8	53.3	11.6
메르코수르	582.2	7.0	0.0	0.0
대세계	8,327.3	100.0	461.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평택시의 주요 수출 산업인 정밀기기 제조업은 중국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의 경우 일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정밀기기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14억달러이며 그중 중국 수출액은 8억 6천만달러로 61.4%를 차지함.
- 정밀기기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7억 4천만달러이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4억달러로 53.6%를 차지함.

<표 I -59> 2017년 평택시의 정밀기기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54.3	3.9	146.2	19.7
일본	45.0	3.2	398.0	53.6
중국	865.4	61.4	53.3	7.2
베트남	258.1	18.3	14.9	2.0
EU	37.9	2.7	33.5	4.5
아세안	292.8	20.8	76.5	10.3
메르코수르	3.8	0.3	0.0	0.0
대세계	1,410.5	100.0	742.5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평택시의 주요 수입 산업인 광업은 미국 수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의 경우 아세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광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2백만달러이며 그중 미국 수출액은 30만달러로 14.7%를 차지함.
- 광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48억달러이며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3억

달러로 27.4%를 차지함.

<표 I-60> 2017년 평택시의 광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0.3	14.7	74.1	1.5
일본	0.0	1.2	0.3	0.0
중국	0.0	0.9	2.7	0.1
베트남	0.0	0.0	0.0	0.0
EU	0.0	0.0	0.1	0.0
아세안	0.3	13.7	1,314.6	27.4
메르코수르	0.0	0.0	0.0	0.0
대세계	2.1	100.0	4,803.8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평택시의 주요 수입 산업인 농림수산업은 수출과 수입 모두 미국 수출입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농림수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4백만달러이며 그중 미국 수출액은 2백만달러로 45.0%를 차지함.
 - 농림수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1억 6천만달러이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4천 7백만달러로 27.9%를 차지함.

<표 I-61> 2017년 평택시의 농림수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1.9	45.0	47.1	27.9
일본	0.2	5.2	0.1	0.1
중국	0.8	18.6	31.6	18.7
베트남	0.3	7.3	0.7	0.4
EU	0.0	0.8	2.3	1.4
아세안	0.4	9.3	3.1	1.9
메르코수르	0.0	0.1	43.2	25.6
대세계	4.2	100.0	168.7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평택시의 주요 수입 산업인 운송장비 제조업은 미국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의 경우 일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운송장비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10억달러이며 그중 미국 수출액은 1억 5천만달러로 13.9%를 차지함.

- 운송장비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5억 1천만달러이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억 6천만달러로 32.5%를 차지함.

<표 I-62> 2017년 평택시의 운송장비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152.4	13.9	22.6	4.4
일본	4.9	0.4	166.2	32.5
중국	84.4	7.7	46.2	9.0
베트남	3.5	0.3	0.0	0.0
EU	345.4	31.5	255.0	49.9
아세안	15.4	1.4	3.5	0.7
메르코수르	38.4	3.5	0.4	0.1
대세계	1,097.7	100.0	510.7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평택시의 주요 수입 산업인 화학제품 제조업은 중국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의 경우 일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화학제품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9억달러이며 그중 중국 수출액은 3억 5천만달러로 37.3%를 차지함.
 - 화학제품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16억 9천만달러이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0억 6천만달러로 63.1%를 차지함.

<표 I-63> 2017년 평택시의 화학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85.5	9.2	52.9	3.1
일본	80.1	8.7	1,065.6	63.1
중국	345.4	37.3	164.9	9.8
베트남	75.4	8.2	16.6	1.0
EU	43.2	4.7	313.4	18.6
아세안	129.8	14.0	61.6	3.6
메르코수르	3.7	0.4	0.0	0.0
대세계	925.1	100.0	1,688.8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평택시의 수출에 있어 중간재 수출이 93억 6천만달러로 전체의 66.1%를 차지하며, 수입은 중간재 수입이 가장 높은 90억달러로 전체의 87.2%를 차지함.

- 수출에 있어 소비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단계는 자본재로 전체 수출의 28.5%를 차지한 40억달러임.
- 수입에 있어 중간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단계는 자본재로 전체 수입의 8.8%를 차지한 9억 2천달러임.

<표 I-64> 2017년 평택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1차산품	30.8	0.2	208.2	2.0
소비재	709.9	5.0	203.3	2.0
자본재	4,039.7	28.5	915.2	8.8
중간재	9,362.8	66.1	9,020.1	87.2
기타	18.6	0.1	1.5	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파. 화성시

- 화성시의 주요 수출 산업은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장비, 운송장비, 정밀기기, 화학제품 제조업이며 주요 수입 산업은 금속제품, 기계장비, 비금속광물, 운송장비 제조업임.
- 화성시의 주요 수출 산업인 1차 금속제품 제조업은 중국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의 경우 일본과 중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I-65> 2017년 화성시의 1차 금속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23.8	5.9	34.3	4.7
일본	11.3	2.8	109.4	15.0
중국	128.3	31.9	217.9	29.8
베트남	28.5	7.1	8.5	1.2
EU	24.0	6.0	57.7	7.9
아세안	115.8	28.8	70.2	9.6
메르코수르	1.3	0.3	0.1	0.0
대세계	402.2	100.0	731.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1차금속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4억달러이며 그중 중국 수출액은 1억 3천만달러로 31.9%를 차지함.

- 화학제품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7억 3천만달러이며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억 1천만달러와 2억 2천만달러로 각각 15.0%와 29.8%를 차지함.

○ 화성시의 주요 수출산업이자 수입 산업인 금속제품 제조업은 중국과 베트남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의 경우 일본과 중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금속제품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4억달러이며 그중 중국과 베트남 수출액은 7천만달러와 5천 7백만달러로 각각 17.5%와 14.3%를 차지함.
- 금속제품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2억 9천만달러이며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9천만달러와 1억 4천만달러로 각각 31.5%와 48.7%를 차지함.

<표 I -66> 2017년 화성시의 금속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37.0	9.3	13.5	4.7
일본	33.6	8.4	90.7	31.5
중국	69.8	17.5	140.4	48.7
베트남	57.2	14.3	3.3	1.1
EU	41.9	10.5	20.2	7.0
아세안	102.2	25.6	11.5	4.0
메르코수르	1.8	0.5	0.0	0.0
대세계	399.7	100.0	288.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화성시의 주요 수출과 수입 산업인 기계장비 제조업은 중국과 베트남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의 경우 미국 일본, 중국에서 고르게 높은 비중이 나타남.

- 기계장비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31억달러이며 그중 중국과 베트남 수출액은 12억 3천만달러와 6천 2백만달러로 각각 39.4%와 19.8%를 차지함.
- 기계장비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14억 9천만달러이며 미국,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억달러, 3억 8천만달러와 2억 5천만달러로 각각 13.1%, 25.2%와 16.9%를 차지함.

<표 I-67> 2017년 화성시의 기계장비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255.8	8.2	196.3	13.1
일본	205.1	6.5	377.0	25.2
중국	1,235.8	39.4	252.6	16.9
베트남	620.4	19.8	4.9	0.3
EU	219.9	7.0	545.1	36.5
아세안	810.8	25.9	29.4	2.0
메르코수르	9.5	0.3	0.5	0.0
대세계	3,133.8	100.0	1,494.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화성시의 주요 수출과 수입 산업인 운송장비 제조업은 미국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입의 경우 중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운송장비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74억달러이며 그중 미국 수출액은 15억달러로 20.6%를 차지함.
- 운송장비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7억 3천만달러이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억 4천만달러로 18.7%를 차지함.

<표 I-68> 2017년 화성시의 운송장비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1,533.1	20.6	37.6	5.1
일본	23.4	0.3	59.0	8.0
중국	175.9	2.4	137.4	18.7
베트남	145.1	2.0	2.0	0.3
EU	2,006.2	27.0	390.7	53.3
아세안	265.4	3.6	52.3	7.1
메르코수르	53.0	0.7	0.0	0.0
대세계	7,439.6	100.0	733.7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화성시의 주요 수출 산업인 정밀기기 제조업은 수출과 수입 모두 중국 수출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정밀기기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8억달러이며 그중 중국 수출액은 2억 7천만달러로 34.1%를 차지함.
- 정밀기기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16억 3천만달러이며 중국으로부터

의 수입액은 1억 9천만달러로 11.6%를 차지함.

<표 I-69> 2017년 화성시의 정밀기기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95.2	11.8	96.7	5.9
일본	31.2	3.9	139.9	8.6
중국	274.4	34.1	189.4	11.6
베트남	80.1	10.0	20.5	1.3
EU	136.3	16.9	1,078.4	66.1
아세안	132.0	16.4	55.0	3.4
메르코수르	5.9	0.7	0.3	0.0
대세계	804.7	100.0	1,631.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화성시의 주요 수출 산업인 화학제품 제조업은 미국, 일본과 중국 수출이 고르게 높게 나타났고 수입의 경우도 비슷한 비중을 보임.
 - 화학제품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13억달러이며 그중 미국, 일본과 중국 수출액은 1억 6천만달러, 1억 7천만달러, 3억 2천만달러로 각각 12.3%, 12.8%와 24.0%를 차지함.
 - 화학제품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12억달러이며 미국,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억 3천만달러, 1억 9천만달러, 4억달러로 각각 11.0%, 16.1%와 33.9%를 차지함.

<표 I-70> 2017년 화성시의 화학제품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164.3	12.3	131.2	11.0
일본	170.9	12.8	192.8	16.1
중국	321.5	24.0	406.0	33.9
베트남	126.2	9.4	7.2	0.6
EU	112.4	8.4	267.3	22.4
아세안	245.7	18.3	57.9	4.8
메르코수르	5.8	0.4	5.7	0.5
대세계	1,340.0	100.0	1,195.9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화성시의 주요 수입 산업인 비금속광물 제조업은 중국 수출이 높은 비중

을 차지하며 수입의 경우 일본과 중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비금속광물 제조업의 대세계 수출액은 5천만달러이며 그중 중국 수출액은 1천 2백만달러로 24.4%를 차지함.
- 비금속광물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액은 2억 1천만달러이며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4천 6백만달러와 1억달러로 각각 21.9%와 48.4%를 차지함.

<표 I-71> 2017년 화성시의 비금속광물 제조업 수출입 국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미국	7.8	15.3	23.0	10.9
일본	4.1	8.1	46.3	21.9
중국	12.4	24.4	102.2	48.4
베트남	7.0	13.7	1.5	0.7
EU	3.5	7.0	14.8	7.0
아세안	10.3	20.3	12.6	6.0
메르코수르	0.0	0.0	0.1	0.0
대세계	50.9	100.0	211.2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 화성시의 수출에 있어 소비재 수출이 64억 8천만달러로 전체의 41.2%를 차지하며, 수입은 중간재 수입이 가장 높은 56억달러로 전체의 63.6%를 차지함.

- 수출에 있어 소비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단계는 중간재로 전체 수출의 37.5%를 차지한 59억달러임.
- 수입에 있어 중간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단계는 자본재로 전체 수입의 30.5%를 차지한 27억달러임.

<표 I-72> 2017년 화성시의 가공단계별 수출입 비중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1차산품	39.5	0.3	100.3	1.1
소비재	6,479.8	41.2	406.8	4.6
자본재	3,298.7	21.0	2,701.0	30.5
중간재	5,898.6	37.5	5,628.1	63.6
기타	1.1	0.0	12.0	0.1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4. 시군별 산업의 주요 세부 품목

- 시군별 주요 산업의 세부 품목의 선정기준은 HS코드 6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군의 특정 산업에서 수출 또는 수입 비중이 5% 이상인 품목만을 대상으로 함.

< 예 시 >

운송장비 제조업의 대세계 수입 비중이 34.2%인 화성시에서 HS코드 6단위 기준으로 화성시의 운송장비 수입의 40.7%를 차지하는 HS8708.40이 주요 세부 품목이 되며 품목명은 HS4단위 세번명인 “부분품과 부속품”이 됨.

가. 수입

- 1차 금속제품 제조업의 수입 비중이 높은 시군은 시흥시와 안양시임.
- 시흥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백금, 구리의 웨이스트와 금입.
 - 안양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 알루미늄의 괴입.

<표 I -73> 1차 금속제품 제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시흥시	711021	27.7	백금
	740400	11.2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10812	7.2	금
안양시	740311	74.6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
	760110	12.1	알루미늄의 괴(塊)

- 광업의 수입 비중이 높은 시군은 평택시이며 주요 세부 품목은 탄화수소임.

<표 I -74> 광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평택시	271111	99.9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 금속제품 제조업의 수입 비중이 높은 시군은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임.
 - 성남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기타 철강제품, 기타 알루미늄제품임.
 - 용인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기타 철강제품, 철강용기, 면도기와 면도날 등임.
 - 화성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기타 철강제품, 구조물, 비금속 장착구·부착구 등임.

<표 I -75> 금속제품 제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성남시	732690	48.2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61699	6.8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용인시	732690	60.9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1029	6.1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용기
	821210	5.0	면도기와 면도날
화성시	732690	35.0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0890	16.6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다리,교량,지붕, 셔터,난간,기둥]
	830242	10.8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가구,계단,창,트렁크,모자걸이,브래킷]

-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수입 비중이 높은 시군은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임.
 - 수원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반도체디바이스, 세탁기, 공기 조절기임.
 - 용인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반도체디바이스임.
 - 화성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반도체디바이스, 파이프와 보일러 동체 등임.

<표 I -76>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수원시	848640	33.9	반도체보울(boule),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848690	8.3	반도체보울(boule),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845020	7.8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
	841510	6.3	공기 조절기(온도와 습도 조절)
용인시	848630	80.7	반도체보울(boule),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화성시	848690	35.1	반도체보울(boule),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848180	5.2	파이프,보일러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 기타제조업의 수입 비중이 높은 시군은 성남시이며 주요 세부 품목은 세발자전거, 스쿠터 등 바퀴 달린 완구와 운동용품, 가구와 부분품 등임.

<표 I -77> 기타제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성남시	950300	16.2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차, 인형과 그밖의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950631	8.6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 체조, 육상, 그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
	940360	6.1	그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711719	5.3	모조 신변 장식용품

- 농림수산업 수입 비중이 높은 시군은 안산시, 안성시, 평택시임.
- 안산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옥수수임.
 - 안성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옥수수, 견과류와 종자임.
 - 평택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옥수수, 원목, 활어, 밀임.

<표 I -78> 농림수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안산시	100590	75.4	옥수수
안성시	100590	45.4	옥수수
	080212	16.8	그 밖의 견과류
	120991	6.3	파종용종자·과실·포자(孢子)
	120929	5.8	파종용종자·과실·포자(孢子)
평택시	100590	54.7	옥수수
	440321	7.3	원목
	030199	7.3	활어
	100199	7.2	밀과메슬린(meslin)
	440322	6.4	원목

- 목재/종이/인쇄업/종이/인쇄업 수입 비중이 높은 시군은 안산시와 용인시임.
- 안산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종이, 판지와 파티클보드, 화학목재/종이/인쇄업펄프 등임.
 - 용인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사진플레이트·필름, 화학목재/종이/인쇄업펄프, 파티클보드 등임.

<표 I -79> 목재/종이/인쇄업/종이/인쇄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안성시	481151	39.9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 섬유외의 웹
	441011	20.0	파티클보드,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보드
	470311	9.5	화학목재/종이/인쇄업펄프
평택시	370500	32.7	사진플레이트와 필름
	470321	15.6	화학목재/종이/인쇄업펄프
	470311	8.1	화학목재/종이/인쇄업펄프
	441011	6.4	파티클보드, 배향성이 있는 스트랜드보드

- 비금속광물 제조업 수입 비중이 높은 시군은 성남시, 수원시와 화성시임.
- 성남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유리제품, 공업용 도자제품, 탄소섬유, 안전유리 등임.
 - 수원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안전유리, 유리섬유, 내화성 도자제품 등임.

- 화성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유리제품, 도자제의 세면대, 유리섬유 등임.

<표 I-80> 비금속광물 제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성남시	702000	20.1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690911	14.5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통과 이와 유사한용기
	681510	11.7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
	700719	7.1	안전유리
수원시	700719	47.3	안전유리
	700600	17.1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 (구부린 것, 가장자리가 공한 것, 조각한 것, 구멍을 뚫은 것,에 나뉠을 칠한 것으로 한정)
	701990	10.4	유리섬유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
	690390	7.1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 [예: 레토르트, 도가니, 머플, 노즐, 플러그, 서포트, 큐펠, 관, 쉬드, 막대]
화성시	702000	19.5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691010	13.3	도자제의 설거지통, 세면대, 목욕통, 비데, 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700490	7.8	인상법과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
	680690	6.7	슬래그울, 암면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울, 단열용, 방음용, 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
	701911	6.0	유리섬유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

○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의 수입 비중이 높은 시군은 성남시이며 주요 세부 품목은 탄화수소임.

<표 I-81>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성남시	271112	78.2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상태의 탄화수소
	271113	20.9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상태의 탄화수소

○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의 수입 비중이 높은 시군은 성남시이며, 주요 세부 품목은 오버코트와 화장품 케이스, 가방 등임.

<표 I-82>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성남시	620293	6.7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 카코트, 아노락(스키재킷을포함한다)
	620193	6.7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 카코트, 아노락(스키재킷을포함한다)
	420221	5.6	트렁크, 슈트케이스, 화장품 케이스, 서류가방, 안경케이스, 배낭, 핸드백, 지갑, 공구가방, 운동용구가방, 병케이스

- 운송장비 제조업의 수입 비중이 높은 시군은 평택시와 화성시임.
- 평택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자동차 부분품, 화물자동차, 트랙터 등임.
 - 화성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화물자동차, 부분품과 트랙터 등임.

<표 I-83> 운송장비 제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평택시	870840	40.7	부분품과부속품
	870423	20.7	화물자동차
	870120	8.0	트랙터
	840999	7.1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70899	6.1	부분품과부속품
	870830	5.7	부분품과부속품
화성시	870423	27.8	화물자동차
	870895	21.0	부분품과부속품
	870829	10.4	부분품과부속품
	870120	6.6	트랙터

- 음식료업의 수입 비중이 높은 시군은 성남시와 용인시임.
- 성남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돼지고기, 조제식료품, 냉동쇠고기임.
 - 용인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냉동쇠고기, 에틸알코올, 조제식료품임.

<표 I-84> 음식료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성남시	020329	13.4	돼지고기
	210690	11.8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020220	8.7	쇠고기(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용인시	020230	17.9	쇠고기(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020220	12.5	쇠고기(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220830	5.5	에틸알코올, 증류주, 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

	210690	5.2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	--------	-----	------------------

-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수입 비중이 높은 시군은 수원시이며, 주요 세부 품목은 전자집적회로와 전화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등임.

<표 I-85>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수원시	854232	25.5	전자집적회로
	854231	17.5	전자집적회로
	851770	15.3	전화기
	851712	8.8	전화기
	847170	7.0	자동자료 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 정밀기기 제조업의 수입 비중이 높은 시군은 수원시와 이천시임.
- 수원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반도체디바이스, 액정디바이스, 측정용 기기임.
 - 이천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반도체디바이스와 측정용 기기임.

<표 I-86> 정밀기기 제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수원시	848620	73.5	반도체보울(boule),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901380	9.1	액정디바이스, 레이저기기
	903141	5.7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
이천시	848620	82.7	반도체보울(boule),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903141	5.2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

- 화학제품 제조업의 수입 비중이 높은 시군은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와 평택시임.
- 성남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진단용, 실험용 시약 등임.
 - 수원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전자공업용 화학원소, 비휘발성 기억장치, 광택제 등임.
 - 용인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산화금속산염, 합성 유기착색제, 플라스틱 필름, 진단용, 실험용 시약 등임.
 - 평택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플라스틱 필름, 조제 점결제 등임.

<표 I-87> 화학제품 제조업 수입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성남시	382200	7.1	진단용, 실험실용 시약
수원시	381800	38.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 처리된 화학원소
	852349	11.3	디스크, 테이프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스마트카드와 음성이 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매체
	290511	7.2	비환식 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 니트로소화유도체
	340540	5.1	신발용, 가구용, 마루용, 차체용, 유리용, 금속용 광택제와 크 림, 연마페이스트, 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용인시	284190	13.4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320490	9.6	합성유기착색제
	392073	8.3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 필름, 스트립
	392310	6.7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 마 개, 캡과 이와 유사한물품
	382499	6.4	조제점결제
	382200	5.1	진단용, 실험실용 시약
평택시	392073	11.7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 필름, 스트립
	391990	10.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 필름, 스트립
	392062	8.4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 필름, 스트립
	382499	6.6	조제점결제
	290930	6.4	에테르, 에테르알코올,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 과산 화알코올, 과산화에테르, 과산화케톤
	392099	5.5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 필름, 스트립

나. 수출

- 1차 금속제품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시군은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안산시임.
- － 남양주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철강으로 만든 관과 중공프로파일 등임.
- － 안산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알루미늄의 박,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등임.
- － 안양시와 화성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구리의 선임.

<표 I-88> 1차 금속제품 제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남양주	730629	35.63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730619	24.21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730511	12.10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
안산시	760711	9.34	알루미늄의 박(箔)
	740321	7.97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
	741021	5.68	구리의 박(箔)
	722020	5.4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안양시	740811	47.41	구리의 선
	740819	17.94	구리의 선
화성시	740811	10.02	구리의 선
	740819	8.50	구리의 선

- 광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시군은 포천군, 김포시임.
- 포천군의 주요 세부 품목은 티타늄광과 그 정광임.
 - 김포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 석영과 규암, 석탄, 아연광과 그 정광, 천연 모래 등임.

<표 I-89> 광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포천군	261400	99.52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김포시	261310	40.60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精鑛)
	250620	13.22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
	270112	12.98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260800	10.71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250510	7.29	천연 모래

- 금속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시군은 안산시, 화성시임.
- 안산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호환성 공구, 철강제의 스크루 등, 알루미늄의 기타 제품 등임.
 - 화성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등, 호환성 공구, 철강 및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 등임.

<표 I-90> 금속제품 제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안산시	820730	27.34	수공구용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 [예: 프레싱용, 스탬핑용, 펀칭용, 태핑용, 드레딩용, 드릴링용]
	731815	16.51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 스크루
	732690	9.31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830120	7.98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
	761699	6.57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화성시	730890	22.6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820730	19.51	수공구용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 [예: 프레싱용, 스탬핑용, 펀칭용, 태핑용, 드레딩용, 드릴링용]
	732690	11.88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61699	5.80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시군은 파주시, 화성시임.

- 파주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탭·코크·밸브 등의 장치임.
- 화성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반도체 제조장비, 기계류 등임.

<표 I-91>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화성시	848630	21.87	반도체보울(boule),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847989	19.62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848690	11.44	반도체보울(boule),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848640	5.06	반도체보울(boule),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 기타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시군은 고양시임.

- 고양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금·은 세공품, 신변장식용품, 비디오게임기 등 실내게임용구임.

<표 I-92> 기타 제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고양시	711419	76.99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
	711319	6.84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
	950430	5.62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

- 농림수산업 수출 비중이 높은 시군은 성남시, 수원시임.
- 성남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임.
 - 수원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파종용 종자·과실·포자 등임.

<표 I-93> 농림수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성남시	121221	90.17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
수원시	120991	89.44	파종용 종자·과실·포자(孢子)

- 목재/종이/인쇄업/종이/인쇄업 수출 비중이 높은 시군은 파주시, 평택시, 안산시임.

<표 I-94> 목재/종이/인쇄업/종이/인쇄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파주시	482010	30.86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
	490110	19.43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
	491000	19.27	캘린더
	480700	11.73	겹붙인 종지와 판지
평택시	370500	40.63	사진플레이트와 필름
	481092	38.82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지와 판지
	480257	7.34	도포하지 않은 종지와 판지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안산시	481950	34.82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480990	23.85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
	482369	9.42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491000	5.46	캘린더

- 파주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기타의 문구류, 인쇄서적, 캘린더, 겹붙인 종이 등임.
- 평택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필름, 종지와 판지 등임.
- 안산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종지로 만든 상자 등, 복사지나 전사지, 기타의 종이제품, 캘린더임.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시군은 안산시, 평택시, 안성시임.

- 안산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밀스톤·그라인드스톤·그라인딩휠 등의 제품,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섬유 등에 부착한 물품임.
- 평택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도자제품, 유리제품 등임.
- 안산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기타의 석제품, 유리로 만든 제품 등임.

<표 I-9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안산시	680421	35.15	밀스톤(millstone) · 그라인드스톤(grindstone) ·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
	680520	21.93	천연 · 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 · 종이 · 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
	680510	20.34	천연 · 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 · 종이 · 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
	680530	17.72	천연 · 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 · 종이 · 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
평택시	690919	59.39	실험실용 · 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 · 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700490	20.42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
	701090	5.36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 · 병 · 플라스크 · 단지 · 항아리 · 약병 · 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
	702000	5.15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안성시	681599	78.3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 · 탄소섬유의 제품 · 이탄(泥炭)제품]
	702000	8.73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시군은 김포시, 성남시, 안산시, 평택시임.

- 김포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석유와 역청유임.
- 성남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임.
- 안산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석유와 역청유임.
- 평택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석유와 역청유임.

<표 I -96>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김포시	271019	99.28	석유와 역청유
성남시	271112	89.09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13	8.72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안산시	27113	75.79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019	23.80	석유와 역청유
평택시	271019	98.34	석유와 역청유

-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시군은 성남시, 안산시, 의정부시임.

<표 I -97 >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성남시	630900	12.24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590320	9.20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600622	6.4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안산시	410792	36.87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나 마속 동물의 가죽
	590320	11.30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600410	6.29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00622	5.80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의정부시	600410	47.06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540761	12.22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600632	10.68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00192	6.67	파일(pile)이나 편물
	600634	5.35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 성남시의 주요 세부품목은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임.
- 안산시의 주요 세부품목은 동물의 가죽,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메리야스 편물,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임.
- 의정부시의 주요 세부품목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파일(pile)이나 편물,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임.

- 운송장비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시군은 광명시와 화성시임.
- 광명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주로 승용차와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임.
 - 화성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승용차와 부분품과 부품류임.

<표 I -98> 운송장비 제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광명시	870324	42.07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870322	25.09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870321	11.58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870323	6.98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870332	5.62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870210	5.1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 수송용 자동차
화성시	870340	23.04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870323	18.1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870332	11.92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870322	8.91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870899	8.64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324	8.54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870321	6.57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 음식료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시군은 김포시, 성남시, 이천시임.
- 김포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조제 식료품, 냉동어류, 갑각류 등임
 - 성남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조제 식료품, 베이커리제품, 파스타 등임.
 - 이천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조제 식료품, 주류 등임.

<표 I -99 > 음식료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김포시	210690	13.24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030363	10.47	냉동어류
	030614	8.72	갑각류
	030487	6.81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
	190590	5.77	빵·파이·케이크 등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030389	5.66	냉동어류
	030339	5.31	냉동어류
성남시	210690	26.57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190590	24.72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190230	9.27	파스타 등
	190219	8.36	파스타 등
	190190	6.84	맥아 추출물(extract) 등
	210390	6.54	소스와 소스용 조제 등
이천시	210690	32.15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20870	15.36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220600	11.65	그 밖의 발효주
	220300	9.24	맥주
	220830	6.89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190230	5.59	파스타 등

○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시군은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임.

<표 I-100>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용인시	854232	89.33	전자집적회로
이천시	854232	48.12	전자집적회로
	847330	44.59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847170	5.69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등
평택시	851770	37.26	전화기 관련 기기
	851712	29.67	전화기 관련 기기
	852990	9.11	부분품
	854232	5.75	전자집적회로

- 용인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전자집적회로임.
- 이천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전자집적회로, 부분품과 부속품, 자동자료 처리기계 등임.
- 평택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전화기 관련 기기, 부분품, 전자집적회로임.

○ 정밀기기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시군은 성남시, 수원시, 평택시, 화성시임.

- 성남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의료기기임
- 수원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오실로스코프 관련 기기와, 측정용 기기임.
- 평택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광섬유, 액정 디바이스임.
- 화성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반도체 부품과 의료기기임.

<표 I -101> 정밀기기 제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성남시	901812	24.26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
	903149	12.61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903190	8.29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903180	7.99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903090	7.9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등
	900211	6.01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 소자
수원시	901380	60.43	액정 디바이스
	903149	12.31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평택시	900120	40.67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등
	900190	24.73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등
	901390	11.86	액정 디바이스
화성시	848620	15.09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등
	902213	14.40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903149	12.69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903180	10.71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900211	8.45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 소자
	902290	6.23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900219	5.54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 소자

○ 화학제품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시군은 화성시, 파주시, 안산시임

- 화성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디스크, 플라스틱 접착성판, 미용제품류 등임.
- 파주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합성 유기착색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등임.
- 안산시의 주요 세부 품목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헥테로 고리 화합물임.

<표 I -102> 화학제품 제조업 수출 시군의 주요 세부 품목

시군	HS코드	비중(%)	품목명
화성시	852351	14.14	디스크·테이프·솔리드스테이트 등
	391990	10.91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 등
	330499	5.98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 등
파주시	320490	62.04	합성 유기착색제 등
	392020	21.3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등
안산시	391990	7.57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 등
	293339	5.50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5. 시군별 수출입 산업 및 기업매칭

○ 주요 시군의 수출입 산업과 기업자료를 매칭

- 시군의 주요 수출산업과 해당 시군에 존재하는 10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 간 매칭 결과 전체 30개 시군 중 수출입이 모두 일치하는 시군은 11개로 나타남.
- 대표적으로 수원시의 경우 최대 수출입 산업은 모두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이고 대표기업은 삼성전자(주)로 수출입 산업이 기업과 매칭되는 경우임.
- 수출입 산업과 기업이 매칭되는 경우는 주로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 전기전자기기의 경우 산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정지역에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주요 시군의 수출입 산업과 기업자료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생

- 예로, 화성시의 경우 최대 수출품목은 운송장비 중 승용차로 나타났으나 수입 산업은 전기전자기기로 대표기업인 일진전기(주)와 수입산업에서만 매칭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일진전기(주)의 경우 대부분 제품을 수입하여 내수용으로 제품을 만든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수출제품인 승용차의 경우 화성시에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목록에는 나타나지 않아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는 기아자동차의 수출입 신고는 해당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관리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I -103> 주요 시군의 수출입 산업과 기업 매칭 자료

시군	수출		수입		대표기업			수출입 매칭
	산업	품목	산업	품목	기업명	품목명	종업원수	
고양시	기타 제조업	금은 세공품	1차 금속	금	(주)바른손	문구류	804	-
김포시	화학	기초화장품	화학	의약품	(주)상보	필름	395	-
남양주시	1차금속	철강 관	화학	의약품	(주)빙그레	유제품	1,568	-
성남시	전기 전자기기	전화기	전기 전자기기	전자 직접회로	(주)파리크라상	제과류	4,301	-
수원시	전기 전자기기	수신기기 부분품	전기 전자기기	전자 직접회로	삼성전자(주)	반도체	101,970	O
시흥시	기계장비	기타 기계류	1차 금속	백금	(주)삼립식품	제과류	1,019	-
안산시	전기 전자기기	인쇄회로	전기 전자기기	인쇄회로	(주)인터플렉스	인쇄 회로기판	1,295	O
안양시	전기 전자기기	전선/케이블	전기 전자기기	전화기	엘에스산전(주)	변압기	3,449	△
용인시	전기 전자기기	전자 집적회로	기계장비	반도체 제조용장비	삼성 디스플레이(주)	OLED패널	26,962	O
이천시	전기 전자기기	전자 집적회로	정밀기기	반도체 제조용장비	에스케이 하이닉스(주)	플래시 메모리	20,756	O
파주시	정밀기기	액정 디바이스	전기 전자기기	전자직접회 로	에이에스이 코리아(주)	직접회로	2,985	O
평택시	전기 전자기기	전화기	광업	석유가스 /탄화수소	쌍용자동차(주)	자동차	4,789	-
화성시	운송장비	승용차	전기 전자기기	절연전선 /케이블	일진전기(주)	절연전선	1,114	△
과천시	화학	헤테로고리 화합물	전기 전자기기	컴퓨터	코오롱	나일론, 의류 등	3,825	△
광명시	운송장비	승용차	음식료업	치즈	(주)여주전자	오디오 리모컨	120	-

주: 수출입 매칭은 실제 수출입 산업과 기업이 매칭하는 경우 O, 수출 또는 수입만 매칭되는 경우 △, 매칭되지 않는 경우 -로 표시

(계속)

시군	수출		수입		대표기업			수출입 매칭
	산업	품목	산업	품목	기업명	품목명	종업원수	
광주시	기계장비	반도체디바이스	음식료업	쇠고기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공정장치	705	△
구리시	섬유가죽	직물	섬유가죽	가방/케이스	(주)케이엠헬스케어	일회용수술가운	286	△
군포시	전기전자기기	전선/케이블	정밀기기	측정/검사용기기	가온전선(주)	전력케이블	446	△
동두천시	정밀기기	렌즈/프리즘	정밀기기	렌즈/프리즘	(주)세코닉스	마이크로렌즈	871	○
부천시	전기전자기기	반도체디바이스	전기전자기기	반도체디바이스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주)	반도체	1,710	○
안성시	기계장비	반도체제조용장비	화학	페인트/조제점결제	(주)디에이피	인쇄회로기판	1,228	△
양주시	화학	플라스틱 판	1차 금속	구리	(주)카스	저울, 계측기	385	○
여주시	전기전자기기	전기제어용보드	화학	착색제	옵니시스템(주)	디지털전자식전력량계	200	△
연천군	화학	환식탄화수소	화학	환식탄화수소	건일산업(주)	플라스틱창호	90	○
오산시	기계장비	반도체제조용장비	기계장비	반도체제조용장비	(주)제우스	LCD글래스반송시스템	471	○
의왕시	화학	폴리에스테르	화학	환식탄화수소	선영화학(주)	PVC데코시트, PVC필름	237	○
의정부시	섬유가죽	뜨개질편물	전기전자기기	컴퓨터	(주)텍슨	무선중계기	122	△
포천시	섬유가죽	편물	기타 제조업	의자/가구	(주)청우식품	캔디, 비스킷	706	-
하남시	화학	운반용플라스틱	음식료업	돼지고기	(주)대원산업	플라스틱트레이	241	△

주: 수출입 매칭은 실제 수출입 산업과 기업이 매칭하는 경우 ○, 수출 또는 수입만 매칭되는 경우 △, 매칭되지 않는 경우 -로 표시

- 산업의 시군별 중소기업 업체는 총 9,732개임.
 - 전체 경기도 제조업 수는 35,706개임(2015년 대한상공회의소 자료기준).
 - 그중 중소기업은 1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함.
 - 전체 제조업 중 중소기업은 100인 이상 고용 기업, 10인 미만 고용 기업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KSIC 기준으로 업종분류가 되지 않는 기업을 제외함.
- 중소기업 비중이 가장 많은 경기도 시군은 화성시로 나타남(11개).
 - 화성시 다음으로 시흥시와 안산시가 중소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대체로 1개 산업에서 2~3개 시군의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금속제품 제조업의 경우 시흥시(16%), 안산시(12%), 화성시(21%)에 중소기업이 분포하고 있음.
 -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에도 시흥시(16%), 안산시(12%), 화성시(33%)에 중소기업이 분포하고 있어 금속제품과 운송장비 제조업의 연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화학의 경우에는 화성시(19%)만 10% 이상의 비중을 보이고 여러 시군에 걸쳐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104> 산업의 시군별 중소기업(10~99인 종사자) 업체 비중(%) (농업, 광업 제외)

구분	1차금속	금속제품	기계장비	기타제조업	목재/종이/인쇄	비금속광물	석탄석유	섬유가죽	운송장비	음식료업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화학
가평균	0.00	0.00	0.05	0.00	0.30	1.32	0.00	0.00	0.00	0.21	0.05	0.23	0.00
고양시	0.00	0.88	0.88	4.95	6.87	0.88	0.00	2.61	1.01	3.42	1.54	2.34	1.96
과천시	0.00	0.00	0.05	0.26	0.60	0.00	0.00	0.40	0.00	0.00	0.05	0.00	0.00
광명시	0.65	0.59	0.55	0.00	0.30	0.00	0.00	1.20	1.01	0.43	1.28	1.64	0.43
광주시	1.94	3.53	2.69	6.77	6.12	3.95	11.11	5.01	0.67	7.26	2.71	2.11	3.84
구리시	0.00	0.15	0.05	0.52	0.00	0.00	0.00	0.40	0.00	0.00	0.11	0.00	0.14
군포시	0.00	1.03	3.19	0.78	1.19	1.32	0.00	0.80	0.67	1.71	4.73	5.62	2.25
김포시	20.65	8.69	7.42	14.84	9.85	6.58	0.00	3.81	6.04	4.27	3.45	5.62	9.28
남양주시	1.29	2.95	1.26	7.03	2.39	3.51	0.00	2.20	2.01	3.21	1.38	1.17	1.59
동두천시	0.32	0.15	0.11	0.26	0.00	0.44	11.11	2.00	0.00	0.64	0.21	0.23	0.29
부천시	2.26	6.48	8.41	5.21	2.24	2.63	0.00	4.81	3.69	3.63	11.11	9.37	5.51
성남시	0.00	1.55	2.47	2.86	1.34	1.32	0.00	5.41	1.01	5.77	8.40	16.63	2.61
수원시	0.32	1.10	2.64	1.04	0.60	0.00	0.00	0.80	0.67	0.64	4.30	3.28	1.67
시흥시	13.55	16.05	16.16	2.34	3.58	2.63	33.33	5.01	16.44	2.35	9.30	4.68	8.33
안산시	22.90	12.44	9.40	4.43	8.36	5.26	11.11	8.82	12.08	2.99	10.20	6.56	8.19
안성시	2.90	2.58	3.41	1.82	3.58	6.58	11.11	2.00	5.37	8.33	1.75	2.11	4.71
안양시	0.32	1.18	2.91	2.34	2.39	0.44	0.00	2.20	1.34	1.07	8.24	9.37	2.17
양주시	2.90	2.06	1.37	2.86	2.54	5.70	0.00	14.43	0.00	4.06	1.22	1.64	3.70
양평군	0.32	0.07	0.00	0.00	0.00	0.88	0.00	0.40	0.34	0.64	0.00	0.00	0.14
여주시	0.97	0.22	0.22	0.52	0.90	7.89	0.00	0.60	0.00	2.78	0.43	0.23	0.65
연천군	0.00	0.00	0.11	0.00	0.00	0.44	0.00	0.00	0.00	0.85	0.05	0.00	0.43
오산시	0.00	0.44	0.66	1.04	0.60	0.44	11.11	0.20	0.34	0.43	0.58	0.70	0.87
용인시	0.65	1.84	2.58	2.08	3.88	3.95	0.00	3.01	3.36	3.21	3.61	5.62	3.62
의왕시	0.00	0.81	1.10	0.52	0.75	0.44	0.00	0.00	0.67	1.28	1.43	2.11	0.65
의정부시	0.00	0.22	0.05	0.26	0.15	0.00	0.00	1.00	0.00	0.00	0.27	0.70	0.29
이천시	0.65	1.03	1.15	1.30	1.79	7.02	0.00	1.60	1.34	5.56	0.96	0.94	1.59
파주시	3.23	4.79	3.85	13.54	17.31	6.58	0.00	3.21	1.01	6.20	3.13	3.04	6.23
평택시	4.52	3.90	3.90	1.82	2.99	3.95	11.11	2.40	5.70	5.77	2.98	1.87	5.65
포천시	1.61	3.17	2.09	8.33	3.43	11.84	0.00	18.44	1.34	11.97	2.13	0.23	4.13
하남시	0.32	0.74	0.16	0.78	0.45	0.88	0.00	1.40	0.34	1.07	0.80	0.23	0.43
화성시	17.74	21.35	21.06	11.46	15.52	13.16	0.00	5.81	33.56	10.26	13.60	11.71	18.62

6. 소결 및 시사점

- 경기도 내 시군별 교역은 시군별, 산업별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시군별 가장 수출이 많이 발생하는 산업의 경우 화학제품 제조업이었으며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모두 대중국 수출로 나타남.
 - 화학제품 다음으로 수출이 많은 산업은 금속제품 제조업이었으며 금속제품 제조업의 경우 대중국 수출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미국과 아세안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수출의 경우 시군별로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곳이 많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 중국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곳은 아세안 지역으로 나타남.
- 시군별 가장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나타났으나 화학제품의 수입의 경우 수출과 달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화학제품 다음으로 수입이 많은 산업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금속제품 제조업이었으나 금속제품 제조업의 수입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입의 경우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과는 달리 중국 다음으로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으로 나타나 중간재 수입 시 선진 경제권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중간재를 수입해서 중간재를 수출하는 시군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중국에 판매하는 경로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러한 수출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은 1차 금속, 금속가공품, 비금속광물 등 금속광물 제조업임.
 - 중간재를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다시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산업의 경우 미국은 평택시의 농림수산업과 음식료업, 일본은 평택시의 비금속광물, EU는 평택시와 화성시의 운송장비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남.

- 중간재 이외에 자본재와 소비재를 수출입하는 시군은 고양시, 수원시, 이천시와 화성시로 나타남.
 - 고양시는 중간재를 수입하여 소비재를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교역 산업은 기타 제조업임.
 - 수원시는 자본재를 수입하여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교역 산업은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화학제품 등임.
 - 이천시도 자본재를 수입하여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교역 산업은 전지전자기기와 정밀기기 등임.
 - 화성시는 중간재를 수입하여 소비재를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교역 산업은 금속제품, 기계장비, 운송장비, 정밀기기, 화학제품 등임.

-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선진 경제권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산 수입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임.
 - 특히 중국산 금속, 비금속광물 등 원재료를 수입하여 미국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수출입 구조가 나타난 시군은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임.
 - 평택시의 경우 아세안으로부터 석탄석유제품, 광물을 수입하여 각각 일본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었음.

- 반대로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산업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임.
 - 화학제품의 경우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형태를 보임.
 - 정밀기기의 경우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은 중국으로 수출되며,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로 수출되고 있었음.

제Ⅱ부. 경기도 수출입 구조 및 무역지수 분석

1. 경기도 수출입 구조 분석

가. 경기도 수출입 구조 현황

- 한국의 대세계 수출 구조와 경기도 수출 구조 비교 : 2011년에서 2017년 동안의 한국의 대세계 수출금액은 다음과 같음.
- － 한국의 2011년 수출금액은 5천5백5십억달러에서 2017년 5천7백3십억달러로 연평균성장률(CAGR)은 0.55%로 나타남.

<표 II-1> 한국의 대세계 산업별 수출구조

(단위: 백만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차 금속제품 제조업	46,840	44,472	38,704	41,306	34,474	32,422	37,835
광업	478	412	332	364	386	267	386
금속제품 제조업	11,697	12,820	11,463	13,040	13,518	13,824	14,858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6,444	46,493	46,656	48,324	47,320	45,263	51,315
기타 제조업	3,272	3,320	3,419	3,244	3,436	3,504	4,748
농림수산업	1,224	1,227	1,273	1,172	1,042	1,144	1,216
목재/종이/인쇄업	3,731	3,789	4,049	3,925	3,593	3,601	3,65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945	2,212	2,494	2,804	2,908	2,875	3,041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52,010	56,589	53,210	51,472	32,298	26,763	35,481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14,701	14,754	15,458	15,179	13,636	12,779	12,377
운송장비 제조업	126,383	113,380	114,270	117,646	113,555	101,870	109,388
음식료업	5,566	5,811	5,661	6,014	5,968	6,380	6,782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124,884	125,773	143,163	146,849	146,856	141,458	175,343
정밀기기 제조업	37,633	38,549	37,269	37,636	34,302	28,887	30,319
화학제품 제조업	78,402	78,256	82,198	84,100	73,462	74,381	86,887
총합계	555,209	547,854	559,619	573,075	526,753	495,418	573,627

- 경기도의 경우 2011년 수출액은 8백7십억달러에서 2017년 1천2백4십억달러로 연평균 성장률(CARG)는 6.0%로 한국 전체의 대세계 연평균 수출성장률보다 약 11배 높음. 이는 경기도의 주요 수출품목인 전기 및 전자기 제조업의 수출액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표 II-2> 경기도의 대세계 산업별 수출구조

(단위: 백만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차 금속제품 제조업	3,718	2,925	2,919	2,933	2,625	2,707	3,553
광업	31	39	38	32	24	27	24
금속제품 제조업	1,793	1,982	1,867	1,904	1,997	2,084	2,309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995	8,333	9,921	10,070	10,571	10,834	13,346
기타 제조업	803	748	890	751	1,003	1,074	1,230
농림수산업	66	83	95	104	103	132	156
목재/종이/인쇄업	683	692	781	757	650	552	68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60	378	480	586	668	617	654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211	336	128	133	84	140	147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2,424	2,543	3,014	2,858	2,861	2,858	2,778
운송장비 제조업	13,624	13,522	14,191	15,199	14,057	12,436	13,518
음식료업	434	454	460	530	624	815	808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42,068	41,412	50,890	57,844	50,193	42,980	61,597
정밀기기 제조업	6,506	7,302	8,143	9,390	11,292	11,046	12,543
화학제품 제조업	6,843	7,237	8,187	8,549	9,155	9,838	10,784
총합계	87,557	87,986	102,005	111,639	105,907	98,141	124,128

- 한국의 대세계 산업별 수출금액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1년 15.8%에서 2017년 21.6%로 5.8%p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산업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17년 기준 정밀기기 제조업 41.4%,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35.1%,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6% 순으로 나타남. 이 중 정밀기기 제조업은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3> 한국 전체 수출에 대한 경기도의 산업별 수출비중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차 금속제품 제조업	7.9	6.6	7.5	7.1	7.6	8.4	9.4
광업	6.4	9.4	11.4	8.7	6.2	10.1	6.3
금속제품 제조업	15.3	15.5	16.3	14.6	14.8	15.1	15.5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2	17.9	21.3	20.8	22.3	23.9	26.0
기타 제조업	24.5	22.5	26.0	23.2	29.2	30.6	25.9
농림수산업	5.4	6.8	7.5	8.9	9.9	11.6	12.9
목재/종이/인쇄업	18.3	18.3	19.3	19.3	18.1	15.3	18.7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8.5	17.1	19.2	20.9	23.0	21.5	21.5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0.4	0.6	0.2	0.3	0.3	0.5	0.4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16.5	17.2	19.5	18.8	21.0	22.4	22.4
운송장비 제조업	10.8	11.9	12.4	12.9	12.4	12.2	12.4
음식료업	7.8	7.8	8.1	8.8	10.5	12.8	11.9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33.7	32.9	35.5	39.4	34.2	30.4	35.1
정밀기기 제조업	17.3	18.9	21.8	24.9	32.9	38.2	41.4
화학제품 제조업	8.7	9.2	10.0	10.2	12.5	13.2	12.4
총합계	15.8	16.1	18.2	19.5	20.1	19.8	21.6

- 한국 전체의 정밀기기 제조업 수출금액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정밀기기 제조업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한국의 대세계 수입 구조와 경기도 수입 구조 비교 : 2011년에서 2017년 동안의 한국의 대세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음.

- 한국의 2011년 수입금액은 5천2백4십억달러에서 4천7백8십억달러로 연평균성장률(CAGR)은 -1.52%로 나타남.

<표 II-4> 한국의 대세계 산업별 수입구조

(단위: 백만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차 금속제품 제조업	51,368	43,980	40,475	42,274	33,087	29,840	35,339
광업	165,344	171,394	160,388	156,025	96,572	77,338	105,293
금속제품 제조업	7,578	7,682	8,511	8,884	8,486	7,737	7,477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3,348	31,983	34,545	34,403	32,277	31,083	35,332
기타 제조업	5,819	5,521	5,613	6,613	6,812	7,150	7,578
농림수산업	12,602	12,433	12,407	12,070	10,734	10,146	10,503
목재/종이/인쇄업	5,836	5,508	5,790	6,063	5,979	5,855	6,37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6,671	6,821	6,397	6,038	5,695	5,606	5,784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29,579	33,268	35,813	35,890	18,975	15,287	19,237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15,677	15,302	17,181	18,606	18,369	18,540	19,543
운송장비 제조업	18,799	17,968	17,937	20,750	23,767	23,885	22,226
음식료업	17,344	16,318	16,528	18,295	17,998	18,472	20,441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74,255	71,755	77,361	80,472	83,609	81,775	91,093
정밀기기 제조업	23,620	24,713	21,940	24,163	24,332	24,005	36,545
화학제품 제조업	56,566	54,929	54,687	55,011	49,796	49,462	55,703
총합계	524,406	519,575	515,573	525,557	436,487	406,182	478,469

- 경기도의 경우 2011년 수입액은 8백9십억달러에서 2017년 1천2백4십억달러로 연평균 성장률(CARG)는 5.8%로 한국 전체의 대세계 연평균 수입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것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남.

<표 II-5> 경기도의 대세계 산업별 수입구조

(단위: 백만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차 금속제품 제조업	7,703	6,414	6,731	6,889	6,037	6,001	7,680
광업	1,142	12,777	13,970	24,812	14,124	4,264	5,779
금속제품 제조업	1,221	1,273	1,321	1,421	1,627	1,756	2,071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328	7,144	7,644	7,815	7,814	9,988	12,638

기타 제조업	1,380	1,244	1,323	1,565	1,831	1,945	2,125
농림수산업	1,371	1,505	1,602	1,826	1,760	1,492	1,439
목재/종이/인쇄업	1,164	970	1,040	1,334	1,391	1,257	1,26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320	2,426	2,245	1,905	1,964	2,106	2,039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1,967	2,411	2,476	2,152	2,396	2,201	2,040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2,204	2,257	2,717	3,108	4,004	4,176	3,607
운송장비 제조업	1,479	1,304	1,278	1,373	2,753	2,307	2,211
음식료업	3,496	3,166	3,410	3,965	4,089	3,997	4,535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29,879	31,674	34,095	34,694	34,783	34,206	39,225
정밀기기 제조업	11,726	11,970	9,498	10,765	11,657	11,766	22,894
화학제품 제조업	13,963	13,219	12,787	12,859	13,131	14,332	15,430
총합계	89,343	99,754	102,136	116,483	109,363	101,794	124,977

- 한국의 대세계 산업별 수입금액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1년 17%에서 2017년 26.1%로 9.1%p 늘어났으며, 이는 수출 비중의 증가폭보다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산업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17년 기준 정밀기기 제조업 62.6%,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43.1%,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5.8%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소한 차이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수출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산업별 수입 비중에서 가장 변화량이 높은 산업은 정밀기기 제조업임.

<표 II-6> 한국 전체 수출에 대한 경기도의 산업별 수입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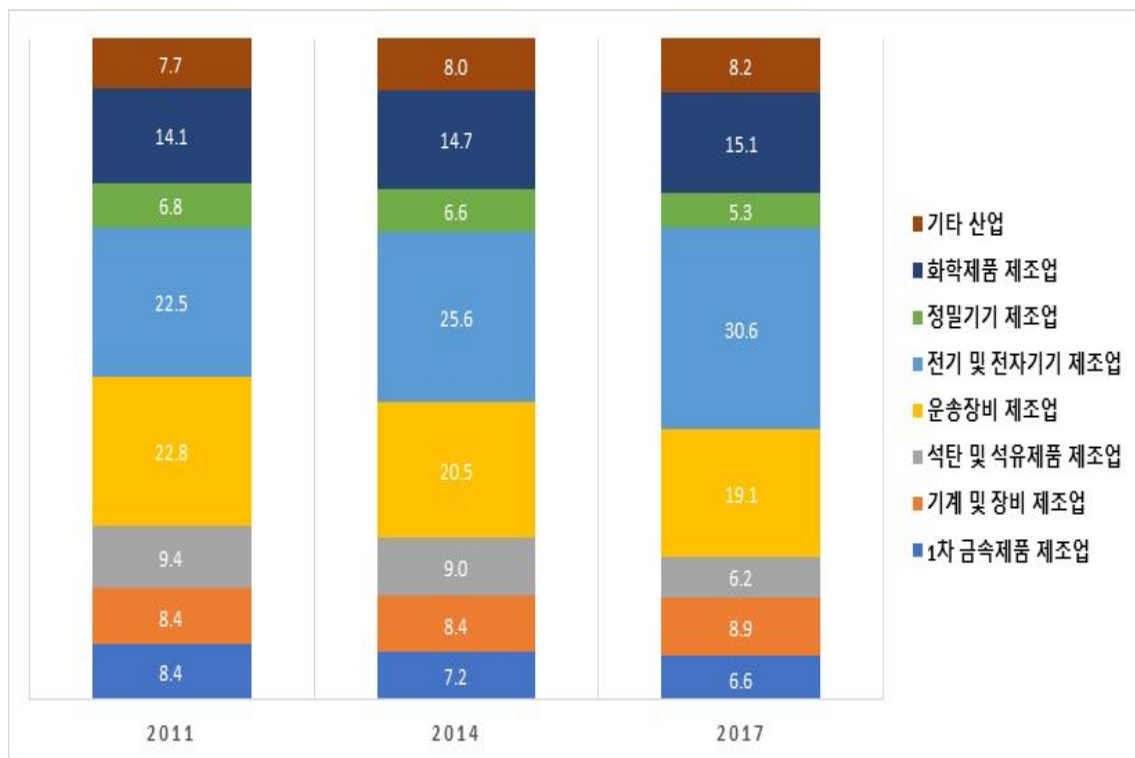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차 금속제품 제조업	15.0	14.6	16.6	16.3	18.2	20.1	21.7
광업	0.7	7.5	8.7	15.9	14.6	5.5	5.5
금속제품 제조업	16.1	16.6	15.5	16.0	19.2	22.7	27.7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5.0	22.3	22.1	22.7	24.2	32.1	35.8
기타 제조업	23.7	22.5	23.6	23.7	26.9	27.2	28.0
농림수산업	10.9	12.1	12.9	15.1	16.4	14.7	13.7

목재/종이/인쇄업	19.9	17.6	18.0	22.0	23.3	21.5	19.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4.8	35.6	35.1	31.6	34.5	37.6	35.3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6.7	7.2	6.9	6.0	12.6	14.4	10.6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14.1	14.7	15.8	16.7	21.8	22.5	18.5
운송장비 제조업	7.9	7.3	7.1	6.6	11.6	9.7	9.9
음식료업	20.2	19.4	20.6	21.7	22.7	21.6	22.2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40.2	44.1	44.1	43.1	41.6	41.8	43.1
정밀기기 제조업	49.6	48.4	43.3	44.6	47.9	49.0	62.6
화학제품 제조업	24.7	24.1	23.4	23.4	26.4	29.0	27.7
총합계	17.0	19.2	19.8	22.2	25.1	25.1	26.1

○ 산업별 수출비중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8대 산업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한국과 경기도로 나누어 분석⁵⁹⁾

<그림 II-1> 한국의 8대 주력산업 수출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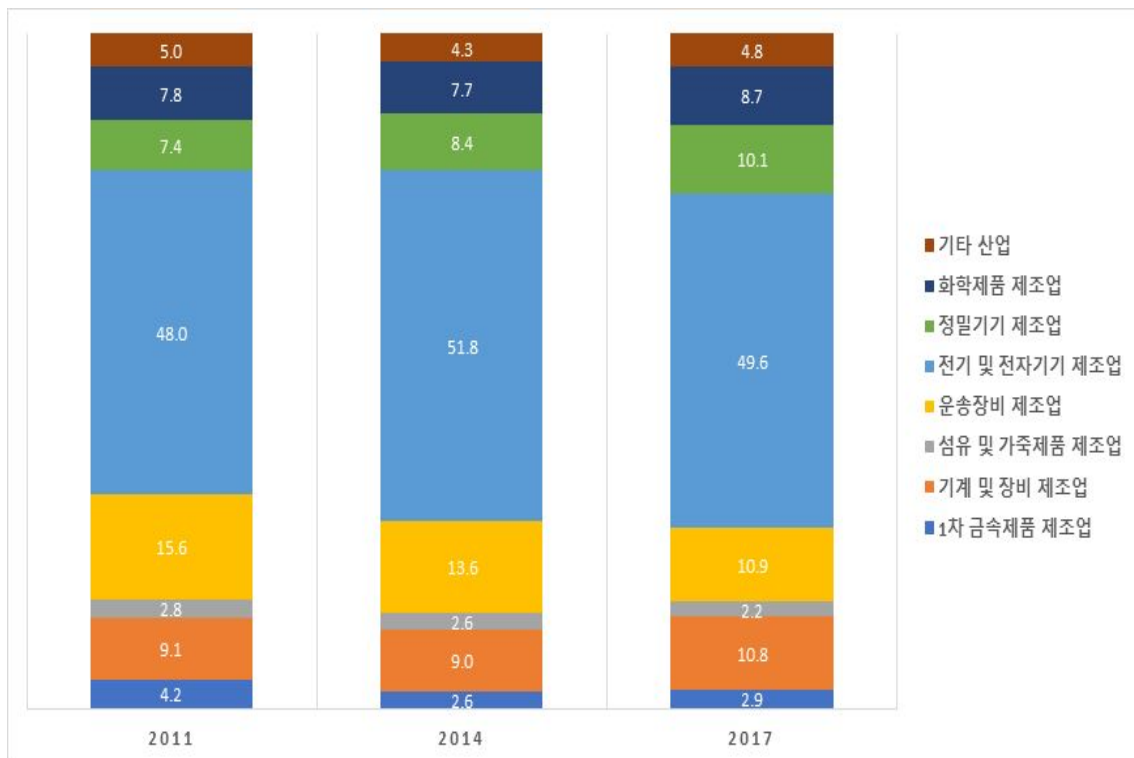
- 2011년~2017년 사이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의 전체 수출 비중은 2011

59) 주력산업은 한국 전체 수출액 중 경기도의 비중이 5%인 경우 주력산업으로 분류

년 22.5%에서 2017년 30.6%로 증가하였으나 운송장비,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품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임.

- 운송장비 제조업은 2011년 22.8%에서 2017년 19.1%로 감소
- 화학제품 제조업은 2011년 14.1%에서 2017년 15.1%로 증가
- 이에 따라 2017년 기준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군은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나타남.

<그림 II-2> 경기도의 8대 주력산업 수출비중 변화



- 경기도는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음. 2011년 48%에서 2014년 2017년에는 49.6%에 증가. 2014년에는 51.8%로 과반수를 넘는 비중 차지
- 다음은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2011년 15.5%에서 2017년 10.9%로 감소
- 기계 및 장비업은 2011년 9.1%에서 2017년 10.8%로 증가. 정밀기기 제조업은 2011년 7.4%에서 2017년 10.1%로 증가

<표 II-7> 한국과 경기도의 8대 주력 수출 산업군 비중 비교

구분 연도	한국 전체(%)		경기도(%)	
	2011	2017	2011	2017
1차 금속제품 제조업	8.4	6.6	4.2	2.9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4	8.9	9.1	10.8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9.4	6.2	0.2	0.1
운송장비 제조업	22.8	19.1	15.6	10.9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22.5	30.6	48.0	49.6
정밀기기 제조업	6.8	5.3	7.4	10.1
화학제품 제조업	14.1	15.1	7.8	8.7
기타제조업	7.7	8.2	5.0	4.8

- 분석대상인 2011년과 2017년을 비교해 보면 한국과 경기도의 주력 수출 산업군은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인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이 절반을 차지하여 높은 편중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나. 경기도의 주요 국가별 수출입 현황

- 2017년 경기도의 주요 수출 수입국을 분석한 결과 수출입 상위 10개국 현황은 한국 전체 무역 대상국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정 국가들에 대한 편중이 강한 편으로 해당 국가와의 무역 이슈가 발생 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기준 경기도 전체 수출액에 대한 상위 10개국 중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등 4개국의 누적 비중은 전체의 63%임.
- 같은 방법으로 상위 10개 수입국 중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등 4개 국가에 대한 누적 비중은 64%로 나타났음.

<표 II-8> 2017년 경기도 주요 수출 수입국

순위	국가	2017수출액 (백만달러)	비중(%)	국가	2017수입액 (백만달러)	비중(%)
1	중국	46,918	38	중국	34,155	27
2	미국	14,036	11	미국	19,726	16
3	베트남	11,663	9	일본	19,118	15
4	홍콩	6,443	5	베트남	7,882	6
5	필리핀	4,664	4	대만	5,989	5

6	일본	4,580	4	독일	4,583	4
7	대만	2,928	2	네덜란드	4,427	4
8	멕시코	2,386	2	싱가포르	4,211	3
9	독일	2,129	2	말레이시아	2,545	2
10	인디아	1,789	1	호주	2,277	2
상위 10개국의 비중			79	상위 10개국의 비중		83

- 주요 수출 경제권에서 개별국가의 기여도를 살펴보기 위해 EU에서는 독일, 아세안에서는 베트남과 필리핀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베트남의 약진이 눈에 띄게 나타남.
- 연평균 성장률(CARG)면에서 베트남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필리핀이 16.0%로 두 나라에 대한 수출금액은 아세안 전체 국가에 대한 수출금액의 82%(2017년 기준)을 차지함.
 - 절대 금액에 있어서는 중국, 아세안, 미국, EU순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을 기준으로 베트남에 대한 수출액은 EU 전체금액을 초과하였음.

<표 II-9> 경기도의 수출 상위10개국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CARG
미국	11,218	10,569	12,308	13,789	13,042	10,979	14,036	3.8%
EU	8,298	7,379	8,727	9,293	8,999	8,773	10,361	3.8%
- 독일	1,510	1,277	1,533	1,916	1,623	1,629	2,125	5.0%
중국	26,737	26,515	32,547	37,875	38,423	34,867	46,918	9.8%
홍콩	5,153	5,171	5,889	6,013	5,616	5,043	6,443	3.2%
대만	3,312	2,343	2,235	2,745	2,282	2,058	2,928	-2.0%
일본	4,915	5,408	4,736	4,759	4,414	4,465	4,573	-1.2%
아세안	6,672	8,556	11,542	12,695	13,254	14,603	19,865	19.9%
- 베트남	1,737	2,873	4,765	5,179	6,770	9,026	11,663	37.3%
- 필리핀	1,647	2,004	2,876	3,726	3,335	2,443	4,664	16.0%
인도	1,241	1,042	1,231	1,394	1,258	1,310	1,789	5.4%
메르코수르	2,188	1,852	2,485	2,563	1,601	1,065	1,507	-6.0%

- 경기도의 산업구조 특징에 따라 부품 및 소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가 수입 데이터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의 수입 상위 10개 국 중 연평균 성장률(CARG)면에서 베트남은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절대 금액에 있어서는 중국, 미국, 일본, EU, 아세안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미국, 독일에 대해서는 무역적자 양상을 나타냄. 미국에 있어서는 수입 연평균 성장률이 수출 연평균 성장률에 비해 2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17년 기준으로 EU, 대만, 일본에 대해서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수입액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임.

<표 II-10> 경기도의 주요 수입국 현황

(단위: 백만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CARG
미국	11,377	11,951	10,429	12,378	13,731	13,829	19,726	7.7%
EU	10,326	9,108	9,855	10,734	12,513	11,618	14,480	4.9%
-독일	3,852	3,750	3,884	4,077	5,148	4,008	4,583	2.7%
중국	23,794	23,989	26,032	27,881	29,950	30,129	34,155	5.3%
대만	5,884	6,123	6,000	6,435	5,882	4,728	5,989	0.3%
일본	19,149	18,218	17,599	14,851	12,862	15,633	19,118	0.2%
아세안	8,881	6,281	7,042	7,259	9,205	11,733	14,453	7.2%
- 베트남	731	955	1,508	2,217	4,013	6,186	8,029	40.8%

2. 무역지수 산출을 통한 수출경쟁력 분석

가. 수출경쟁력 분석 방법

- 수출경쟁력은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별, 산업별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 현시비교우위지수(RCA :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수출경합도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 비교를 통해 알아 봄.

1) 무역특화지수(TSI)⁶⁰⁾ : 국가별, 국가간 측정을 통해 절대적 비교우위 정도에 대해 분석

- 국가별 무역특화지수는 $TSI = \frac{(X_{i,j} - M_{i,j})}{(X_{i,j} + M_{i,j})}$ 로 산출됨. 단, $X_{i,j}$ 는 j국가의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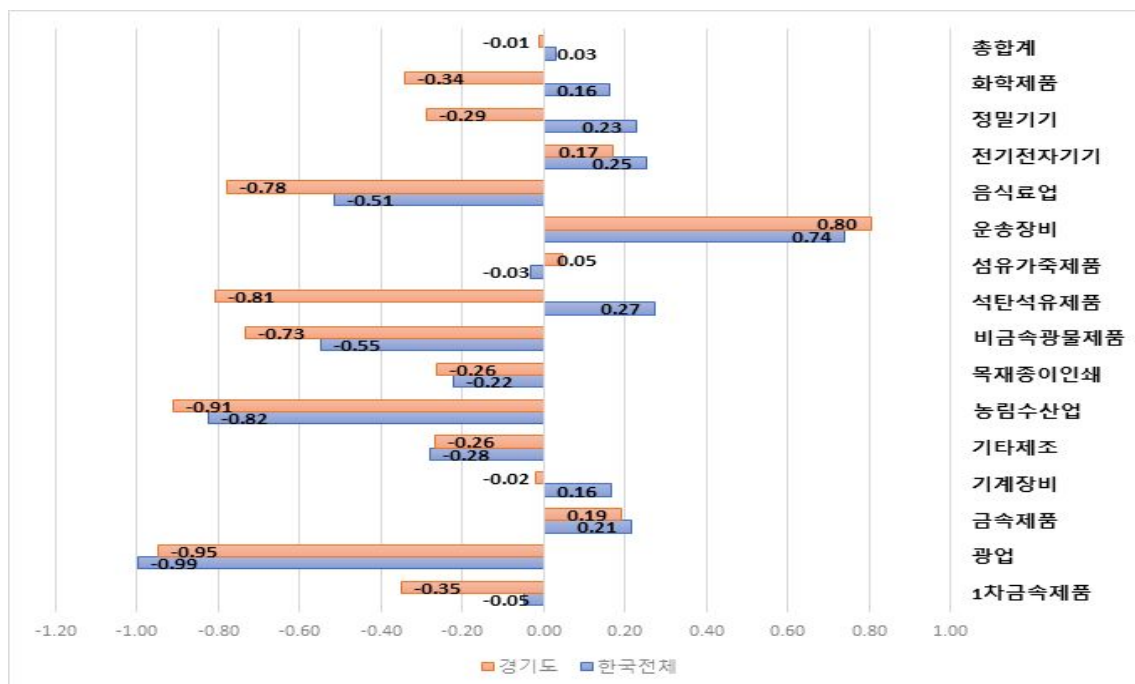
60) TSI가 1이면 해당 품목에서 j국은 k국에 대해 완전 수출특화이며, -1이면 완전 수입특화, 0이면 수출입 규모가 같은 것을 의미함, 즉, TSI가 1에 가까울수록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

품목 수출액이고, $M_{i,j}$ 는 j국가의 i품목 수입액임.

- 국가간 무역특화지수는 $TSI = \frac{(X_{i,jk} - M_{i,jk})}{(X_{i,jk} + M_{i,jk})}$ 로 산출되는데, 이는 특정국가의 상대국에 있어서의 무역특화 정도를 나타냄. 단, 여기서 $X_{i,jk}$ 는 k국에 대한 j국의 i품목 수출액, $M_{i,jk}$ 는 k국의 i품목 수입액을 의미함.
- 무역특화지수의 부호가 양(+)이면 그 산업은 수출특화를, 음(-)이면 수입특화를 의미하는데 그 절대 값이 클수록 수출특화 또는 수입특화 정도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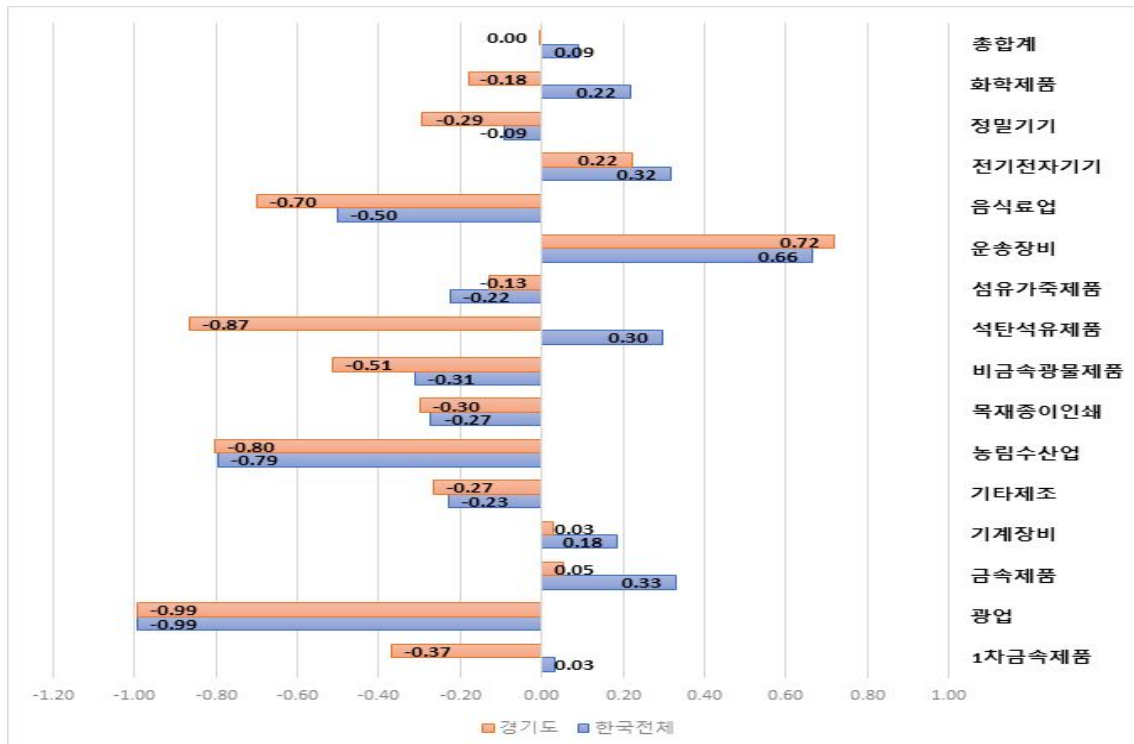
- 국가별 무역특화지수를 확인하기 전에 한국과 경기도의 무역특화지수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음. 2011년과 2017년의 비교결과 8대 주력수출산업비중을 반영하고 있음.

<그림 II-3> 2011년 한국과 경기도의 무역특화지수 비교



- 경기도 무역특화지수가 양의 값을 갖는 산업군은 전기전자기기, 운송장비, 섬유가죽제품, 금속제품이었음.
- 한국전체에 비해 무역특화지수가 높은 산업군은 운송장비와 섬유가죽제품임.

<그림 II-4> 2017년 한국과 경기도의 무역특화지수 비교



- 경기도 무역특화지수가 양의 값을 갖는 산업군은 전기전자기기, 운송장비, 기계장비, 금속제품 제조업 산업군임.
- 한국전체에 비해 무역특화지수가 높은 산업군은 운송장비뿐이며 2011년과 비교하여 감소함.
- 전기전자기기의 무역특지수는 경기도와 한국전체가 모두 상승
- 금속제품의 무역특화지수는 경기도는 감소한 반면 한국전체는 증가

○ 경기도의 주요 산업군 외 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첨부 3>에 기재

<표 II-11> 경기도의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연도	대세계	미국	EU	독일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대만
2011	-0.01	-0.01	-0.11	-0.44	0.06	-0.14	0.41	-0.59	-0.28
2012	-0.06	-0.06	-0.10	-0.49	0.05	0.15	0.50	-0.54	-0.45
2013	0.00	0.08	-0.06	-0.43	0.11	0.24	0.52	-0.58	-0.46
2014	-0.02	0.05	-0.07	-0.36	0.15	0.27	0.40	-0.51	-0.40
2015	-0.02	-0.03	-0.16	-0.52	0.12	0.18	0.26	-0.49	-0.44
2016	-0.02	-0.10	-0.14	-0.42	0.07	0.11	0.19	-0.55	-0.39
2017	0.00	-0.15	-0.17	-0.37	0.16	0.16	0.18	-0.62	-0.34

- 경기도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는 마이너스(-)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중국, 아세안, 베트남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단, 경기도의 홍콩에 대한 수출액은 수입액보다 10배 정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무역특화지수가 산출됨. 홍콩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는 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의 높은 수출액에 바탕을 두고 있음.

<표 II-12>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무역특화지수

연도	대세계	미국	EU	독일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대만
2011	0.17	0.18	0.50	0.10	0.11	0.14	0.58	-0.36	-0.33
2012	0.13	0.04	0.35	-0.22	0.09	0.29	0.69	-0.26	-0.58
2013	0.20	0.22	0.46	-0.09	0.14	0.38	0.62	-0.36	-0.60
2014	0.25	0.23	0.46	0.09	0.22	0.43	0.51	-0.16	-0.55
2015	0.18	0.09	0.42	0.12	0.15	0.20	0.18	-0.08	-0.61
2016	0.11	0.07	0.38	0.21	0.07	0.09	0.08	-0.23	-0.58
2017	0.22	0.17	0.42	0.38	0.23	0.12	-0.01	-0.22	-0.39

- 경기도의 주력 산업군인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은 주요 수출국 대부분에서 양(+)의 값을 가지고 있으나 일본, 대만에 대해서는 분석기간 동안 마이너스(-)값을 나타냄.⁶¹⁾ 홍콩에 대해서는 강한 수출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특이한 점으로는 베트남에 대한 수출특화가 급격히 약화되며 2017년에는 약한 수입특화 현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

<표 II-13> 운송장비 제조업 무역특화지수

연도	대세계	미국	EU	독일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대만
2011	0.80	0.92	0.46	-0.14	0.68	0.91	0.86	-0.21	0.18
2012	0.82	0.93	0.47	-0.18	0.66	0.82	0.54	-0.21	-0.04
2013	0.83	0.93	0.45	-0.10	0.66	0.90	0.93	-0.27	0.12
2014	0.83	0.94	0.50	-0.00	0.69	0.89	0.94	-0.37	0.06
2015	0.67	0.90	0.19	-0.55	0.59	0.87	0.96	-0.52	-0.47
2016	0.69	0.86	0.49	-0.12	0.15	0.81	0.98	-0.55	-0.02
2017	0.72	0.81	0.58	0.21	0.14	0.71	0.88	-0.43	0.42

61) 무역경쟁력지수에서는 보수적인 분석을 위해 주력산업을 한국 총수출액 비중이 8% 이상인 산업만을 대상으로 함.(각주 59 참조)

- 운송장비 제조업은 일본, 독일, 대만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강한 수출특화 양상을 나타냄. 단 독일의 경우 수입특화에서 2017년 수출특화로 전환되었으며 대만의 경우는 수입특화양상이 급격히 줄어들어 2017년에 수출특화로 전환됨.

<표 II-14> 1차 금속품 제조업 무역특화지수

연도	대세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35	-0.03	-0.39	-0.34	0.53	0.76	-0.63	-0.28	0.49
2012	-0.37	-0.07	-0.40	-0.46	0.36	0.57	-0.64	-0.45	0.19
2013	-0.39	-0.12	-0.33	-0.45	0.23	0.66	-0.81	-0.24	-0.09
2014	-0.40	0.07	-0.57	-0.49	0.21	0.74	-0.77	-0.41	-0.28
2015	-0.39	0.07	-0.54	-0.55	0.12	0.82	-0.74	-0.28	-0.11
2016	-0.38	0.21	-0.13	-0.59	0.45	0.74	-0.76	-0.22	-0.08
2017	-0.37	0.45	-0.37	-0.56	0.30	0.63	-0.83	-0.18	-0.15

- 1차 금속제품 제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전반적으로 수입특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이후로 미국에 대한 수출특화 양상이 강해지고 있음. 아세안과 베트남은 비교적 높은 수출특화를 나타내며 특히 베트남의 수출특화 양상이 강함.

<표 II-15> 정밀기기 제조업 무역특화지수

연도	대세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29	-0.70	-0.62	0.37	0.23	0.22	-0.80	0.68	0.24
2012	-0.24	-0.77	-0.48	0.48	0.08	0.02	-0.86	0.79	0.10
2013	-0.08	-0.62	-0.64	0.62	0.32	0.03	-0.83	0.89	-0.02
2014	-0.07	-0.66	-0.52	0.62	0.35	0.02	-0.82	0.83	0.11
2015	-0.02	-0.69	-0.51	0.63	0.30	0.21	-0.80	0.87	0.11
2016	-0.03	-0.68	-0.56	0.75	0.34	0.41	-0.84	0.85	0.01
2017	-0.29	-0.84	-0.68	0.64	0.47	0.58	-0.89	0.83	-0.44

- 정밀기기제조업의 경우 홍콩과 중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수출특화 양상이 나타났으며 베트남에 대해서는 수출특화 양상이 최근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단 미국과 EU, 일본에 대해서는 강한 수입특화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며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역시 수입특화로 나타나고 있음. 대만에 대해서는 2017년에 수출특화에서 수입특화로 전환됨.

<표 II-16>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무역특화지수

연도	대세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02	-0.12	-0.37	0.33	0.57	0.81	-0.64	0.73	0.14
2012	0.08	-0.01	-0.33	0.22	0.59	0.87	-0.48	0.82	-0.03
2013	0.13	0.05	-0.33	0.35	0.61	0.74	-0.48	0.81	0.09
2014	0.13	0.03	-0.28	0.22	0.53	0.73	-0.43	0.75	0.17
2015	0.15	0.11	-0.48	0.30	0.64	0.83	-0.40	0.83	-0.05
2016	0.04	-0.09	-0.46	0.28	0.60	0.78	-0.51	0.77	-0.29
2017	0.03	-0.10	-0.48	0.34	0.61	0.79	-0.52	0.88	-0.48

-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중국, 아세안, 베트남에서 수출특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홍콩과 베트남에 대해 강한 수출특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수출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베트남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은 규모이나 베트남에 대한 수출액이 늘고 있어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표 II-17> 화학제품 제조업 무역특화지수

연도	대세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34	-0.34	-0.56	-0.05	0.29	0.84	-0.69	0.76	-0.68
2012	-0.29	-0.29	-0.54	-0.03	0.22	0.82	-0.68	0.83	-0.44
2013	-0.22	-0.29	-0.45	0.02	0.26	0.79	-0.69	0.86	-0.36
2014	-0.20	-0.28	-0.44	0.00	0.14	0.78	-0.67	0.88	-0.32
2015	-0.18	-0.27	-0.53	0.05	0.21	0.78	-0.68	0.84	-0.32
2016	-0.19	-0.29	-0.55	0.04	0.36	0.75	-0.67	0.88	-0.19
2017	-0.18	-0.38	-0.41	-0.04	0.40	0.72	-0.69	0.89	-0.19

- 화학제품 제조업은 베트남과 홍콩에서 높은 수출특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세계를 비롯해 미국, EU, 일본, 대만에 대해서는 수입특화 양상이 나타남. 일본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수입특화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2) 현시비교우위지수(RCA) : 비교우위를 반영하는 수출 또는 순수출(수출-수입)의 무역변수 등을 국가간 또는 산업간 비교를 위하여 상품의 중요도와 국가의 크기 등으로 조정한 무역 성과 지수임.

· 현시비교우위 지수는 $RCA_{kw}^i = \frac{(X_{kw}^i / X_{ww}^i)}{(X_{kw} / X_{ww})} = \frac{(X_{kw}^i / X_{kw})}{(X_{ww}^i / X_{ww})}$ 로 산출됨. 단, 여

기서 RCA_{kw}^i 는 k국 i품목에 대한 대세계 현시비교우위지수, X_{kw}^i 는 k국 i품목에 대한 대세계 수출액, X_{ww}^i 는 전세계 i품목에 대한 대세계 수출액,

X_{kw} 는 k국 대세계 총 수출액, X_{ww} 는 전세계 수출액임.

- 현시비교우위 지수는 0보다 큰 값을 가지며, 1보다 크면 해당품목이 상대국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
- 본 보고서에서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흔히 함께 사용되는 비교우위 지수(CA)의 개념을 차용하여 산업별 비교우위 지수를 산출함. 비교우위 지수(CA)의 경우 특정 산업별 수출구조와 수입구조를 동시에 고려하여 상대국 내에서의 비교우위를 판단하게 됨.
- 현시비교우위지수의 산출방법의 특성상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단위의 2011-2017년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현시비교우위지수를 15개 산업 및 주요 국가별로 산출하였음. 먼저 2017년 한국의 주요 교역국가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 산출경과는 다음과 같음.
- 단, 현시비교우위지수는 국가 무역데이터에 기초하므로 경기도의 산업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산업별 비교지수와 함께 제시하여 경기도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표 II-18> 2017년 주요 교역국가에 대한 한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 현황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1차 금속제품 제조업	1.95	1.73	0.43	1.68	2.54	1.27	0.13	1.49
광업	0.00	0.00	0.20	0.00	0.02	0.48	0.01	2.93
금속제품 제조업	1.64	1.36	0.36	4.26	1.48	2.29	0.37	1.26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6	0.64	1.15	2.68	4.77	0.70	0.99	0.70
기타 제조업	0.65	0.36	0.11	0.16	0.09	1.46	0.15	0.90
농림수산업	0.03	0.09	0.09	0.06	0.06	6.80	0.04	5.28
목재/종이/인쇄업	0.74	0.17	0.29	0.26	0.32	0.98	0.38	2.57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50	0.32	0.19	0.37	0.27	0.74	1.21	5.43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0.99	1.42	12.93	2.30	94.85	10.40	7.59	159.87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1.53	0.32	0.16	0.42	0.24	3.83	1.94	1.34
운송장비 제조업	3.37	2.15	1.07	6.16	5.22	1.05	1.04	2.46
음식료업	0.13	0.12	0.27	0.21	0.12	7.84	0.72	1.33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1.73	1.99	1.09	1.23	1.08	0.89	1.23	0.51
정밀기기 제조업	0.13	0.30	2.30	2.23	2.61	0.19	0.74	0.53
화학제품 제조업	0.65	0.92	1.73	1.88	2.73	0.73	1.86	2.27

- 2017년 산업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과 EU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운송장비 제조업이 각각 3.37과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은 중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만과 베트남에서 큰 수치를 나타냄. 베트남은 운송장비 제조업,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의 현시비교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임. 일본의 경우에는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과 음식료업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산업분류별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현시비교지수는 아래와 같음.

<표 II-19> 1차 금속제품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연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88	0.66	0.43	3.63	3.88	0.88	0.27	1.44
2012	1.04	0.90	0.43	3.36	3.26	0.77	0.26	1.85
2013	0.99	0.90	0.41	2.50	2.45	0.74	0.22	1.45
2014	1.48	0.89	0.35	2.39	2.77	0.85	0.38	1.36
2015	1.33	1.00	0.40	2.21	2.86	0.97	0.27	2.26
2016	1.43	1.70	0.44	1.99	2.81	1.14	0.27	2.28
2017	1.95	1.73	0.43	1.68	2.54	1.27	0.13	1.49

- 1차 금속제품 제조업의 베트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 EU, 아세안, 일본에서 비슷한 수치로 나타난 반면 중국과 홍콩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20>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연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1.21	0.43	1.65	4.71	6.43	0.44	0.82	1.15
2012	1.33	0.44	1.09	4.68	5.58	0.55	0.87	1.16
2013	1.02	0.46	1.08	4.36	4.21	0.56	0.84	1.32
2014	0.95	0.56	1.07	3.34	3.67	0.70	0.62	1.50
2015	1.04	0.56	1.11	3.53	5.22	0.75	0.58	1.71
2016	1.19	0.65	1.21	2.85	4.36	0.75	0.59	1.22
2017	1.46	0.64	1.15	2.68	4.77	0.70	0.99	0.70

- 아세안과 베트남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세안의 경우에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임. 베트남은 감소와 증가추세가 반복해서 나타남.

<표 II-21> 운송장비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연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3.21	2.73	1.78	9.12	10.46	0.63	76.85	3.54
2012	3.32	2.76	1.45	12.59	3.79	0.97	141.31	2.28
2013	3.39	2.40	2.25	11.05	3.99	0.93	30.90	2.91
2014	4.58	1.87	2.61	10.06	7.38	0.93	2.05	2.84
2015	3.35	1.88	2.30	6.57	7.75	0.93	1.99	2.05
2016	2.56	1.69	1.67	9.46	5.19	1.04	4.83	2.39
2017	3.37	2.15	1.07	6.16	5.22	1.05	1.04	2.46

- 운송장비 제조업은 분석 대상국 모두에서 비교적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4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지수가 감소하는 추세임. 특히 2011년에 지수가 높았던 베트남, 홍콩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비교우위가 낮아지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는 아세안과 베트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II-22>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연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1.95	1.67	0.77	1.21	2.77	1.39	1.18	0.54
2012	1.36	1.84	0.89	1.44	3.27	1.41	1.13	0.42
2013	1.54	2.09	0.96	1.54	2.71	1.16	1.20	0.41
2014	1.51	1.99	1.03	1.53	2.12	1.14	1.06	0.45
2015	1.41	1.74	1.02	1.31	1.37	1.14	1.12	0.44
2016	1.63	1.74	0.99	1.20	1.16	0.93	1.29	0.46
2017	1.73	1.99	1.09	1.23	1.08	0.89	1.23	0.51

-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대만에 대해서 낮은 수치가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교우위의 감소와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공통된 양상이 나타남. 특히 베트남의 경우는 2011년 대비 2017년에 절반이하로 떨어지며 비교우위가 점차 약해지고 있음. 대만에 대해서는 분석대상 기간 동안 비교열위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대만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로 나타남. 미국과 EU에 대해서는 비교열위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표 II-23> 정밀기기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연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20	0.73	3.69	2.34	1.11	0.30	1.18	1.63
2012	0.19	1.08	3.46	1.21	0.89	0.18	1.13	1.64
2013	0.22	0.85	3.38	2.25	1.69	0.23	1.20	1.73
2014	0.20	0.96	2.94	2.15	1.17	0.21	1.06	1.76
2015	0.17	0.64	2.89	1.59	1.06	0.24	1.12	2.38
2016	0.19	0.43	3.19	1.67	1.79	0.24	1.29	1.16
2017	0.13	0.30	2.30	2.23	2.61	0.19	1.23	0.53

- 정밀기기 제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중국과 아세안, 베트남에 대해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미국, EU, 일본에 대해서는 비교열위임.

<표 II-24> 화학제품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연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57	0.55	1.95	2.51	5.30	0.53	2.49	1.37
2012	0.55	0.60	1.95	2.25	3.82	0.52	1.47	2.04
2013	0.46	0.75	1.95	2.19	3.70	0.51	1.45	2.34
2014	0.53	0.86	1.90	1.87	3.71	0.52	1.98	2.42
2015	0.52	0.87	1.79	1.76	3.39	0.58	1.39	2.69
2016	0.54	0.85	1.90	1.87	3.40	0.67	1.77	2.44
2017	0.65	0.92	1.73	1.88	2.73	0.73	1.86	2.27

- 화학제품 제조업은 미국과 EU, 일본에서 비교열위로 나타났으나 중국, 아세안, 베트남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감소하는 추세이며 대만에 대해서는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

3) 수출경합도 지수(Export Similarity Index, ESI) : 수출품목 구조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수출 구조가 유사할수록 경쟁이 높다는 가정 하에 특정 시장에서 양국 간의 경쟁 정도를 지수화

· ESI지수는 $ESI(j,k) = i \sum \min(X_{ij}, X_{ik})$ 로 산출됨. 단, X_{ij}, X_{ik} 는 국가 j, k 의 총 수출 중 i 상품의 비중

· 0에 가까울수록 양국 간 수출 구조가 상이하여 특정 수입시장 내 양국 간 경쟁이 적으며, 1에 가까울수록 양국 간 수출이 경쟁적임을 나타냄.

- 앞서의 무역특화지수(TSI)와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석을 통해 경기도

의 산업구조 특성으로 인해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수출경합도 지수는 경기도의 주요 수출산업에 대해 경기도의 국가별 수출데이터와 상대국의 수출데이터를 이용해 지수를 산출하였음. 수출경합도 지수는 절대금액이 아닌 상대비율을 통해 산출되므로 수출규모의 절대적 규모가 상이한 경우라도 비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요 수출국에서의 수출경합도를 살펴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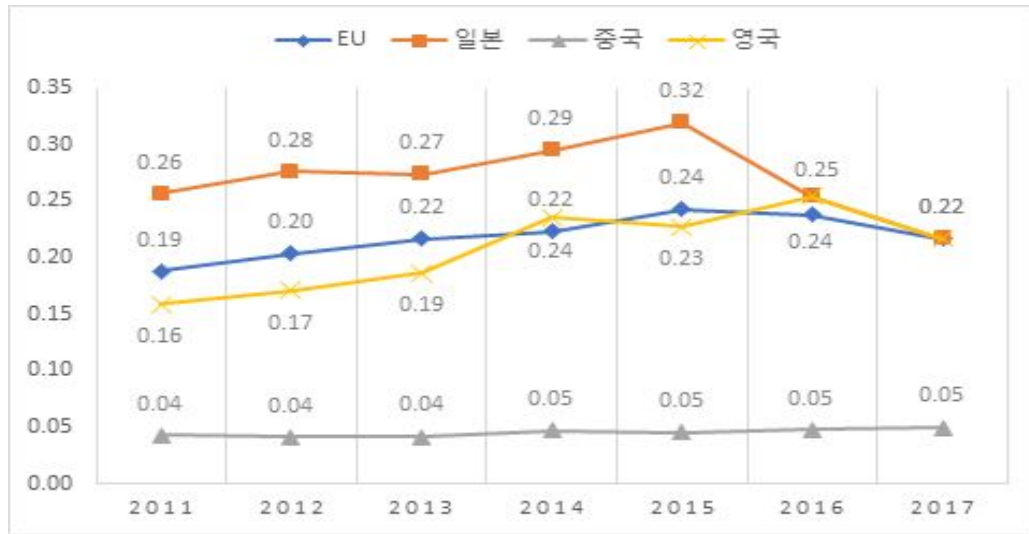
- 본 보고서에는 경기도의 주력 수출산업인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음. 또한 최근 영국의 EU탈퇴(Brexit)에 따른 수출경합도 변경 양상을 확인하고자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EU, 일본, 중국에서 다음과 같이 수출경합도를 산출하였음.

○ 경기도의 주요 교역대상국에서의 경쟁상황을 분석하고자 하며 대상 시장은 다음과 같음.

- 중국시장 경쟁상황 분석: 중국시장에서 경기도의 대일본, 대미국, 대EU, 대영국에 대한 수출경합도 분석
- 미국시장 경쟁상황 분석: 미국시장에서 경기도의 대일본, 대중국, 대EU, 대영국에 대한 수출경합도 분석
- 일본시장 경쟁상황 분석: 일본시장에서 경기도의 대중국, 대미국, 대EU, 대영국에 대한 수출경합도 분석
- EU시장 경쟁상황 분석: EU시장에서 경기도의 대일본, 대미국, 대중국, 대영국에 대한 수출경합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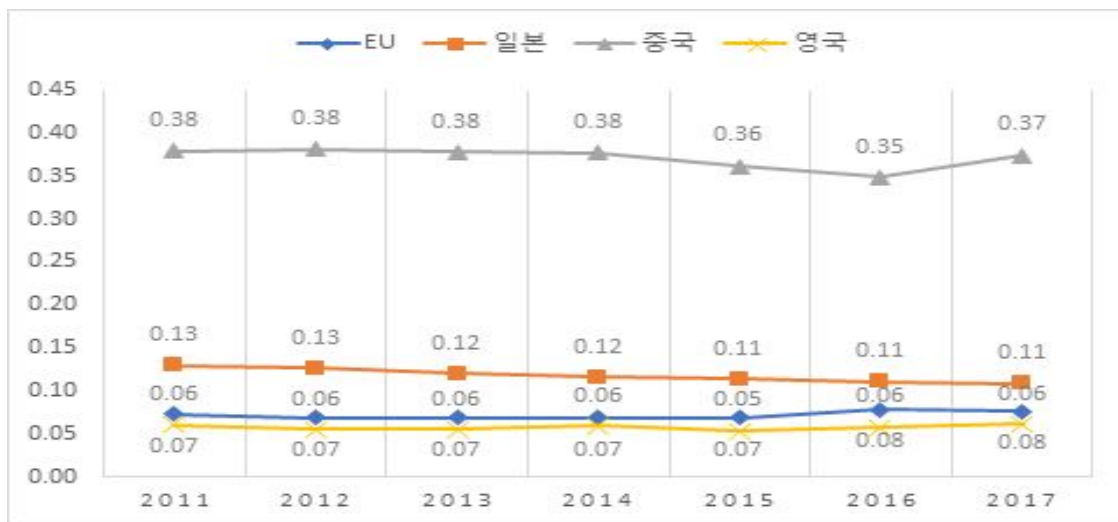
○ 수출경합도 분석결과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미국, EU에서 유의한 특징이 나타났으며 주로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높게 나타남. 반면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의 경우 미국, EU,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중국과의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경합도가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나타냄.

<그림 II-5> 경기도의 대미국시장 운송장비제조업에 대한 수출경합도



-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미국시장에서 EU, 일본, 중국, 영국 등과의 수출경합도 결과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았으나 최근에 그 수치가 감소하여 일본, EU, 영국과의 수출경합도가 거의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 중국은 미국시장에서 경기도와 수출경합을 벌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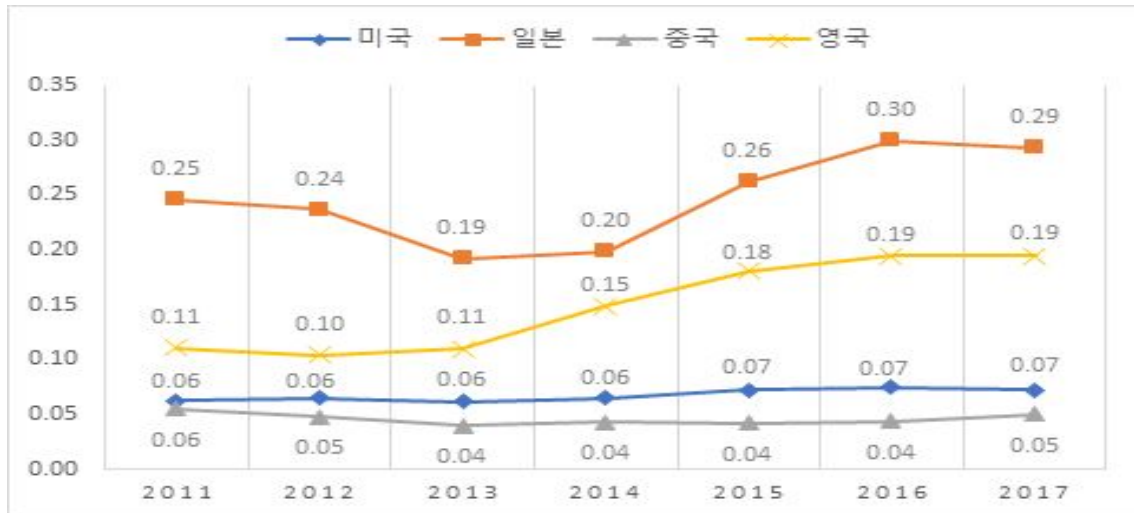
<그림 II-6> 경기도의 대미국시장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에 대한 수출경합도



-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의 경우 미국시장에서 중국과의 수출경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EU, 일본, 영국 등과의 수출경합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됨. 즉 미국시장에서 경기도의 주력 수출산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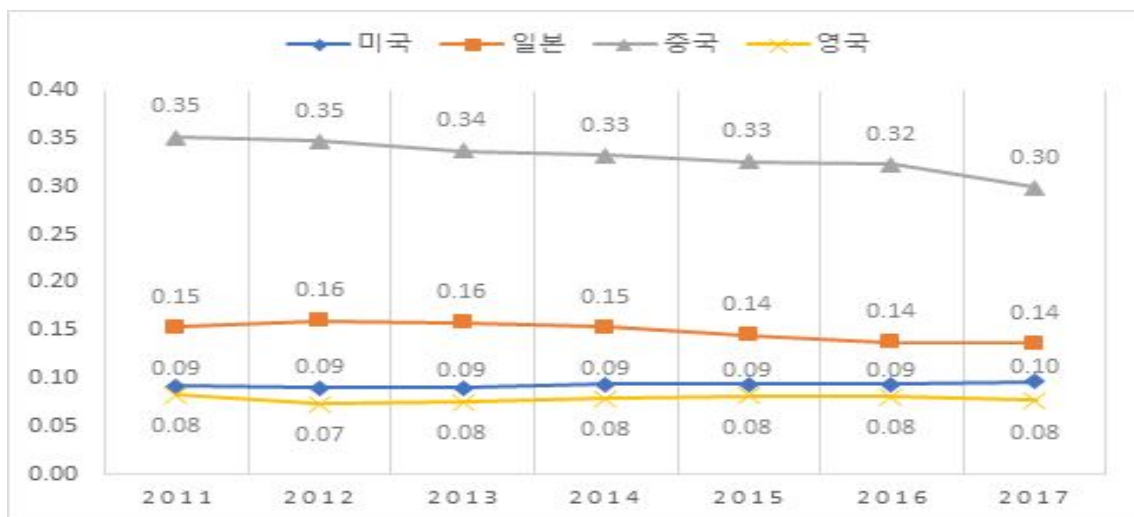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의 경우 중국과의 경합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I-7> 경기도의 대EU시장 운송장비 제조업 수출경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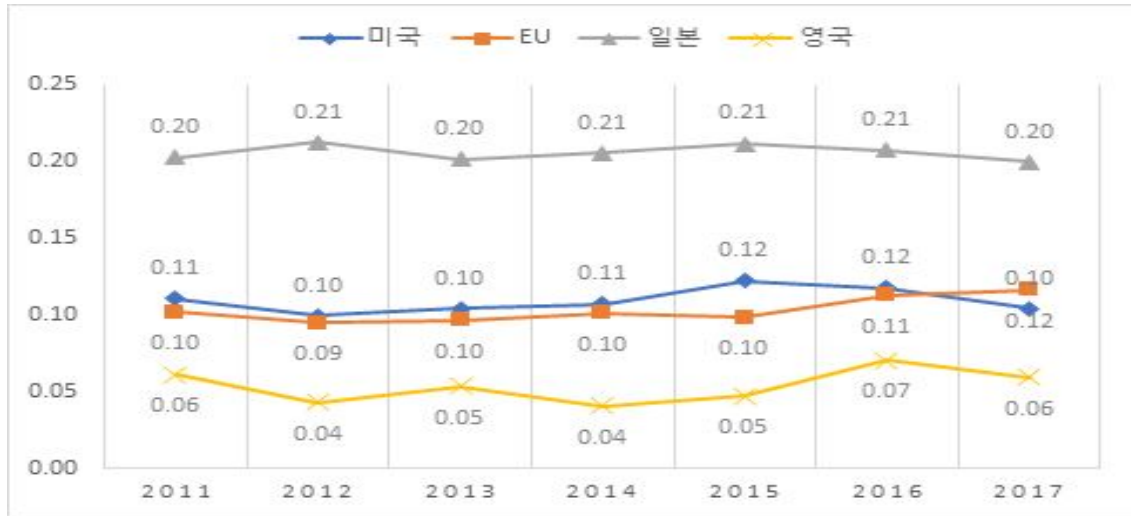
- EU시장에서 운송장비 제조업은 주로 일본과 수출경합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영국과의 경합도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그림 II-8> 경기도의 대EU시장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 수출경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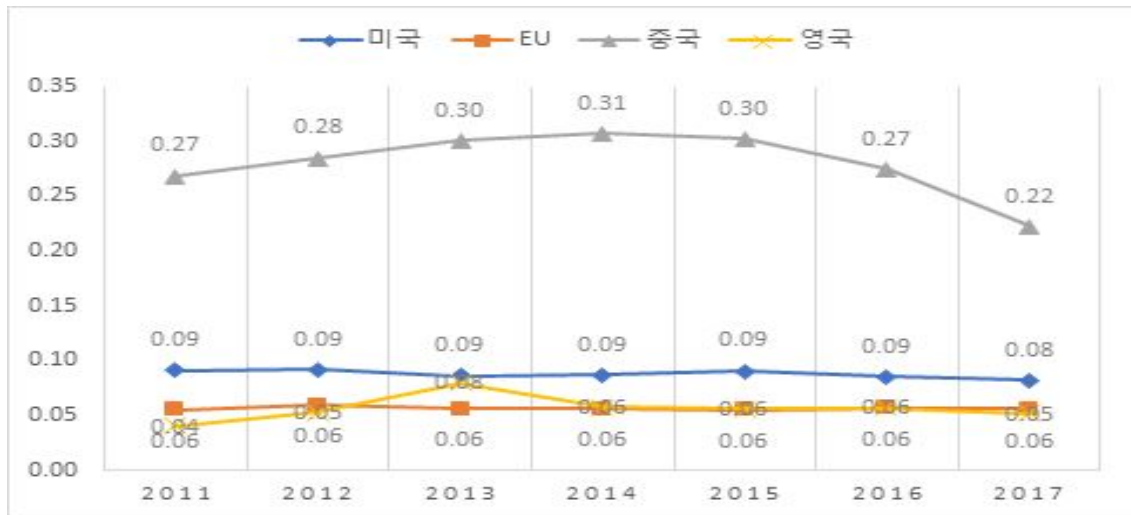
-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의 경우 EU시장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상태이나 최근 수출경합도 수치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 II-9> 경기도의 대중국시장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 수출경합도



- 중국시장에서는 운송장비 제조업의 수출경합도에 유의한 결과를 볼 수 없었음. 단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의 경우 중국시장에서는 일본과의 경합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10> 경기도의 대일본시장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 수출경합도



- 일본시장에서는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업의 수출경합도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중국과의 경합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음.

3. 무역 데이터를 통해 본 경기도에 대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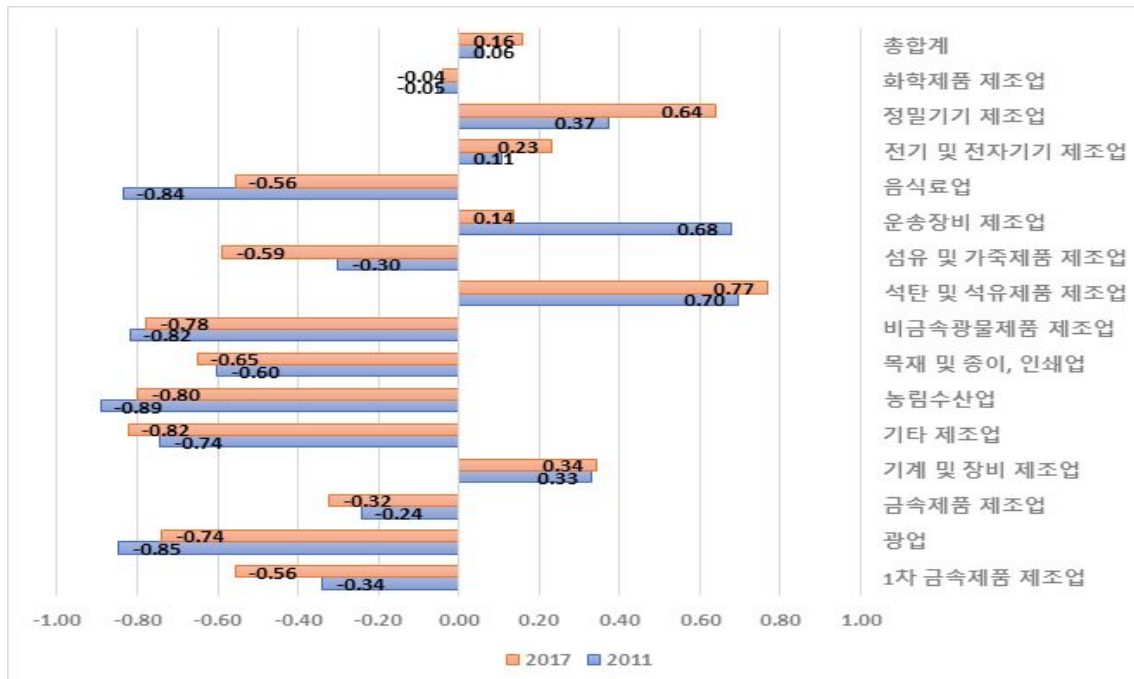
- 본 장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미·중간 통상 분쟁 심화 시 경기도에 대한 영향력 분석,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영향 등 주요 통상환경 변화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음.

가. 중국 편중 현상의 해소와 대응방안 수립

1) 중국 국내정치 불안정과 미중간 갈등 증폭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 경기도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2017년 38%로 미국의 3배 이상으로 편중현상이 심화되어 있음. 2011년-2017년 동안의 중국에 대한 연평균 수출성장율은 9.8%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로 인한 불안전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 미중간 통상갈등으로 인해 중국이 대미 수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중국 현지의 수출형 임가공 외국업체들에 대한 제제가 예상(관세, 부가가치세 환급, 행정명령 등)가 예상됨.
- 이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와 부가가치사슬구조(Value Added Network)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중국에 진출한 경기도 기업들은 수출형 가공전략에서 내수시장 진출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2011년과 2017년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산출결과를 보면 경기도의 주력 수출산업군 보다는 정밀기기 제조업과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의 무역특화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특이점을 찾을 수 있음.

<그림 Ⅱ-11> 경기도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산출결과



2) 중국기업과 자본의 적극적 유치

- 경기도의 주요 수출산업군은 통상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므로 이를 회피할 전략이 필요.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미중 통상갈등 회피는 물론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해 대중국 수출통로로 활용할 수 있음.
- 한국은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중국 기업입장에서는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인간비와 토지, 운영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품질에 대한 신뢰구축, FTA를 활용한 수출확대 등의 이점을 달성할 수 있음.
- 특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용 부품소재를 많이 활용하는 산업이 가능하며 주로 경기도가 강점을 가진 운송장비 제조업과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가전, IT제품 등이 유리함.
- 1980년대 미일 통상갈등으로 인한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한국 제조업은 이를 기회로 삼아 수출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한 역사적 경험이 있음.

3) 새로운 협력분야 발굴을 통한 플랫폼 구축

- 중국시장 선점용으로 새로운 협력 분야(미래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함. 4차 산업혁명에서 한중간 협력 가능한 분야는 스마트제조, 지능형 로봇, 바이오, 신에너지, 친환경, 융복합 소재, IT 등으로 이 중 경기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선별하여 중국과 협력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입장에서는 미중 통상갈등과 브렉시트 등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라는 리스크를 회피하고 시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기술과 노하우 획득 차원에서 양국 모두 이점을 누릴 수 있음.

나. 주요 무역파트너로서 베트남의 중요성 증대

1) 한-베트남 FTA 발효 후 주요 수출국가로서의 베트남의 부상

- 한-베트남 FTA는 '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으나 실질적 원년은 '16년으로 전제
- 우리나라 총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베트남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있어서도 단일국가로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

2)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베트남은 중국보다 높은 수출국가

- 통계청과 관세청이 10월 26일 공동으로 발표한 '기업특성별 무역통계(TEC)로 본 중소기업 수출입 현황'을 보면 2017년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에서 동남아 수출 비중은 28.6%로 중국(21.7%)를 넘어섰으며 특히 베트남에 대한 수출액은 3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품목별로 보면 일반기계(13.2%), 정밀기계(9.3%), 섬유직물(8.9%), 반도체(5.2%), 플라스틱제품(5.0%) 순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베트남으로의 수출 품목 역시 일반기계(18.6%), 섬유직물(11.9%), 정밀기계(10.7%), 플라스틱제품(6.9%)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대베트남 수출액은 앞서 제시했듯이 주요국가 수출액 중 성장률이 가장 높았음. 2011년 17억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은 2017년 무려 116억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CARG)은 37.3%로 나타남.
- 아세안에 대한 경기도의 총 수출액 증가의 절반 이상은 베트남에 대한 수출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음. 2017년 수출액 기준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이 전체 수출액의 48%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 정밀기기 제조업 11%, 화학제품 제조업이 10%의 비중을 차지해 한국 전체의 베트남 수출 산업별 기준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남. 이는 경기도의 주력산업구조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표 II-25> 경기도의 대베트남 산업별 수출구조

(단위: 백만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차 금속제품 제조업	88.6	91.3	128.5	184.1	215.3	193.7	286.4
광업	0.1	0.1	0.3	1.4	2.6	3.3	2.6
금속제품 제조업	48.7	71.4	90.0	97.5	115.4	165.4	225.4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0.8	233.9	459.8	551.1	1,009.5	1,091.5	1,999.0
기타 제조업	17.3	20.2	22.7	28.2	30.7	30.2	27.5
농림수산업	2.4	1.5	3.6	5.1	5.5	7.7	10.6
목재/종이/인쇄업	31.9	36.9	34.9	31.7	39.5	43.0	69.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5	4.8	9.3	11.0	63.3	30.8	47.9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3.3	2.0	3.2	2.4	3.5	4.9	3.9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252.6	291.1	378.7	455.2	535.7	635.2	667.2
운송장비 제조업	118.8	86.4	90.4	155.9	239.8	342.2	206.7
음식료업	14.8	12.2	17.1	20.3	26.1	40.6	43.4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652.3	1,621.1	3,022.4	2,974.5	3,456.3	4,941.1	5,576.4
정밀기기 제조업	73.2	92.6	124.1	155.5	345.9	557.2	1,302.5
화학제품 제조업	248.9	307.8	379.7	505.3	681.1	938.5	1,194.6
총합계	1,737	2,873	4,765	5,179	6,770	9,026	11,663

다. 수출경쟁력 변화에 따른 비즈니스 거점(GBC) 입지 변경

- 1) 수출구조 및 무역지수 분석 결과를 통해 경기도의 수출경쟁력 변화 확인
 - 경기도는 주력 산업인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이 주요 교역국에 대해 모두 증가추세로 최근 멕시코, 메르코수르 등 중남미 지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 2) 멕시코, 메르코수르 등 중남미 국가에 대한 수출 증대 예상

- 멕시코는 2017년 기준 경기도의 8번째로 큰 수출국이며 2019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 흑자 수지로는 중화권(중국, 홍콩), 아세안(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5번째임.
- 현재 메르코수르에 대한 수출총액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의 수출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음. 수출입구조와 무역특화지수로 나타난 메르코수르에 대한 수출경쟁력은 특히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정밀기기 제조업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주요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표 II-26> 경기도의 대메르코수르 무역특화지수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차 금속제품 제조업	0.41	0.27	0.26	0.41	-0.07	0.06	-0.16
광업	-1.00	-0.98	-0.33	-0.97	-0.63	-1.00	-1.00
금속제품 제조업	0.94	0.96	0.98	0.92	0.90	0.83	0.89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97	0.99	0.99	0.99	0.99	0.97	0.97
기타 제조업	0.99	0.99	0.97	0.93	0.90	0.97	0.98
농림수산업	-0.99	-1.00	-1.00	-0.99	-1.00	-0.99	-0.99
목재/종이/인쇄업	-0.58	-0.17	-0.07	0.77	0.32	-0.67	0.0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63	0.42	0.90	0.92	0.70	0.68	0.86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0.99	1.00	1.00	1.00	1.00	1.00	1.00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0.42	0.54	0.33	-0.11	-0.15	0.18	0.48
운송장비 제조업	0.99	0.97	0.98	0.98	0.96	0.92	0.93
음식료업	-0.97	-0.97	-0.97	-0.95	-0.96	-0.97	-0.92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0.97	0.96	0.96	0.98	0.97	0.98	0.97
정밀기기 제조업	1.00	0.99	0.99	0.99	0.99	0.95	0.98
화학제품 제조업	0.80	0.87	0.91	0.81	0.84	0.67	0.62
총합계	0.76	0.53	0.54	0.78	0.61	0.50	0.66

- 인하대학교가 수행한 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 영향 연구에서도 무역협정 체결 시 대메르코수르 수출은 가전제품, 자동차 및 부품 등 경기도의 주력산업 위주로 약 24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⁶²⁾
- 현재 구미주권을 담당하는 GBC 중에 미주지역에는 미국 LA GBC가 유일함. 따라서 멕시코를 포함해 중남미권 수출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남미 지역에 GBC 개설이 필요

62) 한겨레(2018), “중남미 최대시장 메르코수르와 FTA 협상, 14년 사전협의 끝에 본격 착수” (5월 25일자)

3) 홍콩, 대만, 필리핀의 부상과 대응을 위한 GBC 입지 변경

- 홍콩은 경기도의 주력 산업인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단일 산업이 전체 수출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큰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2017년 경기도의 중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128억불이며 홍콩은 두번째로 큰 58억불로 나타남. 이러한 양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대만과는 2011년 이후 평균 33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싱가포르와 네덜란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한국 전체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대부분의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 대만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는 경기도의 주력산업군에서 모두 수입특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함.
- 필리핀은 경기도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에서 베트남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국가에 대한 수출 순위도 5위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수출금액 증가와 무역흑자를 나타냄.

제 Ⅲ부. 주요 교역 대상국의 비관세 수입규제 조치 현황 점검 및 수출입 동향 분석·예측

1. 경기도의 제조업 현황과 특징

- 통계청 조사자료에 따라 경기도의 업종별 종사자 기준으로 사업체 수를 분류해보면, 종사자수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금속, 기계및장비, 전기및전자에 특화되어 있고, 100명 이상의 대기업들은 전기및전자, 화학제품 및 기계및장비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음.

<표 Ⅲ-1> 경기지역 업종별 종사자기준 사업체수

(단위 : 개)

구분	100명 미만	100명 이상
1차금속제품 제조업	2,600	29
광업	100	—
금속제품 제조업	22,390	46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196	141
기타제조업	10,714	21
농림수산업	411	2
목재/종이/인쇄업	9,632	4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440	29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61	—
섬유 및 가죽제품	10,454	39
운송장비 제조업	2,736	111
음식료업	9,745	104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15,861	287
정밀기기 제조업	4,219	51
화학제품 제조업	14,838	195
총계	125,397	1,099

자료 : 통계청

- 경기도의 제조업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전기및전자·기계및장비에 특화
- 중소기업의 27%, 대기업의 39%가 전기및전자·기계및장비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대략 경기도 제조업의 1/3은 전기및전자·기계및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공장등록현황 자료에서도 통계청 조사와 동일한 결과를 도출함.

<표 Ⅲ-2> 경기도 공장등록현황

(단위 : 명, 개)

구분	업종별	공장등록현황	
		종사자 수	사업체 수
1	광업	52	7
2	음식료	73,959	4,175
3	1차금속제품	26,397	1,778
4	금속제품	106,157	10,376
5	기계및장비	151,666	10,861
6	목재/종이/인쇄업	61,772	4,390
7	비금속광물제품	24,763	1,952
8	석탄 및 석유제품	703	40
9	섬유 및 가죽제품	59,497	4,060
10	운송장비	77,318	1,819
11	전기 및 전자기기	355,968	12,606
12	정밀기기	41,429	2,513
13	화학제품	135,500	8,402
14	기타	41,645	4,054
총계		1,156,826	67,033

주: 경기도 공장등록현황에는 농림수산업종이 없어 14개 분야로만 정리
 자료 :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포털

○ 가령, 종사자수와 사업체수 모두 전기및전자(355,968명, 12,606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계 및 장비(151,666명, 10,861개), 화학제품(135,500명, 8,402개), 금속제품(106,157명, 10,376개) 순으로 나타남.

○ 다만, 전기전자와 화학은 경기도 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기계장비 그리고 금속은 경기도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음을 추가로 확인함.

<표 Ⅲ-3> 전기전자, 기계장비 종사자수와 각 시군 내 업종비중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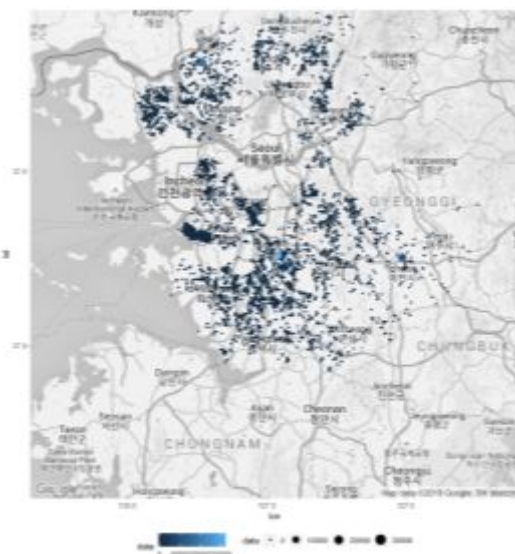
		전기및전자		기계및장비	
		종사자수	각 시군내 비중	종사자수	각 시군내 비중
1	가평	81	6%	158	12%
2	고양	2,850	19%	1,230	8%
3	김포	8,862	13%	12,251	18%
4	남양주	3,670	15%	1,846	7%
5	동두천	572	10%	226	4%
6	시흥	12,501	18%	17,709	26%

7	안산	41,284	33%	15,981	13%
8	안양	15,253	47%	3,435	11%
9	양주	4,040	13%	2,346	8%
10	양평	23	3%	71	8%
11	여주	688	7%	752	8%
12	연천군	95	5%	64	3%
13	의왕	3,058	32%	2,271	23%
14	의정부	796	25%	124	4%
15	이천	19,108	47%	3,528	9%
16	파주	27,741	38%	4,778	7%
17	평택	27,826	33%	7,320	9%
18	포천	3,401	8%	2,406	6%
19	하남	1,114	25%	365	8%
20	화성	47,303	25%	35,596	19%
21	용인	29,269	51%	5,152	9%
22	오산	3,473	35%	1,466	15%
23	안성	6,546	16%	7,445	18%
24	수원	48,194	78%	4,996	8%
25	성남	14,832	35%	2,597	6%
26	부천	16,865	34%	9,464	19%
27	군포	9,936	39%	4,054	16%
28	구리	200	18%	123	11%
29	광주	4,179	15%	3,002	11%
30	광명	2,090	19%	666	6%
31	과천	77	27%	2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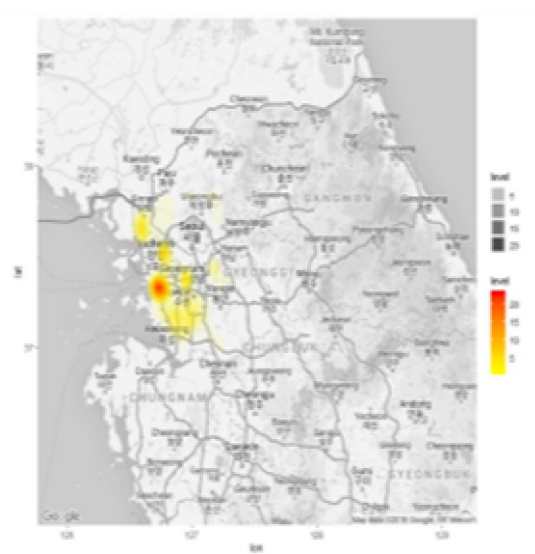
자료 :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포털

<그림 III-1> 경기도 주요업종별 종사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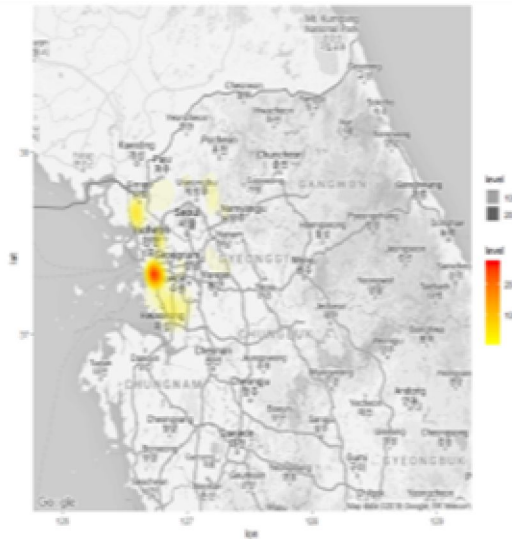
전기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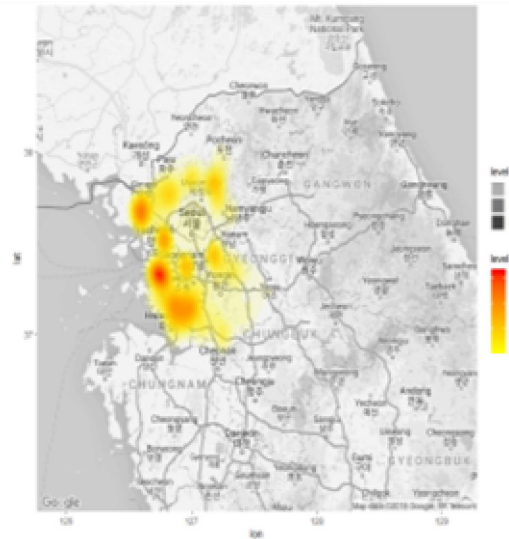
기계장비



금속



화학



2. 국가별 수입규제 조치 현황

가. 무역기술장벽 (TBT)

- 한국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TBT 통보건수는 2011년 1,466건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2,582건까지 증가함. 총누적건수는 14,891건이며, 미국, 브라질, EU 및 중국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4> 주요 교역국가들의 연도별 TBT 통보건수

(단위 : 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전체	1,466	2,173	2,093	2,245	1,996	2,336	2,582	14,891
미국	113	247	263	181	282	441	296	1,823
중국	100	81	92	50	110	35	60	528
EU	2	81	100	85	78	108	100	554
인도네시아	5	34	20	32	17	16	13	137
말레이시아	12	6	4	21	12	9	6	70
필리핀	28	3	13	13	6	3	8	74
태국	37	17	29	11	34	59	34	221
베트남	5	5	16	16	30	20	23	115
일본	27	35	38	28	38	32	36	234
브라질	47	145	93	130	115	128	119	777
아르헨티나	16	27	22	5	24	37	48	179
우루과이	—	—	—	—	5	3	8	16
파라과이	20	16	9	15	7	7	15	89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가령, 2011-2017년까지 누적기준으로 미국이 1,82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브라질 777건, EU 554건 그리고 중국은 528건으로 집계
- 한국과 교역비중이 높은 주요 국가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대한국의 무역기술장벽이 압도적으로 높은 미국은 전기전자(398건), 식의약품(342건), 화학·세라믹(246건) 등의 순으로 누적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됨.
- EU는 화학·세라믹(238건), 식의약품(154건) 등의 순으로, 중국은 교통·안전(86건), 식의약품(84건), 생활용품(6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국, EU 및 중국의 TBT 통보 누적건수를 업종별로 분류하여 합계하면, 이들 3개국의 TBT 통보 누적건수 중 식의약품(580건), 화학·세라믹(534건), 전기전자(498건) 순으로 집계

<표 III-5> 미·중·EU의 연도별 TBT 통보건수 합계

(단위 : 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식의약품	46	96	83	70	73	117	95	580
화학·세라믹	27	75	86	49	90	109	98	534
전기전자	33	61	92	79	92	100	41	498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저자계산

나.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 한국에 대한 전 세계 국가들의 SPS 조치건수는 2011년 915건에서 2017년 1,024건에 달하며, 분석기간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Regular notification의 총 누적건수는 6,748건으로 이 중 식품안전이 4,87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표 Ⅲ-6> 한국에 대한 전세계 연도별 SPS 조치건수(정규 통보문 기준)

(단위 : 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정규 통보문	915	787	860	1057	1169	936	1024	6,748
Food safety	635	512	614	746	929	691	744	4,871
Animal health	108	97	130	114	100	98	139	786
Protect humans	659	518	646	631	68	65	112	2,699
Plant protection	208	199	145	211	175	177	198	1,313
Protect territory	66	61	50	93	82	52	90	494

자료 : 농림축산부 SPS정보관리시스템

- 주요 교역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정규통보문(Regular notification)의 총 누적건수가 846건(식품 안전 693건)에 달하여 주요 국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중국은 703건, 일본 280건 그리고 EU는 241건순으로 집계됨.

<표 Ⅲ-7> 한국에 대한 주요 교역국가들의 연도별 SPS 조치건수

(단위 : 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미국	179	176	119	113	86	107	66	846
중국	161	25	88	67	340	13	9	703
EU	20	32	23	49	31	25	61	241

자료 : 농림축산부 SPS정보관리시스템

다.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

- 수입규제 근거별 규제 및 조사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규제중인 반덤핑건수는 2011년 6건에서 2016년 28건으로 정점에 달하며, 2017년에는 7건이 규제중이나 조사 중인 반덤핑건수가 12건에 달하고, 2018년 상반기에만 8건에 달함.

<표 Ⅲ-8> 근거별 규제 및 조사 건수

	규제 중	조사 중	합계
반덤핑	136	21	157
상계관세	7	2	9
세이프가드	27	9	36
합계	170	32	202

자료: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표 Ⅲ-9> 수입규제 근거별 규제 및 조사 건수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규제중	반덤핑	6	16	16	12	13	28	7	
	상계관세		1			3	1		
	세이프가드	1	1	1	7	5	5	4	
조사중	반덤핑						1	12	8
	상계관세								2
	세이프가드				1	2	2	1	3

자료: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 수입규제 조치건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먼저 규제중인 건수는 미국(24건), 인도(24건), 호주(13건)으로 집계되었고, 조사 중인 건수는 미국(6건), 터키(4건) 그리고 캐나다, 호주, 중국, 인도가 각 3건으로 조사됨.

<표 Ⅲ-10> 국가별 규제 및 조사 건수

규제국	규제 중	조사 중
미국	24	6
캐나다	8	3
EU	4	1
오스트레일리아	13	3
중국	7	3
인도	24	3
태국	6	—
말레이시아	9	—
인도네시아	11	1
브라질	10	1
터키	11	4
기타국가	43	7
합계	170	32

자료: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 업종별로는 철강(규제중 84건, 조사중 9건), 화학(규제중 20건, 조사중 5건), 플라스틱/고무(규제중 19건, 조사중 8건) 순으로 집계되었음.

<표 Ⅲ-11> 업종별 규제 및 조사 건수

구분	품목(HS)	규제 중	조사 중
유기화학품	29	20	5
플라스틱/고무	39, 40	19	8
제지	48	6	1
섬유	54, 55, 56	10	3
철강	72,73	84	9
기계류	84	4	1
전자기기	85	6	—
기타		21	5
합계		170	32

자료: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3. 경기도 수출동향 분석⁶³⁾

가. 1억달러 이상 주력 수출품목 분석

- 경기도 수출품목 중 수출금액 1억달러 이상(HS 6단위 기준)인 품목은 아래와 같음.
 - － 1억달러 이상 품목 수는 총 138개이며, 이들 품목의 총 수출액은 1,014억 달러 수준으로서 이는 경기도 전체 수출의 81.69%에 해당
 - －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제85류(전기기기)에 해당하는 품목이 총 32개로서 가장 많으며, 제84류(기계류)가 31개, 제87류(차량) 15개, 제90류(정밀기기) 14개, 제39류(플라스틱) 10개 순임.

<표 Ⅲ-12> 경기도 1억달러 이상 수출품목

구 분	1억달러 이상(비중)	경기도 전체
수출품목 수 (HS 6단위 기준)	138 (3.23%)	4,271
수출 금액 (백만 불)	101,407 (81.69%)	124,129
주요 수출품목 (HS 2단위 기준)	제85류(32개), 제84류(31개), 제87류(15개), 제90류(제14개), 제39류(10개) 등	—

63) 시군별·수출국별 주요품목 상위 5개만 요약하였으며, 나머지 품목은 <첨부 4> 참조

1) 1억달러 이상(HS 6단위 기준)품목 및 수출금액

○ 최대 수출품목은 전자집적회로(제8542.32호)로서 2017년 총 258억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1억달러 이상 수출품목의 합계 중 25.45%를 차지하는 수준임.

- 이어 액정디바이스(제9013.80호)가 62억달러(6.16%), 기계 부분품과 부속품(제8473.30호)이 61억달러(6.03%), 전화기, 송신용 및 수신용 그 밖의 기기(제8517.70호)가 4.58% 등 전자 및 기계류가 주요 수출 품목임.

<표 Ⅲ-13> 경기도 1억달러 이상 수출품목(상위 50개)

(단위 : 백만 불, %)

	품번	품명	수출액	비중
1	854232	전자집적회로	25,812	25.45
2	901380	액정 디바이스, 레이저기기, 그 밖의 광학기기	6,244	6.16
3	847330	기계 부분품과 부속품	6,118	6.03
4	851770	전화기,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	4,646	4.58
5	852990	전자기기 부분품	3,317	3.27
6	853400	인쇄회로	3,122	3.08
7	851712	전화기,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	2,584	2.55
8	870324	승용자동차	1,922	1.89
9	870323	승용자동차	1,898	1.87
10	848630	반도체 제조용 기기	1,840	1.81
11	854140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1,802	1.78
12	854231	전자집적회로	1,787	1.76
13	870340	승용자동차	1,715	1.69
14	847989	기타의 기계류	1,564	1.54
15	870322	승용자동차	1,485	1.46
16	870332	승용자동차	1,385	1.37
17	870899	차량용 부분품	1,188	1.17
18	848690	반도체 제조용 기기	1,186	1.17
19	854239	전자집적회로	1,124	1.11
20	330499	기초 화장용 제품	934	0.92
21	870321	승용자동차	865	0.85
22	853669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799	0.79
23	847170	자동자료처리기계	781	0.77
24	391990	플라스틱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	702	0.69
25	900120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686	0.68

26	848640	반도체 제조용 기기	683	0.67
27	903180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625	0.62
28	900190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575	0.57
29	853224	축전기	571	0.56
30	903149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569	0.56
31	853890	전자기기 부분품	566	0.56
32	850760	축전지	527	0.52
33	854460	절연전선·케이블	525	0.52
34	848071	금속 구조용 주형틀	493	0.49
35	848620	반도체 제조용 기기	486	0.48
36	853710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467	0.46
37	39269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63	0.46
38	851762	전화기와 기타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	419	0.41
39	740811	구리의 선	380	0.37
40	854449	절연전선·케이블	367	0.36
41	850440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366	0.36
42	870829	차량용 부분품	358	0.35
43	870360	승용자동차	351	0.35
44	843149	기계의 부분품	333	0.33
45	854129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반도체 디바이스	331	0.33
46	732690	철강제의 기타 제품	329	0.32
47	870830	차량용 부분품	319	0.31
48	60041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317	0.31
49	392062	플라스틱제의 기타의 판·시트(sheet)·필름	316	0.31
50	847990	기타의 기계류	310	0.31

2) 시군별 1억달러 이상 수출 주요품목

○ 다음은 경기도 각 시군의 1억달러 이상 주요 수출품목임.

○ 용인, 이천(전자집적회로), 파주, 수원(액정디바이스), 평택, 성남(전화기 등), 안산(인쇄회로), 김포(전자기기의 부분품), 오산, 안성(반도체 제조용 기기) 등 다수의 시군에서 전자 및 관련 기기가 포함됨.

○ 다만 화성과 광명은 1억달러 이상 주요품목에 승용자동차 및 부분품 등이 포함되는 것이 특징

<표 Ⅲ-14> 시군별 1억달러 이상 수출 주요품목(상위5개)

(단위 : 백만 불, %)

지역	품번	품명	수출국	금액	비중
용인	854232	전자집적회로	중국	15,388	77.6
	854232	전자집적회로	필리핀	2,826	14.3
	854140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반도체 디바이스	중국	499	2.5
	854231	전자집적회로	대만	378	1.9
	854232	전자집적회로	대만	281	1.4
이천	854232	전자집적회로	중국	3,562	29.4
	847330	기계의 부분품	미국	2,332	19.3
	854232	전자집적회로	홍콩	1,909	15.8
	847330	기계의 부분품	중국	1,358	11.2
	847330	기계의 부분품	홍콩	1,156	9.6
파주	901380	액정 디바이스	중국	4,194	64.6
	852990	전자기기의 부분품	중국	354	5.5
	854231	전자집적회로	중국	348	5.4
	852990	전자기기의 부분품	멕시코	285	4.4
	852990	전자기기의 부분품	폴란드	235	3.6
평택	851770	전화기,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	중국	1,661	21.1
	851712	전화기,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	미국	1,578	20.0
	851770	전화기,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	베트남	567	7.2
	851770	전화기,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	브라질	418	5.3
	900120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중국	407	5.2
화성	870340	승용자동차	미국	828	17.2
	848630	반도체 제조용 기기	중국	436	9.0
	870899	차량의 부분품	이란	346	7.2
	847989	기타의 기계류	베트남	319	6.6
	870324	승용자동차	미국	229	4.8
안산	853400	인쇄회로	베트남	924	36.5
	853400	인쇄회로	중국	877	34.6
	854140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반도체 디바이스	중국	421	16.6
	854140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반도체 디바이스	홍콩	168	6.6
	853400	인쇄회로	홍콩	139	5.5
수원	901380	액정 디바이스	멕시코	368	15.6
	853224	축전기	중국	264	11.2
	901380	액정 디바이스	베트남	228	9.6
	852990	전자기기의 부분품	베트남	199	8.4

	853224	축전기	필리핀	197	8.3
광명	870324	승용자동차	미국	900	77.3
	870323	승용자동차	미국	152	13.1
	870324	승용자동차	캐나다	111	9.5
	870324	승용자동차	캐나다	111	9.5
김포	852990	전자기기의 부분품	베트남	281	39.5
	330499	기초화장용 제품	중국	246	34.6
	330499	기초화장용 제품	홍콩	183	25.7
성남	851770	전화기,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	베트남	337	60.0
	848640	반도체 제조용 기기	중국	118	21.0
	848630	반도체 제조용 기기	중국	105	18.7
남양주	730629	철강제의 관	미국	230	60.1
	730619	철강제의 관	미국	151	39.4
오산	848690	반도체 제조용 기기	미국	175	57.8
	854150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	중국	127	41.9
고양	711419	금·은 세공품	인디아	257	100.0
부천	854129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	중국	116	100.0
시흥	293499	핵산과 이들의 염	아일랜드	121	99.2
안성	848630	반도체 제조용 기기	중국	149	99.3
안양	740811	구리의 선	필리핀	141	99.3

3) 수출국별 1억달러 이상 수출 주요품목

- 다음은 단일 수출품목 기준 1억달러 이상 품목으로서 수출국별 수출품목과 품명, 수출지역, 금액을 나타낸 것(중국은 상위 5개 품목 한정)임.
- 대부분 제85류의 전자기기를 주로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콩, 필리핀, 인도, 아일랜드, 스페인 등을 제외하고 1억달러 이상 수출품목은 모두 전자기기 또는 컴퓨터, 액정디바이스 등인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 이란, 인도, 말레이시아, 영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일본, 스페인은 1억달러 이상 수출품목이 단일 품목임.
- 중국, 홍콩, 필리핀, 폴란드, 캐나다 등은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비중이

50%를 초과하여 단일 품목에의 집중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표 III-15> 수출국별 1억달러 이상 수출 주요품목(상위 5개)

(단위 : 백만 불, %)

수출국	품번	품명	지역	금액	비중
중국	854232	전자집적회로	용인	15,388	45.5
	901380	액정 디바이스	파주	4,194	12.4
	854232	전자집적회로	이천	3,562	10.5
	851770	스마트폰부품	평택	1,661	4.9
	847330	컴퓨터부분품	이천	1,358	4.0
홍콩	854232	전자집적회로	이천	1,909	51.8
	847330	컴퓨터부분품	이천	1,156	31.4
	330499	기타 화장품품	김포	183	5.0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LED)	안산	168	4.6
	853400	인쇄회로	안산	139	3.8
미국	847330	컴퓨터부분품	이천	2,332	30.2
	851712	스마트폰	평택	1,578	20.4
	870324	승용차(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광명	900	11.7
	870340	그 밖의 차량	화성	828	10.7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평택	361	4.7
베트남	853400	인쇄회로	안산	924	19.6
	851770	스마트폰 부품	평택	567	12.0
	852990	기타 전기기기 부분품	평택	393	8.3
	851770	스마트폰 부품	성남	337	7.1
	847989	기타기계	화성	319	6.8
필리핀	854232	전자집적회로	용인	2,826	84.1
	853224	(축전기)세라믹유전체의 것	수원	197	5.9
	854232	전자집적회로	평택	196	5.8
	740811	구리의 선(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안양	141	4.2
대만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용인	378	35.3
	854232	전자집적회로	용인	281	26.3
멕시코	901380	액정 디바이스	수원	368	36.9
	852990	기타 전기기기 부분품	파주	285	28.6
	901380	액정 디바이스	파주	216	21.7
	854232	전자집적회로	수원	127	12.8
독일	847330	컴퓨터부분품	이천	617	100.0

러시아	870323	승용차(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 3,000cc 이하인 것)	화성	219	43.5
	870899	차량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화성	182	36.1
	870332	승용차(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 2,500cc 이하인 것)	화성	103	20.4
폴란드	852990	기타 전기기기 부분품	파주	235	52.5
	901380	액정 디바이스	파주	213	47.5
브라질	851770	스마트폰 부품	평택	418	100.0
이란	870899	차량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화성	346	100.0
캐나다	851712	스마트폰	평택	201	64.4
	870324	승용차(실린더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것)	평택	111	35.6
사우디	870323	승용차(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 3,000cc 이하인 것)	화성	152	53.1
	870324	승용차(실린더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것)	화성	134	46.9
인도	711419	기타 귀금속	고양	257	100.0
슬로바키아	901380	액정 디바이스	수원	150	59.1
	852990	기타 전기기기 부분품	수원	104	40.9
말레이시아	854239	기타 전자집적회로	파주	152	100.0
영국	870332	승용차(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 2,500cc 이하인 것)	화성	129	100.0
아일랜드	293499	기타 핵산과 이들의 염	시흥	121	100.0
이스라엘	870340	그 밖의 차량	화성	107	100.0
네덜란드	848690	반도체장비 부분품	화성	103	100.0
일본	854232	전자집적회로	이천	102	100.0
스페인	870340	그 밖의 차량	화성	101	100.0

나. 1천만달러 이상 주력 수출품목 분석

○ 경기도 수출품목 중 수출금액 1천만달러 이상(HS 6단위 기준)인 품목은 아래와 같음.

- 1천만달러 이상 품목 수는 총 605개이며, 이들 품목의 총 수출액은 185억 달러 수준으로서 이는 경기도 전체 수출의 14.93%에 해당
-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제84류(기계)에 해당하는 품목이 총 112개로서 가장 많으며, 제85류(전기기기)가 86개, 제39류(플라스틱) 46개, 제90류(정밀기기) 41개, 제73류(철강제품) 23개 순임.

- 1억달러 이상 품목에 비하여 자동차 품목 수는 줄고, 플라스틱 및 철강제품의 수가 증가한 것이 차이점임.

<표 Ⅲ-16> 경기도 1천만달러 이상 수출품목

구 분	1천만달러 이상(비중)	경기도 전체
수출품목 수 (HS 6단위 기준)	605 (14.17%)	4,271
수출 금액 (백만 불)	18,528 (14.93%)	124,129
주요 수출품목 (HS 2단위 기준)	제84류(112개), 제85류(86개), 제39류(46개), 제90류(41개), 제73류(23개) 등	—

1) 1천만달러 이상(HS 6단위 기준)품목 및 수출금액

- 아래는 경기도 수출품목 중 수출금액 1천만달러 이상(HS 6단위 기준)인 품목의 상위 50개 리스트임.
 - 최대 수출품목은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제3002.20호)로서 2017년 총 9천 9백만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1천만달러 이상 수출품목의 합계 중 0.54%를 차지하는 수준
 - 이어 환식탄화수소(제2902.43호), 알루미늄의 박(제7607.11호), 엔진용 부분품(제8409.99호)이 뒤를 이었으며, 비중은 모두 유사한 수준임. 이는 1천만달러 이상 1억달러 미만인 품목의 수가 다수인 관계로 개별 품목의 비중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Ⅲ-17> 경기도 1천만달러 이상 수출품목(상위 50개)

(단위 : 천불, %)

No	품번	품명	수출액	비중
1	300220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	99,689	0.54
2	290243	환식탄화수소	99,560	0.54
3	760711	알루미늄의 박(箔)	98,170	0.53
4	840999	엔진용 부분품	98,132	0.53
5	841590	공기조절기	97,632	0.53
6	847710	고무·플라스틱 제조기계	97,382	0.53
7	848190	탭·코크·밸브	96,555	0.52
8	700490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	95,770	0.52

9	853590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94,576	0.51
10	390730	폴리에테르, 에폭시수지, 폴리에스테르	92,852	0.50
11	392330	플라스틱 용기	91,969	0.50
12	330420	기초화장용 제품	90,206	0.49
13	540761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89,221	0.48
14	392329	플라스틱 용기	89,062	0.48
15	321519	잉크	88,648	0.48
16	600192	파일(pile) 편물	88,389	0.48
17	320416	합성 유기착색제	87,837	0.47
18	854470	절연전선·케이블	84,977	0.46
19	390740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에스테르	81,197	0.44
20	842240	접시세척기	80,605	0.44
21	294190	향생물질	80,588	0.43
22	847981	기타의 기계류	79,787	0.43
23	680421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79,783	0.43
24	730511	철강제의 관	79,696	0.43
25	271019	석유와 역청유	79,567	0.43
26	854110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	79,167	0.43
27	390950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	78,859	0.43
28	902129	정형외과용 기기	78,605	0.42
29	902190	정형외과용 기기	76,436	0.41
30	850110	전동기와 발전기	75,638	0.41
31	350691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	75,017	0.40
32	854190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	74,010	0.40
33	852290	전자기기의 부분품	73,947	0.40
34	600622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72,831	0.39
35	930690	군수품	72,554	0.39
36	850300	전자기기의 부분품	72,521	0.39
37	401699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	72,517	0.39
38	903289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72,062	0.39
39	761510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	72,040	0.39
40	392043	플라스틱제의 판·시트(sheet)·필름	71,559	0.39
41	844399	인쇄기 및 부분품	70,987	0.38
42	821220	면도기와 면도날	70,783	0.38
43	902214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70,421	0.38
44	392020	플라스틱제의 기타의 판·시트(sheet)·필름	70,225	0.38
45	381400	유기혼합용제와 시너	69,726	0.37
46	6309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69,422	0.37
47	350610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	69,352	0.37
48	853120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	68,617	0.37
49	190590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68,200	0.37
50	841490	기체펌프나 진공펌프	68,177	0.37

2) 시군별 1천만달러 이상 수출 주요품목

○ 다음은 경기도 각 시군의 1천만달러 이상 주요 수출품목임.

○ 용인, 이천, 파주, 성남(전자집적회로), 파주(액정디바이스), 수원, 성남(전자기기의 부분품) 그리고 화성, 광명(승용자동차) 등이 주요 수출품목으로서 1억달러 이상 수출품목과 유사

○ 다만, 파주(유리제품), 평택, 안산(화학조제품), 고양(금 및 세공품) 등 주요 수출품목이 다변화된 시군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8> 시군별 1천만달러 이상 수출 주요품목(상위5개)

(단위 : 천불, %)

지역	품번	품명	수출국	금액	비중
용인	854239	전자집적회로	홍콩	88,217	5.6
	710813	금	대만	53,775	3.4
	854239	전자집적회로	오스트리아	53,764	3.4
	848690	반도체 제조용 기기	중국	45,266	2.9
	903082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중국	43,548	2.8
이천	854232	전자집적회로	베트남	94,278	9.6
	854232	전자집적회로	미국	81,242	8.3
	847170	자동자료처리기기	미국	81,125	8.2
	847330	기계의 부분품	싱가포르	80,620	8.2
	847330	기계의 부분품	일본	63,355	6.4
파주	901380	액정 디바이스	브라질	77,591	6.6
	854239	전자집적회로	독일	72,999	6.2
	700490	인상법과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	대만	69,131	5.9
	852990	전자기기의 부분품	말레이시아	64,280	5.5
	901380	액정디바이스	인도네시아	61,835	5.2
평택	851770	전화기와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	아르헨티나	97,709	2.6
	370790	사진용 화학조제품	중국	90,366	2.4
	848630	반도체 제조용 기기	중국	85,383	2.3
	870421	화물자동차	칠레	77,943	2.1
	843149	기계의 부분품	미국	77,521	2.1
화성	870332	승용자동차	호주	99,932	1.6
	848690	반도체 제조용 기기	중국	97,421	1.5
	870332	승용자동차	독일	96,214	1.5

	870322	승용자동차	이스라엘	94,259	1.5
	853890	전자기기의 부분품	중국	94,113	1.5
안산	293339	질소 헤테로고리 화합물	아일랜드	71,904	2.9
	851770	전화기와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	베트남	71,382	2.9
	940190	의자	러시아연방	69,306	2.8
	410792	소나 마속동물의 가족	홍콩	69,004	2.8
	853669	전기회로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베트남	68,066	2.8
수원	852990	전자기기의 부분품	멕시코	94,270	2.9
	852990	전자기기의 부분품	중국	92,633	2.9
	853400	인쇄회로	베트남	88,862	2.7
	841899	냉장고·냉동고	멕시코	86,594	2.7
	845611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	베트남	80,359	2.5
광명	870324	승용자동차	호주	89,045	6.1
	870322	승용자동차	독일	87,039	6.0
	870210	10인 이상 수송용 자동차	호주	69,992	4.8
	870322	승용자동차	호주	66,942	4.6
	870321	승용자동차	독일	62,205	4.3
김포	890190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	중국	97,761	8.0
	847989	기타의 기계류	중국	65,268	5.4
	854239	전자집적회로	베트남	51,525	4.2
	841869	냉장고·냉동고	일본	37,551	3.1
	903190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중국	34,995	2.9
성남	853890	전자기기의 부분품	중국	86,383	3.9
	854231	전자집적회로	베트남	75,176	3.4
	854231	전자집적회로	홍콩	72,603	3.2
	854231	전자집적회로	중국	67,236	3.0
	847160	자동자료처리기기	이라크	60,585	2.7
남양주	730512	철강제의 관	미국	36,554	19.2
	730511	철강제의 관	미국	31,719	16.7
	730640	철강제의 관	미국	31,334	16.5
	730511	철강제의 관	캐나다	23,187	12.2
	730630	철강제의 관	홍콩	15,695	8.2
오산	848690	반도체 제조용 기기	일본	69,518	17.6
	848690	반도체 제조용 기기	싱가포르	51,158	13.0
	848640	반도체 제조용 기기	싱가포르	49,826	12.6
	848630	반도체 제조용 기기	중국	44,350	11.2
	848640	반도체 제조용 기기	미국	30,589	7.8
고양	903090	전기적 양의 측정용·검사용 기기	중국	34,195	24.0

	711319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	인디아	24,147	17.0
	710813	금	UAE	19,263	13.5
	853120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	홍콩	15,874	11.2
	711419	금·은 세공품	UAE	14,643	10.3
부천	854129	다이오드·트랜지스터, 유사반도체	필리핀	80,975	14.5
	854121	다이오드·트랜지스터, 유사반도체	중국	64,896	11.6
	851770	전화기와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	베트남	47,184	8.4
	848071	금속 구조용 주형틀	일본	40,098	7.2
	842720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미국	39,008	7.0
시흥	847989	기타의 기계류	중국	97,224	7.3
	870899	차량의 부분품	미국	96,076	7.2
	740721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중국	72,314	5.4
	853400	인쇄회로	미국	56,422	4.2
	841480	기체펌프나 진공펌프	일본	54,714	4.1
안성	853400	인쇄회로	베트남	93,362	22.5
	847989	기타의 기계류	중국	61,306	14.8
	853400	인쇄회로	홍콩	49,898	12.0
	681599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	미국	36,134	8.7
	853400	인쇄회로	중국	25,698	6.2
안양	854460	절연전선·케이블	사우디아라비아	98,712	5.7
	903180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베트남	77,520	4.4
	740819	구리의 선	필리핀	70,943	4.1
	740811	구리의 선	베트남	62,974	3.6
	845611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	베트남	61,551	3.5

3) 수출국별 1천만달러 이상 수출 주요품목

- 다음은 경기도 1천만달러 이상 품목 수출국으로서, 상위 10대 수출국에 대한 수출품목 현황임.
-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며 주로 선박, 반도체 제조기기, 기계류, 전자기기 부분품 등을 수출함.
- 두 번째 주요 수출국은 베트남으로서 전자집적회로와 인쇄회로, 공작기계 등을 주로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독일(승용자동차), 대만(유리, 금), 필리핀(안료, 구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로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Ⅲ-19> 수출국별 1천만달러 이상 수출 주요품목(상위 5개)

(단위 : 천불, %)

수출국	품번	품명	지역	금액	비중
중국	890190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	김포시	97,761	1.31
	848690	반도체 제조용 기기	화성시	97,421	1.31
	847989	기타의 기계류	시흥시	97,224	1.31
	853890	전자기기의 부분품	화성시	94,113	1.27
	852990	전자기기의 부분품	수원시	92,633	1.25
베트남	854232	전자집적회로	이천시	94,278	2.62
	853400	인쇄회로	안성시	93,362	2.60
	853400	인쇄회로	수원시	88,862	2.47
	845611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	수원시	80,359	2.24
	903180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안양시	77,520	2.16
미국	870899	차량용 부분품	시흥시	96,076	3.30
	854232	전자집적회로	이천시	81,242	2.79
	847170	자동자료처리기기	이천시	81,125	2.78
	843149	기계의 부분품	평택시	77,521	2.66
	848690	반도체 제조용 기기	화성시	64,918	2.23
일본	940190	의자	화성시	74,606	3.99
	848690	반도체 제조용 기기	오산시	69,518	3.72
	851712	전화기와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	평택시	63,410	3.40
	847330	기계의 부분품	이천시	63,355	3.39
	841480	기계펌프나 진공펌프	시흥시	54,714	2.93
홍콩	854239	전자집적회로	용인시	88,217	6.19
	851712	전화기와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	평택시	76,170	5.34
	852351	기록용 기타 매체	화성시	74,237	5.21
	854231	전자집적회로	성남시	72,603	5.09
	410792	소나 마속동물의 가족	안산시	69,004	4.84
독일	870332	승용자동차	화성시	96,214	10.98
	870322	승용자동차	광명시	87,039	9.94
	870340	승용자동차	화성시	77,787	8.88
	854239	전자집적회로	파주시	72,999	8.33
	870321	승용자동차	광명시	62,205	7.10
대만	700490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파주시	69,131	8.53

		제조한 유리			
	848640	반도체 제조용 기기	성남시	55,344	6.83
	710813	금	용인시	53,775	6.63
	847330	기계의 부분품	이천시	50,723	6.26
	848690	반도체 제조용 기기	화성시	43,509	5.37
멕시코	852990	전자기기의 부분품	수원시	94,270	14.58
	841899	냉장고·냉동고	수원시	86,594	13.39
	851712	전화기와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	평택시	40,243	6.22
	870840	차량용 부분품	화성시	39,998	6.18
	740819	구리의 선	안양시	37,365	5.78
필리핀	854129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	부천시	80,975	13.90
	320730	조제 안료	수원시	77,835	13.36
	740819	구리의 선	안양시	70,943	12.18
	740811	구리의 선	화성시	40,810	7.01
	847989	기타의 기계류	수원시	31,601	5.43
브라질	901380	액정디바이스	파주시	77,591	14.91
	901380	액정디바이스	수원시	68,767	13.21
	852990	전자기기의 부분품	수원시	54,546	10.48
	300220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	용인시	40,200	7.72
	852990	전자기기의 부분품	평택시	37,603	7.22

다. 1백만달러 이상 주력 수출품목 분석(1천만달러 미만)

- 경기도 수출품목 중 수출금액 1백만달러 이상(HS 6단위 기준)인 품목은 아래와 같음.
- 1백만달러 이상 품목 수는 총 1,022개이며, 이들 품목의 총 수출액은 37억달러 수준으로서 이는 경기도 전체 수출의 3.00%에 해당
 -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제84류(기계)에 해당하는 품목이 총 172개로서 가장 많으며, 제85류(전기기기)가 66개, 제29류(유기화학제품) 48개, 제73류(철강제품) 44개, 제72류(철강) 43개 순임.
 - 1백만달러 이상 수출품목의 수는 1,022개(HS 6단위 기준), 총 37억달러로 금액은 적으며 품목의 수가 많은 것이 특징

<표 Ⅲ-20> 경기도 1백만달러 이상 수출품목

구 분	1백만달러 이상(비중)	경기도 전체
수출품목 수 (HS 6단위 기준)	1,022 (23.93%)	4,271
수출 금액 (백만 불)	3,729 (3.00%)	124,129
주요 수출품목 (HS 2단위 기준)	제84류(172개), 제85류(66개), 제29류(48개), 제73류(44개), 제72류(43개) 등	—

1) 1백만달러 이상(HS 6단위 기준)품목 및 수출금액

- 아래는 경기도 수출품목 중 수출금액 1백만달러 이상(HS 6단위 기준)인 품목의 상위 50개 리스트임.
- － 최대 수출품목은 볼펜(제9608.20호)으로 2017년 총 9백9십만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1백만달러 이상 수출품목의 합계 중 0.27%를 차지하는 수준

<표 Ⅲ-21> 경기도 1백만달러 이상 수출품목(상위 50개)

(단위 : 천불, %)

No	품번	품명	금액	비중
1	960820	볼펜	9,964	0.27
2	853090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	9,928	0.27
3	390319	스티렌의 중합체	9,917	0.27
4	820299	수동식 톱, 각종 톱날	9,906	0.27
5	83099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캡·뚜껑	9,883	0.27
6	730519	철강제의 관	9,875	0.26
7	844190	그 밖의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가공기계	9,862	0.26
8	848020	금속 구조용 주형틀	9,835	0.26
9	843850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	9,790	0.26
10	700719	안전유리	9,787	0.26
11	851190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	9,742	0.26
12	282550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과산화물	9,698	0.26
13	841239	그 밖의 엔진과 모터	9,696	0.26
14	850152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9,656	0.26

15	740990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	9,650	0.26
16	950790	납싯대·납싯바늘과 그 밖의 납시용구	9,595	0.26
17	720429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9,521	0.26
18	846620	기계의 부분품	9,521	0.26
19	72209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9,493	0.25
20	841920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9,461	0.25
21	841221	그 밖의 엔진과 모터	9,449	0.25
22	540247	합성필라멘트사	9,418	0.25
23	411200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	9,417	0.25
24	851981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9,407	0.25
25	291570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9,390	0.25
26	844820	인쇄용 기기	9,387	0.25
27	330300	향수와 화장수	9,338	0.25
28	480257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	9,335	0.25
29	420232	트렁크·슈트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9,296	0.25
30	292119	아민관능화합물	9,284	0.25
31	880330	항공기의 부분품	9,252	0.25
32	900390	안경·고글	9,243	0.25
33	261400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9,230	0.25
34	846390	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공용 공작기계	9,225	0.25
35	841350	액체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9,213	0.25
36	480419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	9,179	0.25
37	640399	신발류	9,145	0.25
38	320710	조제 안료	9,116	0.24
39	292700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아족시화합물	9,092	0.24
40	870810	차량용 부분품	9,079	0.24
41	820760	수공구용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	9,069	0.24
42	846691	기계의 부분품	9,048	0.24
43	210410	수프·브로드 및 조제품	9,040	0.24
44	72103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9,004	0.24
45	940320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8,874	0.24
46	630293	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일렛린넨	8,842	0.24
47	300630	의료용품	8,836	0.24
48	391190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	8,789	0.24
49	760611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	8,783	0.23
50	90192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8,750	0.23

2) 시군별 1백만달러 이상 수출 주요품목

- 다음은 경기도 각 시군의 1백만달러 이상 주요 수출품목임.
- 화성, 광명(승용자동차)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군에서 주요 수출품목이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천, 파주, 화성, 오산, 부천(기계류의 부분품)에서는 완성품 이외의 부분품 수출도 포함되어 있음.
- 이외에도 용인(면역혈청), 평택(기체펌프), 안산(살충제), 김포(냉동어류), 안성(광택제) 등 1억달러 이상 수출품목과는 다른 다양한 수출품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22> 시군별 1백만달러 이상 수출 주요품목(상위5개)

(단위 : 천불, %)

지역	품번	품명	수출국	금액	비중
용인	842139	원심분리기	중국	9,827	0.72
	940599	램프·조명기구	멕시코	9,677	0.71
	300220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	에쿠아도르	9,624	0.71
	382499	조제 점결제	중국	9,485	0.70
	903090	전기적 양의 측정용·검사용 기기	대만	9,424	0.69
이천	220600	그 밖의 발효주	일본	9,786	2.55
	841410	기체펌프나 진공펌프	중국	9,702	2.53
	847330	기계의 부분품	인디아	8,099	2.11
	854231	전자집적회로	말레이시아	6,780	1.77
	370500	사진플레이트와 필름	미국	6,349	1.66
파주	852990	전자기기의 부분품	미국	9,765	1.39
	842121	원심분리기	말레이시아	9,288	1.32
	901380	액정디바이스	인디아	9,132	1.30
	321511	잉크	베트남	9,093	1.29
	854239	전자집적회로	홍콩	8,933	1.27
평택	841480	기체펌프나 진공펌프	태국	9,855	0.52
	284290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	중국	9,752	0.52
	382440	조제 점결제	인디아	9,712	0.52
	720421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대만	9,686	0.51

	841911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	캐나다	9,399	0.50
화성	847330	기계의 부분품	대만	9,985	0.29
	842839	권양·취급·적하·양하용 기계류	중국	9,969	0.29
	870332	승용자동차	아르헨티나	9,883	0.29
	550320	합성스테이플섬유	미국	9,859	0.29
	848620	반도체 제조용 기기	일본	9,807	0.29
안산	380891	살충제·살서제(취약)·살균제	일본	9,927	0.36
	731815	철강제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	인디아	9,746	0.36
	820730	수공구용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	인디아	9,694	0.36
	392099	플라스틱제의 판·시트(sheet)·필름	베트남	9,668	0.35
	848180	탭·코크·밸브	미국	9,624	0.35
수원	854239	전자집적회로	중국	9,938	0.71
	841590	공기조절기	중국	9,931	0.71
	903090	전기적 양의 측정용·검사용 기기	중국	9,792	0.70
	84509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	폴란드	9,774	0.70
	850490	변압기	중국	9,725	0.70
광명	870322	승용자동차	칠레	9,710	2.15
	870331	승용자동차	터키	9,611	2.13
	870322	승용자동차	포르투갈	9,608	2.13
	870332	승용자동차	중국	9,558	2.12
	870321	승용자동차	벨기에	9,472	2.10
김포	030339	냉동어류	중국	9,982	0.62
	330499	기초화장용 제품	싱가포르	9,545	0.59
	842833	권양·취급·적하·양하용 기계류	멕시코	9,203	0.57
	970300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	미국	9,073	0.56
	848690	반도체 제조용 기기	대만	9,060	0.56
성남	392099	플라스틱제의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	일본	9,923	0.61
	851770	전화기와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	인디아	9,891	0.60
	710812	금	UAE	9,889	0.60
	854140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	중국	9,706	0.59
	903090	전기적 양의 측정용·검사용 기기	중국	9,370	0.57
남양주	330510	두발용 제품류	중국	9,603	3.97
	330499	기초화장용 제품	중국	8,397	3.47
	730630	철강제의 판	미국	8,116	3.35
	730519	철강제의 판	미국	6,487	2.68
	847150	자동자료처리기기	싱가포르	6,326	2.61

오산	851770	전화기와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	베트남	9,561	3.04
	590320	플라스틱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중국	9,237	2.94
	870894	차량용 부분품	중국	8,509	2.71
	844332	인쇄기 · 복사기 · 팩시밀리	러시아연방	8,396	2.67
	84229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중국	7,984	2.54
고양	900120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중국	9,628	3.50
	851770	전화기와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	베트남	9,463	3.44
	870899	차량용 부분품	러시아연방	9,070	3.30
	901890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 기기	일본	8,798	3.20
	330499	기초화장용 제품	중국	8,768	3.19
부천	852580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일본	9,624	1.27
	330499	기초화장용 제품	홍콩	9,505	1.25
	852990	전자기기의 부분품	일본	9,236	1.21
	841480	기체펌프나 진공펌프	미국	9,080	1.19
	843120	기계의 부분품	미국	8,230	1.08
시흥	330420	기초화장용 제품	미국	9,779	0.65
	391990	플라스틱 접착성 판 · 시트(sheet) · 필름	중국	9,660	0.64
	740721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베트남	9,610	0.64
	846210	단조(鍛造)용 · 해머링(hammering)용 · 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	중국	9,398	0.62
	847989	기타의 기계류	인디아	9,034	0.60
안성	340540	광택제와 크림	중국	9,974	1.62
	848690	반도체 제조용 기기	미국	9,316	1.51
	392310	플라스틱 용기	미국	8,990	1.46
	300630	의료용품	태국	8,821	1.43
	340540	광택제와 크림	미국	8,439	1.37
안양	820770	수공구용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	프랑스	9,809	0.72
	853669	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 기기	홍콩	9,565	0.70
	850440	변압기	네덜란드	9,506	0.70
	854442	절연전선 · 케이블	베트남	9,430	0.69
	902290	엑스선, 알파선 · 베타선 · 감마선 기기	벨기에	9,383	0.69

3) 수출국별 1백만달러 이상 수출 주요품목

○ 1백만달러 이상 최대 수출국가는 중국이며, 이어 미국, 베트남, 일본 등으로 나타남.

○ 1천만달러 품목에 비하여 수출품목의 다양성이 증가하였는데, 냉동어류(중국), 스테이플 섬유(미국), 살충제(일본), 화장품(홍콩), 램프(멕시코) 등 전자기기 이외의 다양한 제품이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23> 수출국별 1백만달러 이상 수출 주요품목(상위 5개)

(단위 : 천불, %)

수출국	품번	품명	지역	금액	비중
중국	030339	냉동어류	김포시	9,982	0.23
	340540	광택제와 크림	안성시	9,974	0.23
	842839	권양·취급·적하·양하용 기계류	화성시	9,969	0.23
	854239	전자집적회로	수원시	9,938	0.23
	841590	공기조절기	수원시	9,931	0.23
미국	550320	합성스테이플섬유	화성시	9,859	0.39
	330420	기초화장용 제품	시흥시	9,779	0.39
	852990	전자기기의 부분품	과주시	9,765	0.38
	540761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정부시	9,719	0.38
	848180	탭·코크·밸브	안산시	9,624	0.38
베트남	392099	플라스틱 판·시트(sheet)·필름	안산시	9,668	0.41
	740721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시흥시	9,610	0.40
	851770	전화기와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	오산시	9,561	0.40
	851770	전화기와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	고양시	9,463	0.40
	854442	절연전선·케이블	안양시	9,430	0.40
일본	380891	살충제·살서제(취약)·살균제	안산시	9,927	0.53
	392099	플라스틱 판·시트(sheet)·필름	성남시	9,923	0.53
	848620	반도체 제조용 기기	화성시	9,807	0.52
	220600	그 밖의 발효주	이천시	9,786	0.52
	852580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부천시	9,624	0.51
홍콩	850760	축전지	의왕시	9,714	0.99
	854232	전자집적회로	화성시	9,711	0.99
	853669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안양시	9,565	0.97
	330499	기초화장용 제품	부천시	9,505	0.97
	853222	축전기	성남시	9,365	0.95
인디아	851770	전화기와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	성남시	9,891	1.30
	731815	철강제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	안산시	9,746	1.28
	382440	조제 점결제	평택시	9,712	1.27

	820730	수공구용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	안산시	9,694	1.27
	848120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화성시	9,394	1.23
대만	847330	기계의 부분품	화성시	9,985	1.34
	720421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평택시	9,686	1.30
	903090	전기적 양의 측정용·검사용 기기	용인시	9,424	1.26
	848640	반도체 제조용 기기	광주시	9,084	1.21
	853400	인쇄회로	수원시	9,072	1.21
태국	841480	기체펌프나 진공펌프	평택시	9,855	1.76
	39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의 제품	안산시	9,563	1.71
	854239	전자집적회로	수원시	9,228	1.65
	300630	의료용품	안성시	8,821	1.58
	841330	액체펌프	평택시	8,723	1.56
멕시코	940599	램프·조명기구	용인시	9,677	1.91
	847989	기타의 기계류	화성시	9,650	1.91
	842833	권양·취급·적하·양하용 기계류	김포시	9,203	1.82
	853710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	수원시	8,957	1.77
	851430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	시흥시	7,883	1.56
인도네시아	920994	악기의 부분품	성남시	8,627	1.85
	60041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안산시	8,571	1.84
	852990	전자기기의 부분품	파주시	8,209	1.76
	854460	절연전선·케이블	안양시	8,073	1.74
	841989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	화성시	7,514	1.62

4. 미중 무역 분쟁과 경기도 주요 업종의 피해 추정

가. 연구방법

- 한국은 동아시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깊이 편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최근 불거진 미중간 무역분쟁은 동아시아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기도 경제에도 직간접적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미중간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도와 각 시군별 주력 업종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추정해보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하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한국 수출경

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함께 해당 결과를 기초로 경기도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정하여 검토함.

- WIOD(World Input-Output Data)에서 제공하는 세계투입산출표를 기초 데이터로 하여, 관세부과로 인한 중간재 및 최종재 수요감소를 외부효과로 가정함.
- 먼저 외부변화가 없을 경우의 세계경제하에서 한국의 수출을 가정하고, 이를 외부변화가 발생한 경우의 한국의 수출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
- 미국과 중국의 상호간 중간재 및 최종재 수요 감소는 양국이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간재 및 최종재 수요감소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전 세계로 수출하는 중간재 및 최종재 수요감소를 유발하게 됨.
- 한국의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감소는 최종적으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국가별로 파급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구체적인 수요의 감소 효과는 다음의 시나리오를 참고바람.

나. 자료

- 중간재·최종재 수요감소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WIOD의 투입산출표를 이용
- 세계투입산출표는 OECD, GTAP, ADB등 여러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공표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이용되는 WIOD 2014를 사용
- WIOD의 특징은 다른 데이터에 비하여 최신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과, 52개의 다양한 산업, 그리고 미국과 중국 및 EU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을 포괄한다는 점임.

다. 미중 무역분쟁 시나리오

- 미·중 상호관세 부과로 인하여 상대국에 대한 수요·수출감소가 예상됨.
- 더욱이 미국과 중국의 수요감소로 인하여 양국간 교역축소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관련 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 주변국가들의 수출감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직접적인 관세부과대상국은 아니나, 미국과 중국의 수출감소로,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역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한국과 경기도에 어느 수준의 악영향이 미칠 것인지 파악해보고자 함.

○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총 2개의 시나리오로 구성

구 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미국 대중국 관세부과 중국 대미국 관세부과	미·중 상호간 중간재 및 최종수요 50% 감소	
대한국 수요감소	미·중 대한민국 중간재 및 최종수요 1% 감소	미·중 대한민국 중간재 및 최종수요 10% 감소

○ 각 시나리오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며, 이로 인한 중간재 및 최종재 수요감소를 가정함. 부과대상 산업은 모든 산업임.

○ 1차 관세부과(500억달러)시 미국은 첨단기기, 중국은 자동차 및 농산물 중심으로 관세부과 하였으며, 2차 관세부과(미국 : 2,000억달러, 중국 : 600억달러)시에는 대부분의 품목에 관세를 부과

○ 1차 및 2차 모두 관세부과가 시행중이므로 현재 품목별로 차이를 두고 관세부과를 하는 것 보다는 전 산업에서 고르게 수요감소를 예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라. 분석결과

(분석모형 설명추가)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871% ~ -8.913%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미국 수출은 -0.951% ~ -6.066% 수준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대

중국 수출의 감소율이 큰 것으로 추정됨.

<표 Ⅲ-24> 한국의 국가별 수출변화율

(단위: %)

상대국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상대국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AUS	-0.038	-0.043	IRL	-0.030	-0.033
AUT	-0.024	-0.027	ITA	-0.023	-0.026
BEL	-0.032	-0.035	JPN	-0.082	-0.097
BGR	-0.012	-0.013	KOR	-	-
BRA	-0.013	-0.014	LTU	-0.029	-0.034
CAN	-0.037	-0.038	LUX	-0.004	-0.004
CHE	-0.020	-0.022	LVA	-0.003	-0.003
CHN	-2.871	-8.913	MEX	-0.072	-0.075
CYP	-0.003	-0.004	MLT	-0.016	-0.022
CZE	-0.028	-0.031	NLD	-0.035	-0.039
DEU	-0.043	-0.047	NOR	-0.004	-0.005
DNK	-0.006	-0.007	POL	-0.016	-0.017
ESP	-0.015	-0.016	PRT	-0.015	-0.016
EST	-0.014	-0.016	ROU	-0.014	-0.015
FIN	-0.023	-0.026	ROW	-0.129	-0.140
FRA	-0.019	-0.020	RUS	-0.021	-0.024
GBR	-0.016	-0.018	SVK	-0.018	-0.020
GRC	-0.001	-0.001	SVN	-0.017	-0.019
HRV	-0.005	-0.005	SWE	-0.020	-0.022
HUN	-0.033	-0.036	TUR	-0.018	-0.019
IDN	-0.025	-0.029	TWN	-0.512	-0.546
IND	-0.022	-0.025	USA	-0.954	-6.066
			총합계	-0.884	-2.954

1) 한국의 대미 산업별 수출변화율

- 시나리오 1의 경우, 금속제품 제조업(-1.363%), 1차 금속제품 제조업(-1.349%),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1.300%), 화학제품 제조업(-1.128%), 정밀기기 제조업(-1.025%)순으로 수출감소율이 높아 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
- 시나리오 2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한국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10.616%),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8.134%), 금속제품 제조업(-7.890%), 농림수산업(-7.693%)순으로 대미 수출감소율이 높음.

<표 Ⅲ-25> 미·중 무역분쟁시 한국의 대미국 산업별 수출변화율

(단위: %)

산업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경기도 수출비중
정밀기기 제조업	-1.025	-6.411	37.2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0.625	-4.030	35.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837	-10.616	34.3
기타 제조업	-0.721	-3.833	24.6
목재/종이/인쇄업	-0.744	-5.398	24.3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0.785	-6.268	21.0
금속제품 제조업	-1.363	-7.890	20.3
음식료업	-0.027	-0.926	19.6
1차 금속제품 제조업	-1.349	-2.021	19.1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721	-3.833	17.2
농림수산업	-0.986	-7.693	16.8
운송장비 제조업	-0.831	-4.649	13.9
화학제품 제조업	-1.128	-7.024	13.0
광업	0	0	5.6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1.300	-8.134	0.2

2) 경기도의 대미 수출변화율

○ 시나리오 2(중간재 및 최종수요 미·중 상호 50% 감소, 대한민국 10% 감소 예상)를 기준으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경기도의 수출감소는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3.628%), 정밀기기 제조업(-2.384%), 금속제품 제조업(-1.603%),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1.443%) 순으로 나타남.

※ 수출감소에 경기도의 각 업종별 수출비중을 가중하여 피해규모를 추정하였고, 시군별 피해추정은 각 시군이 각 업종별 수출비중을 고려하여 가중하였음.

○ 특히 한국 전체 감소율이 크지 않았던 정밀기기 제조업과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은 경기도 수출비중이 높아 수출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Ⅲ-26> 경기도 대미국 산업별 수출변화율

(단위: %)

산업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065	-3.638
정밀기기 제조업	-0.097	-2.384
금속제품 제조업	-0.061	-1.603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0.050	-1.443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0.036	-1.314
목재/종이/인쇄업	-0.027	-1.311
농림수산업	-0.101	-1.296
기타 제조업	-0.007	-0.943
화학제품 제조업	-0.038	-0.912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027	-0.658
운송장비 제조업	-0.033	-0.645
1차 금속제품 제조업	-0.113	-0.385
음식료업	-0.004	-0.181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0.000	-0.012
광업	0.000	0.000

3) 경기도의 대미 정밀기기·전기전자기기 수출변화(시나리오 2기준)

- 경기도의 대미 정밀기기 총 수출은 -2.38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시군별로 가장 크게 감소하는 지역은 수원시와 화성시로 각각 -0.396%, -0.40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성남시도 -0.309% 감소

<표 Ⅲ-27> 경기도 시군별 정밀기기 대미국 수출변화율

(단위: %)

시군	변화율	시군	변화율	시군	변화율
가평군	0.000	부천시	-0.067	연천군	-0.001
고양시	-0.047	성남시	-0.309	오산시	-0.008
과천시	0.000	수원시	-0.396	용인시	-0.104
광명시	-0.001	시흥시	-0.024	의왕시	-0.003
광주시	-0.005	안산시	-0.117	이천시	-0.011
구리시	0.000	안성시	-0.081	정부시	-0.024
군포시	-0.044	안양시	-0.233	파주시	-0.061
김포시	-0.085	양주시	-0.077	평택시	-0.229
남양주시	-0.026	양평군	0.000	포천시	-0.001
두천시	-0.002	여주시	-0.026	하남시	0.000
경기도 합계 -2.384				화성시	-0.402

- 경기도의 대미 전기 및 전자기기 수출변화율은 -1.443%로서 정밀기기산

업에 비하여 변화가 낮은 수준

- 이천시의 대미 전기 및 전자기기수출이 -0.6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평택시가 -0.541%, 기타 지역은 변화가 미미한 수준임.

<표 Ⅲ-28> 경기도 시군별 전기 및 전자기기 대미국 수출변화율

(단위: %)

시군	변화율	시군	변화율	시군	변화율
가평군	0.000	부천시	-0.019	연천군	0.000
고양시	-0.002	성남시	-0.039	오산시	-0.004
과천시	0.000	수원시	-0.037	용인시	-0.029
광명시	-0.001	시흥시	-0.019	의왕시	-0.002
광주시	-0.001	안산시	-0.044	이천시	-0.601
구리시	0.000	안성시	-0.004	정부시	0.000
군포시	-0.004	안양시	-0.047	파주시	-0.008
김포시	-0.004	양주시	-0.002	평택시	-0.541
남양주시	-0.001	양평군	0.000	포천시	0.000
두천시	-0.001	여주시	-0.005	하남시	-0.001
합계 -1.443				화성시	-0.029

4) 한국의 대중 산업별 수출변화율

- 시나리오 1의 경우 정밀기기 제조업의 수출감소율이 -3.392%로 가장 높으며,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3.166%), 화학제품 제조업(-2.654%), 1차 금속제품 제조업(-2.484%), 목재/종이/인쇄업(-2.476) 순임.
- 시나리오 2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은 목재/종이/인쇄업의 감소율이 가장 크며(-15.089%),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10.006%), 광업(-9.704%),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9.629%),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9.484%) 등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의 수출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29> 미·중 무역분쟁시 한국의 대중국 산업별 수출변화율

(단위: %)

산업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경기도 수출비중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2.068	-7.643	49.0
정밀기기 제조업	-3.392	-8.717	45.3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95	-4.338	37.4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3.166	-9.629	24.1
금속제품 제조업	-2.264	-8.778	23.9
기타 제조업	-1.095	-4.338	23.9
농림수산업	-0.342	-5.138	17.7
음식료업	-0.463	-1.942	16.9
운송장비 제조업	-1.570	-6.853	15.1
목재/종이/인쇄업	-2.476	-15.089	13.9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07	-10.006	13.5
화학제품 제조업	-2.654	-9.463	10.2
1차 금속제품 제조업	-2.484	-2.682	10.1
광업	-1.510	-9.704	4.9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2.251	-9.484	1.1

5) 경기도 대중 수출변화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나리오2(중간재 및 최종수요 미·중 상호 50% 감소, 대한민국 10% 감소 예상)를 기준으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I-30> 경기도 대중국 산업별 수출변화율

(단위: %)

산업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정밀기기 제조업	-1.537	-3.951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1.014	-3.746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0.762	-2.318
금속제품 제조업	-0.542	-2.101
목재/종이/인쇄업	-0.343	-2.093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409	-1.62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0.177	-1.355
기타 제조업	-0.262	-1.039
운송장비 제조업	-0.238	-1.038
화학제품 제조업	-0.271	-0.965
농림수산업	-0.061	-0.910
광업	-0.075	-0.479
음식료업	-0.078	-0.327
1차 금속제품 제조업	-0.252	-0.272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0.024	-0.102

○ 시나리오 2기준, 정밀기기의 수출감소율은 -3.951%이며, 전기 및 전자기기 -3.746%,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2.318%, 금속제품제조업 -2.101%순으로 나타남.

○ 한국 전체에서 감소폭이 큰 광업 및 1차 금속제품의 수출감소율은 상대적으로 경기도에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6) 경기도 대중 정밀기기·전기전자기기 산업 수출변화(시나리오 2기준)

○ 경기도의 대중 전기 및 전자기기 수출은 관세부과 이후 -3.746%로 나타나, 대미 수출과 비교하여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지역별로는 용인이 -2.023%로 가장 크며, 이천이 -0.700%, 평택 -0.333%, 안산 -0.1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31> 경기도 시군별 전기 및 전자기기 대중국 수출변화율

(단위: %)

시군	변화율	시군	변화율	시군	변화율
가평군	0.000	부천시	-0.038	연천군	0.000
고양시	-0.002	성남시	-0.043	오산시	-0.022
과천시	0.000	수원시	-0.088	용인시	-2.023
광명시	-0.001	시흥시	-0.014	의왕시	-0.001
광주시	-0.003	안산시	-0.193	이천시	-0.700
구리시	0.000	안성시	-0.005	정부시	0.000
군포시	-0.007	안양시	-0.034	파주시	-0.136
김포시	-0.028	양주시	-0.001	평택시	-0.333
남양주시	-0.001	양평군	0.000	포천시	-0.001
두천시	0.000	여주시	0.000	하남시	0.000
합계 -3.746				화성시	-0.072

○ 대중 정밀기기수출에서는 경기도의 수출이 -3.951%감소하여, 다른 산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파주가 -2.495%로 감소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평택이 -0.507%, 화성이 -0.161% 등임.

<표 Ⅲ-32> 경기도 시군별 정밀기기 대중국 수출변화율

(단위: %)

시군	변화율	시군	변화율	시군	변화율
가평군	0.000	부천시	-0.011	연천군	0.000
고양시	-0.033	성남시	-0.093	오산시	-0.020
과천시	0.000	수원시	-0.191	용인시	-0.081
광명시	-0.001	시흥시	-0.025	의왕시	-0.002
광주시	-0.007	안산시	-0.047	이천시	-0.058
구리시	0.000	안성시	-0.020	정부시	-0.002
군포시	-0.013	안양시	-0.094	파주시	-2.495
김포시	-0.069	양주시	-0.001	평택시	-0.507
남양주시	-0.004	양평군	0.000	포천시	0.000
두천시	-0.016	여주시	0.000	하남시	0.000
합계 -3.951				화성시	-0.161

5. 요약 및 시사점

- 본 장에서는 우선 제조업 관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도내 주력산업을 파악하는 한편, 주요 교역 국가들의 비관세장벽·수입규제 추이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또한 단일품목 1억달러 이상 수출품목 현황, 이를 수출하는 시군지역 및 주요 교역 국가들을 확인하고, 도내 주력산업과 비관세장벽·수입규제 조치를 병행 검토하여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마지막으로 최근 불거진 미중간 무역분쟁에 따라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 한국 수출경제의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분석한 후, 분석자료의 제한이 있기는 하나, 경기도 및 각 주요 시군별 피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정·해석하고자 하였음.
- 이에 기초하여 본 장의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종사자 수 등을 기초로 도내 주력 업종은 전기및전자, 기계및기계장비로 파악되었음. 특히 전기및전자 업종의 경우 사업체가 도내 고르게 분포하는 등 경기도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파악됨.
- 둘째,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TBT통보건수, SPS

조치건수, 반덤핑 등 여러 통계자료에 투영·집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TBT의 경우 미국, 중국, EU의 연도별 누적건수를 살펴보면, 식의약품, 화학·세라믹, 전기전자 순으로 나타났고, 개별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전기전자, 중국은 교통·안전 그리고 EU는 화학·세라믹 업종에서 무역 기술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SPS의 경우 미국, 중국의 조치건수가 많은 가운데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식품안전에 대한 정규통보문 건수가 공통적으로 많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반덤핑을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의 경우에도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해당 건수가 크게 늘었고, 특히 철강, 화학 등의 업종에서 관련 규제조치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셋째, 2017년 기준 단일 품목으로 1억달러 이상 수출하는 도내 수출품목을 확인한 결과 총 40개 품목을 도출하였고, 이들 품목은 도내 17개 시군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총 24개 국가에 수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1억달러 이상 수출품목은 경기도 전체 수출품목 4,548개의 약 0.9% 비중을 차지하며, 도의 전체 228개 교역국가들 중 약 11%인 24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음.
- 10억달러 이상 수출하는 품목도 12개로 확인되었고, 이들 품목 중 87류 2개 품목을 제외하면, 모두 전기전자 품목에 해당하여 전기및전자 업종이 경기도의 주력 업종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음.
- 17개 시군 중에서는 용인, 이천, 평택, 파주시 등의 순으로 1억달러 이상 수출품목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대부분 전기및전자 품목이며, 중국으로 수출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넷째, 최근 불거진 미중간 무역분쟁이 한국과 경기도 수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정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본 장에서는 WIOD의 세계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미중간 관세부과에 따른 중간재 및 최종재 수요감소에 관한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음.

- 추정결과 1) 한국은 대미 수출보다 대중 수출에 더욱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재 및 최종수요 미·중 상호 50% 감소, 대한민국 10% 감소를 가정하는 경우, 대미 보다 대중의 총수출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2) 경기도의 대중 수출감소는 정밀기기, 전기전자에서 큰

폭의 수출감소가 예상되며, 정밀기기의 경우 파주(-2.495%)가 감소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전자의 경우는 용인(-2.023%)의 수출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3) 경기도의 대미 수출감소는 경기도 수출비중이 높은 정밀기기와 전기전자의 수출감소폭이 클 것으로 추정되며, 정밀기기의 경우 충수출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지역은 화성(-0.402%)이며, 전기전자의 경우 이천(-0.601%)으로 나타남.

6. 경기도의 대응(안) : TBT-SPS 대응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안

-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해외 비관세장벽에 관한 정부협의체와 민관협의체를 운영지원하고 있음.
 - 정부협의체의 경우 무역대표부(USTR) 내 무역정책실무협의회와 그 산하에 TBT 관련 소위원회를 운영
 - TBT관계부처들이 참여하여 1년에 3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이슈 발생 시 별도의 비공식 협의 및 조정을 추진
 - 민관협의체의 경우 무역대표부와 상무부가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미국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정책개발 및 협상을 지원
 - 구성은 산업계, 분야별 협회 및 단체, 전문가 등 약 18명 내외로 구성하고, 운영방식은 분야별 소위를 운영하며, 연간 횟수에 제한 없이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비관세장벽 관련 분야별 실질적인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 ※ 무역 관련 불만 호소 핫라인을 통해 수출업자는 해외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지원 신청 가능
- TBT 관련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TBT 중앙사무국에서 총괄 대응하고 있음.
 - TBT 중앙사무국은 TBT 대응 컨소시엄이라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부처와 업계 공동으로 관련 애로사항 및 의견을 발굴하고 대응
 - 전기·전자, 화학·생활, 기계·금속, 식·의약품 등 산업분야별 19개 협·단체, 기업, 시험기관 등 총 27개 기관으로 구성
- SPS 관련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원)과 농림수산물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담당하지만, 농수산물과 식품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받았을 때, 대응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음.
 - 수출자의 수출애로가 수입국이 적법한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인가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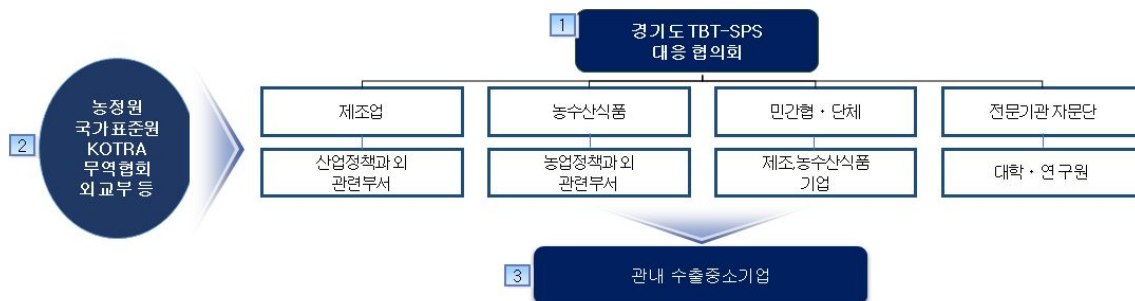
한 법률 및 실무적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

- WTO SPS는 수입국에게 적법한 수입규제 권한 허용

※ 현재 TBT-SPS에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관세청의 해외통관지원센터 해당 내용을 접수하고 있으나, 해결은 어려운 상황

- 경기도의 주요 교역국가인 중국과 미국 중심의 비관세장벽 조치에 관한 정보수집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도 TBT-SPS대응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제안
- 경기도수출지원센터는 KOTRA 해외무역관, KITA 해외사무소,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세계 주요국의 정책·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경기도 TBT-SPS대응협의회’ 정기 혹은 수시 전달
- 협의회 구성은 앞서 소개한 사례를 참조하여 경기도 제조업·농수산물품 부서와 민간협회 및 단체 및 전문기관의 자문단으로 구성 운영함.

<그림 III-2> 경기도 TBT-SPS대응협의회 구성·운영



- 속성상 TBT-SPS 해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대부분 정부간 통상외교적 채널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임.
- TBT-SPS 문제 직면시 가급적 정부의 관련 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을 경기도 기업에게 주지시킬 필요
- 중소기업들이 중앙정부의 TBT 중앙사무국에 접근하는데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이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경기도수출지원센터에 부여하고,
- 경기도의 주요 교역국가인 중국과 미국 중심의 비관세장벽 조치에 관한 정보수집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수출지원센터’(제VI장 논의)가 ‘경기도 TBT-SPS대응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안

- 협의회에서는 안건 유형과 시급성에 따라 정기 혹은 수시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한 후, 관내 수출중소기업에게 전파·확산하여 주요 수출국가들의 비관세장벽 조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첨부 자료

첨부 1: CPTPP 파급 영향 품목(예시)

1. 베트남

○ 경기도의 대베트남 수출품목 중, 상위 10개 품목은 아래와 같음

- 경기도의 대베트남 최대수출품목은 제8517호의 전화기로서 2017년 기준 15억달러를 수출. 동 품목에 대해서 베트남은 평균 3.96%의 관세를 부과 중이나, CPTPP발효 시 제8517호에 포함된 총 222개의 품목에 대해서 즉시철폐할 것으로 협정문상 합의됨.
- 이외에도 베트남 관세율이 존재하는 품목은 제8529호(부분품) 4%, 제8536호(전기회로의 접속기기 등) 14.14%, 제3919호(플라스틱의 시트) 14.28% 등 전기전자 및 플라스틱관련 품목이며, 즉시철폐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첨-1> 경기도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및 CPTPP양허 현황

HS	품목명	수출액 (천달러)	상대국 세율(%)	즉시철폐 (품목수)
8517	전화기, 음성·영상·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	1,594,718	3.96	222
8534	인쇄회로	1,344,809	0.00	0
8529	전자기기의 부분품	1,035,821	4.00	85
8479	(반도체 관련)기타의 기계류	606,635	0.00	0
9031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552,038	0.00	0
8542	전자집적회로	484,707	0.00	0
8486	반도체 제조용 기기	460,072	0.00	0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375,153	14.14	67
391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 등	278,519	14.28	0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277,418	0.00	0

주1: 수출액은 한국의 대베트남 2017수출 기준

주2: 즉시철폐 품목수는 상대국 세번기준

2. 페루

<표 첨-2> 경기도 대페루 주요 수출품목 및 CPTPP양허 현황

HS	품목명	수출액 (천달러)	상대국 세율(%)	즉시철폐 (품목수)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차	100,671	9.00	66
8517	전화기, 음성·영상·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	16,545	0.00	0
3002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등	16,021	9.00	6
8708	부분품과 부속품(자동차 관련)	9,012	0.00	0
3822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 등	3,148	0.00	0
8544	절연, 전선·케이블	2,781	2.25	8
3204	합성 유기착색제 등	2,616	0.00	0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2,592	0.00	0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2,488	0.87	0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	2,159	0.50	1

3. 뉴질랜드

<표 첨-3> 경기도 대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 및 CPTPP양허 현황

HS	품목명	수출액 (천달러)	상대국 세율(%)	즉시철폐 (품목수)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차와 그 밖의 차량	57,543	10.00	18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5,488	5.00	1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3,546	0.00	0
7407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2,506	5.00	4
8544	절연, 전선·케이블	2,353	3.44	12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2,243	5.00	48
7409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211	0.00	0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	1,833	5.00	8
8704	화물자동차	1,641	5.00	1
8708	(자동차 관련)부분품과 부속품	1,522	5.66	119

4. 멕시코

<표 첨-4> 경기도 대멕시코 주요 수출품목 및 CPTPP양허 현황

HS	품목명	수출액 (천달러)	상대국 세율(%)	즉시철폐 (품목수)
9013	액정 디바이스, 레이저기기, 그 밖의 광학기기	589,477	0.00	0
8529	전자기기의 부분품	394,999	3.85	30
8708	(자동차 관련)부분품과 부속품	146,445	4.35	249
8542	전자집적회로	135,195	0.00	0
8418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 열펌프	93,739	7.07	53
8517	전화기, 음성·영상·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	55,894	1.36	15
8480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55,337	1.25	2
8544	절연, 전선·케이블	54,321	5.00	33
7408	구리의 선	42,841	5.00	9
8479	(반도체 관련)기타의 기계류	40,560	7.25	72

5. 말레이시아

<표 첨-5> 경기도 대말레이시아 주요 수출품목 및 CPTPP양허 현황

HS	품목명	수출액 (천달러)	상대국 세율(%)	즉시철폐 (품목수)
8542	전자집적회로	202,163	0.00	0
8529	전자기기의 부분품	64,819	5.00	25
8473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59,268	0.00	0
9013	액정 디바이스, 레이저기기, 그 밖의 광학기기	51,973	0.00	0
8534	인쇄회로	44,951	0.00	0
8486	반도체 제조용 기기	43,718	1.76	6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31,934	15.67	11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차와 그 밖의 차량	28,628	23.83	4
8507	축전지	26,843	15.92	0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	23,698	17.50	11

6. 칠레

<표 첨-6> 경기도 대칠레 주요 수출품목 및 CPTPP양허 현황

HS	품목명	수출액 (천달러)	상대국 세율(%)	즉시철폐 (품목수)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차와 그 밖의 차량	188,341	6.00	293
8704	화물자동차	79,135	6.00	166
8708	(자동차 관련)부분품과 부속품	22,792	6.00	159
8702	10인 이상(운전자 포함) 수송용 자동차	11,159	6.00	14
8517	전화기, 음성·영상·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	8,103	6.00	53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등	5,530	6.00	6
8479	(반도체 관련)기타의 기계류	4,182	6.00	41
6309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3,994	6.00	65
8418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 열펌프	3,787	6.00	27
8544	절연,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등	3,723	6.00	18

7. 캐나다

<표 첨-7> 경기도 대캐나다 주요 수출품목 및 CPTPP양허 현황

HS	품목명	수출액 (천달러)	상대국 세율(%)	즉시철폐 (품목수)
8517	전화기, 음성·영상·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	211,512	0.73	4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차와 그 밖의 차량	142,728	6.10	0
8708	(자동차 관련)부분품과 부속품	39,727	6.11	123
2934	핵산과 이들의 염	32,590	2.17	1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	26,950	0.00	0
8207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	21,935	1.17	3
8483	전동축,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등	17,214	0.00	0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등	16,396	0.00	0
8419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 등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실험장치	14,097	0.81	1
6004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11,065	13.83	13

8. 브루나이

<표 첨-8> 경기도 대브루나이 주요 수출품목 및 CPTPP양허 현황

HS	품목명	수출액 (천달러)	상대국 세율(%)	즉시철폐 (품목수)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차와 그 밖의 차량	15,804	0.00	0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2,977	0.00	0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	1,492	0.00	0
8431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632	14.17	0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452	3.13	2
8515	전기식·레이저 등	438	20.00	5
8205	수공구 관련 제품	281	0.00	0
8479	(반도체 관련)기타의 기계류	174	13.33	4
8708	(자동차 관련)부분품과 부속품	165	20.00	0
8511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	154	20.00	7

9. 호주

<표 첨-9> 경기도 대호주 주요 수출품목 및 CPTPP양허 현황

HS	품목명	수출액 (천달러)	상대국 세율(%)	즉시철폐 (품목수)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차와 그 밖의 차량	529,647	5.00	30
8702	10인 이상(운전자 포함) 수송용 자동차	69,992	5.00	1
7411	구리로 만든 관(管)	47,034	5.00	2
8544	절연, 전선·케이블	34,853	2.86	56
8517	전화기, 음성·영상·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	29,411	1.06	17
7408	구리의 선	15,922	5.00	11
8507	축전지	11,351	5.00	16
8431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9,700	3.97	34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9,328	5.00	4
7407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817	5.00	6

첨부 2: 수출바우처 사업

- 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다양한 수출활동 메뉴판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원하는 서비스(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해서 수출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신개념 수출 지원 사업 플랫폼.
- 상세 참조: <http://www.exportvoucher.com/>

<표 첨-10> 수출바우처 사업 개요

구분	사업명(기업수)	지원 대상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산업부	수출첫걸음지원 150개사	- 전년도 수출 전무 내수기업 - 수출중단기업	1,400만원 (70%)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50개사	- 5대 소비재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 소비재 연관 E커머스 기업	2,880만원 (70%)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27개사	- 서비스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2,100만원 (70%)
	월드챔프 육성 200개사	- (Pre월드챔프)수출 초보 중소·중견기업 - (월드챔프)한국형 히트챔피언 기업 - (Post 월드챔프)월드챔프 육성사업 졸업기업	5,600만원(70%) 7,500만원(50%) 4,500만원(30%)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 100개사	- (Pre 수출중견)수출중견 후보기업 (수출도약) - (수출중견) 수출 중견기업 - (Post 수출중견) 수출중견 졸업기업	6,000~7,500만원 (30~60%)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1,800개사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희망 중소·중견기업	500만원/회 (연간 최대 2회, 정액보조)
중기부	수출성공패키지 2,100개사 내외	-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및 수출 10만불 미만 - (수출고도화) 수출 100만불 미만	수출기업화 : 최대 2,000만원 수출고도화 : 최대 3,000만원 (50~70%)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 580개사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으로 최근 4개년간 ①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이 20%이상 성장하거나(수도권 외 지방기업은 15%이상) ②수출액이 연평균 10%이상 성장한 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1억원 (50~70%)

		- 2년차 지원 기업은 상기 요건과 관계없이 수출성과가 우수한 기업(16년 대비 17년 수출증가율 9.6% 이상)에 한해 신청가능	
	아시아하이웨이 300개사	- 중국 또는 아세안 지역에 既 진출 하였거나 신규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1억원 (50~70%)
	글로벌강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200개사	- '16년 이후 지정된 글로벌강소기업 중 유효한 기업(246개 업체) - 2년~4년차 지원 기업은 수출성과가 우수한 기업(16년 대비 17년 수출증가율 9.6% 이상)에 한해 신청가능	4년간 최대 2억원 (연간 1억원 이내) (50~70%)
특 허 청	해외지재권 분쟁예방 수출바우처 35개사	- 수출(예정) 중소기업으로서,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분쟁이 예상되거나 분쟁 중인 기업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기업	최대 3,000만원 (50~70%)

<표 첨-11> KOTRA, 중기청 수출바우처 제도

사업명	바우처 총액	국가보조금 지원한도(보조율)	기업분담금	운영기관 (바우처 발급기관)
수출첫걸음 지원	2,000만원	1,400만원(70%)	600만원(30%)	KOTRA
월드챔프 육성	Pre 월드챔프 : 8,000만원 월드챔프 : 15,000만원 Post 월드챔프 : 15,000만원	Pre 월드챔프 : 5,600만원(70%) 월드챔프 : 7,500만원(50%) Post 월드챔프 : 4,500만원(30%)	Pre 월드챔프 : 2,400만원(30%) 월드챔프 : 7,500만원(50%) Post 월드챔프 : 10,500만원(70%)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4,110만원	2,880만원(70%)	1,230만원(30%)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3,000만원	2,100만원(70%)	900만원(30%)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최대 1,000만원	500만원/회(연2회)	-	

지원				
수출성공 패키지	—	(수출기업화) 2,000만원 (수출고도화) 3,000만원	총 사업비의 30~50%	각 지방 중기청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	10,000만원	매출액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100억원 미만) 70% (100억원~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총 사업비의 30~50%	중소기업 진흥공단
차이나 하이웨이	최대 10,000만원	5,000~7,000만원(70 %)	최대 3,000만원(30%)	
글로벌 강소기업	3년간 최대 2억원 (연간 1억원 이내)	3년간 최대 2억원(연간 1억원 이내)(30~70%)	총 사업비의 60%	KIAT
중견기업 수출지원 기반활용	20,000만원	10,000만원(50%)	10,000만원(50%)	

첨부 3: 수출경쟁력 분석자료

1. 경기도의 주요 수출국에 대한 산업별 수출구조

-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2011년 110억달러에서 2017년 140억달러로 연평균 성장률(CARG)은 3.8%로 나타났으며 2017년 수출액 기준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이 전체 수출액의 43%를 차지함.

<표 첨-12> 경기도의 대미국 산업별 수출구조

(단위: 백만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차 금속제품 제조업	339.5	324.1	300.8	344.1	310.8	406.6	791.0
광업	0.6	0.6	0.6	0.5	0.4	0.5	0.6
금속제품 제조업	196.7	227.9	227.4	245.0	284.4	292.9	328.5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53.8	989.8	1033.4	1242.6	1346.0	1283.2	1539.0
기타 제조업	121.6	129.0	138.4	130.1	150.6	131.8	148.1
농림수산업	11.9	16.3	17.3	19.3	15.5	22.0	19.6
목재/종이/인쇄업	140.0	125.4	145.3	178.3	149.1	157.3	137.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42.6	50.9	57.9	58.3	77.5	91.5	119.4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13.4	14.3	6.7	5.3	5.4	3.4	4.7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233.2	245.9	291.5	278.0	241.0	238.7	212.8
운송장비 제조업	2882.3	2917.1	3370.0	4064.8	4172.6	2792.4	3039.0
음식료업	67.4	81.1	94.0	104.4	117.8	141.3	148.6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5193.3	4379.2	5353.7	5768.5	4745.9	3833.5	6033.2
정밀기기 제조업	506.8	387.5	505.3	545.1	521.0	578.7	564.3
화학제품 제조업	615.1	679.5	766.1	804.9	904.4	1005.0	949.1
총합계	11,218	10,569	12,308	13,789	13,042	10,979	14,036

- EU에 대한 수출액은 2011년 80억달러에서 2017년 100억달러로 연평균 성장률(CARG)은 미국과 같은 3.8%로 나타남. 2017년 수출액 기준으로 운송장비 제조업이 35%,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이 3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다른 양상이 나타남.

<표 첨-13> 경기도의 대EU 산업별 수출구조

(단위: 백만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차 금속제품 제조업	169.0	113.9	160.8	171.9	167.0	161.6	186.3
광업	0.2	0.2	0.4	0.1	0.0	0.1	0.2
금속제품 제조업	230.5	242.1	224.9	211.7	216.2	216.1	252.8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97.1	632.7	697.6	810.5	639.2	696.6	775.8
기타 제조업	63.9	75.7	75.1	60.8	74.4	104.3	118.1
농림수산업	4.2	4.6	4.4	4.1	3.5	4.1	3.6
목재/종이/인쇄업	31.0	25.8	37.8	37.1	29.7	27.0	25.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0.1	41.7	50.2	52.9	49.2	50.0	51.1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1.7	1.5	1.9	2.4	3.0	3.2	2.7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191.5	212.3	324.0	292.8	226.6	233.0	212.4
운송장비 제조업	2311.0	1772.7	1678.7	1850.7	2361.0	2871.2	3583.4
음식료업	13.4	15.9	16.9	18.9	25.0	35.6	48.8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3283.3	2859.6	4156.4	4102.9	3528.2	2833.9	3101.2
정밀기기 제조업	645.8	732.0	559.0	872.1	907.6	782.9	976.1
화학제품 제조업	605.6	648.3	739.0	804.1	768.5	753.5	1023.5
총합계	8,298	7,379	8,727	9,293	8,999	8,773	10,361

-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2011년 260억달러에서 2017년 460억달러로 연평균 성장률(CARG)은 9.8%로 나타남. 중국의 경우 2017년 수출액 기준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이 전체 비중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밀기기 제조업이 14%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표 첨-14> 경기도의 대중국 산업별 수출구조

(단위: 백만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차 금속제품 제조업	854.3	634.2	686.0	616.2	503.8	511.1	610.3
광업	11.3	12.2	18.6	15.7	9.2	11.5	11.7

금속제품 제조업	277.4	303.0	324.7	329.5	347.5	407.4	436.1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425.3	2008.2	3226.8	2876.7	3331.4	3353.9	4331.7
기타 제조업	99.9	114.7	136.0	146.6	124.9	159.9	120.6
농림수산업	7.3	10.3	11.6	10.4	18.4	21.3	22.5
목재/종이/인쇄업	56.6	56.7	60.0	70.5	60.6	87.6	73.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68.7	77.4	126.4	183.5	151.9	143.2	112.1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111.4	149.9	69.1	73.6	13.9	68.9	70.2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591.9	563.0	632.7	547.7	581.2	536.1	437.8
운송장비 제조업	1311.7	1063.2	1177.1	1465.1	1164.4	612.4	565.3
음식료업	66.6	68.2	68.5	87.6	137.8	234.5	174.0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15,851.3	15,764.4	19,067.8	24,248.8	22,548.4	18,847.0	30,028.7
정밀기기 제조업	2984.2	3516.8	4373.1	4766.5	6585.8	6903.9	6739.0
화학제품 제조업	2018.6	2173.0	2569.1	2436.9	2843.9	2969.0	3184.0
총합계	26,737	26,515	32,547	37,875	38,423	34,867	46,918

- 경기도의 대일본 수출액은 2011년 49억달러에서 2017년 45억달러로 감소하여 연평균 성장률(CARG)은 -1.2%를 기록하였음. 2017년 수출액 기준으로 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각각 전체 수출의 25%, 22%의 비중이 나타남.

<표 첨-15> 경기도의 대일본 산업별 수출구조

(단위: 백만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차 금속제품 제조업	310.0	259.8	210.9	196.3	161.1	174.8	183.8
광업	12.8	11.9	8.4	8.1	5.7	5.4	2.7
금속제품 제조업	249.3	308.5	279.5	283.3	243.2	246.8	289.5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06.8	869.5	931.2	911.3	846.5	1000.4	1149.2
기타 제조업	242.3	163.7	192.7	129.2	118.3	178.2	180.0
농림수산업	13.4	24.5	24.1	29.9	21.9	23.0	35.9
목재/종이/인쇄업	92.9	102.8	82.2	74.3	72.9	75.1	72.0
비금속광물제품	71.3	57.1	36.4	80.5	186.1	121.0	104.8

제조업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39.7	144.6	17.4	16.4	21.7	16.1	29.9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86.7	92.6	95.2	94.8	102.5	128.7	109.1
운송장비 제조업	112.0	103.6	86.4	74.2	73.9	87.2	124.1
음식료업	111.7	96.6	74.6	89.9	97.3	112.7	100.8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1428.3	1923.8	1647.4	1743.9	1447.3	1227.4	1017.7
정밀기기 제조업	407.8	313.0	254.1	269.5	319.4	275.2	341.6
화학제품 제조업	929.9	935.7	795.7	757.8	696.3	793.3	831.8
총합계	4,915	5,408	4,736	4,759	4,414	4,465	4,573

- 경기도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액은 2011년 60억달러에서 2017년 190억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연평균 성장률(CARG)로는 19.9%로 중국에 대한 연평균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음. 2017년 수출액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 중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1%로 과반수를 차지함.

<표 첨-16> 경기도의 대아세안 산업별 수출구조

(단위: 백만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차 금속제품 제조업	665.8	627.0	721.6	812.0	727.8	696.3	910.0
광업	0.2	4.7	2.1	3.2	3.9	5.3	4.6
금속제품 제조업	157.6	226.3	231.1	246.0	228.5	310.9	406.5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33.3	1,096.3	1,410.4	1,379.8	1,771.5	1,842.1	2,832.2
기타 제조업	41.4	51.1	56.5	61.0	70.1	69.1	76.0
농림수산업	9.6	8.2	12.4	16.5	18.3	24.0	34.6
목재/종이/인쇄업	92.2	107.1	107.4	108.0	124.0	132.3	152.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9.3	24.3	29.1	31.7	87.9	51.2	70.0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12.1	5.3	9.0	6.9	8.7	10.2	9.3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458.9	525.3	655.4	751.8	837.5	973.2	999.1
운송장비 제조업	395.4	423.0	437.7	439.8	442.1	580.3	423.6
음식료업	33.6	35.9	40.7	56.2	64.9	86.8	101.0
전기 및 전자기기	2,915.1	4,097.3	6,271.6	6,912.7	6,759.7	7,353.3	10,196.9

제조업							
정밀기기 제조업	281.6	442.9	537.5	692.4	780.5	905.6	1,693.4
화학제품 제조업	755.9	881.2	1,019.5	1,177.2	1,328.4	1,562.6	1,955.5
총합계	6,672	8,556	11,542	12,695	13,254	14,603	19,865

- 경기도의 대베트남 수출액은 앞서 제시했듯이 주요국가 수출액 중 성장률이 가장 높았음. 2011년 17억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은 2017년 무려 116억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CARG)은 37.3%로 나타남.
- 아세안에 대한 경기도의 총 수출액 증가의 절반 이상은 베트남에 대한 수출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음. 2017년 수출액 기준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이 전체 수출액의 48%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 정밀기기 제조업 11%, 화학제품 제조업이 10%의 비중을 차지함.

<표 첨-17> 경기도의 대베트남 산업별 수출구조

(단위: 백만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차 금속제품 제조업	88.6	91.3	128.5	184.1	215.3	193.7	286.4
광업	0.1	0.1	0.3	1.4	2.6	3.3	2.6
금속제품 제조업	48.7	71.4	90.0	97.5	115.4	165.4	225.4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0.8	233.9	459.8	551.1	1,009.5	1,091.5	1,999.0
기타 제조업	17.3	20.2	22.7	28.2	30.7	30.2	27.5
농림수산업	2.4	1.5	3.6	5.1	5.5	7.7	10.6
목재/종이/인쇄업	31.9	36.9	34.9	31.7	39.5	43.0	69.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5	4.8	9.3	11.0	63.3	30.8	47.9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3.3	2.0	3.2	2.4	3.5	4.9	3.9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252.6	291.1	378.7	455.2	535.7	635.2	667.2
운송장비 제조업	118.8	86.4	90.4	155.9	239.8	342.2	206.7
음식료업	14.8	12.2	17.1	20.3	26.1	40.6	43.4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652.3	1,621.1	3,022.4	2,974.5	3,456.3	4,941.1	5,576.4
정밀기기 제조업	73.2	92.6	124.1	155.5	345.9	557.2	1,302.5
화학제품 제조업	248.9	307.8	379.7	505.3	681.1	938.5	1,194.6
총합계	1,737	2,873	4,765	5,179	6,770	9,026	11,663

- 경기도의 홍콩에 대한 수출액은 2017년 64억달러이며 연평균 성장률 (CARG)는 3.2%로 나타남. 2011년에서 2017년까지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이 수출액 중 평균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제품 제조업과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이 그 뒤를 잇고 있음.

<표 첨-18> 경기도의 대홍콩 산업별 수출구조

(단위: 백만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차 금속제품 제조업	237.1	132.8	112.7	92.4	72.7	62.0	74.3
광업	0.0	0.0	0.0	0.1	0.1	0.1	0.7
금속제품 제조업	20.8	19.9	23.4	29.7	28.0	27.8	26.0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16.5	152.4	163.2	173.5	160.8	75.4	122.2
기타 제조업	13.5	9.7	11.9	10.0	33.2	22.5	55.3
농림수산업	3.1	3.1	3.7	2.4	3.3	12.3	9.5
목재/종이/인쇄업	8.6	18.9	29.8	16.0	6.4	4.7	4.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9.2	34.1	65.3	55.3	17.1	18.8	16.0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0.3	0.3	1.1	1.2	1.0	1.4	1.2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324.8	327.6	365.8	319.5	326.6	245.6	194.1
운송장비 제조업	6.7	10.0	8.8	12.0	11.5	14.9	50.8
음식료업	22.8	27.2	33.6	37.3	41.5	43.7	46.3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3,774.1	3,789.5	4,187.0	4,360.9	3,917.8	3,437.4	4,860.0
정밀기기 제조업	325.5	345.6	406.7	312.3	387.9	292.2	351.0
화학제품 제조업	290.1	299.6	475.8	590.3	607.6	758.8	625.1
총합계	5,153.3	5,170.7	5,888.8	6,013.1	5,615.6	5,017.7	6,436.6

- 경기도의 대만에 대한 수출액은 2017년 약 30억달러이며 연평균 성장률 (CARG)는 -2.0%로 나타남. 2011년에서 2017년까지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이 수출액 중 평균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 및 장비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정밀기기 제조업 순으로 비중이 높음.

<표 첨-19> 경기도의 대대만 산업별 수출구조

(단위: 백만달러)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차 금속제품 제조업	394.3	253.6	224.0	195.7	154.7	135.3	162.1
광업	0.5	0.9	0.4	0.2	0.5	0.8	0.7
금속제품 제조업	29.8	26.7	24.5	28.6	30.7	33.1	44.4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2.2	167.7	195.9	225.0	271.8	305.2	386.6
기타 제조업	28.1	22.4	9.1	12.6	8.2	7.8	10.4
농림수산업	3.0	5.9	6.2	5.4	5.7	11.3	8.7
목재/종이/인쇄업	27.6	27.3	26.5	29.2	23.7	37.2	40.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0.7	41.9	72.3	70.9	53.2	85.5	123.7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3.8	4.5	4.1	4.6	4.2	4.2	2.5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14.0	14.2	15.8	14.1	19.8	25.8	27.5
운송장비 제조업	37.0	27.9	32.6	32.2	15.4	28.7	47.7
음식료업	8.8	10.5	12.8	14.7	23.2	25.7	28.9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1,885.4	1,280.8	1,187.1	1,445.6	1,079.6	831.3	1,480.2
정밀기기 제조업	255.7	213.6	184.8	398.2	307.8	196.2	241.9
화학제품 제조업	271.5	245.5	239.1	267.7	283.4	330.2	343.4
총합계	3,312.2	2,343.2	2,235.0	2,744.6	2,281.8	2,058.3	2,948.6

2. 경기도의 비주력 산업군의 무역특화지수

- 대세계 차원에서 완전한 수입특화 양상을 보이는 광업은 모든 국가에 대해서 강한 수입특화 양상을 나타내며 대만의 경우에만 수출특화로 나타남.

<표 첨-20> 광업 무역특화지수

연도	대세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95	-0.88	-1.00	-0.85	-1.00	-0.74	0.36	-0.99	-0.08
2012	-0.99	-0.97	-0.97	-0.84	-0.99	-0.91	0.15	-0.94	0.72
2013	-0.99	-0.96	-0.99	-0.76	-1.00	-0.85	0.29	0.86	-0.43
2014	-1.00	-0.98	-1.00	-0.87	-0.87	-0.38	0.41	0.09	-0.44
2015	-1.00	-0.97	-1.00	-0.87	-0.87	-0.86	-0.01	0.99	0.95
2016	-0.99	-0.88	-0.99	-0.71	-0.99	-0.38	-0.08	1.00	0.85
2017	-0.99	-0.89	-0.97	-0.74	-0.99	-0.67	-0.61	1.00	0.10

- 금속제품 제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수입특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홍콩, 아세안과 베트남에 대해서는 강한 수출특화 양상을 보여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단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는 약한 수출특화가 점차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첨-21> 금속제품 제조업 무역특화지수

연도	대세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19	0.28	0.10	-0.24	0.71	0.66	-0.14	0.63	-0.18
2012	0.22	0.26	0.17	-0.22	0.72	0.70	-0.05	0.77	-0.22
2013	0.17	0.38	0.11	-0.24	0.69	0.69	-0.11	0.79	-0.31
2014	0.15	0.38	0.08	-0.28	0.67	0.69	-0.12	0.69	-0.22
2015	0.10	0.12	0.10	-0.30	0.63	0.70	-0.25	0.90	-0.18
2016	0.09	0.28	0.05	-0.27	0.68	0.68	-0.35	0.92	-0.14
2017	0.05	0.24	0.04	-0.32	0.72	0.73	-0.33	0.89	-0.04

- 기타 제조업은 일본에 대해서는 약한 수출특화를, 홍콩에 대해서는 강한 수출특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대세계 전체 무역특화지수는 분석대상기간 동안 수입특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베트남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입특화를 아세안, 대만에 대해서는 중간정도의 수입특화 양상이 나타남.

<표 첨-22> 기타 제조업 무역특화지수

연도	대세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26	0.22	0.05	-0.74	-0.55	-0.58	0.04	0.65	-0.02
2012	-0.25	0.04	-0.14	-0.72	-0.50	-0.60	0.15	0.64	-0.02
2013	-0.20	0.06	0.00	-0.71	-0.52	-0.60	0.33	0.67	-0.37
2014	-0.35	0.06	-0.25	-0.73	-0.57	-0.67	0.20	0.45	-0.35
2015	-0.29	0.07	-0.29	-0.80	-0.56	-0.67	0.05	0.59	-0.52
2016	-0.29	0.01	-0.19	-0.75	-0.58	-0.69	0.26	0.41	-0.53
2017	-0.27	0.00	-0.14	-0.82	-0.59	-0.74	0.11	0.85	-0.48

- 농림수산업은 일본과 최근 홍콩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강한 수입특화 양상이 나타나며 일본의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수출특화 양상을 보임.

<표 첨-23> 농림수산업 무역특화지수

연도	대세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91	-0.95	-0.87	-0.89	-0.60	-0.63	0.42	0.08	-0.65
2012	-0.90	-0.95	-0.88	-0.86	-0.81	-0.60	0.42	0.38	-0.39
2013	-0.89	-0.90	-0.96	-0.88	-0.79	-0.63	0.55	0.38	-0.26
2014	-0.89	-0.96	-0.84	-0.90	-0.73	-0.64	0.63	-0.20	-0.43
2015	-0.89	-0.96	-0.91	-0.84	-0.71	-0.65	0.57	0.95	-0.38
2016	-0.84	-0.90	-0.85	-0.82	-0.45	-0.52	0.40	0.37	0.04
2017	-0.80	-0.92	-0.91	-0.80	-0.39	-0.50	0.36	0.23	0.23

－ 목재/종이/인쇄업은 베트남, 홍콩, 대만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수입특화 양상으로 나타남.

<표 첨-24> 목재/종이/인쇄업 무역특화지수

연도	대세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26	-0.07	-0.69	-0.60	0.22	0.49	-0.29	0.57	0.17
2012	-0.17	-0.21	-0.71	-0.59	-0.04	0.33	-0.18	0.79	0.37
2013	-0.14	-0.16	-0.60	-0.59	-0.17	0.21	-0.34	0.90	0.35
2014	-0.28	-0.17	-0.59	-0.56	-0.37	0.21	-0.40	0.87	0.42
2015	-0.36	-0.28	-0.70	-0.66	-0.36	0.17	-0.35	0.49	0.34
2016	-0.39	-0.21	-0.71	-0.65	-0.24	0.11	-0.37	0.28	0.15
2017	-0.30	-0.29	-0.77	-0.65	-0.29	0.33	-0.47	0.53	0.33

－ 비금속광물제품은 홍콩과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특화 양상을 보이며 특히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높은 수입특화가 나타남.

<표 첨-2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무역특화지수

연도	대세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73	-0.63	-0.50	-0.82	-0.27	-0.34	-0.88	0.43	0.40
2012	-0.73	-0.58	-0.47	-0.85	-0.20	-0.14	-0.90	0.69	0.34
2013	-0.65	-0.51	-0.50	-0.79	-0.09	0.13	-0.91	0.72	0.57
2014	-0.53	-0.55	-0.55	-0.62	-0.22	-0.09	-0.76	0.88	0.62
2015	-0.49	-0.37	-0.54	-0.69	-0.17	-0.06	-0.49	0.49	0.47
2016	-0.55	-0.33	-0.55	-0.72	-0.52	-0.53	-0.67	0.39	0.70
2017	-0.51	-0.20	-0.64	-0.78	-0.46	-0.44	-0.66	0.19	0.74

-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의 경우 베트남과 홍콩에 대해서는 완전한 수출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대세계, 미국, EU, 아세안 측면에서는 강한 수입특화 양상으로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남.

<표 첨-26>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무역특화지수

연도	대세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81	-0.17	-0.66	0.70	-0.94	1.00	-0.43	0.94	-0.55
2012	-0.76	-0.77	-0.78	0.41	-0.98	0.96	-0.29	0.88	-0.41
2013	-0.90	-0.72	-0.78	0.12	-0.93	1.00	-0.95	0.99	0.31
2014	-0.88	-0.91	-0.69	0.42	-0.95	1.00	-0.94	0.98	0.69
2015	-0.93	-0.98	-0.92	0.07	-0.78	1.00	0.03	0.99	0.74
2016	-0.88	-0.99	-0.68	0.80	-0.85	0.94	-0.35	0.90	0.25
2017	-0.87	-0.99	-0.72	0.77	-0.53	0.93	0.25	0.99	0.50

-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은 홍콩에서 완전한 수출특화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에서 수출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군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아세안과 베트남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수입특화로 변화되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수입특화 양상이 강해지고 있음.

<표 첨-27>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무역특화지수

연도	대세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05	-0.28	0.27	-0.30	0.24	0.10	0.02	0.96	0.20
2012	0.06	0.56	0.35	-0.29	0.21	0.05	0.09	0.97	0.03
2013	0.05	0.40	0.47	-0.30	0.25	0.14	0.12	0.97	-0.05
2014	-0.04	0.70	0.32	-0.44	0.05	-0.09	0.12	0.97	-0.13
2015	-0.17	0.64	-0.17	-0.50	-0.04	-0.12	0.10	0.96	0.10
2016	-0.19	0.38	-0.23	-0.56	-0.07	-0.17	0.20	0.96	0.24
2017	-0.13	0.50	-0.16	-0.59	-0.04	-0.11	0.12	0.98	0.21

- 음식료업은 홍콩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비교적 강한 수입특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다만 2014년을 기점으로 일본에 대한 수출특화는 약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표 첨-28> 음식료업 무역특화지수

연도	대세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78	-0.81	-0.96	-0.84	-0.84	-0.81	0.30	0.42	-0.04
2012	-0.75	-0.79	-0.95	-0.74	-0.84	-0.74	0.33	0.47	-0.20
2013	-0.76	-0.80	-0.94	-0.75	-0.84	-0.71	0.21	0.51	-0.41
2014	-0.76	-0.85	-0.95	-0.73	-0.84	-0.77	0.32	0.53	-0.10
2015	-0.74	-0.86	-0.93	-0.59	-0.81	-0.73	0.30	0.51	0.09
2016	-0.66	-0.76	-0.91	-0.44	-0.79	-0.70	0.25	0.50	0.13
2017	-0.70	-0.78	-0.90	-0.56	-0.76	-0.67	0.16	0.48	-0.03

3. 한국의 산업별 현시비교우위지수 - 경기도 비주력 산업군

- 광업의 경우 분석 대상 모든 나라에서 현시비교지수가 낮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일본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는데 실제 광업의 수출액은 3억달러로 전체 산업군에서 가장 낮음.

<표 첨-29> 광업 현시비교우위지수

연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00	0.01	0.08	0.00	0.00	1.41	0.17	2.72
2012	0.00	0.00	0.10	0.00	0.00	0.78	0.33	1.74
2013	0.00	0.00	0.11	0.00	0.00	0.78	0.67	0.89
2014	0.00	0.00	0.15	0.00	0.01	1.25	0.01	0.61
2015	0.01	0.01	0.26	0.00	0.01	0.84	0.00	0.51
2016	0.01	0.00	0.15	0.00	0.03	0.68	0.00	3.14
2017	0.00	0.00	0.20	0.00	0.02	0.48	0.01	2.93

- 금속제품 제조업은 메르코수르를 제외하고 아세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1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인 후, 2017년에 반등함.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

<표 첨-30> 금속제품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연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1.17	0.69	0.29	8.89	1.57	1.99	0.77	1.12
2012	1.51	0.88	0.28	5.59	1.97	2.15	0.54	1.12
2013	1.03	0.79	0.26	4.30	2.37	1.79	0.65	1.07

2014	1.18	0.76	0.32	3.48	2.02	1.82	0.66	1.31
2015	1.28	0.93	0.33	3.95	2.29	2.03	0.63	1.97
2016	1.50	1.73	0.39	2.88	1.97	2.16	0.55	2.09
2017	1.64	1.36	0.36	4.26	1.48	2.29	0.37	1.26

- 기타 제조업에는 금속가구나 완구류 등 비교적 저부가가치 품목군이 주로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수치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첨-31> 기타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연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49	0.25	0.17	0.48	0.31	1.48	0.35	0.67
2012	0.63	0.33	0.16	0.43	0.25	1.58	0.56	0.92
2013	0.57	0.40	0.15	0.36	0.18	1.74	0.24	0.67
2014	0.52	0.42	0.14	0.23	0.12	1.30	0.16	0.69
2015	0.52	0.45	0.14	0.20	0.12	1.19	0.14	0.99
2016	0.56	0.41	0.13	0.22	0.14	1.51	0.04	1.00
2017	0.65	0.36	0.11	0.16	0.09	1.46	0.15	0.90

- 한국은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일본과 대만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수치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만에서는 최근 비교우위수치가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표 첨-32> 농림수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연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02	0.07	0.07	0.03	0.08	8.07	0.06	1.65
2012	0.02	0.07	0.06	0.05	0.09	9.42	0.05	1.52
2013	0.03	0.05	0.07	0.09	0.16	8.36	0.08	1.21
2014	0.02	0.09	0.05	0.09	0.14	6.76	0.07	1.66
2015	0.02	0.06	0.06	0.06	0.10	5.75	0.11	2.15
2016	0.03	0.11	0.06	0.08	0.13	6.40	0.03	3.14
2017	0.03	0.09	0.09	0.06	0.06	6.80	0.04	5.28

- 목재/종이/인쇄업의 경우 2017년 기준 대부분의 국가에서 1 이하로 나타났으며, 대만의 경우에만 분석기간 동안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첨-33> 목재/종이/인쇄업 현시비교우위지수

연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57	0.23	0.30	0.29	0.31	1.19	0.46	1.71
2012	0.60	0.22	0.32	0.30	0.32	1.31	0.41	2.27
2013	0.68	0.27	0.26	0.30	0.32	1.11	0.66	1.61
2014	0.65	0.27	0.23	0.29	0.32	0.97	0.46	1.75
2015	0.60	0.26	0.27	0.25	0.33	0.89	0.34	2.02
2016	0.66	0.25	0.28	0.27	0.31	1.03	0.36	1.90
2017	0.74	0.17	0.29	0.26	0.32	0.98	0.38	2.57

- 비금속광물제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1이하로 나타났으며 대만의 경우에만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이 나타남. 그러나 전반적으로 비금속광물제품에 대한 비교우위는 주요 교역국가에 대해서 모두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표 첨-3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연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37	0.28	0.07	0.49	0.29	0.20	0.87	1.54
2012	0.30	0.29	0.08	0.45	0.23	0.21	0.85	1.72
2013	0.27	0.39	0.08	0.55	0.35	0.34	0.93	2.16
2014	0.39	0.41	0.12	0.57	0.37	0.49	1.70	1.98
2015	0.48	0.36	0.14	0.52	0.38	0.70	1.07	3.27
2016	0.44	0.35	0.17	0.42	0.28	0.68	1.07	5.35
2017	0.50	0.32	0.19	0.37	0.27	0.74	1.21	5.43

-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은 모든 국가에서 높게 나타남. 특히 베트남의 경우는 2011년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지수 자체가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반대로 대만에 대해서는 현시비교우위지수가 점차 증가해 2017년 기준으로는 주요국 대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대만에 대해서는 전체 산업군에서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가 가장 높은 양상을 보임.

<표 첨-35>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연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6.35	3.15	9.09	4.11	3046.55	12.63	6.47	14.70
2012	5.22	1.42	12.45	3.33	359.68	8.89	5.79	26.88
2013	5.01	1.09	6.80	2.15	377.90	7.60	3.45	56.54
2014	1.20	1.53	8.95	2.46	586.10	8.19	54.03	54.69
2015	1.62	1.36	11.61	2.47	984.21	11.04	10.40	67.75
2016	1.10	2.21	11.20	1.85	85.99	9.35	12.60	247.28
2017	0.99	1.42	12.93	2.30	94.85	10.40	7.59	159.87

- － 석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낮은 수치를 나타냄.

<표 첨-36>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

연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1.12	0.40	0.25	1.28	0.45	3.38	1.10	0.88
2012	1.12	0.52	0.24	1.00	0.39	3.63	1.18	1.22
2013	1.05	0.59	0.21	0.81	0.33	4.21	1.64	1.10
2014	0.98	0.52	0.20	0.73	0.31	3.95	1.48	1.31
2015	1.04	0.43	0.19	0.60	0.30	3.85	1.62	1.66
2016	1.36	0.39	0.18	0.54	0.30	3.94	1.51	1.76
2017	1.53	0.32	0.16	0.42	0.24	3.83	1.94	1.34

- － 음식료업 산업의 경우 일본에 대한 비교우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있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는 모두 비교열위가 나타남. 다만 2013년까지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변화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수를 나타냄.

<표 첨-37> 음식료업 현시비교우위지수

연도	미국	EU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2011	0.11	0.06	0.25	0.23	0.12	7.79	1.30	0.59
2012	0.13	0.09	0.25	0.21	0.12	9.73	1.03	0.62
2013	0.12	0.11	0.21	0.21	0.14	11.56	1.39	0.68
2014	0.11	0.11	0.23	0.18	0.11	11.41	1.27	0.80
2015	0.11	0.12	0.28	0.20	0.16	9.23	0.85	1.25
2016	0.12	0.13	0.32	0.23	0.17	8.21	0.77	1.49
2017	0.13	0.12	0.27	0.21	0.12	7.84	0.74	1.33

첨부 4: 경기도 주요 수출품목(금액별)

1. 경기도 1억달러 이상 수출품목

<표 첨-38> 경기도 1억달러 이상 수출품목

(단위: 천불)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1	854232	25,812,314	47	870830	318,824	93	390769	159,751
2	901380	6,244,154	48	600410	317,189	94	390761	158,178
3	847330	6,117,865	49	392062	315,806	95	854150	157,643
4	851770	4,646,266	50	847990	310,124	96	852852	154,285
5	852990	3,316,760	51	711419	301,054	97	210690	151,058
6	853400	3,121,912	52	410792	290,534	98	870840	149,639
7	851712	2,583,963	53	853690	286,230	99	842890	148,799
8	870324	1,921,520	54	840734	280,519	100	851890	148,203
9	870323	1,897,663	55	820730	269,259	101	940540	146,404
10	848630	1,840,313	56	854370	268,963	102	847160	143,487
11	854140	1,802,290	57	382499	267,466	103	890190	140,935
12	854231	1,787,105	58	845611	260,687	104	848079	139,134
13	870340	1,714,667	59	901390	256,370	105	851220	138,971
14	847989	1,564,431	60	320730	250,770	106	841869	136,375
15	870322	1,485,137	61	392310	249,654	107	330790	134,043
16	870332	1,385,175	62	730629	239,797	108	841911	133,406
17	870899	1,187,818	63	848180	233,128	109	903082	132,104
18	848690	1,186,191	64	900211	228,595	110	842121	131,878
19	854239	1,123,682	65	940190	227,201	111	761699	130,970
20	330499	933,615	66	590320	224,718	112	392190	129,402
21	870321	865,191	67	903090	219,388	113	902213	127,903
22	853669	799,421	68	852351	215,373	114	600632	127,344
23	847170	781,235	69	841899	211,225	115	730630	126,694
24	391990	701,951	70	841989	208,653	116	842833	126,520
25	900120	685,573	71	870210	208,423	117	390810	122,590
26	848640	682,959	72	850490	208,144	118	940599	122,296
27	903180	625,499	73	901812	206,830	119	853650	121,017
28	900190	574,931	74	840991	202,479	120	846420	120,798
29	853224	570,598	75	850450	197,076	121	841480	120,634
30	903149	569,206	76	852580	194,848	122	731815	119,485

31	853890	565,504	77	854442	193,111	123	293339	112,309
32	850760	526,702	78	740721	192,733	124	842199	111,688
33	854460	525,396	79	740819	192,504	125	851580	111,068
34	848071	492,619	80	293499	191,336	126	854121	110,560
35	848620	485,987	81	903190	187,418	127	392099	110,428
36	853710	466,763	82	842139	183,698	128	848310	109,110
37	392690	462,683	83	710813	178,632	129	370500	108,984
38	851762	419,024	84	902290	172,681	130	852349	107,663
39	740811	380,044	85	741110	172,338	131	391910	106,564
40	854449	367,384	86	730619	172,335	132	840310	106,052
41	850440	366,260	87	382200	167,892	133	845090	105,797
42	870829	357,928	88	370790	167,384	134	870894	105,640
43	870360	351,424	89	870421	166,640	135	300212	103,911
44	843149	332,867	90	730890	166,266	136	844332	102,339
45	854129	331,003	91	901890	164,970	137	320890	101,542
46	732690	329,486	92	300490	163,323	138	870331	100,121

2. 경기도 1천만달러 이상 수출품목

<표 첨-39> 경기도 1천만달러 이상 수출품목

(단위: 천불)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1	300220	99,689	41	844399	70,987	81	381800	58,403
2	290243	99,560	42	821220	70,783	82	702000	58,365
3	760711	98,170	43	902214	70,421	83	870870	58,244
4	840999	98,132	44	392020	70,225	84	900219	57,516
5	841590	97,632	45	381400	69,726	85	841391	56,931
6	847710	97,382	46	630900	69,422	86	392321	56,384
7	848190	96,555	47	350610	69,352	87	390799	55,942
8	700490	95,770	48	853120	68,617	88	841330	55,737
9	853590	94,576	49	190590	68,200	89	903210	55,471
10	390730	92,852	50	841490	68,177	90	854390	55,314
11	392330	91,969	51	390610	68,047	91	630790	55,068
12	330420	90,206	52	392051	68,027	92	681599	54,916
13	540761	89,221	53	847790	67,544	93	842839	54,619
14	392329	89,062	54	730640	67,449	94	842489	54,428
15	321519	88,648	55	321210	67,349	95	284190	53,815
16	600192	88,389	56	690919	67,195	96	854720	53,739
17	320416	87,837	57	852910	67,039	97	121221	53,319
18	854470	84,977	58	820239	66,395	98	740321	52,473
19	390740	81,197	59	900290	65,879	99	760719	52,289
20	842240	80,605	60	900110	65,239	100	853229	52,195
21	294190	80,588	61	720292	64,996	101	853190	51,800
22	847981	79,787	62	900130	64,298	102	391000	51,656
23	680421	79,783	63	842952	63,919	103	853641	51,319
24	730511	79,696	64	190230	62,606	104	852721	50,846
25	271019	79,567	65	722020	62,451	105	711319	50,830
26	854110	79,167	66	902790	62,144	106	621790	50,730
27	390950	78,859	67	901320	61,749	107	842720	50,478
28	902129	78,605	68	293410	61,401	108	741021	49,806
29	902190	76,436	69	846299	61,333	109	853720	49,186
30	850110	75,638	70	852691	60,744	110	842230	48,689
31	350691	75,017	71	850423	59,737	111	481092	48,664
32	854190	74,010	72	841410	59,711	112	843120	48,325
33	852290	73,947	73	870893	59,556	113	741300	48,153
34	600622	72,831	74	851690	59,481	114	870880	47,187
35	930690	72,554	75	843680	59,427	115	820770	47,112
36	850300	72,521	76	844339	59,098	116	848610	46,479
37	401699	72,517	77	392113	58,986	117	830710	46,255
38	903289	72,062	78	740921	58,805	118	847180	46,140
39	761510	72,040	79	852359	58,745	119	720421	45,903
40	392043	71,559	80	847982	58,454	120	210390	45,774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121	401693	45,685	161	320820	38,344	201	848060	32,086
122	390690	45,590	162	392049	38,325	202	852190	31,726
123	847780	45,437	163	848350	38,228	203	901850	31,638
124	901832	45,101	164	300390	38,030	204	847150	31,636
125	870821	45,050	165	760421	37,663	205	621710	31,610
126	847290	44,789	166	760720	37,182	206	848049	31,526
127	847720	44,538	167	120991	37,089	207	321590	31,514
128	730512	44,524	168	902710	36,913	208	560122	31,499
129	820790	44,043	169	852871	36,777	209	330410	31,291
130	290220	44,043	170	846693	36,743	210	680510	30,921
131	741210	43,989	171	848390	36,630	211	481950	30,501
132	390210	43,899	172	848120	36,598	212	853340	30,480
133	854430	43,354	173	853222	36,524	213	382440	30,461
134	481420	43,338	174	852859	36,450	214	731010	30,431
135	842810	42,992	175	610990	36,199	215	843139	30,430
136	851290	42,771	176	550320	35,997	216	711292	30,300
137	830120	42,744	177	392630	35,816	217	841459	30,259
138	392390	42,671	178	293399	35,814	218	842490	30,221
139	650610	42,175	179	271113	35,686	219	901210	29,918
140	845180	42,085	180	390720	35,078	220	560394	29,727
141	847050	42,008	181	711890	35,009	221	730411	29,590
142	700600	41,930	182	480990	34,941	222	392350	29,530
143	392010	41,530	183	392069	34,868	223	030383	29,326
144	870590	41,384	184	847149	34,697	224	854160	29,284
145	902780	41,155	185	830230	34,584	225	411420	29,206
146	851761	41,089	186	330590	34,567	226	381239	29,029
147	300420	40,792	187	490199	34,409	227	851629	28,992
148	291819	40,577	188	902219	34,278	228	380891	28,929
149	720449	40,533	189	854890	34,160	229	870333	28,797
150	761410	40,395	190	580632	33,913	230	851590	28,775
151	901910	40,242	191	380991	33,870	231	853321	28,775
152	841229	40,140	192	902750	33,840	232	392410	28,763
153	854420	40,126	193	850590	33,581	233	761090	28,694
154	851410	39,631	194	847529	33,577	234	870600	28,436
155	870850	39,405	195	600537	33,177	235	731100	28,256
156	381010	39,273	196	390330	32,895	236	482010	28,210
157	760429	39,009	197	903141	32,728	237	600634	28,200
158	540742	38,957	198	850790	32,717	238	846694	28,162
159	720270	38,622	199	848110	32,674	239	841939	28,085
160	850980	38,473	200	840820	32,102	240	760120	28,015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241	500720	28,004	281	851430	24,521	321	851769	21,717
242	842290	27,996	282	390130	24,427	322	721730	21,646
243	848790	27,956	283	390940	24,362	323	870892	21,508
244	851680	27,610	284	390890	24,242	324	481099	21,428
245	730900	27,506	285	741999	24,240	325	220299	21,424
246	843143	27,490	286	845710	24,234	326	841950	21,336
247	590700	27,351	287	300510	24,181	327	920994	21,294
248	850434	27,217	288	854330	24,168	328	710692	21,284
249	950730	27,203	289	853610	24,066	329	843141	21,219
250	830140	27,167	290	291590	24,055	330	740911	21,100
251	842129	27,109	291	340130	23,878	331	340220	21,038
252	680530	27,074	292	847950	23,869	332	610910	20,971
253	680520	26,800	293	740322	23,856	333	902212	20,838
254	950430	26,531	294	391732	23,655	334	294130	20,812
255	271112	26,483	295	382600	23,640	335	940130	20,691
256	901849	26,422	296	830260	23,629	336	842710	20,519
257	700910	26,406	297	903039	23,622	337	761010	20,389
258	844130	26,394	298	320650	23,614	338	731512	20,369
259	293349	26,307	299	820750	23,600	339	851521	20,353
260	830300	25,971	300	731816	23,472	340	851632	20,185
261	390110	25,822	301	847521	23,327	341	721190	20,159
262	340590	25,775	302	848130	23,274	342	853290	20,152
263	340540	25,714	303	294200	23,216	343	848340	20,111
264	740821	25,640	304	292090	23,079	344	721129	20,110
265	600642	25,560	305	853221	22,919	345	853630	20,000
266	846210	25,547	306	591110	22,720	346	847141	19,913
267	320990	25,437	307	410799	22,664	347	030363	19,889
268	711291	25,327	308	321511	22,624	348	847740	19,826
269	902519	25,326	309	851240	22,489	349	392030	19,809
270	960329	25,306	310	590390	22,481	350	853921	19,688
271	853521	25,230	311	600110	22,385	351	551299	19,666
272	730799	25,178	312	300590	22,270	352	491000	19,646
273	611595	25,067	313	903281	22,259	353	730690	19,573
274	850151	25,008	314	950300	22,250	354	482369	19,485
275	293190	24,923	315	841370	22,164	355	293369	19,426
276	392119	24,905	316	600535	21,869	356	901839	19,331
277	480524	24,894	317	210500	21,849	357	581092	19,305
278	330510	24,875	318	320417	21,825	358	130219	19,287
279	842123	24,707	319	846229	21,818	359	880240	19,274
280	853530	24,639	320	842010	21,803	360	760820	19,204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361	741121	19,166	401	843069	17,170	441	293590	15,242
362	850519	19,164	402	732182	17,125	442	844319	15,230
363	381512	19,067	403	841430	17,025	443	391890	15,208
364	845140	19,052	404	282739	16,973	444	853110	15,168
365	854233	19,034	405	281700	16,940	445	860900	14,880
366	844250	18,943	406	970110	16,936	446	843880	14,875
367	760612	18,922	407	848360	16,876	447	940429	14,870
368	540769	18,865	408	853810	16,876	448	903040	14,867
369	540248	18,816	409	850650	16,793	449	731029	14,854
370	842691	18,717	410	030614	16,660	450	850421	14,828
371	970300	18,684	411	846221	16,553	451	640610	14,824
372	940390	18,676	412	711719	16,472	452	950699	14,820
373	284590	18,630	413	842420	16,414	453	320910	14,764
374	830210	18,628	414	851610	16,408	454	902300	14,749
375	847329	18,578	415	290110	16,361	455	851490	14,702
376	846880	18,521	416	901819	16,323	456	300290	14,698
377	190219	18,496	417	391810	16,310	457	030487	14,670
378	880521	18,400	418	847190	16,229	458	350699	14,656
379	820900	18,386	419	850431	16,222	459	650700	14,646
380	540752	18,312	420	730729	16,214	460	392340	14,599
381	740400	18,279	421	830890	16,206	461	902000	14,545
382	320411	18,268	422	845811	16,186	462	281122	14,475
383	903033	18,093	423	940560	16,164	463	392059	14,470
384	340290	18,073	424	741012	15,950	464	854411	14,438
385	840290	18,011	425	847759	15,897	465	851830	14,436
386	853529	18,006	426	844110	15,875	466	721934	14,371
387	850140	17,978	427	391722	15,769	467	390190	14,362
388	903089	17,894	428	030633	15,769	468	843610	14,221
389	730441	17,862	429	391740	15,760	469	870895	14,167
390	320649	17,804	430	290339	15,713	470	721933	14,163
391	848041	17,665	431	853620	15,693	471	730431	14,116
392	900220	17,633	432	190410	15,573	472	902590	14,096
393	841990	17,536	433	481159	15,529	473	340212	14,069
394	681510	17,535	434	640690	15,402	474	732290	14,000
395	320490	17,510	435	340219	15,401	475	871000	13,997
396	284290	17,483	436	846029	15,390	476	850870	13,992
397	840410	17,357	437	902690	15,359	477	903300	13,765
398	843131	17,281	438	961900	15,325	478	842131	13,721
399	902620	17,222	439	280461	15,257	479	591190	13,701
400	852692	17,221	440	854290	15,255	480	848210	13,668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481	670419	13,659	521	293750	12,497	561	820719	11,183
482	321000	13,591	522	220600	12,431	562	851679	11,177
483	902610	13,549	523	901831	12,370	563	851420	11,169
484	030389	13,540	524	320810	12,367	564	285390	11,122
485	852872	13,476	525	841780	12,334	565	392111	11,109
486	940690	13,458	526	961590	12,291	566	844180	11,057
487	853210	13,398	527	340490	12,274	567	830160	11,055
488	851840	13,327	528	846490	12,204	568	842511	11,005
489	200819	13,326	529	600690	12,167	569	550340	10,986
490	730830	13,259	530	903120	12,126	570	940490	10,982
491	390230	13,259	531	950490	12,119	571	845630	10,927
492	410411	13,240	532	282619	12,074	572	701090	10,823
493	841810	13,189	533	285000	12,072	573	293299	10,730
494	843999	13,183	534	560312	12,066	574	721012	10,698
495	851631	13,174	535	851821	12,064	575	842381	10,697
496	845190	13,121	536	281219	12,017	576	847490	10,674
497	930400	13,107	537	611610	11,973	577	481490	10,659
498	810890	13,062	538	851230	11,971	578	841710	10,634
499	551219	13,045	539	854590	11,937	579	392061	10,630
500	851810	13,022	540	391739	11,829	580	650500	10,585
501	600624	12,966	541	852729	11,796	581	392610	10,569
502	220870	12,911	542	846594	11,774	582	730451	10,563
503	482110	12,907	543	961620	11,770	583	721070	10,538
504	470790	12,893	544	732393	11,745	584	600623	10,528
505	950691	12,873	545	844712	11,744	585	560392	10,442
506	848410	12,838	546	722692	11,720	586	821290	10,411
507	730621	12,830	547	340119	11,670	587	843820	10,397
508	630710	12,815	548	540232	11,611	588	690912	10,372
509	732599	12,811	549	481910	11,573	589	847340	10,342
510	390120	12,776	550	850131	11,554	590	853225	10,300
511	841360	12,770	551	851140	11,549	591	283699	10,279
512	903290	12,748	552	852352	11,542	592	821210	10,217
513	391510	12,714	553	321410	11,527	593	831130	10,208
514	540792	12,658	554	392290	11,429	594	741011	10,185
515	570320	12,655	555	320420	11,428	595	300230	10,175
516	847130	12,654	556	190190	11,417	596	790310	10,162
517	940510	12,650	557	540772	11,415	597	841510	10,157
518	731210	12,558	558	740940	11,318	598	030339	10,156
519	846599	12,525	559	721590	11,318	599	871680	10,150
520	780110	12,506	560	480525	11,230	600	611596	10,140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601	400510	10,093						
602	710812	10,091						
603	550140	10,087						
604	330491	10,074						
605	481141	10,047						

3. 경기도 1백만달러 이상 수출품목

<표 첨-40> 경기도 1백만달러 이상 수출품목

(단위: 천불)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1	960820	9,964	41	820760	9,069	81	580710	7,995
2	853090	9,928	42	846691	9,048	82	960720	7,973
3	390319	9,917	43	210410	9,040	83	482390	7,960
4	820299	9,906	44	721030	9,004	84	340399	7,927
5	830990	9,883	45	940320	8,874	85	200830	7,922
6	730519	9,875	46	630293	8,842	86	392590	7,886
7	844190	9,862	47	300630	8,836	87	850511	7,884
8	848020	9,835	48	391190	8,789	88	842390	7,879
9	843850	9,790	49	760611	8,783	89	220300	7,858
10	700719	9,787	50	901920	8,750	90	080830	7,850
11	851190	9,742	51	550120	8,704	91	490110	7,844
12	282550	9,698	52	930120	8,627	92	740829	7,838
13	841239	9,696	53	820740	8,577	93	846610	7,813
14	850152	9,656	54	732020	8,569	94	890800	7,800
15	740990	9,650	55	330610	8,498	95	846291	7,789
16	950790	9,595	56	848010	8,497	96	870891	7,782
17	720429	9,521	57	902230	8,462	97	390939	7,726
18	846620	9,521	58	902730	8,393	98	481160	7,688
19	722090	9,493	59	847410	8,375	99	190490	7,666
20	841920	9,461	60	320419	8,350	100	800700	7,629
21	841221	9,449	61	293359	8,280	101	290539	7,605
22	540247	9,418	62	170490	8,272	102	871690	7,601
23	411200	9,417	63	283719	8,266	103	722699	7,542
24	851981	9,407	64	284690	8,242	104	810299	7,537
25	291570	9,390	65	230990	8,235	105	330749	7,526
26	844820	9,387	66	853649	8,216	106	340211	7,499
27	330300	9,338	67	854519	8,196	107	300450	7,496
28	480257	9,335	68	560210	8,191	108	470720	7,494
29	420232	9,296	69	380190	8,168	109	330290	7,452
30	292119	9,284	70	030391	8,165	110	851310	7,450
31	880330	9,252	71	960321	8,147	111	410712	7,418
32	900390	9,243	72	382000	8,121	112	920992	7,402
33	261400	9,230	73	853950	8,107	113	843810	7,390
34	846390	9,225	74	999999	8,094	114	391729	7,388
35	841350	9,213	75	390390	8,075	115	901050	7,381
36	480419	9,179	76	340213	8,062	116	400599	7,364
37	640399	9,145	77	290619	8,041	117	200899	7,353
38	320710	9,116	78	540710	8,033	118	300190	7,307
39	292700	9,092	79	560314	8,002	119	300640	7,251
40	870810	9,079	80	281111	7,998	120	540110	7,241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121	550190	7,235	161	720927	6,609	201	845961	5,980
122	842611	7,227	162	730439	6,587	202	730531	5,960
123	381090	7,204	163	051199	6,578	203	760810	5,924
124	820559	7,200	164	280469	6,554	204	844391	5,910
125	760200	7,131	165	740919	6,535	205	844313	5,902
126	760900	7,130	166	550810	6,523	206	854790	5,879
127	841620	7,120	167	400219	6,519	207	844859	5,878
128	851150	7,104	168	760519	6,510	208	711311	5,870
129	560311	7,093	169	691110	6,507	209	710610	5,868
130	481920	7,081	170	847090	6,494	210	845891	5,840
131	340319	7,069	171	281129	6,463	211	391723	5,831
132	760511	6,986	172	853929	6,454	212	480540	5,782
133	390290	6,961	173	420292	6,442	213	721049	5,776
134	870290	6,959	174	910211	6,440	214	850213	5,760
135	845430	6,939	175	411320	6,416	215	820590	5,751
136	846150	6,933	176	580610	6,393	216	740100	5,744
137	640419	6,916	177	846890	6,386	217	151529	5,743
138	831000	6,904	178	640590	6,384	218	902720	5,726
139	721220	6,904	179	840219	6,321	219	841451	5,690
140	330430	6,883	180	030359	6,316	220	480700	5,687
141	392490	6,870	181	830820	6,308	221	300439	5,666
142	680422	6,852	182	845530	6,296	222	845129	5,647
143	711620	6,852	183	220830	6,190	223	730300	5,645
144	950710	6,844	184	650699	6,172	224	190120	5,630
145	901180	6,830	185	540782	6,171	225	870510	5,627
146	390931	6,824	186	600121	6,140	226	292429	5,539
147	300432	6,821	187	850940	6,139	227	580137	5,511
148	540419	6,814	188	580620	6,135	228	730840	5,510
149	731823	6,793	189	600633	6,127	229	846241	5,508
150	800300	6,785	190	960610	6,124	230	320740	5,505
151	282690	6,761	191	851539	6,078	231	731822	5,487
152	845970	6,718	192	491199	6,073	232	291619	5,487
153	350300	6,712	193	940340	6,065	233	842430	5,477
154	730449	6,710	194	840211	6,064	234	681389	5,455
155	760410	6,705	195	491110	6,053	235	520852	5,449
156	740710	6,671	196	321290	6,040	236	850780	5,414
157	840390	6,653	197	846249	6,036	237	854520	5,400
158	320412	6,632	198	841381	6,015	238	846630	5,380
159	960719	6,628	199	846090	6,003	239	292249	5,369
160	391731	6,623	200	847810	5,986	240	420221	5,328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241	340111	5,321	281	902830	4,835	321	911490	4,381
242	850422	5,321	282	844317	4,823	322	960330	4,376
243	400811	5,304	283	732619	4,802	323	701990	4,376
244	851440	5,301	284	381590	4,777	324	851660	4,343
245	540233	5,299	285	391590	4,737	325	292910	4,332
246	300410	5,285	286	842649	4,734	326	810196	4,323
247	540754	5,277	287	750890	4,732	327	844790	4,323
248	731814	5,270	288	721250	4,727	328	294110	4,318
249	852869	5,263	289	732090	4,700	329	852380	4,318
250	391690	5,257	290	750300	4,696	330	853990	4,318
251	732111	5,205	291	845730	4,691	331	841582	4,314
252	480411	5,184	292	481940	4,687	332	190220	4,310
253	880400	5,176	293	843890	4,682	333	830250	4,305
254	850433	5,173	294	320619	4,669	334	030743	4,303
255	844839	5,170	295	550922	4,652	335	580790	4,289
256	846820	5,163	296	760692	4,645	336	590310	4,289
257	180631	5,136	297	902480	4,636	337	820720	4,288
258	060290	5,119	298	392112	4,632	338	960910	4,280
259	200599	5,102	299	710490	4,628	339	810199	4,277
260	940179	5,097	300	720854	4,623	340	690390	4,274
261	540219	5,079	301	292419	4,622	341	282560	4,269
262	847420	5,072	302	740729	4,619	342	380899	4,252
263	731829	5,039	303	845650	4,614	343	540245	4,246
264	030367	5,038	304	853932	4,597	344	902680	4,245
265	730650	5,033	305	940360	4,593	345	848490	4,244
266	490890	5,028	306	961100	4,562	346	580410	4,244
267	820780	5,019	307	821420	4,551	347	851529	4,225
268	902920	4,998	308	920710	4,542	348	600122	4,222
269	901813	4,980	309	853540	4,522	349	392510	4,216
270	621149	4,979	310	390710	4,515	350	960810	4,210
271	401110	4,978	311	121120	4,489	351	291639	4,209
272	242400	4,945	312	600539	4,482	352	820600	4,202
273	843010	4,939	313	920790	4,476	353	731450	4,198
274	870530	4,914	314	830241	4,456	354	150710	4,197
275	845229	4,901	315	210112	4,453	355	890130	4,190
276	590610	4,893	316	847730	4,441	356	853180	4,171
277	591120	4,886	317	392530	4,415	357	841583	4,162
278	852560	4,878	318	903110	4,413	358	846692	4,160
279	853329	4,877	319	721790	4,396	359	481149	4,153
280	420299	4,846	320	780191	4,391	360	270750	4,147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361	845310	4,132	401	551599	3,748	441	741533	3,394
362	621143	4,129	402	847940	3,747	442	160232	3,374
363	841290	4,128	403	030354	3,744	443	291899	3,371
364	732399	4,127	404	290512	3,731	444	420212	3,359
365	721240	4,098	405	411390	3,731	445	845490	3,342
366	848140	4,089	406	844120	3,713	446	901290	3,334
367	670490	4,085	407	040299	3,705	447	844711	3,329
368	848420	4,084	408	840810	3,703	448	831120	3,325
369	761290	4,080	409	810520	3,695	449	854320	3,309
370	852329	4,074	410	842549	3,687	450	903032	3,299
371	850432	4,071	411	721550	3,686	451	701931	3,298
372	590110	4,051	412	580421	3,682	452	850410	3,293
373	551511	4,043	413	846711	3,648	453	730721	3,276
374	961210	4,025	414	381900	3,642	454	845510	3,267
375	410791	4,005	415	030792	3,640	455	730820	3,264
376	560393	4,000	416	710691	3,639	456	160420	3,240
377	560490	3,996	417	851531	3,635	457	620690	3,238
378	282759	3,993	418	620463	3,618	458	842219	3,237
379	903084	3,975	419	841981	3,604	459	220860	3,237
380	920290	3,964	420	381519	3,595	460	846719	3,231
381	540753	3,956	421	960350	3,594	461	722300	3,230
382	845150	3,931	422	940520	3,592	462	540252	3,200
383	851829	3,914	423	220210	3,564	463	870911	3,195
384	843041	3,901	424	730791	3,557	464	830810	3,192
385	441520	3,883	425	391290	3,541	465	390599	3,188
386	902410	3,877	426	870422	3,535	466	841790	3,165
387	380993	3,852	427	600536	3,501	467	611790	3,165
388	840510	3,847	428	621133	3,495	468	842389	3,146
389	842641	3,830	429	300610	3,486	469	853949	3,144
390	300320	3,820	430	540794	3,485	470	410419	3,143
391	680690	3,811	431	400922	3,483	471	846595	3,139
392	640299	3,791	432	845612	3,474	472	722830	3,137
393	690310	3,790	433	420222	3,472	473	846190	3,135
394	600631	3,781	434	690911	3,457	474	847690	3,131
395	821194	3,775	435	590699	3,443	475	950639	3,114
396	600644	3,774	436	293379	3,435	476	722012	3,100
397	293090	3,774	437	030357	3,434	477	310100	3,096
398	482190	3,764	438	741521	3,409	478	294000	3,092
399	392073	3,764	439	320611	3,407	479	511211	3,088
400	850610	3,751	440	730520	3,404	480	871410	3,087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481	821490	3,083	521	730722	2,771	561	261310	2,511
482	620433	3,080	522	846729	2,768	562	290290	2,505
483	850990	3,068	523	720521	2,768	563	761610	2,501
484	842820	3,066	524	731940	2,765	564	292130	2,500
485	291539	3,061	525	381121	2,758	565	847480	2,500
486	848280	3,045	526	847510	2,753	566	520523	2,498
487	730490	3,042	527	330730	2,752	567	340700	2,497
488	831190	3,035	528	848330	2,748	568	330690	2,494
489	731819	3,032	529	390469	2,746	569	840890	2,489
490	291811	3,013	530	380894	2,741	570	400821	2,484
491	940180	3,006	531	340311	2,728	571	850163	2,475
492	490810	3,005	532	851650	2,721	572	853510	2,460
493	844720	2,992	533	720851	2,715	573	731419	2,456
494	853080	2,987	534	620462	2,701	574	810295	2,453
495	730719	2,985	535	293329	2,698	575	844530	2,450
496	961380	2,982	536	841850	2,693	576	845929	2,442
497	721090	2,968	537	540791	2,692	577	870423	2,439
498	850710	2,968	538	741220	2,675	578	841840	2,433
499	844331	2,948	539	420500	2,656	579	490900	2,430
500	911390	2,942	540	780199	2,651	580	721935	2,418
501	841320	2,941	541	853223	2,638	581	740931	2,418
502	845221	2,929	542	481190	2,628	582	732620	2,407
503	210111	2,894	543	292990	2,615	583	290949	2,405
504	292142	2,860	544	030771	2,610	584	848240	2,403
505	721924	2,854	545	400911	2,609	585	890510	2,398
506	291719	2,852	546	851822	2,599	586	481690	2,389
507	321310	2,845	547	711299	2,597	587	848320	2,368
508	320500	2,828	548	690220	2,570	588	030475	2,363
509	293319	2,827	549	940290	2,570	589	480255	2,360
510	640620	2,826	550	540234	2,568	590	842119	2,326
511	711790	2,824	551	840490	2,563	591	320210	2,306
512	030311	2,811	552	600191	2,563	592	851110	2,304
513	847910	2,808	553	730661	2,561	593	293627	2,300
514	830249	2,800	554	321490	2,557	594	902139	2,297
515	220850	2,795	555	843110	2,555	595	610620	2,284
516	611693	2,787	556	720917	2,545	596	321390	2,284
517	430310	2,783	557	520839	2,529	597	401220	2,281
518	401490	2,777	558	511290	2,527	598	630392	2,271
519	842220	2,775	559	811300	2,525	599	844851	2,266
520	830220	2,771	560	790700	2,514	600	030312	2,247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601	600290	2,245	641	846040	2,067	681	482320	1,904
602	521223	2,238	642	845130	2,063	682	090422	1,888
603	940310	2,235	643	280300	2,063	683	500790	1,881
604	844400	2,234	644	844010	2,062	684	901720	1,879
605	600538	2,234	645	940330	2,053	685	320414	1,877
606	846023	2,226	646	690990	2,052	686	291829	1,872
607	380992	2,226	647	611030	2,050	687	842382	1,871
608	910111	2,223	648	900311	2,049	688	853670	1,867
609	911190	2,216	649	850811	2,045	689	701911	1,867
610	960621	2,215	650	870410	2,045	690	330210	1,867
611	730793	2,210	651	511219	2,042	691	901820	1,861
612	470710	2,197	652	830242	2,033	692	100630	1,857
613	843360	2,196	653	580300	2,031	693	521031	1,856
614	732190	2,191	654	151521	2,030	694	390311	1,847
615	291614	2,190	655	845969	2,025	695	730459	1,836
616	691490	2,190	656	151590	2,024	696	850819	1,833
617	391390	2,187	657	901730	2,024	697	620640	1,832
618	732410	2,180	658	841940	2,019	698	320620	1,827
619	540771	2,168	659	711019	2,005	699	070200	1,819
620	600490	2,168	660	230910	1,992	700	480519	1,817
621	391400	2,163	661	845290	1,991	701	560313	1,817
622	481890	2,159	662	810197	1,988	702	720890	1,810
623	291479	2,151	663	210320	1,985	703	681099	1,808
624	846792	2,144	664	820570	1,980	704	611120	1,803
625	841720	2,135	665	842191	1,979	705	845899	1,800
626	620443	2,133	666	820810	1,967	706	853010	1,799
627	370130	2,126	667	901780	1,963	707	320720	1,799
628	550953	2,123	668	282760	1,956	708	401390	1,792
629	845690	2,122	669	851850	1,956	709	570490	1,792
630	731511	2,120	670	340391	1,953	710	854419	1,787
631	842619	2,119	671	284440	1,947	711	960390	1,784
632	847431	2,111	672	731449	1,947	712	722220	1,778
633	820890	2,104	673	521213	1,944	713	845020	1,770
634	630629	2,102	674	850120	1,943	714	721061	1,765
635	871639	2,100	675	540412	1,936	715	722410	1,763
636	392092	2,099	676	844590	1,932	716	722860	1,759
637	390530	2,097	677	844140	1,929	717	282110	1,759
638	390320	2,094	678	731290	1,928	718	847689	1,755
639	860729	2,085	679	901090	1,913	719	391620	1,747
640	190531	2,083	680	860400	1,912	720	400270	1,742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721	900410	1,740	761	400941	1,622	801	850212	1,508
722	970600	1,739	762	851030	1,613	802	392640	1,507
723	400942	1,732	763	540341	1,607	803	250590	1,501
724	940210	1,726	764	880320	1,603	804	381190	1,501
725	920590	1,726	765	410711	1,602	805	590290	1,500
726	540120	1,726	766	382319	1,601	806	390440	1,499
727	721912	1,720	767	681410	1,597	807	401695	1,497
728	480240	1,720	768	843061	1,590	808	160414	1,496
729	284990	1,716	769	842320	1,585	809	340120	1,496
730	691410	1,714	770	290729	1,584	810	721069	1,490
731	551519	1,713	771	560819	1,579	811	290241	1,490
732	170290	1,711	772	847621	1,576	812	760691	1,488
733	590800	1,708	773	720827	1,571	813	152000	1,488
734	611599	1,707	774	850132	1,569	814	690730	1,480
735	902490	1,707	775	551622	1,565	815	620293	1,478
736	210610	1,706	776	900490	1,564	816	731700	1,478
737	480511	1,705	777	390410	1,562	817	842099	1,477
738	420231	1,698	778	560600	1,560	818	350790	1,476
739	410150	1,696	779	740311	1,559	819	940171	1,475
740	720529	1,690	780	846130	1,557	820	290376	1,474
741	401031	1,689	781	960899	1,556	821	600641	1,471
742	370120	1,684	782	847590	1,552	822	030342	1,470
743	940370	1,678	783	680710	1,550	823	540832	1,470
744	852550	1,674	784	090121	1,549	824	843390	1,463
745	847432	1,669	785	381220	1,547	825	370239	1,462
746	481019	1,661	786	481151	1,542	826	560749	1,460
747	846593	1,659	787	842699	1,541	827	760529	1,454
748	481820	1,654	788	800110	1,540	828	843290	1,448
749	282090	1,652	789	560500	1,540	829	560391	1,446
750	848250	1,645	790	860721	1,532	830	591000	1,443
751	730419	1,642	791	690320	1,530	831	540773	1,443
752	950590	1,642	792	293969	1,528	832	720837	1,442
753	681019	1,641	793	847230	1,528	833	410719	1,440
754	252520	1,640	794	842410	1,526	834	730611	1,439
755	600129	1,638	795	721990	1,526	835	691200	1,434
756	070959	1,635	796	680410	1,524	836	030616	1,430
757	291090	1,634	797	720926	1,519	837	030559	1,427
758	846231	1,628	798	721891	1,514	838	730792	1,425
759	581100	1,627	799	900691	1,513	839	560900	1,424
760	620453	1,623	800	760310	1,509	840	860799	1,422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841	400912	1,418	881	950420	1,309	921	870431	1,209
842	970190	1,408	882	910690	1,309	922	400591	1,208
843	843320	1,407	883	390910	1,306	923	842330	1,206
844	611780	1,403	884	848230	1,305	924	290250	1,205
845	392063	1,402	885	482090	1,304	925	290312	1,199
846	841112	1,400	886	290511	1,297	926	621410	1,197
847	845640	1,399	887	853922	1,293	927	731824	1,196
848	293331	1,397	888	902580	1,291	928	650691	1,196
849	842519	1,397	889	820560	1,291	929	845620	1,192
850	721710	1,394	890	381600	1,291	930	842542	1,185
851	846410	1,391	891	720839	1,287	931	290230	1,180
852	732010	1,389	892	401039	1,286	932	490300	1,172
853	710239	1,388	893	540751	1,282	933	550931	1,171
854	291739	1,388	894	901510	1,281	934	050400	1,170
855	940350	1,385	895	852791	1,279	935	960711	1,170
856	940389	1,376	896	845390	1,279	936	400931	1,170
857	300670	1,371	897	830790	1,274	937	842211	1,169
858	591132	1,368	898	847890	1,273	938	282300	1,167
859	620449	1,366	899	846789	1,271	939	940550	1,167
860	280429	1,365	900	480431	1,269	940	844230	1,155
861	510620	1,364	901	600643	1,264	941	810390	1,154
862	903010	1,357	902	720299	1,261	942	851671	1,154
863	830590	1,354	903	511190	1,250	943	900791	1,149
864	291734	1,354	904	870192	1,250	944	391733	1,149
865	843340	1,349	905	721230	1,246	945	281290	1,146
866	820510	1,344	906	901580	1,240	946	870193	1,143
867	040310	1,343	907	846239	1,240	947	292690	1,142
868	903031	1,342	908	741129	1,239	948	842940	1,136
869	846799	1,335	909	210130	1,239	949	740929	1,135
870	722530	1,334	910	810297	1,236	950	730810	1,133
871	620469	1,327	911	681091	1,236	951	310210	1,130
872	010619	1,326	912	180690	1,233	952	842951	1,129
873	731414	1,322	913	292390	1,232	953	721420	1,128
874	320413	1,321	914	630539	1,226	954	551419	1,125
875	848299	1,320	915	846019	1,226	955	845522	1,123
876	620342	1,320	916	790390	1,225	956	110812	1,117
877	020712	1,319	917	845949	1,217	957	830170	1,116
878	030489	1,319	918	700711	1,217	958	721399	1,114
879	390791	1,312	919	540262	1,213	959	740200	1,111
880	150790	1,311	920	290129	1,213	960	284330	1,109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순위	HS	수출액
961	400829	1,107	1001	540231	1,042			
962	121190	1,106	1002	821599	1,041			
963	871120	1,104	1003	901060	1,038			
964	540490	1,101	1004	620520	1,038			
965	283539	1,101	1005	390750	1,033			
966	283325	1,100	1006	560790	1,033			
967	721932	1,099	1007	520832	1,032			
968	847321	1,098	1008	540244	1,027			
969	291612	1,094	1009	843691	1,027			
970	640391	1,092	1010	854710	1,025			
971	843710	1,092	1011	020230	1,024			
972	600621	1,091	1012	851621	1,020			
973	701400	1,089	1013	903220	1,020			
974	851519	1,089	1014	841581	1,020			
975	551692	1,085	1015	930510	1,019			
976	901841	1,085	1016	540269	1,018			
977	210310	1,084	1017	442199	1,014			
978	281121	1,084	1018	741510	1,011			
979	521032	1,084	1019	841919	1,009			
980	851711	1,078	1020	750210	1,008			
981	721931	1,078	1021	960990	1,008			
982	030499	1,071	1022	382450	1,005			
983	481013	1,067	1023	680430	1,000			
984	391231	1,067	1024	400211	1,000			
985	271020	1,066						
986	940161	1,063						
987	853939	1,063						
988	790400	1,060						
989	401519	1,057						
990	841311	1,057						
991	860730	1,054						
992	842630	1,053						
993	611020	1,051						
994	480593	1,051						
995	401213	1,050						
996	740319	1,049						
997	520932	1,048						
998	611692	1,048						
999	380210	1,048						
1000	511230	1,043						